

제01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

[부제] 참된 지혜의 두 축 — 기록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발견하는 인간의 실존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 클래스 - **교재 범위:**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 (Book I) 제01주차 — 제1권 제1장 (1.1.1~3) - **강의 구성:** 정식 60분 강독 강의 + 30~45분 소그룹 심화 나눔 모듈 - **핵심 주제:** 신지식과 자기 지식의 상호 결합, 상대적 의의 환상 탈피, 코람 데오(Coram Deo) - **텍스트 색상 체계:** - ● **네이버 (#182B49):**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라틴어 원전 정본 핵심 발췌 (Institutes Excerpts) -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인류 역사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매달려 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외쳤고, 현대 심리학은 "너 자신의 내면과 잠재력을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을 응시할 때, 그 결과는 언제나 '교만한 자기도취'이거나 '절망적인 허무' 둘 중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1509-1564)은 1559년 최종 결정판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며 이 인간 실존의 모순을 단칼에 베어냅니다. 참된 자기 인식은 결코 자아의 독백에서 나오지 않으며, 오직 기록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고 그분의 빛 아래서 나 자신을 내려다볼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 하나님을 아는 지식(*cognitio Dei*)과 나를 아는 지식(*cognitio nostri*)의 불가분적 상호 결합을 논리적으로 변증할 수 있다.

의 환상을 해체할 수 있다.

3. 세속적 자존감(Self-Esteem) 담론의 취약성을 간파하고, 성경적 자기 파산 선고와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정체성을 정립한다.
4. 도메니키노의 모세(1610)와 렘브란트의 아브라함(1656)처럼, 매일 아침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티끌과 재'임을 인정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결단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10분 [도입]: 거울을 보는 현대인과 칼빈의 질문 — 왜 자아 성찰만으로는 나를 알 수 없는가?
- 10~25분 [제1대지]: 참된 지혜의 이중 구조 — 인간의 빈곤과 하나님의 부요하심 (1.1.1 발췌 및 심층 해설)
- 25~42분 [제2대지]: 상대적 의의 환상 깨뜨리기 — 태양빛과 도메니키노의 『모세』 (1.1.2 발췌 및 명화 분석)
- 42~54분 [제3대지]: 거룩한 압도와 티끌의 자각 — 렘브란트의 『아브라함』 과 성경의 증언 (1.1.3 발췌 및 복음 변증)
- 54~60분 [결론]: 배움의 올바른 순서와 평신도 4대 실천 지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도입] 거울 앞에 선 현대인과 칼빈의 근원적 질문 (00:00 ~ 10:00)

(슬라이드 1 제시: 존 칼빈의 16세기 정본 초상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개혁신교회 500년 역사상 가장 탁월한 교리의 정수인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559년 최종판을 80주에 걸쳐 한 장씩 깊이 파고드는 마스터클래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얼굴에 묻은 것을 털어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셨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끝없이 우리에게 자아를 탐색하라고 재촉합니다. 서점에는 "자존감을 높이는 법",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책들이 넘쳐납니다. 고대 그리스 델피 신전의 벽에도 "너 자신을 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소크라테스 역시 그것을 인간 최고의 지혜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으로 깊이 파고들수록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의식, 끝없는 불안, 그리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헛된 자만에 도달할 뿐입니다.

칼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 철학의 모든 허영을 무너뜨리며 『기독교 강요』의 역사적인 첫 문장을 선언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곧 참되고 건전한 지혜의 총계는 거의 전적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그것이다.” (기독교 강요 1.1.1)

칼빈의 핵심 논점은 이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결코 자아라는 좁은 방 안에 갇힌 독백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cognitio Dei)과 나를 아는 지식(cognitio nostri)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서로를 떠받칠 때에만, 인간은 참된 생명과 진리의 빛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1장에서 칼빈이 이 두 지식을 어떻게 하나로 엮어내는지 그 장엄한 논리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대지] 참된 지혜의 이중 구조: 의존성과 영적 빈곤 (10:00 ~ 22:00)

(슬라이드 3 & 4 제시: 상호 연결성의 원리)

칼빈은 제1절에서 이 두 지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매우 정교한 논리적 사슬을 제시합니다. 원문의 핵심을 들어보십시오:

“이 둘은 여러 가지 줄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쪽이 먼저 시작되며 어느 쪽의 결과로 다른 쪽이 생겨나는가를 분간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바라보자마자 즉시 자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근거가 되는 하나님을 목상하는 자리로 이끌리지 않을 수 없다.” (1.1.1)

강의자로서 이 대목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칼빈이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원리는 '피조물의 존재론적 의존성'입니다.

여러분의 호흡, 건강, 지성, 물질 중 여러분이 스스로 창조해 낸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관찰하면, 내 모든 은사와 생명이 하늘로부터 빗방울처럼 거저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자아를 성찰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올려다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이 처한 처절한 영적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의 불행을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 안에 진정한 지혜와 참된 덕과 충만한 은혜와 의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1.1.1)

이것이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인간이 겪는 불안, 한계, 죄책감, 무능함은 단지 제거해야 할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파산 상태임을 깨닫게 하고, 온전한 지혜와 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룩한 채찍입니다. 내 지갑이 비어 있음을 모르는 거지는 부자의 식탁을 간청하지 않습니다. 영적 빈곤의 자각이야말로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강의자의 신학적 경고] 그러나 여기서 칼빈주의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비참함을 먼저 깊이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게 되니, 인간의 자아 성찰이 신앙보다 먼저가 아닌가?'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적 착각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성령의 희미한 조명 없이는 자신의 비참함조차 똑바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결핍 자각조차 이미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제2대지] 영적 착각의 해체: 태양빛과 도메니키노의 『모세』 (22:00 ~ 34:00)

(슬라이드 6 & 7 제시: 태양의 비유 & 도메니키노 명화)

이제 칼빈은 논의를 반대편으로 전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인간 혼자서 도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면 어떻게 되는가?" 칼빈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선천적인 외식(위선)과 교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1장 2절의 정본 발췌문을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거기서부터 내려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우리 자신의 불의함과 부정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의롭고 지혜롭고 거룩한 자로 착각하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타고난 교만이다.” (1.1.2)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십일조도 잘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거짓말도 덜 하니까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야." 칼빈은 이러한 상대적 도덕주의를 통렬하게 깨부수기 위해, 기독교 문학사상 가장 탁월한 '정오의 태양빛 비유'를 제시합니다:

“밝은 대낮에 땅을 바라보거나 주변 사물을 둘러볼 때에는 우리 시력이 대단히 예리하고 강력한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정오의 태양을 정면으로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 그 강력했던 시력은 눈이 멀어버리고 무덤의 극치에 이른다. 마치 오로지 검은 물체만 본 사람은 하얀 얼룩이나 거무스레한 반점만 보아도 그것을 완전한 순백으로 여기는 것처럼 말이다!” (1.1.2)

의 거장 도메니키노(Domenichino)가 1610~1616년에 동판에 유채로 그린 『불타는 떨기나무 앞의 모세』(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자신이 온유하고 정직한 목자라고 자부했을 모세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과 광채를 마주한 순간,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신을 벗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며 바닥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도덕성도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는 칙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약간의 회색빛 도덕성을 가지고 자기가 '눈처럼 희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태양빛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순결하다고 자랑하던 것은 더러운 누더기요 악취 나는 오물에 불과함이 날날이 폭로됩니다.

[평신도 적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왜 험담과 판단이 난무합니까?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옆 성도의 허물을 거울삼아 나를 비추니 내가 의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를 우러러보십시오. 그분 앞에서 남을 비판할 여유가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고백만이 터져 나올 뿐입니다.

[제3대지] 거룩한 압도와 티끌의 자각: 렘브란트의 『아브라함』 (34:00 ~ 46:00)

(슬라이드 8 & 9 제시: 성경 인용 광채 슬라이드 & 렘브란트 판화)

칼빈은 제3절에서 이것이 탁상공론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공통적인 거룩한 체험임을 선언합니다:

“성경이 보도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항상 두려움과 놀라움에 휩싸여 완전히 압도되었다. 평상시에는 확고하고 든든하게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는 마치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것처럼 병어리가 되어 버렸으니, 사람은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코 자기의 비천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 (1.1.3)

(슬라이드 8의 찬란한 성경 제시의 빛을 청중과 함께 묵상) 성경의 증언들을 상기해 보십시오: -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삿 13:22) -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으로다!” (사 6:5) -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창 18:27)

인(Rembrandt van Rijn)의 1656년 작 에칭 판화 『천사들을 대접하는 아브라함』(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입니다. 칼빈이 제3절에서 직접 지목한 창세기 18장의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늘의 사자들이 임했을 때 백발의 아브라함이 천막 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열국의 아비라 불리던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조차,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자신을 '티끌(Dust)과 재(Ashes)'로 고백했습니다.

[복음적 변증: 세속 자존감 vs 십자가의 존귀함] 현대 심리학은 끊임없이 "너는 부족하지 않다. 너 자신을 긍정하라"고 최면을 겁니다. 그러나 자아의 우상 위에 세워진 자존감은 작은 비난이나 실패에도 산산이 부서집니다. 반면 성경과 칼빈이 가르치는 자기 비하는 절망을 위한 절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티끌이요 갇을 길 없는 탕자임을 정직하게 시인할 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내 영혼을 덮치는 것입니다! 티끌에 불과한 나를 위해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셨다는 구속의 은혜,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성도의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존귀함입니다.

[결론] 배움의 올바른 순서와 은혜의 파송 (46:00 ~ 52:00)

(슬라이드 11 & 14 제시: 실천 지침 및 마무리 기도)

칼빈은 제1장의 마지막 문장을 다음과 같이 장엄한 질서로 맺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가르침의 순서가 있는 법이므로, 우리는 전자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후자를 다루도록 할 것이다.” (1.1.3 끝)

칼빈의 탁월한 교수법적 지혜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자아의 왜곡된 환상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땅의 잣대를 치우고 하늘의 거룩한 빛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인가를 증명하려 애쓰는 피곤한 자기 포장의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태양빛 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직하게 내 무능과 비천함을 쏟아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티끌과 재'임을 고백할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녀로 세워 주십니다.

이 참된 지혜의 두 축을 품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참된 지혜의 이중적 구조 (*Duplex Cognitio*):
2. 참되고 건전한 지혜의 총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cognitio Dei*)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cognitio nostri*)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지식은 수많은 끈으로 서로 얽혀 있어 분리될 수 없습니다 (1.1.1).
3. 인간의 영적 빈곤과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한 각성:
4.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 결핍, 불의, 무능을 정직하게 자각할 때 비로소 모든 지혜와 의와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됩니다 (1.1.1).
5. 상대적 의의 착각과 선천적 위선 (*Insinuata Hypocrisy*):
6. 인간은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스스로 흠 없고 의롭다고 자만하지만, 정오의 태양빛 앞에서 땅의 시력이 무력해지듯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의 기준 앞에서는 가장 탁월한 인간의 의조차 가장 가증한 불의로 드러납니다 (1.1.2).
7. 거룩한 압도와 실존적 두려움 (*Sanctus Pavor*):
8. 아브라함, 모세, 욥, 이사야 등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대면했을 때 예외 없이 "티끌과 재"임을 고백하며 거룩한 전율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1.1.3).
9. 바른 신앙의 순서 — 하나님 중심적 자아 인식:
10.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우러러보고 그분의 엄위하심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한, 결코 진정한 자기 인식에 도달할 수 없으며 거짓된 자기도취에 머물게 됩니다 (1.1.2~3).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이중 지식 진단]: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임을 깨닫고, 매일 말씀 앞에서 나의 참된 모습을 비추어 보고 있는가?
2. [교만 파쇄 진단]: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알팍한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하나님의 거룩하신 완전성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3. [영적 파산 진단]: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겸손은 단순히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단 하나의 의도 세울 수 없는 '티끌과 재'임을 인정하는 영적 파산 선고임을 확신하는가?
4. [거룩한 경외 진단]: 불타는 떨기나무 앞의 모세나 주의 영광을 본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내 예배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는가?

귀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 중에,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꽤 선하고 정직하지"라고 안도했다가 결정적인 갈등이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을 마주하고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2단계: 본문 속으로 (Primary Source Reflection, 15분)]

칼빈은 제1권 1장 2절에서 '태양의 비유'와 '검은 물체 속의 회색 얼룩' 비유를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살펴본 도메니키노의 명화(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고 엎드림)와 연결하여: 1. 대낮에 땅을 볼 때와 정오의 태양을 직시할 때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2.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 자신의 도덕성과 신앙 상태에 대해 어떤 치명적인 착각에 빠지게 됩니까?

[3단계: 삶과 사역으로 (Application, 12분)]

렘브란트의 판화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티끌과 재'(창 18:27)로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가 부추기는 "당신은 있는 그대로 완벽합니다"라는 무조건적인 자존감(Self-esteem) 담론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영적 파산 선고와 십자가를 통한 존귀함의 회복"은 어떻게 다릅니까?

[4단계: 합심 기도와 파송 (Prayer & Commission, 6분)]

이번 한 주간, 내 지혜와 선함을 증명하려던 헛된 교만의 껍질을 벗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영적 습관(말씀 묵상, 침묵 기도, 정죄 멈추기 등) 한 가지를 결단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제1강 강의안 및 대본 끝.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성도가 "자신을 티끌과 재로 여기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 질문할 때는?

-

적 파산자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존귀함을 얻는 복음적 안정감임을 설명해 주십시오.

- Q2: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모범적인 성도가 죄인임을 실감하지 못할 때는?
- A: 칼빈의 "태양빛 비유"를 상기시키며, 지상의 어둠 속에서는 하얗게 보이는 물체도 태양 앞에서는 얼룩으로 드러나듯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 앞에 자신을 비추도록 온유하게 권면하십시오.

제2장: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 사변을 넘어서는 경건과 참된 예배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2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1학기 —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Book I, 01~18주) - 주차: 제02주 (제1권 제2장: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그를 아는 지식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가 / *Quid sit Deum cognoscere, et quorsum tendat eius cognitio*) - 소요 시간: 총 60분 (강의 45분 + 소그룹 나눔 15분)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단순한 원전 낭독 모임이 아닙니다. 강의자가 시대를 관통하는 철학적·신학적 질문(사변적 지식 vs 실존적 경건)을 던지고, 칼빈의 1559년 결정판 정본에서 핵심 구절을 선별 발췌하여 논증하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고증 명화와 성경 계시를 통해 청중의 삶을 조명하는 정통 아카데미·목회적 강의입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이단적 사상 경고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현대인은 지식과 정보의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역시 수많은 설교 영상, 신학 서적, 교리 해설을 접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존 칼빈(1509 - 1564)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2장을 시작하며 이 치명적인 착각을 통렬하게 폭로합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은 "신의 본질(Essence)이란 무엇인가?"를 두고 탁상공론의 지적 유희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cognitio Dei*)은 차가운 사변이나 지적 유희가 아니며,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아버지로 모셔 들이는 '경건(*Pietas*)'과 '전적인 신뢰'로 열매 맺는 실존적 지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단순한 지적 사변(notitia)과 칼빈이 정의한 참된 '경건(Pietas = 두려움과 사랑의 결합)'의 차이를 명확히 논증할 수 있다.

에피쿠로스주의(Epicureanism)의 신관인 '인간사에 무관심한 신'을 비판하고, 섭리와 돌보심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

지옥 형벌의 공포 때문에 마지못해 복종하는 '노예의 두려움(servile fear)'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거스르는 것 자체를 견딜 수 없어 하는 '자녀의 경외(filial fear)'를 정립한다.

렘브란트의 명화 『다윗의 기도』(1652)처럼, 삶의 모든 호쁨과 성공이 하나님 덕분임을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결단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00~10분 [도입]: 지식의 홍수와 칼빈의 질문 — 왜 신학 지식이 많아도 삶은 변화되지 않는가?

10~22분 [제1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Pietas)의 본질 — 경외와 사랑의 신비한 결합 (1.2.1 정본 강독)

22~34분 [제2대지]: 에피쿠로스적 무관심론의 해체 — 렘브란트의 『아리스토텔레스』와 『다윗의 기도』 (1.2.2 분석)

34~46분 [제3대지]: 형벌의 공포를 넘어선 아들의 사랑 —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1.2.2 명문장 강해)

46~52분 [결론]: 화려한 종교적 의식을 넘어선 상한 심령의 예배

52~60분 [소그룹]: 4단계 소그룹 나눔 및 합심 결단 기도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지식의 홍수와 칼빈의 날카로운 질문 (00:00 ~ 10:00)

(슬라이드 1 제시: 존 칼빈 16세기 정본 초상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제1강에서 참된 지혜의 두 축,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거울과 같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2장,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그를 아는 지식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가”라는 제목의 본문을 함께 강독합니다.

누군가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머뭇거리다 대답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삼위일체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학적 정의와 성경 퀴즈의 정답을 아는 것이 과연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경 지식과 교리적 해박함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은 늘어가는데 왜 그들의 성품은 여전히 날카롭고, 왜 삶 속에서는 여전히 돈과 세속의 염려 앞에 굴복하는 것일까요?

칼빈은 500년 전 제네바의 강단에서 이미 이 병폐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면은 피한 채 그분을 한갓 '학문적 연구 대상'이나 '지적 호기심의 탐구거리'로 존락시키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4 제시: 렘브란트, 『호메로스의 흉상을 바라보는 아리스토텔레스』, 1653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지금 화면에 보이는 렘브란트의 위대한 걸작을 보십시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값비싼 황금 목걸이를 걸고 고대 시인 호메로스의 석고 흉상에 손을 얹은 채 깊은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만물을 분류하고 신의 '제1원인'을 규명하려 애썼지만, 그가 연구한 신은 인간의 눈물과 상처를 모르는 차가운 우주의 법칙에 불과했습니다.

칼빈은 본문 제2절에서 바로 이러한 사변적 철학을 향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일갈합니다:

“하나님이란 대체 어떤 존재일까?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저 한가한 사색거리를 놓고서 이리저리 장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또한 그의 본성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기독교 강요 1.2.2)

칼빈의 핵심 논점은 명확합니다: 신앙이란 저 구름 너머에 계신 신의 추상적인 본질을 사변적으로 캐묻는 지적 유희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제1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Pietas)의 본질 (10:00 ~ 22:00)

(슬라이드 6 & 7 제시: 경건의 정의와 상호 결합)

관통하는 불후의 개념인 '경건(*Pietas*)'의 정의를 선언합니다. 이 문장은 개혁신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가슴에 새겨야 할 황금 같은 선언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유익들을 아는 데서 생겨나는 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경외)과 그를 향한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뜻한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양육을 받으며, 자기들의 모든 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따라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려 하지 않을 법이다.” (1.2.1)

강의자로서 이 경건의 정의를 두 가지 차원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칼빈은 참된 신앙의 상태를 '두려움(경외, *timor*)과 사랑(*amor*)'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세속 종교나 이방 신앙을 보십시오. 그곳에는 오직 공포만 있습니다. "신을 노엽게 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노예적 공포심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굶을 합니다. 반대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나 값싼 복음주의는 어떠합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완전히 상실한 채, 하나님을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만만한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경망스럽게 대합니다.

그러나 칼빈이 성경에서 발견한 개혁신학의 경건은, 거룩하신 창조주의 절대 주권 앞에서의 떨림(거룩한 두려움)과,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눈물겨운 감격(사랑)이 한 영혼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둘째, 이 경건은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임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출발합니다.

칼빈은 사람이 자기 생명, 지혜, 건강, 재물이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임을 인정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었고, 내 실력으로 성공했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호홉이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 아래 있음을 아는 자만이 비로소 기꺼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강의자의 신학적 경고]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까? 입으로는 정통 교리를 말하면서 삶에는 거룩한 경외도, 이웃을 향한 희생적 사랑도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경고했듯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떨니다(약 2:19). 사랑이 없는 교리적 지식은 귀신들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반드시 무릎 꿇는 경건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제2대지] 에피쿠로스적 무관심론의 해체: 살아 계신 섭리의 하나님 (22:00 ~ 34:00)

이제 칼빈은 2절에서 매우 중요한 철학적 논점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바로 고대 헬라의 철학자 에피쿠로스(Epicurus)와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칼빈의 날카로운 원문을 들어보십시오:

“에피쿠로스처럼 세상의 문제에서 물러나서 홀로 한가하게 노닥거리는 그런 유익의 신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요컨대, 우리에게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말이다.” (1.2.2)

에피쿠로스는 신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인간 세상의 더럽고 복잡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저 먼 천상계에서 오직 한가한 쾌락만을 즐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은 세상을 섭리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으며, 인간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 칼빈이 반박했던 이 에피쿠로스주의가 오늘날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 교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흉악한 형태로 파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Practical Atheism)'입니다!

주일 예배당에서는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 직장에 출근하는 순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순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일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탄식한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에피쿠로스적 신앙"입니다.

(슬라이드 10 제시: 렘브란트, 『다윗의 기도』, 1652년 에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화면의 명화를 보십시오. 17세기 네덜란드의 거장 렘브란트가 1652년에 남긴 에칭 걸작 『다윗의 기도(David in Prayer)』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어두운 침실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맡 탁자 위에는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왕관과 홀이 팽개쳐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이나 왕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헤아리시는 살아 계신 목자이심을 알았기에, 밤마다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심을 알기에 그분을 나의 인도자요 방패로 신뢰하는 것, 어떤 억울함과 곤경을 만나도 즉시 그분께 달려가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제3대지] 지옥의 공포를 넘어선 아들의 사랑 (34:00 ~ 46:00)

이제 칼빈은 본 장의 절정이자, 기독교 영성사에서 가장 숭고한 선언 중 하나를 토해냅니다. 그는 묻습니다. "성도는 왜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옥에 갈까 봐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그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단호히 선언합니다. 본문 1.2.2의 위대한 고백을 보십시오:

“경건한 자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가다듬는 것은 그저 형벌에 대한 끔찍스러운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기리기 때문에, 또한 그를 주로서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혹시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만으로도 끔찍스러워 견딜 수 없는 심정일 것이다.” (1.2.2)

성도 여러분, 이 문장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혹시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만으로도 끔찍스러워 견딜 수 없는 심정일 것이다!”

(Etiam si nullus esset infernus, solo tamen eius offensione exhorresceret!)

노예와 자녀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는 주인의 채찍이 두려워 발을 갑니다. 주인이 매를 들고 감시할 때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주인이 눈을 돌리거나 채찍을 내려놓으면 즉시 게으름을 피우고 도망칩니다. 노예의 순종은 채찍과 형벌에 대한 공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어떻습니까? 참된 자녀는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지 않아도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고통은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 주시고 온 삶을 바쳐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마음에 슬픔과 상처를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평신도 적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움직이는 엔진은 무엇입니까? "십일조 안 내면 사업이 망할까 봐", "주일 빼먹으면 암에 걸릴까 봐" 마지못해 복종하는 율법적 공포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식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내 영혼에 너무나 끔찍하고 가슴 아프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의를 따르는 자녀의 신앙, 이것이 바로 칼빈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개혁주의 경건의 정수입니다.

[결론 및 결단] 화려한 예식을 넘어서신 상한 심령의 예배 (46:00 ~ 52:00)

칼빈은 제2장의 마지막 문장에서 또 한 번 종교적 위선자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찌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렴풋하고 희미한 공경심을 갖고 있기는 하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 공경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또한 화려한 예식들이 준비한 곳에서는 진실한 마음을 보기가 정말로 힘들다는 사실이다.” (1.2.2)

당시 로마 가톨릭의 화려한 성당, 번쩍이는 금제단, 연기와 향이 가득한 장엄한 의식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공로를 파는 가증한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음향 시설과 감성적인 찬양팀, 웅장한 예배당 건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화려한 종교적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날마다 내 호흡과 생명이 하나님 덕분임을 고백하는 상한 심령, 에피쿠로스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삶을 눈물로 회개하는 거룩한 겸손, 그리고 지옥이 없더라도 주님을 거역할 수 없다는 불타는 자녀의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차가운 머리의 사변을 내려놓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사변적 공론(Notitia)과 실존적 경건(Pietas)의 엄격한 구별:

신의 추상적 본질을 탐구하는 사변적 호기심은 한가한 장난에 불과하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경건으로 귀결됩니다 (1.2.1~2).

경건(Pietas)의 본질 — 사랑과 결합된 거룩한 두려움:

경건이란 하나님의 은택을 앎으로써 생겨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의 결합입니다. 하나님을 만물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비로소 그분께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1.2.1).

에피쿠로스주의적 실천적 무신론 배격: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사에 무관심하다는 에피쿠로스적 망상은 신을 공허한 환상으로 전락시키는 배교이며, 성경은 모든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1.2.2).

노예적 공포(Timor Servilis)와 자녀의 경외(Timor Filialis)의 차이:

손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 자체를 지옥보다 더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1.2.2).

화려한 외적 예식의 위선 폭로와 내면적 순종:

웅장한 건물이나 번쩍이는 종교적 의식 뒤에 숨은 위선은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상한 심령과 전인격적 순종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입니다 (1.2.2).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경건 동기 진단]: 나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벌받을까 두려워하는 공포인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거룩한 사랑과 경외인가?

[기복주의 탈피 진단]: 나는 하나님을 내 뜻과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고,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실천적 무신론 경계]: 주일에는 경건한 신자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재정, 직장, 대인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에피쿠로스적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 진정성 진단]: 화려한 종교적 예식이나 분위기에 취하지 않고, 상한 심령과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순수한 순종 진단]: 만일 지옥의 형벌이 없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기 위해 기쁨으로 죄를 멀리하고 의를 따르겠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 [인도자를 위한 목회적 코칭 팁]

- 본 모임의 핵심 목표는 성도들이 '거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깊은 사랑의 관계(경건)로 도약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 성도 중에는 과거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병적인 죄책감이나 공포심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칼빈이 강조한 "자녀의 경외(사랑과 결합된 두려움)"를 따뜻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라는 거래적 신앙은 없었는지 솔직히 나눠봅시다.

인도 팁: 인도자가 먼저 자신의 연약했던 과거 신앙(예: 십일조나 주일성수를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불안했던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구성원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십시오.

[2단계: 본문 속으로 (Primary Source Reflection, 15분)] 칼빈이 정의한 "경건(Pietas = 하나님의 은택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경외와 사랑의 결합)"이 오늘 나의 예배와 기도 생활에 던지는 신선한 충격은 무엇입니까?

인도 팁: "경외 없는 사랑(경망스러움)"과 "사랑 없는 경외(노예적 공포)"의 양극단을 짚어주고, 십자가 안에서 두 요소가 어떻게 만나는지 나누도록 유도하십시오.

[3단계: 삶과 사역으로 (Application, 12분)]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일상(직장, 가정, 재정)에서 하나님을 에피쿠로스처럼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도 팁: 주일에는 성도이지만 주중에는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이중성을 점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구체적 훈련을 논의하십시오.

[4단계: 합심 기도와 파송 (Prayer & Commission, 6분)] “혹시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고백처럼, 이번 주간 형벌의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순종할 작은 실천 한 가지를 결단하십시오.

합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머리의 종교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경외와 사랑이 넘치는 참된 경건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Q1: "신학 공부를 많이 할수록 왜 교만해지고 은혜가 식는 것 같을까요?"라는 질문에는?

A: 칼빈이 말한 '사변(Speculatio)'과 '경건(Pietas)'의 차이를 짚어주십시오. 지식을 머리로만 쌓으면 교만해지지만(고전 8:1), 하나님이 내 호흡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참된 지식은 반드시 무릎 꿇는 경외와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Q2: 벌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성도에게 '자녀의 경외'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A: 엄격한 판사 앞의 죄수와 사랑하는 부모 앞의 자녀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신자는 지옥 갈까 봐 겁먹는 노예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죄를 멀리하는 복된 자녀임을 권면하십시오.

제3장: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 — 종교의 씨앗과 지워지지 않는 신의식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3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1학기 —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Book I, 01~18주) - 주차: 제03주
(제1권 제3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심겨졌음 / *Dei notitiam hominum
mentibus naturaliter esse inditam*)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단순한 원전 낭독 모임이 아닙니다. 강의자가 시대를 관통하는 철학적 질문(현대 무신론과 종교
조작설의 한계)을 던지고, 칼빈의 1559년 결정판 정본에서 핵심 구절을 선별 발췌하여 논증하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고증 명화와 성경 계시를 통해 청중의 영혼을 비추는 정통 아카데미·목회적
강의입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무신론적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21세기 현대 사회는 스스로를 '세속화된 무신론의 시대'라고 자부합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신무신론자들은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며, 진화의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유물론자들은 "종교란 지배 계급이 무지한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교묘하게 날조해 낸 거짓 신화"라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존 칼빈(1509 - 1564)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3장을 통해 인류 역사의 모든 무신론을 단칼에
해체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학교에서 주입받았거나 정치가들의 선동 때문이 아닙니다. 창조주

'종교의 씨앗(*Semen Religionis*)'을 지울 수 없는 지문처럼 본성적으로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칼빈이 선언한 '신인식의 감각(*Sensus Divinitatis*)'과 '종교의 씨앗(*Semen Religionis*)'의 교의학적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종교는 통치자들이 꾸며낸 발명품"이라는 고대 및 현대의 종교 조작설을 칼빈의 논리로 통렬하게 반박할 수 있다.

칼리굴라 황제와 고대 무신론자들의 실례를 통해, 겉으로는 신을 부정하지만 벼락과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떠는 인간 실존의 모순을 간파한다.

플라톤과 플루타르크의 통찰처럼, 인간을 짐승보다 존귀하게 만드는 유일한 표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자각하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10분 [도입]: "신은 없다"는 외침과 인간 내면의 불안 — 무신론은 왜 늘 실패하는가?
- 10~25분 [제1대지]: 영혼에 새겨진 신인식의 감각(*Sensus Divinitatis*) — 조반니 디 파올로의 『창조』 (1.3.1 정본 강독)
- 25~42분 [제2대지]: 종교 조작설의 허구와 무신론의 파산 — 칼리굴라 황제와 윌리엄 블레이크의 『욥』 (1.3.2 분석)
- 42~54분 [제3대지]: 지워지지 않는 양심의 법과 창조 목적 — 짐승과의 유일한 구별점 (1.3.3 강독 및 복음 변증)
- 54~60분 [결론]: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드리는 경배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신은 없다"는 외침과 인간 내면의 불안 (00:00 ~ 10:00)

(슬라이드 1 제시: 존 칼빈 16세기 정본 초상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3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심겨졌음”이라는 웅장한 진리의 전당으로 들어섭니다.

넘쳐납니다. 서점가에는 "만들어진 신", "종교의 종말"을 노래하는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종교를 가리켜 "미개했던 원시인들이 자연재해의 공포 속에서 상상해 낸 환상"이거나, "지배자들이 민중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 만들어낸 마약"이라고 냉소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만약 종교가 지배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다면, 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구상에 신을 예배하지 않는 민족은 단 한 부족도 없었을까요? 왜 가장 문명화된 현대 대도시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점집을 찾고, 사주를 보고, 절대자를 향해 두 손을 모으는 것일까요?

그리고 신이 없다고 큰소리치던 철저한 무신론자들조차, 비행기가 요동치거나 암 선고를 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는 왜 자신도 모르게 "신이시여, 살려주소서!"라고 외치게 되는 것일까요?

칼빈은 1559년 『기독교 강요』 3장을 시작하며 바로 이 인류 실존의 거대한 미스터리를 해명합니다. 3장 1절의 첫 문장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성적인 본능에 의하여 신에 대한 지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리이다. 아무도 무지를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신격에 대한 어떤 지각을 모든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기독교 강요 1.3.1)

칼빈의 선언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학교에서 후천적으로 주입받은 사상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의 영혼의 DNA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신적인 지문을 새겨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제1대지] 영혼에 새겨진 신인식의 감각(Sensus Divinitatis)과 종교의 씨앗 (10:00 ~ 25:00)

(슬라이드 4 & 5 제시: 조반니 디 파올로의 『창조』 & 신인식의 감각)

칼빈은 본문에서 개혁신학의 인식론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가지 라틴어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신인식의 감각 (Sensus Divinitatis)'과 '종교의 씨앗(Semen Religionis)'입니다.

칼빈은 이 지식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본능적인지,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Cicero)의 말을 인용하며 논증합니다:

“어떤 민족이나 종족이든지 간에 신이 존재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깊이 새겨져 있지 않은 민족은 없다. 아무리 법률과 도덕을 모르는 야만인이라 할지라도, 신에 대한 일말의 관념은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우상 숭배야말로 그러한 관념이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다!” (1.3.1)

인간은 본래 너무나 교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굴복하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나무토막이나 돌멩이, 짐승의 형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까? 피조물보다 존귀한 인간이 미물 앞에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인간 본성상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돌과 나무 앞에 엎드려서라도 신을 섬기려 하는 이유는, 인간의 내면에 '신을 예배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룩한 결핍과 감각'이 본능적으로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신론자로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필연적으로 돌이나 돈, 권력이나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화면의 슬라이드 4 명화를 보십시오)

15세기 시에나 화파의 거장 조반니 디 파올로(Giovanni di Paolo)가 1445년에 그린 『세상의 창조와 낙원 추방』(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레만 컬렉션 소장)입니다.

화면 상단에서 푸른 천사들에 둘러싸인 하나님께서 황금빛 동심원으로 이루어진 우주와 지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을 빚으실 때, 인간의 영혼 속에 창조주를 알아보고 사모할 수 있는 신령한 감각을 심어 넣으셨습니다.

[신학적 경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의식이 심겨져 있다면,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신론의 오류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 안의 종교의 씨앗은 죄로 인해 부패하여 참된 구원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왜곡된 미신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 본성적 신의식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2대지] 종교 조작설의 허구와 무신론의 파산 (25:00 ~ 42:00)

(슬라이드 7 & 8 제시: 칼리굴라 황제 & 윌리엄 블레이크의 『욥』)

이제 칼빈은 제2절에서, 오늘날 마르크스주의나 세속 무신론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종교 조작설(Political Invention Theory)'을 정면으로 분쇄합니다. 칼빈의 통렬한 원문을 들어보십시오:

“종교란 몇몇 지배자들이 무지한 대중을 속박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으나, 그것은 철저히 허구에 불과하다. 만약 사람들의 정신이 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먼저 가득 차 있지 않았다면, 지배자들의 어떤 속임수도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1.3.2)

반문합니다.

마른 장작이 있어야 불이 붙듯이, 인간의 영혼 속에 이미 '신에 대한 원초적 감각'이라는 연료가 내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 영혼에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종교가 인간의 조작물이 아님을 증명하는 역설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역사상 가장 오만방자했던 로마의 폭군 황제, 가이우스 칼리굴라(Gaius Caligula)의 충격적인 실례를 제시합니다:

“가이우스 칼리굴라만큼 신을 경멸하며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의 진노의 표적이 나타날 때에 그 사람만큼 비참하게 떨어던 사람도 없다! 그는 노골적으로 경멸하던 그 신 앞에서 벌벌 떨며 숨을 곳을 찾았다. 신을 대담하게 멸시하던 자가 나뭇잎 떨어지는 바스락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을 보게 된다(레 26:36). 이것이 하나님의 위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1.3.2)

칼리굴라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제우스 신상에 자기 얼굴을 새겨 넣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공포에 떨어었습니다.

(화면의 슬라이드 8 명화를 보십시오)

19세기 영국의 거장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가 1825년에 남긴 『폭풍 가운데서 읊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입니다.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드러날 때, 땅 위의 인간들은 엎드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의 통찰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의 오만함은 낮 동안의 허세에 불과합니다. 밤이 찾아오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들이 그렇게도 지위버리려 애썼던 신인식의 감각은 화산처럼 터져 나와 그들의 양심을 사정없이 찌르는 것입니다!

[제3대지] 지워지지 않는 양심의 법과 창조 목적 (42:00 ~ 54:00)

(슬라이드 10 & 11 제시: 지워지지 않는 지각 & 플라톤·플루타르크의 증언)

칼빈은 제3절에서 이 논증의 대미를 장식하며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토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안간힘을 쓰는가?"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 밖으로 밀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결론을 내립니다:

처음 배우는 가르침이 아니라, 각자가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요, 잊어버리려고 온갖 힘을 다 써도 본성 자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지울 수 없는 가르침이다.” (1.3.3)

그리고 칼빈은 고대 이교 철학자들인 플라톤과 플루타르크를 인용하며, 인간 실존의 가장 고귀한 목적을 선언합니다:

“플루타르크가 기록했듯이, 종교가 삶에서 사라지면 인간은 짐승보다 나은 게 없고, 오히려 짐승보다 훨씬 더 비참한 처지에 빠진다. 그러므로 사람을 짐승보다 더 월등하게 만들어 주는 유일한 표지는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 (1.3.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능입니까? 언어입니까? 도구 사용입니까? 아닙니다.

원숭이나 침팬지가 제단을 쌓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두 손을 모아 하늘을 우러러 창조주를 예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는 순간, 인간은 영적인 존엄성을 상실하고 짐승보다 못한 탐욕과 불안의 괴물로 전락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유일한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및 결단]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54:00 ~ 60:00)

(슬라이드 13 & 14 제시: 평신도 4대 실천 지침 및 소그룹 결단)

오늘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장 3장은 우리에게 준엄한 복음의 진리와 한없는 영적 위로를 동시에 확인시켜 줍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선언했듯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과 우리의 양심 속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칠고 사나운 야만인이라도, 아무리 세련된 현대의 무신론 철학자라도, 그들의 심령 가장 깊은 골수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없는 하나님을 인간의 궤변이나 논쟁으로 억지로 만들어내어 주입하는 설득 작업이 아닙니다. 전도는 불신자의 굳어버린 심령 속에 이미 심겨져 있으나 죄와 교만으로 억압되어 있는 본성적 신의식(Sensus Divinitatis)과 종교의 씨앗(Semen Religionis)을 성령의 불길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뒤흔들어 깨우는 거룩한 해방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 오는 실존적 불안과 밤마다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만이 그들의 죄책을 씻어내고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그 거룩한 종교의 씨앗이 헛된 세상 우상이나 차가운 자기 의로 질식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생명수로 거룩한 경건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을 거룩한 경외함으로 확인하십시오. 세상의 헛된 유혹과 우상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매일 주님의 보좌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신의식 (*Sensus Divinitatis*):

하나님께서서는 아무도 무지를 핑계하지 못하도록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신성에 대한 일정한 지각과 감각을 본성적으로 심어두셨습니다 (1.3.1).

인간 보편의 종교의 씨앗 (*Semen Religionis*)과 우상숭배의 역설:

아무리 야만적인 미개 민족이라도 신을 경배하는 관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며, 참 신을 버릴지라도 나무와 돌을 신으로 섬길망정 신 없는 상태에 머물지 못합니다 (1.3.1).

교활한 통치자 발명설(종교 조작설)의 인본주의적 궤변 분쇄:

지배 계급이 우매한 민중을 복종시키기 위해 종교를 조작해 냈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인간 마음속에 이미 신에 대한 깊은 본성적 신념이 심겨 있지 않았다면 통치자들의 조작도 결코 먹혀들 수 없었습니다 (1.3.2).

가장 대담한 무신론자의 위선과 실존적 공포:

칼리굴라 황제처럼 대낮에는 신을 조롱하고 모독하던 오만한 폭군도 밤이 되어 천둥 번개가 치면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떨었듯,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믿는 자가 아니라 신의 존재를 애써 억누르는 영적 도피자입니다 (1.3.2).

신의식의 질식과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본성적 신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지 못하고 거짓된 망상으로 이를 왜곡하고 억누르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정 앞에서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1.3.3).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신의식 확신 진단]: 나는 세상의 세속적 무신론 풍조 앞에서도 모든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지문 (Sensus Divinitatis)이 새겨져 있음을 확신하는가?

[종교 조작설 분쇄]: 종교가 지배 계급의 통치 발명품이라는 궤변에 흔들리지 않고, 인간의 본성적 종교의 씨앗 (Semen Religionis)을 지적으로 변증할 수 있는가?

[영적 억압 분별]: 불신자들이 겉으로는 무신론을 외치면서도 위기와 질병과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에 떠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본성적 두려움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임을 통찰하는가?

[양심의 법정 진단]: 은밀한 죄를 지을 때 내면에서 울리는 양심의 가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이 내 영혼 속에 세워져 있다는 증거임을 인정하는가?

[구속 은혜 감사]: 자연적 신의식만으로는 우상숭배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던 나를, 오직 십자가 복음의 빛으로 참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 [인도자를 위한 목회적 코칭 팁]

- 본 모임에서는 성도들이 세상의 무신론적 풍조나 회의주의에 흔들리지 않고, 인간 영혼의 본질적인 갈망(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확신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 특히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전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미 하나님이 심어두신 신의식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담대한 확신을 갖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신앙이 식어졌을 때에도, 불현듯 염습했던 영적인 불안이나 절대자를 찾았던 순간이 있습니까?

인도 팁: 인도자가 먼저 솔직하게 자신의 회심 전 경험이나,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신을 찾았던 인간 실존의 무력함을 나눠주십시오.

[2단계: 본문 속으로 (Primary Source Reflection, 15분)] 칼빈이 강조한 "우상 숭배조차도 인간 마음에 신의식이 깊이 박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논리가 나에게 주는 통찰은 무엇입니까?

로 숭배하게 되는 영적 원리를 함께 짚어주십시오.

[3단계: 삶과 사역으로 (Application, 12분)] 현대 세속 문화가 "종교는 인간의 발명품"이라고 조롱할 때, 성도로서 우리가 칼리굴라의 모순을 떠올리며 가져야 할 담대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인도 팁: 무신론자들의 당당함 뒤에 숨겨진 죽음과 심판에 대한 근원적 공포를 이해하고,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할 용기를 북돋워 주십시오.

[4단계: 합심 기도와 파송 (Prayer & Commission, 6분)] “인간이 짐승보다 존귀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진리 앞에서, 이번 주간 회복해야 할 나의 예배와 기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합심 기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골수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며 영생의 소망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Q1: "주변의 완고한 무신론자 친구를 대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는?

A: 그와 지적 논쟁으로 맞서기보다, 그의 굳은 표정 이면에 칼리굴라처럼 실존적 불안과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음을 통찰하십시오. 그 영혼에 심겨진 신의식을 흔들어 깨우는 온유한 기도와 복음의 사랑으로 다가가도록 권면하십시오.

Q2: 모든 사람에게 신의식이 있다면 왜 세상에는 이토록 우상과 이단이 많습니까?

A: 칼빈이 말한 대로 죄로 인해 인간의 종교의 씨앗이 부패하여 엉뚱한 우상을 잉태하기 때문입니다(1.3.3). 자연적 신의식 자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성경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04강: 신지식의 왜곡과 미신·우상론

[부제] 우상 공장이 된 인간의 마음 — 왜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하고 내 입맛대로 신을 만드는가?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4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1학기 —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Book I, 01~18주) - 주차: 제04주 (제1권 제4장: 무지에 의해서나 악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갇히려거나 더럽혀짐 / *Quod Dei notitia vel inscitia vel malitia partim suffocetur partim corrumpatur*)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단순한 원전 낭독 모임이 아닙니다. 강의자가 시대를 관통하는 철학적 질문(왜 종교의 씨앗이 우상으로 변질되는가)을 던지고, 칼빈의 1559년 결정판 정본에서 핵심 구절을 선별 발췌하여 논증하며, 메트로폴리탄 및 내셔널 갤러리 고증 명화와 성경 계시를 통해 청중의 영혼을 비추는 정통 아카데미·목회적 강의입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 엠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우상 숭배적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지난 제3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신인식의 감각(*Sensus Divinitatis*)'과 '종교의 씨앗(*Semen Religionis*)'을 지울 수 없는 지문처럼 심어두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당연히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신의식이 심겨져 있다면, 왜 세상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아보기 힘들고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 그리고 실천적 무신론이 판을 치는가?"

인간은 무지와 악의(*Inscitia et Malitia*)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스스로 짓누르고 더럽혔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모습 그대로 경배하지 않고, 자신의 부패한 상상력과 욕망의 틀로 하나님을 뜯어고쳐 '내 입맛에 맞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칼빈이 경고하듯,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설 새 없이 찍어내는 영구적인 공장(*Fabrica Idolorum*)"이 되어버렸습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인간의 무지와 악의가 본성적 신의식을 어떻게 왜곡하고 짓누르는지 개혁교의학적으로 규명한다.

피터르 클라스의 『바니타스』 (1628)와 니콜라 푸생의 『금송아지 숭배』 (1633)를 통해 인간 지성의 한계와 우상 공장(*Fabrica Idolorum*)의 실체를 해체한다.

다윗의 시편 14:1("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을 통하여 무신론이 지적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나려는 도덕적 반역임을 폭로한다.

노예적 두려움(*Servilis Timor*)에 기인한 종교적 위선을 벗어나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참된 피에타스를 결단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00~10분 [도입]: 종교의 씨앗은 왜 썩어버렸는가? — 인간 내면의 우상 제조 본능

10~25분 [제1대지]: 무지와 미신: 헛된 교만과 허망한 사색 (1.4.1 강독 & 피터르 클라스의 『바니타스』 1628)

25~42분 [제2대지]: 고의적 무신론과 마음의 우상 공장(*Fabrica Idolorum*) (1.4.2-3 강독 & 니콜라 푸생의 『금송아지』 1633)

42~54분 [제3대지]: 노예적 두려움(*Servilis Timor*)과 거짓 외식의 파산 (1.4.4 강독 및 로마서 1:21-25 말씀 조명)

54~60분 [결론]: 우상 공장을 부수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는 참된 경배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종교의 씨앗은 왜 썩어버렸는가? (00:00 ~ 10:00)

(슬라이드 1 제시: 존 칼빈 16세기 정본 초상화 & 메인 타이틀)

들어갑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무지에 의해서나 악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짓눌리거나 더럽혀짐”입니다. 부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공장이 된 인간의 마음 — 왜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하고 내 입맛대로 신을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주 제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영혼 속에 지을 수 없는 신인식의 감각(*Sensus Divinitatis*)과 종교의 씨앗(*Semen Religionis*)을 심어두셨다는 장엄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현실을 냉정하게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80억 인류 가운데,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점쟁이를 찾아가고, 부적을 붙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마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취급합니다.

칼빈은 바로 이 처절한 모순 앞에서 제4장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기리는 사람을 백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만나기 어렵고, 성숙한 상태에 이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더욱이 시절을 좇아 과실을 내는 사람은 더 만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기독교 강요 1.4.1)

하나님께서 심으신 종교의 씨앗은 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버렸습니까? 칼빈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무지(*Inscitia*)에 휩쓸려 미신에 빠지거나, 고의적인 악의(*Malitia*)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짓눌러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우리는 인간 영혼 깊은 곳에 도사린 이 치명적인 자기기만의 실체를 파헤치고, 복음의 순전한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고자 합니다.

[제1대지] 무지와 미신: 헛된 교만과 허망한 사색 (10:00 ~ 25: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피터르 클라스의 『바니타스』 & 1.4.1 정본 강독)

칼빈은 제1절에서 사람들이 미신에 빠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많은 이들이 "몰라서 그랬으니 죄가 아니지 않느냐", "무지는 순진한 것 아니냐"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무지가 결코 순진한 실수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미신에 휩쓸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했으나, 이것은 그들이 순진하여 그런 일을 하는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 그들이 무지하여 맹목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는 하나, 거의 언제나 거기에는 헛된 교만과 완고함이 뒤섞여 있는 것이다!” (1.4.1)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당연히 자기들 자신보다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저 가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자기들의 육신적인 어리석음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려고 하고, 또한 건전한 탐구를 무시하며 호기심에 이끌려 허망한 사색에 이리저리 휩쓸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시하시는 대로 그를 깨닫지 않고, 자기들 자신이 추측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상상하여 꾸며내는 것이다!” (1.4.1)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타락한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엄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여, '내가 다루기 편한 하나님', '내 죄를 눈감아주는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서 날조해 냅니다.

(화면의 슬라이드 5 명화를 보십시오)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의 거장 피터르 클라스(Pieter Claesz)가 1628년에 그린 『해골과 깃펜이 있는 정물 (Still Life with a Skull and a Writing Quill)』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49.107)입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학술 서적들과 필기도구, 그리고 양상한 해골이 놓여 있습니다. 꺼져가는 기름램프와 차가운 해골은 인간 지성의 허망함을 웅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22절에서 외친 말씀 그대로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신학적 경고] 오늘날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헛된 사색의 덫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기록된 계시를 겸손히 배우려 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이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라며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상상력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칼빈은 선포합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타락한 뇌세포가 꿈꾸어 지어낸 환영에 불과합니다!

[제2대지] 고의적 무신론과 마음의 우상 공장(Fabrica Idolorum) (25:00 ~ 42: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시편 14:1 & 니콜라 푸생의 『금송아지 숭배』)

이제 칼빈은 제2절과 3절에서 더욱 심각한 영적 질병인 '고의적 무신론(Practical Atheism)'과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을 규명합니다.

칼빈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시 14:1; 53:1)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고의적으로 본성의 빛을 꺼뜨려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칼빈은 여기서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가 이 우주에서 사라졌다고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빼앗고 그분을 하늘 먼 곳에 가두어두려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지 않으셔야,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탐욕을 부려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안도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36편 1절이 고발하는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제3절에서 칼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명제를 선언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구적인 공장이다(Humana mens, ut ita loquar, perpetua est idolorum fabrica). 진리와 결합하지 않는 신앙은 결코 순전할 수 없다. 일단 참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하고 그를 저버리게 되면, 저주받은 우상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 (1.4.3)

(화면의 슬라이드 7 명화를 보십시오)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의 최고 거장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이 1633-34년에 그린 걸작 『금송아지 숭배 (The Adoration of the Golden Calf)』 (런던 내셔널 갤러리 소장, NG5597)입니다.

화면 한가운데 높이 세워진 황금 송아지 둘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잡고 광란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저 멀리 바위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 깨뜨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금송아지를 이집트의 이방 신이라고 부르며 절했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4-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내일은 여호와와 절일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긴 것은 보이지 않는 거룩한 창조주가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빚어 만든 눈에 보이는 황금 가축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상 공장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신을 완전히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제거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 형상으로 바꾸어치기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탄식한 것처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는 비참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제3대지] 노예적 두려움(Servilis Timor)과 거짓 외식의 파산 (42:00 ~ 54:00)

(슬라이드 9 & 10 제시: 로마서 1:21-25 말씀 슬라이드 & 1.4.4 정본 강독)

불경건한 자들이 종교적 의식을 행할 때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강제로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억지로 끌여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억지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서도, 그의 위엄에 대한 경외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두려움을 갖는 것으로 그치며, 도저히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끔찍하게 혐오하기까지 한다!” (1.4.4)

칼빈은 고대 시인 스타티우스(Statius)의 명언인 "두려움이 세상의 신들을 만들어냈다"는 말을 인용하며 설명합니다.

참된 성도의 경건(Pietas)은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선자의 종교는 오직 '지옥 갈까 봐', '사업 망할까 봐', '벌 받을까 봐' 억지로 떨며 신을 달래려는 '노예적 두려움(Servilis Timor)'에 불과합니다.

그리하여 위선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장 4절 16문단의 고발을 보십시오:

“평생토록 언제나 순종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데도, 그들은 거의 모든 행위에서 대담하게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그저 몇 가지 하찮은 것들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을 누그러뜨리려 한다! 거룩한 삶과 순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데도, 시시한 방법들과 하찮은 의식들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애쓴다!” (1.4.4)

얼마나 준엄한 책망입니까!

일상에서는 온갖 불의와 욕심과 거짓을 행하면서, 주일날 헌금 조금 내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이만하면 하나님도 나를 봐주시겠지"라고 거래하려는 태도 —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증한 속임수라고 질타합니다.

(화면의 슬라이드 9 눈부신 성경 말씀 슬라이드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로마서 1:21, 25)

[결론 및 결단] 우상 공장을 부수고 십자가 은혜 앞에 서라 (54:00 ~ 60:00)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칼빈이 제4장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내려는 타락한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내 감정과 편의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할 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상상이 빚어낸 허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견고한 우상의 공장을 멈출 수 있습니까?

내 결심이나 도덕적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의 지혜가 철저한 파산 상태임을 겸손히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씻기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모든 거짓 우상을 주님의 발아래 내려놓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만을 붙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칼빈의 강도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추악한 우상 공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내 욕심과 육신적 어리석음의 잣대로 주님을 재단하고, 내 입맛에 맞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겨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허망한 사색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공포 때문에 마지못해 드리는 노예의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순전한 자녀의 순종과 경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미신과 자의적 숭배의 본질적 교만 (*Superstitio*):

미신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 제멋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려는 교만과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1.4.1).

사악한 마음과 위선적 회의주의:

신을 부정하려는 자들의 무신론은 지적 탐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회피하고 육욕의 방종을 누리려는 도덕적 사악함에서 기인합니다 (1.4.2).

인간 마음의 우상 제작 공장 (*Fabrica Idolorum*):

인간의 타락한 지성은 하나님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끝없이 허망한 환상을 만들어내며, 하나님 대신 자신이 주조한 허상을 예배합니다 (1.4.3).

노예적 공포 (*Timor Servilis*)와 종교적 거래의 위선:

심판이 두려워 억지로 제물을 바치는 위선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형벌을 피하려는 거래적 욕심으로 다가가므로, 그 예배는 하나님께 가증한 모독입니다 (1.4.4).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난 종교적 열심의 치명성: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의 인도를 받지 않는 모든 인간적 열심과 종교 행위는 아무리 열정적일지라도 결국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간음에 불과합니다 (1.4.3~4).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미신적 신관 진단]: 나는 성경이 계시한 거룩하신 하나님 대신, 내 편익과 감정에 맞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종교적 거래주의 진단]: 나의 기도와 헌금과 봉사가 하나님과의 거래를 통해 내 욕망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영적 도피주의 분별]: 내 삶의 은밀한 죄를 숨기기 위해 고의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노예적 공포 탈피]: 심판받을까 봐 억지로 예배드리는 노예의 공포에서 벗어나,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자녀의 순종을 드리고 있는가?

[오직 성경 중심성]: 내 주관적 느낌이나 세상 풍조가 아니라, 오직 성경 66권의 거울 앞에서 내 신앙과 삶을 날마다 교정하고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소그룹 운영 안내: 본 모듈은 60분 본 강의 종료 후, 평신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30~45분간 깊이 있는 영적 교제와 실천적 결단을 나누도록 설계된 독립 워크북입니다.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질문: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가장 서운했거나,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해주실까?"라고 원망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솔직한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느꼈던 솔직한 실망감을 털어놓도록 유도하십시오. 그 실망감의 이면에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했던 잠재적 우상 숭배'가 있었음을 자연스럽게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2단계: 본문 속으로 (Primary Source Reflection, 15분)]

질문: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구적인 공장(*Fabrica Idolorum*)"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 교회 성도들이 가장 흔하게 만드는 '현대판 금송아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도자 코칭 팁: 돈, 자녀의 성공, 건강, 혹은 '무조건 내 편만 들어주는 하나님'이라는 왜곡된 신관을 짚어주십시오. 우상 숭배는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열심을 가진 신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치열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원전(1.4.3)의 논리로 설명하십시오.

[3단계: 삶과 사역으로 (Application, 12분)]

질문: 칼빈은 심판이 두려워 억지로 종교 행위를 하는 '노예적 두려움(*Servilis Timor*)'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참된 경건(*Pietas*)'을 대조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예배, 헌금, 봉사)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죄책감이나 의무감에서 벗어나,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의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종교 행위"를 내려놓고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회개를 이끌어냅니다.

[4단계: 합심 기도와 파송 (Prayer & Commission, 6분)]

기도 제목:

서.

노예적 공포를 버리고, 자녀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세상의 우상(물질주의, 성공주의)에 물들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Q1: "성도가 마음속의 우상을 구체적으로 분별하도록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라는 질문에는?

A: "내 마음을 가장 지배하는 불안과 집착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돈, 성공, 자녀가 없으면 내 존재가 무너질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공장의 산물임을 온유하게 짚어주십시오.

Q2: 종교적 열심이 특심한 성도가 스스로 우상 숭배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A: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기복적 열심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아를 깨뜨리는 복음적 순종의 차이를 차분히 나누어 주십시오.

제05강: 우주 창조와 섭리에 나타난 신지식

[부제] 피조 세계라는 찬란한 극장 — 우주의 웅장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눈덮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5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1학기 —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Book I, 01~18주) - 주차: 제05주
(제1권 제5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주의 창조와 그 지속적인 운행에서 분명히 드러남 / *In creatione mundi et continua eius gubernatione lucere Dei notitiam*)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단순한 원전 낭독 모임이 아닙니다. 강의자가 시대를 관통하는 창조와 우주론의 질문(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와 일반 계시의 한계)을 던지고, 칼빈의 1559년 결정판 정본에서 핵심 구절을 선별 발췌하여 논증하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허드슨 리버 화파 고증 명화와 성경 계시를 통해 청중의 영혼을 비추는 정통 아카데미·목회적 강의입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 엠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범신론·유물론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성도 여러분, 밤하늘의 쏟아질 듯한 별들을 보거나, 웅장한 바다와 거대한 산맥 앞에 설 때 어떤 감동을 느끼십니까?

누구나 자연의 압도적인 웅장함 앞에서 깊은 경외감에 사로잡힙니다. 고대 다윗 왕은 시편 19편에서 외쳤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찬란한 극장(*Theatrum Gloriae Dei*)"이라고 선포합니다. 창조주께서는 날마다 눈에 보이는 만물이라는 거울 속에 자신의 무한한 지혜와 영원하신 능력을 눈부시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칼빈은 처절한 실존적 모순을 고발합니다:

"온 우주가 대낮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건만, 왜 타락한 인간은 그 웅장한 극장 한복판에 서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소경처럼 더듬거리는가?"

2. 강의 학습 목표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Theatrum Gloriae Dei*)'으로 바라보는 개혁주의 우주관과 일반 계시의 장엄함을 정립한다.

인간을 '하나님의 지혜가 압축된 소우주(*Microcosmos*)'로 선언한 칼빈의 논증과 갈레노스의 고백을 이해한다. 에피쿠로스의 유물론적 우연론과 스토아학파의 범신론(자연이 곧 신이라는 오류)을 성경적 창조 교리로 명쾌하게 반박한다.

자연 계시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핑계하지 못하게 할 뿐임(*Inexcusabilis*, 롬 1:20)을 깨닫고, 특별 계시인 성경의 안경을 붙든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00~10분 [도입]: 대자연의 경이와 칼빈의 시선 — 우주라는 장엄한 극장(*Theatrum Gloriae Dei*)

10~25분 [제1대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과 소우주(*Microcosmos*) 인간 (1.5.1~3 강독 & 토머스 쿨의 『옥스보우』 1836)

25~42분 [제2대지]: 유물론과 범신론의 미혹 해체 — 자연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1.5.4~6 강독 & 프레더릭 처치의 『안데스의 심장』 1859)

42~54분 [제3대지]: 영적 맹목성(*Caecitas*)과 핑계할 수 없는 심판 (1.5.11~15 강독 & 로마서 1:20 말씀 조명)

54~60분 [결론]: 자연의 극장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우주라는 장엄한 극장: *Theatrum Gloriae Dei* (00:00 ~ 10:00)

(슬라이드 1 제시: 존 칼빈 초상화 & 메인 타이틀)

지식이 우주의 창조와 그 지속적인 운행에서 분명히 드러남”이라는 거대한 우주론적 대서사시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현대 천문학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수천억 개의 은하와 수조 개의 별들이 정교한 법칙에 따라 운행하는 광경을 우리 눈앞에 보여줍니다. 분자생물학은 1밀리미터도 안 되는 작은 세포 속에 수십억 개의 DNA 염기서열이 초정밀 컴퓨터처럼 암호화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질서와 아름다움은 과연 어디서 온 것입니까?

칼빈은 500년 전 이미 제5장의 첫머리에서 가슴 벅찬 선언을 터뜨립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지 않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온 우주 속에 자신의 영광의 표지들을 너무도 명백하고 똑똑하게 새겨놓으셨다!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분의 영광의 불꽃이 번쩍이지 않는 곳은 단 한 뼘도 없다.”
(기독교 강요 1.5.1)

칼빈이 제시하는 우주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온 우주는 맹목적인 물질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지혜와 권능과 아름다움을 피조물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극장(Theatrum Gloriae Dei)'입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 대지의 계절의 순환, 흐르는 강물과 바다의 파도는 매 순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살아있는 배우들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웅장한 극장 속으로 들어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1대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과 소우주(Microcosmos) 인간 (10:00 ~ 25: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토머스 콜의 『옥스보우』 & 1.5.1~3 정본 강독)

칼빈은 제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주 속에 드러나 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변증합니다. 그는 고도의 학문적 지식을 가진 천문학자나 의학자뿐만 아니라, 글을 모르는 무지한 평민이라 할지라도 창조주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천문학이나 의학 등과 같은 심오한 학예(學藝)를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훨씬 더 깊이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학문에 능통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그저 눈을 뜨기만 하면 자신의 시력만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하늘의 별들의 정교한 운행과 젖먹이 아이의 입술 속에까지 하나님의 지혜는 웅변적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1.5.2)

갈레노스는 평생 인체의 뼈마디와 혈관, 근육과 장기의 정교한 결합을 해부하고 연구한 뒤, 무신론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인체야말로 창조주의 신적인 지혜를 찬양하는 영원한 찬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칼빈은 이어서 제3절에서 인간 존재의 영적 신비를 규명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인간을 가리켜 '소우주(Microcosmos)'라고 부른 것은 참으로 합당하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가 그토록 놀랍고 탁월하게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1.5.3)

인간의 영혼을 보십시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판단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놀라운 지성이 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가만히 들여다보지만 해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을 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화면의 슬라이드 5 명화를 보십시오)

19세기 미국 허드슨 리버 화파의 창시자 토머스 콜(Thomas Cole)이 1836년에 완성한 기념비적 걸작 『옥스보우: 뇌우 후의 성스러운 산 풍경 (The Oxbow)』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08.228)입니다. 화면 좌측에는 벼락이 치고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원시의 거친 자연이 있고, 우측에는 비구름이 걷히며 황금빛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대지가 펼쳐집니다. 폭풍과 햇살, 혼돈과 질서가 한 화면 속에서 교차하며, 창조 세계를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섭리를 숨이 멎을 듯한 숭고미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2대지] 유물론과 범신론의 미혹 해체 (25:00 ~ 42: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프레더릭 처치의 『안데스의 심장』 & 범신론 논박)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눈부신 자연 세계를 보면서 인간 사상가들은 어떤 끔찍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까? 칼빈은 제4절과 5절에서 인류 철학의 양대 악성 종양인 '유물론적 우연론'과 '범신론(Pantheism)'을 도려냅니다.

첫째, 에피쿠로스학파와 고대 원자론자들은 "우주는 원자들이 우연히 부딪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의 진화론적 무신론자들과 똑같습니다. 칼빈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이나 우연의 바다에 던져버리는 파렴치한 자들"이라고 일갈합니다.

둘째, 더욱 교묘한 유혹은 고대 스토아철학이나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Virgil), 그리고 현대의 뉴에이지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범신론'입니다:

신이다!"

칼빈은 5절에서 이 사악한 사상을 통렬하게 분쇄합니다:

“베르길리우스 같은 자들은 '온 우주에 하나의 신적인 정신이 깃들어 있어서 만물에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노래했다. 그러나 피조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에 눈이 멀어 창조주를 피조물과 뒤섞어버리는 것보다 더 사악한 짓은 없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초월적 주님이시지, 결코 피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일 수는 없다!”
(1.5.5)

(화면의 슬라이드 7 명화를 보십시오)

19세기 미국의 거장 프레더릭 에드윈 처치(Frederic Edwin Church)가 1859년에 그린 초대형 명작 『안데스의 심장 (The Heart of the Andes)』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09.305)입니다.

눈 덮인 거대한 침보라소 화산 아래로 밀림과 폭포, 그리고 풍요로운 피조 세계의 장관이 압도적인 디테일로 펼쳐집니다.

처치는 이 그림을 그리며 "대자연은 그 자체로 숭배받아야 할 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가락이 빚어내신 거룩한 제단"임을 고백했습니다.

개혁신학의 창조론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 '안에' 간섭 계시지 않으며, 피조 세계를 무한히 초월하여 계십니다.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나무나 해와 달에 절하는 것은 자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증한 우상 숭배입니다.

[제3대지] 영적 맹목성(Caecitas)과 핑계할 수 없는 심판 (42:00 ~ 54:00)

(슬라이드 9 & 10 제시: 로마서 1:20 말씀 슬라이드 & 1.5.11~15 정본 강독)

이제 오늘 강의의 가장 결정적인 신학적 전환점으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피조 세계 전체가 이토록 웅장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면, 인간은 자연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참된 신앙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칼빈의 대답은 단호한 "결코 그럴 수 없다!"입니다.

제11절부터 15절까지 칼빈이 전개하는 서글픈 영적 진단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거울 속에 자신의 영광을 그토록 밝히 비추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너무도 둔감하여 이 거룩한 증거들을 보고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은 온 우주에 대낮처럼

더듬거리며 지나칠 뿐이다!” (1.5.11)

칼빈은 기가 막힌 비유를 듭니다: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는 여행자에게 갑자기 번개가 번쩍 칩니다. 번갯불이 치는 그 찰나의 순간에는 사방의 길과 풍경이 대낮처럼 환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번개가 지나가고 나면 여행자는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인간의 자연 계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주의 장엄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번개처럼 번쩍 비추지만,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영혼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곧바로 자기만의 어두운 미신과 철학적 망상 속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신지식을 심어놓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선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의 슬라이드 9 눈부신 성경 말씀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20)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아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무지와 핑계를 완전히 박탈하시기 위하여(Inexcusabilis) 온 우주에 증거를 새겨두셨다!” (1.5.15)

이것이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피조 세계에 나타난 일반 계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은혜의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핑계를 차단하는 '정죄의 법정'입니다.

[결론 및 결단] 말씀의 안경을 쓰고 창조주를 바라보라 (54:00 ~ 60:00)

(슬라이드 11, 12 & 14 제시: 일반 계시 vs 특별 계시 & 결단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5장의 결론은 우리를 깊은 절망에서 위대한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눈이 멀어 우주의 극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신비로운 감정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칼빈은 다음 주에 살펴볼 제6장을 예고하며 눈부신 복음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눈이 극도로 침침해진 노인에게 글씨를 보여주면 아무것도 읽지 못하지만, 좋은 안경을 코에 씌워주면 비로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하게 읽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눈먼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거룩한 안경을 선물해 주셨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쓸 때 비로소 우리는 자연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올바르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만, 우리는 피조 세계의 거룩한 극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아들과 딸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찬란한 태양과 대지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문]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부신 극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지으신 찬란한 하늘과 정교한 우리 몸을 보면서도, 눈이 멀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피조물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영혼의 맹목을 십자가의 보혈로 고쳐 주옵소서. 성경이라는 말씀의 안경을 쓰고 온 세상을 바라보게 하사,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섭리를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눈을 들어 하늘을 보든 땅을 내려다보든 우주 만물 어디에도 하나님의 눈부신 지혜와 권능의 광채가 새겨지지 않은 곳은 단 한 뼘도 없습니다 (1.5.1).

인간 자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이로운 소우주 (Microcosmos):

인간의 육체적 구조의 신비와 영혼의 고귀한 기능들은 천문학을 공부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오묘한 숨씨를 증언하는 놀라운 거울입니다 (1.5.3).

만물의 보존과 섭리적 통치 (Providentia):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만물을 유지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며 의인을 보호하시는 실존적 통치자이십니다 (1.5.7).

인간 영혼의 영적 맹목과 일반 계시의 효력 한계:

피조 세계의 증거가 아무리 찬란할지라도, 아담의 타락으로 영적 시력을 잃은 인간은 이 빛을 통해 창조주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미신과 우상숭배로 빛나갑니다 (1.5.11).

무지 변명의 완전한 박탈 (Inexcusabilis)과 정죄의 법정:

자연 계시의 최종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인간의 핑계를 완전히 박탈하고(롬 1:20) 특별 계시인 성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5.14~15).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우주 극장 진단]: 나는 광활한 우주와 별들의 운행, 미세한 세포의 정교함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감탄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자연신학 한계 진단]: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타락한 인간의 어두운 눈은 우상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있는가?

[섭리의 손길 진단]: 내 삶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연이나 맹목적 운명이 아니라, 공중의 새 한 마리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의 손길임을 믿는가?

[인간 존엄성 진단]: 인간을 한갓 물질이나 유인원의 후손으로 격하시키는 세속 진화론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소우주로서의 거룩한 책임을 다하는가?

[안식과 신뢰 진단]: 풍랑 속에서도 우주를 친히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소그룹 운영 안내: 본 모듈은 60분 본 강의 종료 후, 평신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30~45분간 깊이 있는 영적 교제와 실천적 결단을 나누도록 설계된 독립 워크북입니다.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질문: 내가 살면서 대자연의 웅장함(광활한 바다, 높은 산맥, 밤하늘의 은하수, 장엄한 일출)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전율하듯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연을 통해 느꼈던 경이로움의 감정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 공감하며 소그룹의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2단계: 본문 속으로 (Primary Source Reflection, 15분)]

질문: 칼빈은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Theatrum Gloriae Dei)"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타락한 인간은 대낮에도 눈먼 사람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Caecitas)"고 지적했습니다. 왜 많은 현대 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은 우주의 정교한 법칙을 연구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연의 산물로 치부할까요?

인도자 코칭 팁: 무신론이 지적인 결핍 때문이 아니라, 로마서 1:20-21 말씀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하기를 거부하는 '영적 맹목'과 도덕적 완고함 때문임을 설명하십시오.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닌 마음의 눈이 거둬야 함을 나눕니다.

[3단계: 삶과 사역으로 (Application, 12분)]

질문: 칼빈은 "자연 계시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성경이라는 말씀의 안경을 써야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는 평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속적 뉴스나 물질주의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일상(직장, 가정, 경제관)을 말씀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도록 돕습니다. "교회 밖 자연 속에서도 힐링이 되니 성경이나 예배는 덜 중요하다"는 식의 현대적 영성주의의 함정을 경계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결단케 합니다.

[4단계: 합심 기도와 파송 (Prayer & Commission, 6분)]

기도 제목: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게 하소서.

자연이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범신론적·유물론적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게 하소서.

영적 맹목에서 벗어나 오직 성경 말씀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묵회적 코칭 Q&A

A: 칼빈의 '안경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눈먼 노인이 안경 없이 책을 읽을 수 없듯, 타락한 인간은 성경이라는 거룩한 렌즈 없이는 자연을 보고도 참 하나님을 왜곡하여 우상으로 만듭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자연 속에 깃든 창조주의 사랑을 올바르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Q2: 자연재해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성도에게는?

A: 피조 세계 역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롬 8:22), 하나님은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위로하십시오.

제06강: 안내자와 교사로서의 성경

[부제] 흐릿한 눈을 밝히는 말씀의 안경 — 왜 자연 계시만으로는 부족하며 성경이 필요한가?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6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1학기 —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Book I, 01~18주) - 주차: 제06주 (제1권 제6장: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는 성경이라는 안내자와 교사가 필요함 / *Ad Deum creatorem subeundum scriptura duce et magistra opus esse*)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단순한 원전 낭독 모임이 아닙니다. 강의자가 시대를 관통하는 성경론의 질문(왜 기록된 성경이 신앙의 유일한 규범인가)을 던지고, 칼빈의 1559년 결정판 정본에서 핵심 구절을 선별 발췌하여 논증하며, 네덜란드 국립미술관 및 베를린 회화관 고증 명화와 성경 계시를 통해 청중의 영혼을 비추는 정통 아카데미·목회적 강의입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주관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지난 제5강에서 우리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극장(*Theatrum Gloriae Dei*)이지만, 타락한 인간은 영적 맹목성(*Caecitas*)에 사로잡혀 대낮에도 눈먼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서글픈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연 계시는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며, 오직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Inexcusabilis*, 롬 1:20) 정죄의 기능에 머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눈먼 인간을 영원한 파멸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존 칼빈(1509 - 1564)은 제1권 제6장에서 종교개혁 신학의 가장 위대한 선언을 터뜨립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칼빈은 눈이 침침해진 노인을 위한 '안경의 비유(*Specilla Scripturae*)'와, 출구 없는 미궁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진리의 실(Thread) 비유'를 통해, 왜 우리 손에 들려진 66권의 기록된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생명줄인지를 감격적으로 논증합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칼빈의 불후의 비유인 '안경의 비유(*Specilla Scripturae*)'를 통해 일반 계시의 한계를 극복하는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을 규명한다.

구전(*Oral Tradition*)의 취약성을 넘어 진리를 영구히 보존하시기 위해 말씀을 '공적 기록'으로 남기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해한다.

"말씀의 길 안에서 절뚝거리며 걷는 것이 길 바깥에서 힘껏 달리는 것보다 낫다"는 미로(*Labyrinth*) 논증을 통해 인간 이성의 교만을 해체한다.

시편 19편의 계시 구조(우주 선포 1-6절 → 영혼을 살리는 율법 7-11절)를 따라, 매일 아침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안내자이자 교사로 삼는 삶을 결단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00~10분 [도입]: 눈먼 관객과 하나님의 자비 — 성경이라는 안내자(*Dux*)와 교사(*Magistra*)

10~25분 [제1대지]: 흐릿한 눈을 밝히는 말씀의 안경(*Specilla*) (1.6.1 강독 & 헤라르트 다우의 『성경을 읽는 노파』 1631)

25~42분 [제2대지]: 영구한 진리의 보존: '기록된 말씀'의 축복 (1.6.2 강독 & 렘브란트의 『십계명 돌판을 든 모세』 1659)

42~54분 [제3대지]: 미로(*Labyrinth*)를 빠져나오는 진리의 실과 시편 19편 (1.6.3~4 강독 & 시편 19:7-8 말씀 조명)

54~60분 [결론]: 말씀의 학교에 입학한 제자들의 결단과 감사 기도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눈먼 관객과 하나님의 자비 (00:00 ~ 10:00)

(슬라이드 1 제시: 존 칼빈 16세기 초상화 & 메인 타이틀)

나아가는 데에는 성경이라는 안내자와 교사가 필요함”이라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의 전당으로 들어섭니다.

지난주 제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극장'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인간의 비참함을 목격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맹목성에 사로잡혀, 대낮에 태양 아래 서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만 펼쳐놓으시고 침묵하셨다면, 인류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자비한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칼빈은 제6장의 문을 열며 하나님의 가슴 벅찬 자비의 손길을 증언합니다:

“사람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나은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라는 빛을 덧붙여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친근하게 나아오는 특권을 베푸신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기독교 강요 1.6.1)

하나님께서서는 눈먼 인간을 위해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은 어두운 밤하늘에 길을 잃은 우리에게 유일한 안내자(Dux)가 되어주시고, 우둔한 우리 영혼을 진리로 훈육하시는 가장 자애로운 교사(Magistra)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우리는 성경이 왜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시금석인지 그 신비로운 원리를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제1대지] 흐릿한 눈을 밝히는 말씀의 안경(Specilla) (10:00 ~ 25: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헤라르트 다우의 『성경 읽는 노파』 & 1.6.1 정본 강독)

칼빈은 제1절에서 개혁교회 500년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비유를 선포합니다. 바로 '안경의 비유 (Specilla Scripturae)'입니다. 칼빈의 원문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가령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 혹은 시력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훌륭한 책을 내어놓는다 해도, 그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눈이 흐리기 때문에 두 단어도 연달아 읽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또렷하게 그 책을 읽어 내려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한 갖가지 혼란스런 지식을 우리 마음에 제대로 모아주며, 우리의 우둔함을 몰아내고, 참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1.6.1)

책 자체(피조 세계)에는 글씨가 아주 명확하고 아름답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는 사람의 '흐릿해진 눈(인간의 타락한 이성)'에 있습니다.

노안이 와서 글씨가 뭉개져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책을 더 뚫어지게 쳐다보라"고 다그친들 글씨가 읽히겠습니까? 읽히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도수가 딱 맞는 안경'을 코 위에 얹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 안경입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쓸 때 비로소 우리는 피조 세계 속에 흐릿하게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한 초점으로 모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모든 지식이 뒤엎힌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울 뿐이지만, 성경의 렌즈를 통과하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노래하는 완벽한 질서로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화면의 슬라이드 5 명화를 보십시오)

17세기 네덜란드 램브란트의 수제자 헤라르트 다우(Gerard Dou)가 1631-32년에 그린 걸작 『성경을 읽는 노파 (Old Woman Reading a Lectionary)』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소장, SK-A-2627)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한 줄기 거룩한 빛이 쏟아져 내립니다. 주름진 손으로 거대한 성경 책장을 짚어가며, 침침한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먹듯이 읽고 있는 늙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다우는 이 여인을 통해, 세상의 화려한 지혜를 다 내려놓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영혼의 눈을 밝히는 참된 신앙인의 원형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제2대지] 영구한 진리의 보존: '기록된 말씀'의 축복 (25:00 ~ 42:00)

(슬라이드 6 & 7 제시: 램브란트의 『십계명 돌판을 든 모세』 & 1.6.2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제2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구전(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말)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말씀을 '기록된 책 (Scriptura Scripta)'으로 주셨는지를 논증합니다.

아담과 셋, 노아와 아브라함 같은 고대 족장들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환상과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시고,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책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칼빈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로 빠지기가 얼마나 쉬우며, 온갖 종류의 오류에 이끌리는 경향이 얼마나 심하며, 새로운 종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픈 욕망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라! 하늘의 교리가

넘어 진리가 영원토록 보존되도록 말씀을 공적인 기록으로 남기시기를 기뻐하셨다!” (1.6.2)

성도 여러분, 인간의 기억력은 얼마나 믿을 수 없습니까?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전달되는 소문은 세 사람만 건너가도 왜곡되고 과장됩니다. 하물며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타락한 인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전수되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벌써 인간의 신화와 미신으로 변질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으로 남기셨다는 것은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은혜의 방패입니다! 공적으로 기록된 문서는 인간 권력자나 거짓 선지자가 자기 입맛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어도, 성경은 1점 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의 시금석으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화면의 슬라이드 7 명화를 보십시오)

17세기 네덜란드의 거장 렘브란트(Rembrandt van Rijn)가 1659년에 그린 대작 『십계명 돌판을 든 모세 (Moses with the Ten Commandments)』 (베를린 국립회화관 소장)입니다.

시내산의 짙은 어둠 속에서 모세가 히브리어 성경 본문이 선명하게 새겨진 거대한 두 돌판을 높이 치켜들고 있습니다.

이 돌판은 인간이 새긴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영원한 언약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변덕스러운 인간의 입술에 진리를 맡기지 않으시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록된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3대지] 미로(Labyrinth)를 빠져나오는 진리의 실 (42:00 ~ 54:00)

(슬라이드 8, 9 & 10 제시: 시편 19:7-8 말씀 슬라이드 & 1.6.3 정본 강독)

칼빈은 제3절에서 또 하나의 변독이는 통찰을 제시합니다.

성경을 떠나 인간 혼자서 하나님의 신비를 탐구하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칼빈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크레타 섬의 미궁, 즉 '미로(Labyrinth)'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말씀이라는 실(Thread)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찬란한 모습이 우리에게 마치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迷路)와 같아진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절뚝거리며 걷는 것이, 차라리 그 길 바깥에서 온 힘을 다해 달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1.6.3)

성도 여러분, 이 문장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말씀의 길 안에서 절뚝거리며 걷는 것이, 말씀 바깥에서 온 힘을 다해 달리는 것보다 낫다!"

100킬로미터로 질주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껏 달릴수록 절벽과 파멸로 더 빨리 곤두박질칠 뿐입니다.

반면에 비록 지식은 부족하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느리게 걸을지라도,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 안에서 걷는 성도는 결코 길을 잃지 않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제4절에서 시편 기자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다윗의 시편 19편을 인용하며 입증합니다:

(화면의 슬라이드 9 눈부신 성경 말씀 슬라이드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 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7-8)

다윗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하늘과 해의 운행을 노래한 뒤, 7절에 이르러 돌연 "여호와와 의 율법"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왜입니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영혼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죽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죄로 어두워진 영혼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및 결단] 말씀의 학교에 입학한 제자가 되라 (54:00 ~ 60:00)

(슬라이드 11, 12 & 14 제시: 비교 도표 & 결단 기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6장의 결론은 우리에게 지극히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도전을 던집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건전한 교리를 조금도 맛볼 수 없다. 참된 깨달음은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에서만 시작된다!”

내 상처의 안경, 돈과 성공의 안경, 인간적인 철학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두려움과 원망과 혼란의 미로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내 삶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오늘부터 평생토록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내 인생의 유일한 안내자(Dux)이자 스승(Magistra)으로 모시고, 말씀의 길 안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눈이 멀어 인생의 어두운 미로 속에서 헤매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거룩한 안경을 씌워주시고
영원한 진리의 실을 쥐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여 말씀 밖에서 분주하게 질주하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날마다 기록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며 걷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창조주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안내자 (Dux)와 교사 (Magistra)로서의 성경:
우주 만물에 새겨진 일반 계시만으로는 죄로 어두워진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안내자와 스승으로 삼아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1.6.1).

칼빈의 불후의 비유 — 말씀의 거룩한 안경 (Spectacula Scripturae):
눈이 침침한 노인이 안경을 쓰지 않으면 글씨를 전혀 분간할 수 없듯,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연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바르게 읽어낼 수 없습니다 (1.6.1).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과 인간의 망각 및 부패 속에서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특별 계시를 구전(Traditio)에 맡겨두지 않으시고 문자로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1.6.2).

미로 (Labyrinth)를 통과하는 아리아드네의 실 — 성경의 테두리:

성경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자는 끝없는 혼란의 미로에 갇히게 되며,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 질주하는 것보다 말씀 안에서 절뚝거리며 걷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1.6.3).

성경의 제자가 되는 겸손과 창조주에서 구속주로의 필연적 이행:

성경의 학생이 되어 온유하게 배우지 않는 자는 참된 지혜의 맛을 결코 알 수 없으며,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데 머물지 않고 궁극적으로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끕니다 (1.6.2, 4).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안경으로서의 성경]: 흐릿한 눈을 가진 노인이 안경을 쓸 때 비로소 글씨를 똑똑히 보듯, 성경이라는 거룩한 안경을 통해서만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교사로서의 성경]: 자연 계시의 불완전함을 넘어, 하나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특별 계시 성경의 절대적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있는가?

[사변적 망상 배격]: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 하나님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인간의 호기심과 영적 교만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가?

[일상의 나침반]: 세상의 복잡한 윤리적 갈등과 진로의 선택 앞에서 사람들의 조언이나 트렌드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최종적인 안내자로 삼고 있는가?

[그리스도 중심 진단]: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성경이 궁극적으로 증언하는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소그룹 운영 안내: 본 모듈은 60분 본 강의 종료 후, 평신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30~45분간 깊이 있는 영적 교제와 실천적 결단을 나누도록 설계된 독립 워크북입니다.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질문: 시력이 나빠 안경을 처음 썼을 때 세상이 갑자기 또렷하게 보여 감탄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영적으로도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환하게 비추어주었던 순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일상에서 안경의 중요성을 공감하게 함으로써, 성경이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필수적인 렌즈임을 친근하게 도입하십시오.

[2단계: 본문 속으로 (Primary Source Reflection, 15분)]

질문: 칼빈은 "말씀의 실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길이 미로(Labyrinth)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성경 말씀 없이 내 생각이나 감정, 세상 철학에만 의존하여 살아가려 할 때 어떤 혼란과 방황에 빠지게 됩니까?

인도자 코칭 팁: "말씀 안에서 절뚝거리며 걷는 것이 말씀 밖에서 힘껏 달리는 것보다 낫다"는 칼빈의 명언 (1.6.3)을 집중 조명하십시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며, 성경의 테두리를 벗어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누도록 돕습니다.

[3단계: 삶과 사역으로 (Application, 12분)]

질문: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을 '책으로 기록(Scriptura)'하여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펼쳐 읽는 '말씀의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시작할 성경 읽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성경을 책장에 꽂아두는 장식품이 아니라, 매일 밥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으로 섭취하도록 도전하십시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루 1장이라도 꾸준히 읽도록 결단을 이끌어냅니다.

[4단계: 합심 기도와 파송 (Prayer & Commission, 6분)]

기도 제목:

성경이라는 말씀의 안경을 쓰고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하소서.

말씀 밖으로 달려가지 않고, 기록된 진리의 규범 안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인간의 사변이나 세속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경 66권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Q1: "성경을 읽어도 영적인 눈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성도에게는 어떻게 권면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는?

A: 성경을 단순한 지식 서적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로 읽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라는 다윗의 기도를 함께 고백하며 말씀의 학교에 입학하도록 격려하십시오.

Q2: 말씀 밖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적 체험 중심의 성도에게는?

A: "말씀 안에서 절뚝거리는 것이 말씀 밖에서 힘껏 달리는 것보다 낫다"는 칼빈의 경고를 온유하게 상기시키며, 성경의 울타리를 벗어난 열심은 결국 미로와 낭떠러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나침반 비유로 설명하십시오.

[07장] 제07장: 성령의 내적 증거와 성경의 권위

교회의 도장이 아닌 성령의 인침 — 왜 성경은 인간의 논증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로 확신되는가?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7장 집중 강독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 제07주차 - 원제: *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 et Autopistia Scripturae* (Institutio, 1.7.1-5) - 강의 성격: 60분 정규 마스터클래스 강독 + 30~45분 소그룹 나눔 및 목회적 코칭 - 색상 체계: - ● 교리 명제 (#182B49): 핵심 교의학적 정의 및 논증 - ● 원전 정본 발췌 (#8B0000):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권위 있는 인용 - ● 평신도 삶의 적용 (#1E5631): 현대 일상과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실천 - ● 신학적 오해 경고 (#B8860B): 인본주의적 왜곡 및 교권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 밑바닥에서 흔히 마주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는가? 역사적 사본이 정확해서인가? 교회가 정경(Canon)으로 공인해 주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뛰어난 변증가들의 합리적 논증 때문인가?"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승인과 도장이 없으면 성경은 아무런 권위가 없다"는 극단적인 교권주의(Hierarchism)로 평신도의 양심을 억압했습니다. 반면 계몽주의 이후 근대 합리주의는 "인간 이성의 검증을 통과해야만 성경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성경의 권위를 인간 이성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존 칼빈은 《## II.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의심의 바다에서 흔들리는 현대인과 성경의 권위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신학의 가장 눈부신 보석이자 개혁주의 신앙의 심장이라 불리는 주제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바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제7장이 선포하는 “성령의 내적 증거와 성경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강에서 확인했듯이, 타락하여 눈이 어두워진 인간에게는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안내하고 교정해 주는 '말씀의 안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곧바로 피할 수 없는 실존적 질문에 부딪힙니다:

“성경이 안경인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100% 확신합니까? 2천 년 전, 3천 년 전에 쓰인 고대 문서들이 한 점 오차도 없는 하늘의 진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합니까?”

세상은 흔히 두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첫째는 '**조직의 권위**'에 기대는 **교권주의의 함정**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믿으라!”

둘째는 '**인간의 논리**'에 기대는 **합리주의의 함정**입니다. “역사학과 과학이 검증해 주어야 비로소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칼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두 가지 길은 모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교회의 승인에 기초한 믿음은 교회가 타락할 때 무너지고, 인간의 논증에 의존한 확신은 더 교묘한 무신론 철학자의 반론 앞에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오늘 60분의 여정을 통해, 교회의 도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침으로 우리 심장에 새겨지는 살아 있는 말씀의 신적 위엄을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로마 가톨릭 교권주의 비판 — 교회가 성경의 어머니인가?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라파엘로의 『성체논의』 & 1.7.1-2 원전 강독)

교회의 승인이 성경의 권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교회의 영원한 기초입니다.

칼빈 당시 로마 교황주의자들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 지극히 불경건하고 위험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는가? 교회가 정경 목록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어느 책을 믿어야 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전적으로 교회의 결정과 승인에 종속된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어찌 사람들의 가결이나 변덕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조롱하는 처사다.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판단에 예속시키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자들이다.” (1.7.1)

사도 바울의 장엄한 선언을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20)

건물이 기초(터)를 떠받칩니까, 기초가 건물을 떠받칩니까? 당연히 기초가 건물을 떠받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곧 기록된 성경 말씀이 교회의 터입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진 피조물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낳은 어머니이지, 교회가 성경을 낳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뒤집어, 어머니의 권위가 딸의 결재 도장에 달려 있다고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평신도 삶의 적용]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떤 사람이나 교단의 권위에 맡기지 마십시오. 위대한 목회자나 역사 깊은 교단도 성경의 진리 아래 복종해야 할 종에 불과합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는 최고의 규범입니다.

[제2대지] 아우구스티누스 인용의 참뜻과 이성적 변증의 한계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1.7.3-4 원전 강독 & 어거스틴 본의 복원)

인간의 합리적 논증은 불신자의 입을 다물게 할 수는 있으나, 영혼에 구원의 신적 확신을 심지는 못합니다.

로마 교황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교권주의를 변명하기 위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한 문장을 악용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나를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나는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Contra Epistolam Manichaei, cap. 5)

칼빈은 1.7.3에서 이 구절의 전후 문맥을 명쾌하게 복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자들의 신앙 기초를 논한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나 마니교도들에게 “교회의 일치된 공적 증언이 복음으로

것입니다.

칼빈은 이어 인간 이성의 변증적 한계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물론 원한다면 나 역시 성경의 무오성과 역사적 신빙성을 이성적으로 입증하여 불경한 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궤변을 잠재우는 것과, 성도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안식을 심어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다.” (1.7.4)

[주의할 점] 고고학적 유물이나 사본학적 증거는 변증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 반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적인 논리로 세운 확신은 더 정교한 불신 철학자의 반론 앞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제3대지] 성령의 내적 증거와 성경의 자증성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카라바조의 성 마태와 천사)

성경은 스스로 신적 위엄을 증명하는 자증적 말씀이며,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만 절대적 확신에 이릅니다.

화면의 슬라이드 9에 제시된 루미너스 말씀 판넬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9:21)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22)

사도 바울과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과 성령의 불가분적 일치를 선포합니다.

칼빈은 1.7.4-5에서 종교개혁의 가장 빛나는 신학적 원리를 선언합니다:

“성경은 피조물의 범정에 불려 나가 검증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증적(自證的, Autopiston) 진리이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친히 증언하시지 않는다면, 성경은 결코 사람의 영혼에 구원의 확신을 낳을 수 없다!” (1.7.5)

칼빈의 탁월한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빛은 스스로 빛임을 드러내며 어둠을 몰아냅니다. 단맛은 혀끝에 닿는 순간 스스로 달콤함을 증명합니다.

성경 역시 그 자체로 찬란한 하늘의 빛과 위엄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멀고 죽은 인간은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심장에 도장을 찍으실 때(Sigillum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술 그 자체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온 것이다!”

이 확신은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철학적 추리를 초월합니다. 이것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순교자들의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제4대지 및 결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순종자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요약 비교 매트릭스 &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믿는 것은 우리의 지적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주권적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지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1. **말씀의 자증성 신뢰**: 인간의 사변이나 교권의 도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신뢰하십시오.
2. **성령의 조명 간구**: 성경을 읽기 전 반드시 다윗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라고 기도하십시오.
3. **일치된 순종의 삶**: 깨달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증인이 되십시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세상의 사조나 조류 앞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 기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의 내적 증거로 이를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사람의 생각을 성경보다 높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힘입어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회의주의와 거짓 사조를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높이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로마 가톨릭 교권주의 비판 — 교회가 성경의 어머니인가? (10:00 ~ 22:00)

교회의 승인이 성경의 권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교회의 영원한 기초입니다.

칼빈 당시 로마 교황주의자들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 지극히 불경건하고 위험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는가? 교회가 성경 목록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어느 책을 믿어야 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전적으로 교회의 결정과 승인에 종속된다!"

칼빈은 1권 7장 1절에서 이 주장을 통렬하게 질타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어찌 사람들의 가결이나 변덕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조롱하는 처사다.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판단에 예속시키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자들이다.”** (1.7.1)

사도 바울의 장엄한 선언을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20)

건물이 기초(터)를 떠받칩니까, 기초가 건물을 떠받칩니까? 당연히 기초가 건물을 떠받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곧 기록된 성경 말씀이 교회의 터입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진 피조물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낳은 어머니이지, 교회가 성경을 낳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뒤집어, 어머니의 권위가 딸의 결재 도장에 달려 있다고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평신도 삶의 적용]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떤 사람이나 교단의 권위에 맡기지 마십시오. 위대한 묵회자나 역사 깊은 교단도 성경의 진리 아래 복종해야 할 종에 불과합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는 최고의 규범입니다.

[제2대지] 아우구스티누스 인용의 참뜻과 이성적 변증의 한계 (22:00 ~ 34:00)

인간의 합리적 논증은 불신자의 입을 다물게 할 수는 있으나, 영혼에 구원의 신적 확신을 심지는 못합니다.

로마 교황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교권주의를 변명하기 위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한 문장을 악용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나를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나는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Contra Epistolam Manichaei, cap. 5)

칼빈은 1.7.3에서 이 구절의 전후 문맥을 명쾌하게 복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자들의 신앙 기초를 논한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나 마니교도들에게 "교회의 일치된 공적 증언이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예비적 안내자(Pedagogue)"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변증한 것에 불과합니다. 불신자가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보고 교회로 들어와, 마침내 복음 자체의 신적 진리에 굴복하게 되는 회심의 과정을 서술한 것입니다.

칼빈은 이어 인간 이성의 변증적 한계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물론 원한다면 나 역시 성경의 무오성과 역사적 신빙성을 이성적으로 입증하여 불경한 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궤변을 잠재우는 것과, 성도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안식을 심어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다.” (1.7.4)

[주의할 점] 고고학적 유물이나 사본학적 증거는 변증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 반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적인 논리로 세운 확신은 더 정교한 불신 철학자의 반론 앞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제3대지] 성령의 내적 증거와 성경의 자증성 (34:00 ~ 46:00)

성경은 스스로 신적 위엄을 증명하는 자증적 말씀이며,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만 절대적 확신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추호의 의심도 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칼빈은 1.7.4-5에서 종교개혁의 가장 빛나는 신학적 원리를 선언합니다: “성경은 피조물의 법정에 불려 나가 검증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증적(自證的, Autopiston) 진리이다. 말씀의 저자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친히 증언하시지 않는다면, 성경은 결코 사람의 영혼에 구원의 확신을 낳을 수 없다!” (1.7.5)

칼빈의 탁월한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빛은 스스로 빛임을 드러내며 어둠을 몰아냅니다. 단맛은 혀끝에 닿는 순간 스스로 달콤함을 증명합니다. 성경 역시 그 자체로 찬란한 하늘의 빛과 위엄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멀고 죽은 인간은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심장에 도장을 찍으실 때(Sigillum Spiritus), 비로소 우리는 외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술 그 자체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온 것이다!”

않는 순교자들의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결론 및 결단]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순종자 (46:00 ~ 52:0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믿는 것은 우리의 지적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주권적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지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 119:18).”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세상의 사조나 조류 앞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성경 권위의 근원 —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자증성 (*Autopiston*):
2. 성경의 권위는 인간이나 교회의 판결에 의존하지 않으며, 말씀의 참 저자이신 하나님 자신에게서 직접 비롯되므로 그 자체로 믿을 만하고 자증적입니다 (1.7.1, 5).
3. 교황주의의 치명적 오류 분쇄 — 교회가 성경의 어머니라는 궤변:
4. 교회가 성경에 권위를 부여한다는 주장은 성경(엡 2:20)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며,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말씀) 위에 세워진 피조물이므로 교회가 성경을 낳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교회를 낳았습니다 (1.7.1~2).
5. 어거스틴의 발언("교회의 권위가 나를 감동시키지 않았다면...")의 참된 문맥:
6. 어거스틴은 불신자나 초신자가 복음의 문턱에 이를 때 교회의 역사적 증언이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지, 성경의 궁극적 권위가 교권에 종속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1.7.3).
7. 성령의 내적 증거 (*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의 최우위성:
8. 아무리 정교한 이성적 증명이나 논리적 변증도 성령께서 영혼의 내면을 조명하시고 인치시키지 않는 한 진정한 신앙의 확신을 낳을 수 없으며, 성령의 증거는 모든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초월합니다 (1.7.4).

10.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말씀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영혼 속에 확증될 때, 신자는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핍박 앞에서도 요동치 않는 절대적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1.7.5).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성경 권위 근원 진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는 근거가 교회의 전통이나 목회자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말씀 자체의 신적 권위와 성령의 증거 때문임을 고백하는가?
2. [교권주의 오류 경계]: 교회의 전통이나 지도자의 사사로운 해석을 성경 66권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로 올려놓는 교권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는가?
3. [이성적 교만 극복]: 내 지성과 논리로 성경을 다 이해하고 검증해야만 믿겠다는 합리주의적 교만을 내려놓고, 성령의 조명을 겸손히 구하고 있는가?
4. [성령의 내적 증거 체험]: 성경을 펼쳐 읽을 때, 단순한 활자를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거룩한 음성으로 영혼에 울리고 있는가?
5. [흔들리지 않는 구원 확신]: 세상의 혼란과 회의주의적 조롱 앞에서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쳐주신 복음의 진리 위에 내 믿음의 닻을 든든히 내리고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질문: 성경을 읽거나 배울 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일까?" 하는 의심이나 회의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내 마음을 붙들어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지적 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도록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십시오. 칼빈 역시 의심을 정죄하기보다 참된 확신의 원천(성령)으로 인도하고자 했음을 상기시킵니다.

[2단계: 본문 속으로 (Primary Source Reflection, 15분)]

- 질문 1 (교권주의 비판): 칼빈은 왜 에베소서 2:20을 인용하여 "교회가 성경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경이 교회의 어머니"라고 강조했습니까? 교회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두는 교권주의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변형

- 질문 2 (성령의 내적 증거): 성경의 확실성을 입증할 때, 과학적·역사적 변증 논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반드시 '성령의 내적 증거(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가 필요합니까?

[3단계: 삶과 사역으로 (Application, 12분)]

- 질문: 칼빈은 성경을 믿는 확신이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직접 들려온 음성'으로 받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는 오늘 성경을 사람의 말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음성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성경을 단지 교훈이나 윤리적 책으로 소비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매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는 경건의 훈련을 구체적으로 결단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4단계: 합심 기도와 파송 (Prayer & Commission, 6분)]

- 기도 제목:
- 교회의 전통이나 사람의 생각을 성경 말씀보다 높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교회가 굳게 서게 하소서.
-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말씀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한 영혼이 되게 하소서.
- 세상의 회의와 비방 속에서도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씀의 진리를 담대히 증언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확신하냐는 비신자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 A: 인간적인 역사적 증거나 사본의 정확성(외적 증거)도 유익하지만, 궁극적인 확신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읽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내적 증거'를 통해 온다는 사실을 간증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 Q2: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이 충돌할 때 평신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A: 교회가 성경 위에 세워진 피조물이므로, 어떠한 전통이나 지도자의 교훈도 기록된 성경 66권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하며, 성경에 비추어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본질임을 분명히 설명하십시오.

제08장: 성경의 신빙성과 이성적 입증

[부제] 역사의 증언과 순교자들의 피 — 성경의 확실성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이성적 증거들과 2차적 보조 수단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8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교재 범위: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 (Book I) 제08주차 — 제1권 제8장 (1.8.1~13) - 강의 구성: 정식 60분 강독 강의 + 30~45분 소그룹 심화 나눔 모듈 - 핵심 주제: 성경 문체의 천상적 위엄, 모세의 진실성과 고대성, 예언 성취와 보존의 기적, 보조적 수단(Subsidia)으로서의 이성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라틴어 원전 정본 핵심 발췌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 옐로우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이성만능주의/회의주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우리는 지난 제7장에서 성경의 절대적 권위가 교회의 결재 도장이나 인간 이성의 논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심장에 도장을 찍으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에 의해서만 확립된다는 개혁신학의 근본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회의주의자들과 이성주의자들의 날 선 반발이 뒤따릅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만이 신앙의 유일한 기초라면, 기독교는 아무런 객관적·역사적 증거도 없는 맹목적인 주관주의 신비주의인가? 불신자들이 성경을 허황된 신화나 고대 문서의 짜깁기라고 공격할 때, 우리는 ‘너희는 성령이 없어서 모른다’는 말 외에는 아무런 변증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광신자인가?”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8장의 13개 절 전체를 할애하여 이 도전을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칼빈의 놀라운 균형 감각을 들으십시오:

“성경은 결코 인간의 몽상이나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가 아니다! 비록 성령의 조명 없이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참된 확신에

남을 수많은 객관적 표지(*Indices*)와 증거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1.8.1)

칼빈은 이성적 증거들을 성경의 기초로 삼으려는 ‘합리주의’를 배격하는 동시에,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는 ‘반지성적 열광주의’도 함께 배격합니다.

이성적 증거들은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 성령으로 확신된 성도의 연약한 믿음을 돕고 불신자들의 비방을 잠재우는 ‘보조적 도구(*Subsidia*)’입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1. 세속 문학 수사학과 구별되는 성경 문체의 천상적 위엄과 심령을 관통하는 거룩한 감화력을 변증한다 (1~2절).
2. 모세의 사심 없는 진실성, 출애굽 기적의 공개성, 수백 년에 걸쳐 성취된 선지자들의 예언의 역사적 신빙성을 체계화한다 (3~8절).
3. 역사의 맹렬한 탄압 속에서도 성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된 기적과 순교자들의 피의 증언을 변증한다 (9~12절).
4. 이성적 증거를 ‘신앙의 보조 수단(*Subsidia*)’으로 바르게 위치시키고, 세상의 회의론 앞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증언하는 지성적 예배자로 선다 (13절).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10분 [도입]: 성경은 꾸며낸 신화인가, 역사의 진리인가? — 21세기 회의론과 베드로후서 1:16
- 10~22분 [제1대지]: 성경 자체의 천상적 위엄과 모세의 진실성 — 렘브란트의 『예레미야』와 원전 강독 (1.8.1~4)
- 22~35분 [제2대지]: 공개된 기적들과 선지자들의 초자연적 예언 성취 — 카라바조의 『바울의 회심』과 역사적 무오성 (1.8.5~8)
- 35~48분 [제3대지]: 성경의 기적적 보존과 순교자들의 피 — 루미너스 성구와 박해를 이긴 말씀 (1.8.9~12)
- 48~60분 [결론]: 보조 수단으로서의 이성과 확신의 반석 — 평신도 4대 실천 지침 및 송영 (1.8.13)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도입] 성경은 꾸며낸 신화인가, 역사의 진리인가?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강독할 『기독교 강요』 제1권 제8장은 기독교 변증학의 가장 위대한 보물창고입니다. 강의 제목을 보십시오:

“성경의 신빙성은 인간의 이성의 범주 내에서도 충분히 입증됨 (*Fidem Scripturae satis probari ratione humana, quatenus fert natura creaturae*)”

대학 강단과 미디어는 서슴없이 떠듭니다: “성경은 고대 유대인들이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편집한 건국 신화에 불과하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나 단군 신화와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조롱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눅이 듭니다. 신앙을 단지 ‘내 마음속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축소해 버리고, 역사와 과학과 이성의 대화 앞에서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의 증언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성경은 골방에서 몇몇 모의꾼들이 꾸며낸 사기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온 인류가 지켜보는 객관적인 역사 한복판에 자신의 거룩한 발자국을 새기셨습니다.

오늘 60분의 강독을 통해, 칼빈이 제시하는 13개 절의 압도적인 역사적·이성적 증거들을 따라가 보십시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얼마나 웅장하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깨달으며, 여러분의 지성과 가슴에 말할 수 없는 확신과 감격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제1대지] 성경 자체의 천상적 위엄과 모세의 진실성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렘브란트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도하는 예레미야』 (1630) & 1~4절 원전 강독)

칼빈은 첫 번째 증거로 성경 문제 자체에 흐르는 천상적 위엄을 제시합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가장 뛰어난 문장가들—데모스테네스, 키케로, 플라톤의 글을 읽어 보십시오.

그들의 글은 현란한 수사학과 세련된 논리로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고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책을 덮고 성경을 펼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칼빈의 유명한 고백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의 글을 읽으면 우리는 감탄하며 마음이 움직인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으면 찬탄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거기서 돌이켜 성경을 읽어보라! 인간의 글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생생한 능력이 우리 영혼의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심장을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사로잡는다. 성경의 단순하고 소박한 언어 속에는 세상의 모든 웅변가와 철학자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신적 위엄이 충만하게 박동하고 있다!” (1.8.1)

성경 저자들의 출신을 보십시오. 그들은 대단한 문학 교육을 받은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와 요한, 뽕나무를 치던 목동 아모스, 세리 마태 같은 평범하고 투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붓끝에서 온 우주의 창조와 인간 영혼의 심연,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도가 한 치의 모순도 없이 장엄하게 흘러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재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셨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상의 종교 창시자나 역사가들은 누구나 자기 가문의 치부를 감추고 위인을 미화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모세의 글을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 조상인 야곱의 예언을 기록하면서, 자기 지파인 레위 지파에 대해 야곱이 남긴 가혹한 저주를 글자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로다(창 49:5-7).”

어느 위선자가 자기 조상과 가문의 뼈아픈 수치를 온 백성이 외우도록 성문화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친누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 수치를 당한 일, 친형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패역, 그리고 모세 자신조차 트리바 물가에서 혈기를 부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홀로 쓸쓸히 죽어야 했던 치명적인 과오를 한 글자도 숨김없이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칼빈은 외칩니다:

“모세는 개인의 영광이나 가문의 권세를 탐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명예와 가문의 체면까지 진토에 던져버렸다. 모세의 이러한 사심 없는 투명성과 정직성은 그의 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참된 계시임을 입증하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이다!” (1.8.4)

[제2대지] 공개된 기적들과 선지자들의 초자연적 예언 성취 (22:00 ~ 35: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카라바조의 『바울의 회심』 (1601) & 5~8절 원전 강독)

두 번째로 칼빈은 성경에 기록된 이적들의 성격과 예언의 성취를 조명합니다.

1. 출애굽 기적의 공개성과 불가항력성 (5~6절)

어떤 이들은 기적을 마술이나 조작된 눈속임으로 폄하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행한 기적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캄캄한 방 안에서 소수의 추종자들만 모아놓고 행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온 제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수백만 백성이 바다가 갈라진 마른 땅을 건넜으며, 메마른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 수백만 명을 먹였습니다.

칼빈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만약 이 기적들이 거짓이었다면, 사사건건 모세에게 반역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들과 반역자들조차 부인할 수 없었던 대낮의 공개적인 초자연적 기적들은, 율법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장이었습니다.

2. 선지자들의 예언과 역사의 무오한 일치 (7~8절)

성경의 가장 경이로운 증거는 수백 년 전에 선포된 예언들이 역사의 무대 위에서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소환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100년도 더 뒤에 일어날 페르시아의 정복자 고레스(Cyrus)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목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사 44:28)!”

어떻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방 군주의 이름과 그의 칙령을 100년 전에 구체적으로 예언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백성을 귀환시키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렘 25:11-12).

렘브란트의 걸작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도하는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무너진 성전의 불길 속에서도 선지자는 성경 두루마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정확히 70년 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유대인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인간의 어떤 점술이나 사기꾼도 수백 년 뒤의 역사적 인물의 이름과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토록 정밀하게 맞출 수 없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작성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예언의 참된 저자이시다!” (1.8.8)

[제3대지] 성경의 기적적 보존과 순교자들의 피 (35:00 ~ 48:00)

(슬라이드 9 & 10 제시: 광채 나는 말씀 패널 & 안티오쿠스 박해 및 순교자들의 증언)

칼빈은 9절부터 12절까지, 성경이 지나온 피 묻은 역사 속에서 빛나는 두 가지 결정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1. 성경의 기적적 보존 역사 (9~10절)

인류 역사상 성경만큼 맹렬한 증오와 조직적인 박멸의 칼날을 맞은 책은 없습니다.

구약 말기 시리아의 폭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모든 성경 두루마리를 수색하여 불태웠으며, 율법책을 소지한 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잔혹하게 학살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제국 전역에 칙령을 내려 성경을 모조리 불사르고 기독교의 흔적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성경을 없애려 했던 제국들은 모두 모래성처럼 무너져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권도 소멸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손에 원형 그대로 들려 있습니다!

칼빈의 감격적인 선언을 들으십시오:

“온 세상의 권력자들과 폭군들이 연합하여 성경을 불태우고 멸절하려 광기를 부렸으나, 그 불꽃 속에서도 성경은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남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능한 손길로 역사를 지휘하셨다. 이 보존의 기적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1.8.10)

2. 순교자들의 피와 교회의 일치된 증언 (11~12절)

사람은 거짓이나 환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수만 명의 성도들과 사도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화형대에서 불타면서도, 끝까지 성경을 부인하지 않고 찬양하며 죽어갔습니다.

카라바조의 『바울의 회심』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던 잔혹한 박해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모든 권세와 생명을 내어던지고 평생을 복음의 종으로 살다 로마의 단두대에서 목 베임을 당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의 진리가 생명보다 더 값진 하늘의 실재였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11 & 14 제시: 요약 비교 매트릭스 & 최종 송영)

칼빈은 13절에서 이 모든 변증의 대단원을 맺으며 가장 중요한 신학적 원칙을 천명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거한 이 모든 인간적·이성적 증거들은, 그 자체로 성경의 확신을 낳는 궁극적 기초가 될 수는 없다. 성령의 내적 증거가 결여된 자에게 이 증거들은 단지 허공을 치는 논쟁거리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마음에 성경의 권위를 확신한 성도에게, 이 이성적 증거들은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보조적 도구 (Subsidia)’가 된다!” (1.8.1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모두 물리쳐야 합니다.

첫째, 객관적 역사와 이성적 증거를 무시한 채 주관적 열광주의로 빠지는 ‘반지성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 성경의 역사성과 신빙성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성령의 은혜 없이 인간의 논리와 증거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성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인치신 그 믿음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증명된 성경의 무오함과 위엄을 당당하게 붙잡으십시오.

세상이 어떤 궤변으로 성경을 조롱할지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사 40:8) 이 영원한 반석 위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인간의 모든 수사학을 압도하는 성경의 천상적 위엄 (*Divina Maiestas*):
2. 키케로나 플라톤의 유려한 문장은 일시적 감탄을 주지만, 성경의 소박하고 단순한 문체는 인간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심장을 뒤흔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8.1~2).
3. 사심 없는 기록자 모세의 진실성과 기적의 역사성:
4. 모세는 자기 가문의 수치와 자신의 불순종까지 숨김없이 기록했고, 광야의 이적들은 대낮에 온 백성과 원수들이 목격한 역사적 실재였으므로 결코 조작될 수 없습니다 (1.8.4~6).
5. 선지자들의 예언의 초자연적 성취 (고레스, 바벨론 70년 포로 등):
6.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왕의 이름과 포로 기간까지 정확히 예언하고 글자 그대로 성취된 것은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1.8.7~8).
7. 폭군들의 소각과 박해를 이겨낸 기적적 말씀 보존 (*Conservatio Scripturae*):
8.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부터 로마 황제들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지상에서 절멸시키려 했던 모든 사탄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손상됨 없이 기적적으로 보존되었습니다 (1.8.10).
9. 성경의 2차적 보조 수단 (*Subsidia*)으로서의 이성적 증거:

회의와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복된 보조 도구입니다 (1.8.13).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말씀 권위 진단]: 나는 성경을 인간의 사상이나 문학 작품 중 하나가 아니라, 영혼의 골수를 쫓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2. [역사성 확신 진단]: 성경의 구속 역사가 허구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인류 역사 한복판에서 완벽히 성취된 객관적 진리임을 지성적으로 확신하는가?
3. [이성 도구 진단]: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성경 위에 군림시키는 교만을 버리고, 성경의 진리를 변증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보조 도구(*Subsidia*)로 선용하고 있는가?
4. [보존 감사 진단]: 수천 년간 폭군들의 칼날과 소각 속에서도 성경을 온전히 보존하여 오늘 내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5. [순교 신앙 진단]: 피 흘려 성경을 지켜낸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 세속의 조롱과 물질주의 풍조 앞에서도 타협 없이 성경의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 [인도자를 위한 목회적 코칭 팁]

1. 본 모임에서는 성도들이 성경의 권위가 맹목적인 억측이나 반지성주의가 아니라, 인류 역사와 이성의 영역에서도 당당하게 입증되는 객관적 진리임을 확신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성령의 내적 증거(제7강)가 믿음의 굳건한 기초라면, 객관적 역사와 증거(제8강)는 그 믿음을 세상의 회의론과 의심 속에서 굳게 붙들어 주는 든든한 보조 도구(*Subsidia*)임을 균형 있게 가르쳐 주십시오.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질문: 살면서 "성경이 진짜 역사적 사실인가? 아니면 교묘히 꾸며낸 신화인가?"라는 세상의 의심이나 질문을 마주했을 때의 경험이 있습니까?
- 인도 팁: 인도자가 먼저 학창 시절이나 직장에서 성경을 신화나 설화 취급하는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나누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2단계: 본문 속으로 (Primary Source Reflection, 15분)]

-
- 쫓개는 천상적 위엄을 갖는다고 보았습니까?
- 인도 팁: 현란한 언어적 수사학과 심령을 근본적으로 거둬나게 하는 성령의 말씀의 생명력의 본질적 차이를 함께 짚어주십시오.

[3단계: 삶과 사역으로 (Application, 12분)]

- 질문: 모세의 사심 없는 정직성, 이사야의 고레스 예언 성취, 로마와 폭군들의 소각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보존된 역사 중 나에게 가장 큰 지성적 전율과 확신을 준 증거는 무엇입니까?
- 인도 팁: 기독교 신앙이 허공에 뜬 관념이 아니라, 실제 인류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성취하신 살아있는 증거임을 조원들이 고백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4단계: 합심 기도와 파송 (Prayer & Commission, 6분)]

- 질문: 성경을 '믿음을 돕는 2차적 보조 도구(Subsidia)'로 규정한 칼빈의 균형 잡힌 가르침 앞에서, 이번 주간 회의적인 세상을 향해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지성적이고 담대하게 증언하겠습니까?
- 합심 기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박해와 불꽃 속에서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일 점 일 획도 변함없이 보존하여 오늘 우리 손에 쥐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과 회의주의 앞에서도 결코 주눅 들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심장에 새겨주신 확실한 믿음과 역사 속에 빛나는 객관적 증거들을 힘입어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언하는 성숙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과학과 고고학적 증거만으로도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에는?
- A: 이성적 증거는 의심의 장벽을 낮추는 2차적 보조 수단(Subsidia)일 뿐, 사람의 심령을 거둬나게 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임을 설명해 주십시오(고전 2:14).
- Q2: 역사 비평학이나 성경 오류설을 접하고 흔들리는 청년 성도에게는?
- A: 수천 년간 성경을 파괴하려던 제국과 학자들은 다 사라졌으나 성경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정직한 증언과 순교자들의 피의 역사를 나누어 믿음의 반석을 견고히 해주십시오.

제09강: 직통 계시파의 오류와 성경의 충족성

[부제] 말씀 없는 성령과 성령 없는 말씀의 함정 — 왜 직통 계시는 교회를 파괴하는 영적 교만인가?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9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교재 범위: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 (Book I)
제09주차 — 제1권 제9장 (1.9.1~3) - 강의 구성: 정식 60분 강독 강의 +
30~45분 소그룹 심화 나눔 모듈 - 핵심 주제: 열광주의자(Fanatici)의 기만,
말씀과 성령의 불가분적 연합, 성령의 시금석으로서의 성경,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와 성경의 충족성 - 텍스트 색상 체계: - ● 네이비 (#182B49):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라틴어
원전 정본 핵심 발췌 (*Institutes Excerpts*) -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직통 계시/열광주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우리는 지난 제7강과 제8강에서 성경의 절대적 권위가 '성령의 내적 증거(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에 기초하며, 수많은 역사적·이성적 표지들이 이를 든든히 뒷받침한다는 개혁신학의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그러자 종교개혁 당시 한편에서는 로마 가톨릭의 교권주의가, 다른 편에서는 매우 기만적인 반대편 극단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재세레파 중 급진적인 열광주의자들(Fanatici, 광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표정을 지으며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우리를 얹매는 죽은 문자(Litera Mortua)에 불과하다. 우리는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고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 성경에 갇혀 있는 자들은 초보적인 신앙에 머문 자들이요, 우리는 영의 높은 경지에 오른 자들이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어젯밤 하나님이 내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다", "새로운 예언의 환상을 보았다"며 기록된 성경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거나, 성경을 뛰어넘는 개인적 직통 계시를 자랑하는 신비주의적 탈선이 독버섯처럼 번져 있습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9장의 3개 절 전체를 할애하여, 이러한 열광주의자들의 교만을 성경의 서슬 퍼런 칼날로 통렬하게 베어냅니다:

“성령은 결코 기록된 성경을 폐기하거나 새로운 계시를 추가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이 친히 성경에 새겨두신 바로 그 진리를 우리 영혼에 인치시고 조명하시며,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방식으로만 역사하신다. 말씀 없는 성령을 자랑하는 자는 사탄의 거짓에 미쳐 날뛰는 광신자요, 성령 없는 말씀을 쥐고 있는 자는 생명 없는 형식주의자에 불과하다!” (1.9.1-3)

칼빈은 말씀과 성령을 쪼개어 교회를 허물려는 모든 마귀적 기만을 분쇄하고, ‘말씀과 성령의 불가분리적 연합(Inseparable Union of Word and Spirit)’이라는 개혁신학의 불멸의 금자탑을 세웁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1. 16세기 열광주의(Fanaticism)와 현대 신사도적 직통 계시 사상이 왜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기초를 파괴하는지 규명한다 (1절).
2. 이사야 59장 21절의 영원한 언약에 기초하여 ‘말씀과 성령의 불가역적 일체성’ 교리를 체계화한다 (1~2절).
3. 삼총천의 계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철저히 매였던 모범을 통해, 성경의 완전한 충족성을 확립한다 (2~3절).
4. 주관적인 신비 체험과 내면의 환상을 분별하는 유일한 잣대로서 기록된 성경의 권위 아래 안식하는 거룩한 삶을 실천한다 (3절).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치명적 유혹과 영적 실패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광신자들의 영적 망상과 교만 분쇄 (1.9.1)

- 한 몸 (1.9.1~2)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성령과 말씀의 상호 인침과 성경의 완전한 충족성 (1.9.3)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기록된 말씀의 반석 위에 영혼을 닦 내려라
- 54:00 ~ 60:00 (6분): [마침 및 합심 기도] 거룩한 지성적 예배자로서의 결단 기도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치명적 유혹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강독할 『기독교 강요』 제1권 제9장은 현대 기독교 생태계에서 가장 많은 영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강의 라틴어 원제를 보십시오:

“성경을 버리고 계시들을 좇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시킴 (*Fanatici, posthabita Scriptura, ad revelationes transvolantes, omnia pietatis principia subvertunt*)”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들었습니다. 이번 사업에 투자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젯밤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특별한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성실하게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을 향해 ‘영적으로 둔하고 메마른 문자주의자’라며 은근히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 핫라인이 연결되어 더 높은 영적 계급에 속해 있다는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16세기 종교개혁 현장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자들이 횡행했습니다. 칼빈은 그들을 점잖게 ‘신학적 이견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라틴어로 ‘파나티키(*Fanatici*)’, 즉 ‘미치광이 광신자’라고 불렀습니다. 토마스 뮌처(Thomas Müntzer)와 츠비카우의 예언자들, 그리고 뮌스터 반란을 일으켰던 급진 재세레파 광신자들은 한결같이 "성경은 죽은 문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경을 버리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를 좇아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사탄의 거짓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한 그들은 무서운 폭동과 도덕적 방종, 교회의 파멸이라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광신주의가 반대편 극단인 로마 가톨릭의 교황주의와 본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사실입니다! 로마 교황은 "성경의 뜻을 성령 안에서 최종 결정하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며 성경 위에 군림하려 하고, 열광주의자들은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며 성경을 초월하려 합니다. 성경 밖에서 성령의 권위를 빙자한다는 점에서, 교황주의와 열광주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사탄의 똑같은 거짓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사탄의 가장 교활한 올무에 걸려 영적 광란에 빠진 비극입니다.

오늘 60분의 강독을 통해, 칼빈의 날카로운 신학적 통찰을 배우며 말씀과 성령의 참된 관계를 정립하고,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영적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광신자들의 영적 망상과 교만 분쇄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엘 그레코의 『오순절 성령 강림』 (1600) & 1절 원전 강독)

칼빈은 제1절의 첫 문장에서부터 추상같은 일격을 가합니다:

“성경을 버리고서, 이런저런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자들이 있으나, 이들은 단순한 오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광란(*furor*)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 아주 경솔한 사람들이 일어나 극도로 오만한 태도로 성령의 가르치심을 자랑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성경 읽기를 전적으로 멸시할 뿐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단순함을 고수하는 다른 사람들의 순진함을 비웃고 있다!” (1.9.1)

이 광신자들의 심리 밑바닥에는 가증한 영적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어린이들이나 보는 초보적인 교재’로 취급하고, 자신들은 직통 계시의 구름을 타고 날아다닌다고 착각합니다.

칼빈은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영에게서 조명을 받았는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무시한 자가 있었는가?”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엘 그레코의 명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처럼 성령이 강림했을 때 사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에 취해 허황된 새로운 교리를 지껄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별떡 일어나 요엘 선지자의 글과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행 2:16)”라며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성령 강림의 순간에 사도들은 가장 철저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의 성취를 증언했습니다.

끓는 것입니다.

칼빈은 탄식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이외에 전혀 다른 마귀의 영에 취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감히 성령의 이름으로 성경을 멸시할 수 있단 말인가!” (1.9.1)

직통 계시를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사탄이 파놓은 자만의 함정에 빠져 멸망으로 치닫는 가련한 영혼들입니다.

[제2대지] 말씀과 성령의 불가역적 연합: 이혼할 수 없는 한 몸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9 제시: 렘브란트의 『사도 바울』 (1657) & 이사야 59:21 광채 성구 패널)

이어 칼빈은 제2절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소환하여 광신자들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그는 살아서 삼층천(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계시를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만약 인류 역사상 직통 계시를 자랑하며 성경을 덮어도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슬라이드 7에 제시된 렘브란트의 명작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백발이 성성한 노사도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칼을 곁에 두고 무엇을 응시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성경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돋보기를 든 채 밤을 지새우며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죽음을 앞둔 로마 지하 감옥에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간청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겹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축 종이에 쓴 것(구약 성경 두루마리)을 가져오라 (딤후 4:13).”

그리고 디모데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딤후 4:13).”

“삼층천의 신비를 보았던 바울조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교훈받기를 평생 그치지 않았고, 성경 읽는 일에 전념하라고 제자에게 명했는데, 오늘날 대체 어떤 가증한 영이 임했기에 성경을 낡은 것으로 치부하고 직통 계시를 지껄인단 말인가!” (1.9.1-2)

칼빈은 이사야 59장 21절의 영원한 언약을 선포합니다 (슬라이드 9의 광채 성구 패널):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사 59:21)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성령)’과 자신의 ‘말(말씀)’을 영원히 결합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결코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항상 기록된 말씀과 함께(Cum Verbo), 말씀 안에서(In Verbo), 말씀을 통하여(Per Verbum)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결코 자신과 모순되는 새로운 계시를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자신이 바로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자신이 쓰신 책을 완벽히 기억하시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비로소 자신의 신적 권위를 확증하십니다.

[제3대지] 성령과 말씀의 상호 인침과 성경의 완전한 충족성 (34:00 ~ 46:00)

(슬라이드 8, 10 & 11 제시: 고후 3:6 왜곡 분쇄,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 4대 비교 매트릭스)

이제 칼빈은 제3절에서 광신자들이 가장 즐겨 악용하던 성경 구절, 즉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왜곡을 뿌리째 뽑아냅니다.

광신자들은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성경 글자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의 영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궤변을 부렸습니다.

칼빈은 바울의 문맥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바울이 거기서 비판한 것은 기록된 성경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생명력이 결여된 ‘율법주의자들의 외적 조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복음의 말씀은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경을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안에서 복음의 생명으로 성경을 읽어야 함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시합니다 (슬라이드 10):

엠마오로 내려가던 절망에 빠진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보여주시며 “내가 부활했으니 성경은 이제 필요 없다”고

오히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눅 24:27).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눅 24:45)!”

칼빈의 주옥같은 논증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던져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지혜로워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바르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성령의 조명은 성경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룩한 은혜이다!” (1.9.3)

성경은 닫힌 정경(*Closed Canon*)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100%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의 직무는 새로운 계시를 주는 ‘계시 사역’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을 성도의 심장에 깨닫게 하시는 ‘조명 사역(Illuminatio)’입니다.

성경 66권 외에 새로운 직통 계시를 덧붙이려는 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모독하는 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의 무서운 재앙을 자초하는 자입니다.

[제4대지 및 결론] 기록된 말씀의 반석 위에 영혼을 닦 내리라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현대적 적용, 소그룹 질문 4선, 송영과 결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며 우리의 신앙 현실을 엄숙히 돌아봅시다.

왜 현대 교회 성도들이 직통 계시와 주관적 예언의 유혹에 그토록 쉽게 흔들리니까?

그것은 매일의 성실한 성경 읽기와 묵상이라는 좁은 길을 걷기 싫어하고, 손쉽게 ‘하늘의 비밀’을 얻어내려는 종교적 게으름 때문입니다.

내 감정과 주관적 느낌은 날씨처럼 변덕스럽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것 같다가도 내일은 절망의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내면의 느낌이나 주관적인 음성에 기초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탄의 가벼운 입바람에도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수천 년의 비바람과 피비린내 나는 박해 속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보존된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평신도 삶의 적용] 성도 여러분, 허황된 환상과 주관적인 느낌을 좇아 영적 방향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경솔한 말을 멈추고, 매일 무릎 꿇고 성경을 펼치십시오.

가슴을 치시고,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딤후 3:16-17).

말씀 없는 성령의 광기를 배격하고, 성령 없는 말씀의 메마름을 배격하며, 오직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연합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지성적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열광주의(Fanaticism)의 본질적 죄악 — 영적 광란(*Furor*)과 마귀적 교만:
 2. 성령을 핑계로 기록된 성경을 멸시하는 자들은 높은 영성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울무에 걸려 미쳐 날뛰는 영적 광란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1.9.1).
 3. 말씀과 성령의 불가분리적 연합 (*Inseparable Union*):
 4. 이사야 59:21에 따라 하나님의 영(성령)과 입에 두신 말(말씀)은 영원토록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Cum Verbo*), 말씀 안에서(*In Verbo*), 말씀을 통하여(*Per Verbum*) 역사하십니다 (1.9.1~2).
 5. 사도 바울의 성경 집착과 삼충천 계시의 균형:
 6. 셋째 하늘의 신비를 직접 목격한 사도 바울조차 평생 구약 성경에 매여 말씀을 상고했고, 디모데에게 성경 읽기에 전념하라 명했습니다 (1.9.2).
 7. 엠마오 도상 그리스도의 성경 조명 사역 (*Illuminatio*):
 8.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목적은 성경을 버리게 함이 아니라,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성경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눈을 열어주는 조명 사역입니다 (1.9.3).
 9. 닫힌 정경(Closed Canon)과 성경의 완전한 충족성 (*Sufficientia Scripturae*):
 10.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도들의 기록으로 특별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성경 66권 외에 새로운 계시를 덧붙이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충족성을 모독하는 배교입니다 (1.9.3).
-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주변에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며 성경보다 자기 체험을 앞세우는 사람을 만나 당황했거나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신비주의적 간증에 위축되었거나 반대로 미혹될 뻔했던 솔직한 경험을 털어놓게 하고, 주관적 체험이 지닌 위험성에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이끕니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이사야 59:21과 말씀-성령의 연합):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영(성령)과 입에 두신 말(말씀)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습니까?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이 필연적으로 이단이나 광신으로 끝나는 신학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 2 (사도 바울과 엠마오 제자들의 모범): 삼층천을 보았던 바울이 평생 구약 성경에 매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눅 24:45)이 오늘날 직통 계시파에게 주는 결정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문자와 영의 참된 의미): 고린도후서 3:6의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는 구절을 악용하여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에게, 칼빈의 논증을 바탕으로 어떻게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권면하겠습니까?
- 질문 4 (성경의 충족성과 일상의 인도): 인생의 중대한 진로나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기이한 음성이나 즉흥적 표적을 구하는 대신 기록된 성경 66권의 지혜와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신비주의의 유혹을 경계하되,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까지 거부하는 차가운 지식주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기도로 이끄십시오.
- 공동 기도 제목:

- 물리치고, 닫힌 성경 66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말씀의 진리가 삶의 거룩한 열매로 맺히게 하소서.
- 우리 가정이 사람의 변덕스러운 말이나 느낌이 아니라,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제10장: 성경이 증언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부제] 우상의 안개를 걷어내는 계시의 빛 — 성경은 어떻게 모든 이방 신들을 물리치고 참 하나님을 알리는가?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10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교재 범위: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 (Book I)
제10주차 — 제1권 제10장 (1.10.1~3) - 강의 구성: 정식 60분 강독 강의 +
30~45분 소그룹 심화 나눔 모듈 - 핵심 주제: 창조 세계와 성경 계시의 일치,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성호와 속성(출 34:6-7), 하나님 지식의 실천적 성격
(*Qualis sit erga nos*), 우상과 이방 신들의 배격 - 텍스트 색상 체계: - ● 네이비
(#182B49):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라틴어 원전 정본 핵심 발췌 (*Institutes Excerpts*) -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철학적 사변/다신교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에서 9장에 이르기까지 참된 신지식의 기초를 정초해 왔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진 본성적 종교의 씨앗(제3~4강)과 온 우주에 찬란히 펼쳐진 일반 계시(제5강)가 인간의 죄악과 맹목으로 인해 왜곡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안경(제6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성령의 내적 증거(제7강)와 객관적 이성적 증거들(제8강)에 의해 확증되며,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제9강).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라는 거룩한 창문을 활짝 열고 물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소개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세상 철학자들이 말하는 막연한 절대자나 우주의 원리와 성경의 하나님은 무엇이 다른가?”

존 칼빈은 제1권 제10장에서 바로 이 질문에 답합니다. 강의 라틴어 원제를 보십시오:
“성경은 모든 미신을 교정하기 위하여 열방의 모든 신들을 배제하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대면시킴 (*In Scriptura, ad corrigendam omnem superstitionem, collidi unum verum Deum exclusive ad omnes deos gentium*)”

칼빈은 세속 철학자들의 공허하고 차가운 추상적 사변을 가차 없이 분쇄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허한 사변으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홀로 계시 때 어떠한 분인가를 논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분이신가(*non quid sit apud se, sed qualis erga nos*)를 계시하는 책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영원성, 권능, 지혜, 선하심, 공의, 자비라는 생생한 속성들을 통해 우리 영혼에 참된 경건과 예배를 불러일으키시는 살아계신 창조주이시다!” (1.10.2)

칼빈은 모세에게 계시된 여호와와 성호(출 34:6-7)와 선지자 예레미야의 증언(렘 9:23-24)을 통하여, 모든 우상의 거짓 안개를 걷어내고 성경이 증언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영광을 눈부시게 드러냅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1. 창조 세계의 일반 계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과 성경의 특별 계시가 어떻게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지 규명한다 (1절).
2. 출애굽기 34:6-7에 선포된 여호와와 신적 속성들을 분석하여 개혁주의 신론의 핵심을 체계화한다 (2절).
3. 신지식의 본질이 ‘공허한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Qualis erga nos*)’에 있음을 확립한다 (2절).
4. 열방의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오직 성경의 참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선다 (3절).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철학자의 하나님인가, 성경의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일반 계시와 성경 계시의 완벽한 조화와 일치 (1.10.1)

- 속성 (1.10.2)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사변적 본질이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Qualis erga nos*) (1.10.2)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열방의 거짓 신들을 배제하고 참 하나님만 자랑하라 (1.10.3)
- 54:00 ~ 60:00 (6분): [마침 및 합심 기도]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는 결단 기도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철학자의 하나님인가, 성경의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강독할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0장은 기독교 신론의 가장 아름다운 서막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라고 물으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말문이 막히거나 막연하게 대답합니다: “그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알라를 믿는 무슬림도, 제우스나 아폴로를 섬기던 고대 헬라인들도, 심지어 자연 만물을 신격화하는 범신론자들도 “하늘에 전능한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막연한 절대자와 무엇이 다른니까?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기독교 사상가였던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은 회심의 밤에 곁옷 안쪽에 꿰매어 평생 품고 다녔던 양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확신, 감격, 평안, 기쁨, 눈물!”

파스칼이 고백했던 바로 그 하나님, 철학자들의 메마른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제10장입니다.

한계 안에서 신을 논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저 높은 천상에 홀로 앉아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부동의 원동자(Unmoved Mover)'이거나 비인격적인 우주의 이성(Logos)에 불과했습니다. 그 신에게는 인간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도 없고,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는 귀도 없으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는 사랑도 없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얼음 조각 같은 관념의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신음하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들의 근심을 알고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시는 살아계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출 3:7-8).

칼빈은 성경을 펼쳐 들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짜낸 신화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베일을 벗으시고 “내가 바로 여호와다!”라고 선포하신 거룩한 계시의 책입니다.

오늘 60분의 강독을 통해, 우상의 짙은 안개를 걷어내시고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전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창조의 일치성: 피조 세계와 성경 계시의 조화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라파엘로의 『성체의 논의 - 성부 하나님』 (1509) & 1절 원전 강독)

칼빈은 제1절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연결 고리를 제시합니다.

앞서 제5장에서 우리는 우주 만물의 창조와 질서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이 찬란히 새겨져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과 다른 분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칼빈의 명쾌한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창조 세계에 새겨져 있는 지식과 정확히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성경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게 하며, 완벽한 안내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한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는 바는, 우리가 이미 피조물들의 거울 속에서 목격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한다!” (1.10.1)

슬라이드 5에 제시된 라파엘로의 프레스코화 『성체의 논의 - 성부 하나님』을 보십시오.

바티칸 사도 궁전 서명의 방에 그려진 이 그림에서, 성부 하나님은 천사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한 손에는 우주를 상징하는 구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온 세상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과 성경을 주신 분은 동일하신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게시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똑같은 지혜와 선하심을 훨씬 더 밝고 분명한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인간의 눈이 어두워져 피조물을 바라보면서도 우상 숭배의 수렁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거룩한 안경을 씌워주셔서 창조 세계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똑똑히 읽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자연의 하나님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희미해진 하나님의 얼굴을 본래의 눈부신 영광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화상입니다.

[제2대지] 모세에게 계시된 여호와와 성호와 거룩한 속성 (22:00 ~ 34:00)

(슬라이드 6 & 9 제시: 출애굽기 34:6-7 광채 성구 패널 & 신적 속성 체계)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칼빈은 제2절에서 구약 성경의 가장 웅장한 신현(Theophany)의 현장인 시내산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언약을 깨뜨렸을 때, 모세는 반석 틈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앞으로 지나시며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친히 반포하셨습니다. 슬라이드 9의 광채 성구 패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여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출 34:6-7)

칼빈은 이 본문을 들며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 거듭 불리는 것을 본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나열되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비, 은혜, 인내, 선하심, 진실하심을 선포하시며, 동시에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심판관이심을 천명하신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의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신적 속성을 이 짧은 말씀 속에 남김없이 완벽하게 압축해 놓았다!” (1.10.2)

칼빈의 설명을 따라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해 보십시오:

첫째, 자존성과 영원성: 스스로 계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셋째, 추상같은 공의와 거룩: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한 공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는 유약한 신이 아니며, 공의만 있고 자비가 없는 잔혹한 폭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공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찬란하게 빛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균형이 마침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제3대지] 지식의 실천적 성격: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Qualis erga nos*) (34:00 ~ 46:00)

(슬라이드 7 & 8 제시: 렘브란트의 『벨사살의 주연』 (1635) & 2절 원전 강독)

이제 칼빈은 제2절 후반부에서 개혁주의 인식론의 가장 위대한 대명제를 선언합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은 신학에 앉아 하나님의 본질이 둥근지 네모난지,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지를 두고 공허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철학적 현학을 쓰레기처럼 내던집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한가한 사변으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기 홀로 계시는 때 어떠한 분인가(*quid sit apud se*)를 묻는 것은 인간의 교만한 월권이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분이신가(*qualis sit erga nos*)를 계시한다!” (1.10.2)

이 라틴어 문장 ‘쿠알리스 시트 에르가 노스(*Qualis sit erga nos*)’를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지식은 머리로만 따지는 차가운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내가 비참한 고난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사탄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도 나를 지켜내실 전능자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세상의 불의와 억울함 앞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 떠는 경외감입니다.

슬라이드 7에 제시된 렘브란트의 걸작 『벨사살의 주연』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금잔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며 금, 은, 구리 우상들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허공에서 신비한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의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나님은 관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오만을 꺾으시고 역사를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칼빈은 예레미야 9장 23~24절을 인용하며 강의의 절정을 맺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렘 9:23-24)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의 유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내 삶의 현장에서 맛보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격적 연합입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우상의 허무함과 오직 여호와께 돌릴 영광 (46:00 ~ 54:00)

(슬라이드 10, 11, 12, 13 & 14 제시: 우상 풍자, 4대 비교 매트릭스, 소그룹 워크숍, 송영)

마지막으로 칼빈은 제3절에서 세상의 모든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단호히 쓸어버립니다.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입니다.

어떤 자들은 태양과 달을 숭배하고, 어떤 자들은 나무와 돌을 깎아 신으로 섬기며, 현대인들은 돈과 성공과 자기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러나 성경 시편 115편 4~8절의 엄숙한 풍자를 들으십시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칼빈은 하박국 2장 20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경은 모든 인간의 거짓 우상들을 침묵시키고,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우뚝 세우신다!” (1.10.3)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헛된 우상들을 성경의 빛 앞에 내던지십시오.

출애굽기 34장에서 선포하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신 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세상 모든 헛된 신들을 버리고, 오직 성경이 증언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평생의 기쁨으로 삼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완벽한 일치 (Unity of Revelation):
2. 창조 세계에 새겨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며, 인간의 죄악된 맹목만이 이를 분리시킵니다 (1.10.1).
3. 출애굽기 34:6-7의 신적 속성 선포 (Divine Attributes):
4. 여호와라는 영원 자존의 성호 위에 자비, 은혜, 인자, 진실, 공의라는 5대 속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반포되었습니다 (1.10.2).
5. 공허한 사변(*Quid sit*) 배격과 관계적 신지식(*Qualis erga nos*):
6.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할 때 어떠한 분인가를 사변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하여 참된 경건을 낳는 책입니다 (1.10.2).
7. 열방 우상들의 철저한 배제 (Exclusio Idolorum):
8.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열방의 모든 거짓 우상과 인간이 고안한 종교적 투사를 철저히 분쇄하고 배제할 때만 온전히 보존됩니다 (1.10.3).
9. 신지식의 최고 열매: 오직 여호와를 아는 자량 (렘 9:23-24):
10. 지혜, 용맹, 부함을 자랑하는 세상의 교만을 버리고,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성도의 유일한 영원한 자량입니다 (1.10.3).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예: 엄한 심판관, 다정한 아버지, 막연한 우주의 힘 등) 그 이미지는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가 성경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나 세속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주관적 상상인지 솔직히 돌아보도록 유도합니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출애굽기 34:6-7과 신적 속성):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자신의 성품(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와 진실, 공의로운 보응) 중에서 오늘 내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는 속성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 2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Qualis erga nos): 칼빈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홀로 계시실 때 어떠한 분인가(추상적 사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분인가(실천적 관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렘브란트 벨사살의 주연과 현대 우상):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며 금은 우상을 찬양하다 심판을 받았듯이, 오늘날 21세기 현대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숭배하는 현대판 우상(돈, 권력, 인정 욕구)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분별하고 끊어내겠습니까?
- 질문 4 (예레미야 9:23-24와 참된 자랑): 세상은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라고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만을 자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번 주간 내 삶에서 세상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뻐할 구체적 영역은 무엇입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의 사변이 아니라 가슴의 경배와 삶의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기도를 인도하십시오.
- 공동 기도 제목:
- 철학적 사변이나 내 주관적 상상을 버리고, 오직 성경 66권이 계시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바르게 알고 경배하게 하소서.
-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물질, 명예, 자아 숭배의 모든 우상을 성령의 불로

-

여호와를 아는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게 하소서.

제11강: 우상 숭배의 불경함과 형상 제작 금지

[부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물질에 가두는 죄 — 형상 숭배의 오류와 영적 예배의 회복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11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교재 범위: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 (Book I)
제11주차 — 제1권 제11장 (1.11.1~16) - 강의 구성: 정식 60분 강독 강의 +
30~45분 소그룹 심화 나눔 모듈 - 핵심 주제: 가시적 형상 제작의 불경함(출
20:4), "문맹자의 책"이라는 로마 가톨릭 궤변 격파, 인간 마음의 우상 제조 공장
(*Idolorum Fabrica*), 예술의 정당한 사용과 영적 예배 - 텍스트 색상 체계: - ●
네이비 (#182B49):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라틴어 원전 정본 핵심 발췌 (*Institutes Excerpts*) -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형상 숭배/미신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우리는 지난 제10강에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거짓 신들을 물리치고
홀로 영광 받으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Idolatria*)'와의 싸움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유럽의 교회당들은 금과 은, 대리석과 나무로 깎아 만든 수많은 성자들의
상과 마리아상, 심지어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의 모습으로 조각된 성부 하나님의 형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의 말을 인용하며 이를 정당화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가련한 평신도들에게 성상과 그림은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문맹자들의 거룩한 책(Libri Idiotarum)’이다.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 나쁜단 말인가?”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1장의 방대한 16개 절 전체를 쏟아부어, 이 가증한 변명을 성경의 도끼로 가차 없이 찍어버립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께 가시적인 물질의 형상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위엄에 대한 가장 극악한 모독이다! 형상을 세우는 자는 누구든지 이미 참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거짓에 무릎 꿇은 자이다. 우상은 결코 문맹자의 책이 될 수 없으며, 성경 선지자들의 선언대로 오직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스승(Doctor Mendacii)’일 뿐이다!” (1.11.1, 5)

칼빈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향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심리학적·신학적 진단을 내립니다:

“인간의 마음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구적인 공장이다 (*Mens humana perpetua idolorum fabrica est!*)” (1.11.8)

오늘 60분의 강독을 통해, 눈에 보이는 형상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인간의 욕욕을 깨뜨리고,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1. 십계명 제2계명과 신명기 4:12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왜 신적 본질에 대한 치명적 모독인지 성경적으로 변증한다 (1~2절).
2. “성상은 문맹자의 책”이라는 로마 가톨릭의 궤변을 하박국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논박하고 참된 교육의 원리를 확립한다 (3~7절).
3.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는 칼빈의 인간론적 통찰을 통해 내면의 은밀한 우상 숭배 본능을 해체한다 (8~10절).
4. 예술과 회화의 올바른 영역(역사와 자연)을 인정하되, 하나님 예배에 물질적 매개체를 배제하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선다 (11~16절).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간의 욕욕 (1.11.1)

- (1.11.1~7)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인간의 마음은 영구적인 우상 제조 공장이다 (1.11.8~10)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개혁주의 예술관과 제2차 니케아 공의회 비판 (1.11.11~15)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의 회복 (1.11.16)
- 54:00 ~ 60:00 (6분): [마침 및 합심 기도] 마음의 우상을 깨뜨리는 회개와 결단 기도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간의 욕욕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가장 뜨거운 도화선이자, 오늘날 현대 교회의 심장을 뒤흔드는 준엄한 주제를 마주합니다.

바로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1장의 “우상 숭배의 불경함과 형상 제작 금지”입니다.

장의 라틴어 원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시적인 형상을 부여하는 것은 불경이며, 우상을 세우는 자는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참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것임 (*Deo tribuere visibilem formam nefas esse, ac generaliter deficere a vero Deo quicunque idola sibi erigunt*)”

인간에게는 타락 이후 지독하게 뿌리 깊은 영적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요구하는 조급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단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그들이 아론에게 물려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출 32:1)!”

그들은 애굽의 잡신을 섬기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여호와)이라(출 32:4)”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착각하면서, 여호와를 금송아지의 형상 속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편리한 하나님, 내 오감을 만족시켜 주는 감각적인 신앙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칼빈은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시각적 감각과 물질의 형상 속에 가두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가증한 배교입니다.

오늘 60분의 강독을 통해, 눈에 보이는 형상의 미혹을 깨뜨리고 오직 영원하신 영이신 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1대지] 제2계명의 엄위: 무한하신 영을 물질에 가두는 불경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필리프 드 샤파뉴의 『십계명 돌판을 든 모세』 (1648) & 1~2절 원전 강독)

칼빈은 제1절에서 십계명의 제2계명을 정면에 선포하며 논증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거짓 신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거의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 자체를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2계명의 천둥 같은 음성을 들으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 20:4-5)! 이 계명은 하나님을 물질적인 형태로 형상화하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를 원천적으로 박살 내고 있다!” (1.11.1)

슬라이드 5에 제시된 필리프 드 샤파뉴의 명화 『십계명 돌판을 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머리에서는 거룩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그의 두 손에는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거룩한 언약의 돌판이 들려 있습니다.

그 돌판에 새겨진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오직 여호와)”를 명하고,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형상 없는 영적 예배)”를 엄숙히 명령합니다.

왜 하나님은 형상 제작을 이토록 철저히 금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요 4:24).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나무나 돌, 금이나 은을 깎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내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칼빈의 서슬 퍼런 꾸짖음을 들으십시오:

“무한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5척 단신의 인간의 모습이나 짐승의 형상으로 조각해 놓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더러운 흙탕물에 짓밟히고 만다! 하나님을 물질로 묘사하려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무한한 위엄을 거짓으로 왜곡하는 자이다!” (1.11.1)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깊이 삼가라!” (신 4:12, 15)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자신의 거룩한 음성(말씀)만을 들려주셨지, 단 1밀리미터의 형상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귀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 순종하는 ‘말씀의 신앙’을 원하셨지, 눈으로 보고 만지작거리는 ‘감각적 우상의 신앙’을 증오하셨기 때문입니다!

[제2대지] "문맹자의 책"이라는 교황주의 궤변 분쇄 (22:00 ~ 34:00)

(슬라이드 6 & 8 제시: 하박국 2:18, 예레미야 10:8 선지자적 논박 & 교황령 격파)

이어 칼빈은 제3절부터 제7절에 걸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천년 동안 방패막이로 삼아왔던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의 궤변을 산산조각 냅니다.

교황주의자들은 “백성들이 글을 모르니, 성상과 그림을 성당에 걸어두어야 성경의 사건과 교리를 배울 수 있지 않은가?”라고 변명했습니다.

칼빈은 선지자들의 글을 들이대며 이들의 가증한 위선을 고발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8절에서 우상을 향해 무엇이라고 일갈했습니까?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 (Doctor Mendacii)이라!” (합 2:18)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예레미야 10장 8절에서 단호히 외쳤습니다: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렘 10:8)

칼빈의 날카로운 반문을 들으십시오:

“성경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우상이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스승’이요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선언하는데, 일개 로마 교황이 감히 무슨 권리로 우상을 ‘거룩한 문맹자의 책’이라고 미화한단 말인가!” (1.11.5)

우상은 왜 거짓 스승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해 놓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물질적인 존재’, ‘특정 장소에 갇혀 있는 존재’, ‘인간의 외모를 닮은 가변적인 존재’로 오해하게 됩니다.

참된 하나님에 대해 100% 왜곡된 거짓 정보를 주입하기 때문에 우상은 영혼을 죽이는 독극물입니다.

“교회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기를 게을리하고 병어리 개처럼 침묵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성상과 조각상이라는 병어리 우상들이 차지한 것이다! 참된 목자가 양 떼에게 성경 말씀을 먹였다면, 성상 따위의 헛된 미신에 교회가 무릎 꿇는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1.11.7)

교회의 유일하고 참된 책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림이나 조각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66권뿐입니다!

초대 교회의 위대한 교부들의 증언을 보십시오. 초대 교회는 수백 년 동안 교회당 안에 단 하나의 형상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4세기 살라미스의 주교 에피파니우스(Epiphanius)는 팔레스타인의 한 시골 교회를 지나가다 교회 문에 그리스도나 성자의 형상이 그려진 휘장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의 권위에 위배되는 가증한 일"이라며 자신의 손으로 그 휘장을 찢어 가난한 자의 수의로 쓰라고 던져버렸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물질적 형상이 자리 잡는 순간, 그 영혼은 필연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향한 영적 간음에 빠지게 된다."

로마 교회는 주후 787년 제2차 니케아 공의회를 들먹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트리아, Latría)와 성상에 드리는 공경(둘리아, Dulia)은 다르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궤변을 통렬히 조롱합니다: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우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올리면서, 마음속으로는 공경만 하고 예배는 안 했다고 우기는 것이 무슨 해괴망측한 말장난인가! 성경의 예언자들은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행위 자체를 가증한 우상 숭배라고 규정했다!" (1.11.11)

[제3대지]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34:00 ~ 46:00)

(슬라이드 7 & 9 제시: 루카스 크라나흐의 『율법과 복음』 (1529) & 1.11.8 명제 분석)

이제 칼빈은 제8절에서 불후의 명언을 남깁니다.

도대체 왜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가?

칼빈은 인간 심성의 심연을 해부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구적인 공장이다 (*Mens humana perpetua idolorum fabrica est*)! 인간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 육신의 정욕에 알맞은 가시적인 하나님을 스스로 주조해 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저주받은 본성을 지니고 있다!” (1.11.8)

24시간 밤낮없이 연기를 뿜어내며 새로운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입니다!

먼저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에 대한 헛된 망상을 품고(Concipere), 그 망상을 바탕으로 손이 우상을 만들어내며(Fabricare), 마침내 그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Adorare) 비참한 삼단계의 타락이 일어납니다.

슬라이드 7에 제시된 루카스 크라나흐의 걸작 『율법과 복음』을 보십시오.

그림의 왼쪽에는 율법의 정죄 아래 해골과 마귀에게 쫓겨 지옥 불로 떨어지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이 있고, 오른쪽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승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행위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만 죄와 우상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조각과 회화 예술 자체를 정죄하는 편협한 우상 파괴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1.11.12).

칼빈은 분명히 말합니다:

“회화와 조각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거나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는 예술은 지극히 정당하고 찬양받을 일이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화폭에 담으려 하거나, 인간이 예배할 목적으로 형상을 교회당에 세우는 것은 단호히 금지되어야 한다!” (1.11.12)

예술은 역사와 자연의 영역에 머물러야지, 결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의 회복 (46:00 ~ 54:00)

(슬라이드 10, 11, 12, 13 & 14 제시: 니케아 공의회 비판, 4대 비교 매트릭스, 소그룹 워크숍, 송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의의 결론을 맺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선언을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하나님은 금이나 은으로 장식된 화려한 성상 앞에서 드리는 시각적 퍼포먼스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고 떨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는 영적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평신도 삶의 적용]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마음의 우상 공장은 무엇을 찍어내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회개의 망치로 부수어 버리십시오!

우리에게는 성상이 필요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의 선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순결한 개혁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제2계명과 형상 제작의 절대적 불경성 (The Prohibition of Images):
2. 신명기 4:12에 따라 하나님은 형상 없이 오직 음성으로만 임하셨으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물질에 가두는 것은 신적 위엄에 대한 모독입니다 (1.11.1~2).
3. “문맹자의 책” 궤변 분쇄 — 거짓 스승(*Doctor Mendacii*):
4. 하박국 2:18과 렘 10:8의 선언대로 우상은 나무에 불과하며 거짓을 가르칠 뿐입니다. 강단에서 순전한 복음 설교를 회복하는 것만이 성도를 교육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11.5~7).
5. 인간 마음의 우상 제조 공장론 (*Perpetua Idolorum Fabrica*):
6. 인간의 타락한 지성은 헛된 신관을 잉태하고(*Concipere*), 손으로 주조하여(*Fabricare*), 그 앞에 무릎 꿇는(*Adorare*) 영구적 우상 생산 구조를 지닙니다 (1.11.8).
7. 개혁주의 예술관과 제2차 니케아 공의회 비판:
8. 하나님 예배에 시각적 형상을 도입한 제2차 니케아 공의회(787년)의 오류를 규탄하며, 예술은 역사 기록과 자연의 영역에 머물러야 함을 천명합니다 (1.11.11~15).
9.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영적 예배 (요 4:24):
10. 물질적 매개체 없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입니다 (1.11.16).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화려한 종교적 조각상이나 웅장한 성당 건축물을 보았을 때 압도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시각적 화려함이 주는 감동과 성경이 말하는 영적 경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 인도자 코칭 팁: 눈에 보이는 시각적 감각이 주는 일시적인 감정적 흥분이 참된 믿음과 혼동되기 쉬움을 짚어주고,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중요성으로 대화를 유도합니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십계명 제2계명과 신명기 4:12):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아무런 형상도 보여주지 않고 오직 '말소리(음성)'만을 들려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왜 신적 위엄에 대한 모독이 됩니까?
- 질문 2 (하박국 2:18과 거짓 스승): 로마 가톨릭은 성상을 '문맹자의 책'이라고 변명했으나, 성경은 왜 우상을 '거짓 스승'이라고 단언합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마음의 우상 공장 진단):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갈파했습니다.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내 마음의 공장이 가장 은밀하고 빈번하게 제조해 내는 현대판 우상은 무엇입니까?
- 질문 4 (참된 예배와 그리스도의 형상): 칼빈은 예술 자체(회화/조각)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술의 정당한 사용과 우상 숭배의 경계선은 어디이며, 우리는 어떻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외부의 눈에 보이는 성상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탐욕과 자기 의의 우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도록 기도를 인도하십시오.
- 공동 기도 제목:
 -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 생각과 감각의 틀 속에 가두려 했던 교만과 불경을 회개하게 하소서.
 - 내 마음속 우상 공장에서 쉬지 않고 찍어내는 물질, 명예, 자아만족의 우상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뜨려 주소서.

-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결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제12장: 하나님과 우상의 구별과 오직 주께만 돌릴 영광

[부제] 타협할 수 없는 영광의 주권 — 라트리아와 둘리아의 궤변을 넘어 오직
여호와께만 돌리는 참된 예배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12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교재 범위: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 (Book I)
제12주차 — 제1권 제12장 (1.12.1~3) - 강의 구성: 정식 60분 강독 강의 +
30~45분 소그룹 심화 나눔 모듈 - 핵심 주제: 예배의 배타적 주권(사 42:8),
라트리아(Latria)와 둘리아(Dulia) 궤변 분쇄, 루스드라 바울의 거절(행 14장)과
천사의 경고(계 19장), 온전하고 단독적인 예배(*In Solidum*) - 텍스트 색상 체계:
- ● 네이비 (#182B49):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 버진디 (#8B0000): 『기독교 강요』 라틴어 원전 정본 핵심 발췌 (*Institutes Excerpts*) -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성자/천사 숭배 궤변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우리는 지난 제11강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물질적 형상을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신적 모독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러자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묘한 언어적 장난을 통해 성상
숭배와 성자 숭배를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헬라어 어원을 교묘히 조작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성자나 천사나 성상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를 ‘라트리아(Latria)’라고 하고, 거룩한 성자들이나 천사들에게 바치는 공경을 ‘둘리아(Dulia)’, 그리고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특별한 공경을 ‘히페르둘리아(Hyperdulia)’라고 한다. 우리는 성자들을 ‘공경’할 뿐이지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코 우상 숭배가 아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2장에서 이 가증하고 뻔뻔스러운 궤변을 성경 원어와 성경 전체의 일관된 가르침으로 통렬하게 짓밟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영광을 그 어떤 피조물과도 나누지 않으신다! ‘라트리아’니 ‘둘리아’니 하는 교묘한 언어의 장막 뒤에 숨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만 속한 기도와 찬양과 신뢰를 성자들과 성상들에게 쏟아붓는 것은 하나님을 강도질하는 가증한 배교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단독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는(*nisi in solidum colatur*),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는 자이다!” (1.12.1-3)

칼빈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사 42:8)과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마 4:10),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숭배받기를 거부하며 옷을 찢었던 사도 바울의 결단(행 14장)을 소환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참된 개혁주의 예배론의 금자탑을 세웁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1. 이사야 42:8과 48:11에 제시된 ‘하나님의 영광의 배타적 주권’ 교리를 확립한다 (1절).
2. 로마 가톨릭의 ‘라트리아(Latria)’와 ‘둘리아(Dulia)’ 구분이 성경 원어적으로 왜 사기극이며 궤변인지 규명한다 (2절).
3. 사탄의 시험(마 4:10), 루스드라의 바울(행 14장), 밋모섬 천사의 경고(계 19:10)를 통해 피조물 숭배의 죄악성을 변증한다 (2~3절).
4. 종교적 성자 숭배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속적 ‘둘리아(돈, 성공, 인간 숭배)’를 분쇄하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다 (3절).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영광을 도둑맞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 (1.12.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이사야 42:8과 하나님의 배타적 영광 주권 (1.12.1)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라트리아와 둘리아의 궤변 분쇄 (1.12.2)

- 그리스도 (1.12.3)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현대의 분할된 마음을 치유하는 5대 자가진단
- 54:00 ~ 60:00 (6분): [마침 및 합심 기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결단 기도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영광을 도둑맞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이자 종교개혁의 가장 영광스러운 기치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의 절대적 토대를 다룹니다.

강의 라틴어 제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전히 홀로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우상과 구별되심 (*Deum ab idolis in hoc discerni, ut solus in solidum colatur*)”

칼빈이 여기서 사용한 라틴어 표현 ‘인 솔리둠(*In solidum*)’은 고대 로마법을 용어로서 ‘분할할 수 없는 전체로서, 100% 완전하게, 독점적으로’라는 엄중한 뜻을 지닙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예배를 그 어떤 피조물과도 99대 1이나 50대 50으로 나누어 가지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은 쪼갤 수 없는 완전체이며, 조금이라도 나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타협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존중하고, 조상님께도 절하고, 거룩한 성인들도 공경하면 얼마나 관용적이고 화목합니까? 90%는 하나님께 드리고 10%만 다른 유력한 성자나 천사에게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바로 이 간교하고 더러운 타협을 교리화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을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마다 성모 마리아를 끼워 넣었고, 뱃길에 위태로울 때는 니콜라스 성인을 불렀으며, 눈병이 나면 성 오딜리아를, 목이 아프면 성 블라시오를 찾았습니다.

성인들은 거룩한 중보 친구로서 가볍게 ‘공경(Dulia)’할 뿐입니다.”

칼빈은 이 가증한 변명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불타는 거룩한 질투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8장 11절에서도 주님은 다시 천둥처럼 올리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도둑맞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60분의 집중 강독을 통해, 인간이 고안해 낸 모든 간교한 궤변을 벗겨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영혼의 모든 사랑과 전적인 예배를 바치는 순결한 성도로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종교(Religio)의 본질과 나눌 수 없는 영광 (10:00 ~ 22:00)

(슬라이드 3 & 4 제시: 참된 종교와 미신의 구별, 1절 원전 강독)

칼빈은 제1절에서 고대 로마의 문장가 키케로(Cicero)와 교부 어거스틴(Augustine)의
문헌을 인용하며 ‘종교(Religio)’라는 단어의 어원을 치밀하게 분석합니다:

“키케로는 ‘렐리기오(Religio)’가 ‘다시 읽고 거듭 숙고한다’는 뜻의 ‘렐레게레
(Relegere)’에서 왔다고 보았으나, 교부 락탄티우스와 어거스틴은 ‘다시 단단히 묶는다’
는 뜻을 지닌 ‘렐리가레(Religare)’에서 유래했다고 가르쳤다. 참된 종교는 하나님을 잊고
방황하던 인간의 영혼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단단히 묶어두는 거룩한
끈이다! 반면에 인간이 이 거룩한 결속을 풀고 다른 피조물에게 마음을 나누어주는 순간,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미신(Superstitio)’으로 전락하고 만다!” (1.12.1)

칼빈은 키케로가 ‘미신’을 정죄하면서도 참된 예배를 알지 못했던 이교 철학의 무지를
지적합니다.

미신(Superstitio)이란 문자 그대로 ‘정해진 분량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망상에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미신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제1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출 20:3)”고 엄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 외에는’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내 얼굴 앞에서(*Al-Panay*)’, 즉 ‘내 목전에서’라는 뜻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단 한 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다른 피조물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는 것은, 남편의 눈앞에서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지르는 파렴치한 영적 간음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칼빈은 갈파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피조물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모독하는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극히 일부분이라도 피조물에게 양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100% 온전히 돌려드리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우상을 세우는 것과 다름없다!” (1.12.1)

[제2대지] 라트리아와 둘리아: 교황주의 언어 사기극 분쇄 (22:00 ~ 34:00)

(슬라이드 5 & 6 제시: 아리 세페르의 『그리스도의 유혹』 (1854) & 2절 원전 강독)

이제 칼빈은 제2절에서 로마 교회의 가장 비겁하고 간교한 변명거리인 ‘라트리아(*Latria*)’와 ‘둘리아(*Dulia*)’의 구분을 정면으로 해부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스콜라 신학자들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하여 교묘한 구분을 내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섬김을 ‘라트리아’라 했고, 피조물에게 드리는 일반적인 공경을 ‘둘리아’라고 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둘리아보다 더 높은 ‘히페르둘리아(*Hyperdulia*)’를 바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자들에게 둘리아를 바치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칼빈은 헬라어 성경 원문과 칠십인역(LXX)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인문주의 석학의 안목으로 이 궤변을 단번에 분쇄합니다:

“헬라어 고전 문헌과 신약 성경을 단 한 번이라도 정직하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둘리아’와 ‘라트리아’는 성경에서 구별 없이 완벽하게 상호 교환되어 사용된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가리켜 ‘둘리아’라고 무수히 증언하고 있으며, 둘 다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거룩한 종교적 예배를 뜻한다!” (1.12.2)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edouleusate)”

바울은 이방인들이 거짓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했던 끔찍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정확히 ‘둘리아’의 동사형인 ‘에둘레우사테’를 사용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논리대로라면 바울은 “너희가 우상에게 가벼운 존경만 표했다”고 칭찬한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둘리아(종노릇, 굴복, 섬김)를 바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증한 우상 숭배의 극치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아리 세페르의 명화 『그리스도의 유혹』을 보십시오.
높은 산꼭대기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단지 “내게 엎드려 절하라(*Proskynesis*)”고 요구했을 뿐입니다.
로마 교회의 논리대로라면, 그것은 ‘라트리아’가 아니라 가벼운 ‘둘리아’나 인사치레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 어떻게 호통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Latreueis*) 하였느니라!” (마 4:10)

예수님께서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외적 행위 자체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돌려야 할
절대적 예배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성자의 뼈 조각과 마리아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향을 피우며,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우리는 라트리아가 아니라 둘리아만 바쳤다”고
우겨댁니다.

칼빈의 통쾌한 조롱을 들으십시오:

“행위로는 이교도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무릎 꿇고 절하며
기도하면서, 입술로는 ‘단어의 철자가 다르다’고 핑계를 대면 하나님이 속으실 줄
아는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성자들의 발아래 입 맞추는 것은 유다의
입맞춤과 같은 배역이다!” (1.12.2)

[제3대지] 사도 바울과 천사의 거절: 피조물 숭배의 죄악성 (34:00 ~ 46:00)

(슬라이드 7, 8 & 9 제시: 스탈뎀트의 『루스드라의 바울과 바나바』 (1610s) & 행 14장,
계 19장)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엄숙하게 제시합니다.

슬라이드 7에 제시된 아드리안 판 스탈벤프의 명작 『루스드라의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견지 못하던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자, 루스드라 성읍의 제우스 신당 제사장이 화환과 소들을 끌고 와서 바나바는 ‘제우스’요 바울은 ‘헤르메스’라며 온 군중과 함께 제사를 지내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행한 위대한 사도이니, 적당한 존경과 돌리아는 감사히 받겠다”고 타협했습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이라!” (행 14:14-15)

바울은 자기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 행위는 극심한 슬픔과 신성모독의 현장을 보았을 때만 행하는 결단이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은 옷을 찢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끔찍한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경험을 보십시오.

밤모섬에서 천상의 찬란한 계시를 목격한 사도 요한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에 압도되어, 계시를 전해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했습니다 (계 19:10).

그때 천사가 어떻게 꾸짖었습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계 19:10, 22:9)

지극히 거룩하고 위엄 있는 천사조차 인간의 무릎 꿇음을 단 1초도 용납하지 않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타락한 인간들이 죽은 성자들의 뼈와 옷자락을 만지며 복을 빌고, 마리아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지옥에서 건져달라고 애원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통곡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칼빈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의 유일한 중보권을 천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자들에게 기도를 바치는 행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단번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불완전하다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자들의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그 어떤 피조물의 중보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결론적으로 ‘온전한 단독 예배(*Cultus in solidum*)’를 선포합니다 (슬라이드 10):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권능과 지혜와 구원의 영광을 홀로 차지하셔야 한다. 만약 우리가 성자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기도를 올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이 부족하다고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전히, 독점적으로 홀로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nisi in solidum colatur*)!” (1.12.3)

[제4대지 및 결론] 현대의 분할된 마음을 치유하는 참된 예배 (46:00 ~ 54:00)

(슬라이드 11, 12, 13 & 14 제시: 4대 비교 매트릭스, 현대적 적용, 소그룹 워크숍, 송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며 우리의 가슴에 솔직히 손을 얹어 봅시다. 우리는 성자상 앞에 촛불을 켜지는 않습니다. 마리아상에 입을 맞추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세상 우상 사이에서 영광을 분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거룩하게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돈의 위력 앞에 무릎 꿇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자녀의 세속적 성공에 영혼을 저당 잡히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현대판 ‘라트리아와 둘리아’의 가증한 타협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실제 삶의 안전과 평안은 통장의 잔고와 세상의 인맥에 맡겨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영적 배교입니다.

칼빈이 가르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5가지 자가진단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1. 내 마음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무릎을 꿇는 대상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인맥과 자산인가?
2. 내 감정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세상의 인정과 칭찬인가?
3. 내 미래의 보장은 누구의 손에 있는가?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인가, 연금과

4. 나는 교회 지도자나 설교자를 지나치게 신격화하고 있지 않은가?
5. 내 예배는 하나님 한 분께만 100%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In Solidum*)?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99%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100%를 요구하십니다.

[평신도 삶의 적용]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얹혀 드리십시오.

돈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권세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방패요 영원한 상급이십니다.

피조물을 향한 헛된 기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하나님의 영광의 배타적 주권 (Exclusive Sovereignty, 사 42:8):
 2.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찬송을 그 어떤 피조물이나 우상과도 결코 나누지 않으시며, 영광의 분할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1.12.1).
 3. 라트리아와 둘리아의 언어 사기극 분쇄:
 4. 성경 원어에서 라트리아와 둘리아는 구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혼용되며, 명칭만 바꾼다고 우상 숭배의 죄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1.12.2).
 5. 피조물 숭배의 절대적 거부 (마 4:10, 행 14:14-15, 계 19:10):
 6. 광야의 주님, 루스드라의 바울, 밧모섬의 천사 모두 피조물에게 엎드려 절하는 행위 자체를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선포했습니다 (1.12.2).
 7.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Solus Christus, 딤후 2:5):
 8. 성자나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모독입니다 (1.12.3).
 9. 온전한 단독 예배 (*Cultus In Solidum*, 1.12.3):
 10. 하나님을 100% 완전하게 홀로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는 자이며, 참된 예배는 영광의 독점을 요구합니다 (1.12.3).
-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내 삶에서 하나님 외에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마음의 안도감을 찾았던 세상적 대상(예: 통장 잔고, 직장 타이틀, 인맥, 자녀의 성적 등)은 무엇입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종교적 우상'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세속적 우상'의 실체를 정직하게 고백하도록 따뜻하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이사야 42:8과 영광의 배타성): 하나님께서는 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100% 온전히 돌려드리지 않고 나누는 것이 왜 하나님을 폐위시키는 행위가 됩니까?
- 질문 2 (라트리아와 둘리아 궤변 논박): 로마 가톨릭의 라트리아(예배)와 둘리아(공경) 구분이 왜 언어적 기만에 불과한지, 예수님의 광야 시험 본문(마 4:10)을 통해 설명해 보십시오.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루스드라 바울과 밧모섬 천사의 모범): 바울이 신격화 앞에서 옷을 찢고, 천사가 요한의 절을 가로막았던 이유(행 14장, 계 19장)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특정 사역자를 지나치게 우상화하는 풍토를 어떻게 경계해야 합니까?
- 질문 4 (온전한 단독 예배, In Solidum): "하나님을 온전히 홀로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는 자이다"라는 칼빈의 선언을 내 직장 생활과 가정 경제에 적용할 때 일어날 구체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삶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결단의 기도로 이끄십시오.
- 공동 기도 제목:

- 분열된 마음을 회개하게 하소서.
- 어떤 거룩한 피조물이나 사역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 우리 가정이 세상의 썩어질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만을 평생의 가훈과 꽃대로 삼게 하소서.

제13강: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 하나님

[부제] 하나의 본질 안에 계신 영원한 삼위 — 삼위일체의 신비와 역사적 이단의 논파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13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교재 범위: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 (Book I) 제13주차 — 제1권 제13장 (1.13.1~29) - 강의 구성: 정식 60분 강독
강의 + 30~45분 소그룹 심화 나눔 모듈 - 핵심 주제: 단일한 본질(*Una Essentia*)과 영원한 삼위(*Tres Personae*),
교회의 신학 용어(호모우시오스, 페르소나, 휘포스타시스), 성자와 성령의 참된 신성(요 1:1, 행 5:3-4), 상호내주
(*Perichoresis*), 역사적 이단(사벨리우스, 아리우스, 세르베투스) 논파 - 텍스트 색상 체계: - ● 네이비
(#182B49):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라틴어 원전 정본 핵심 발췌
(*Institutes Excerpts*) -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 ● 앰버 (#B8860B): 주
의해야 할 역사적 이단설(양태론, 종속론, 삼신론)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우리는 앞선 강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그 어떤 피조물이나
형상과도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주님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내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홀로 고독하게 침묵 속에 갇혀 계신 단일자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의 피상적 이성으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무한
하고 충만한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교제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까?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전체에서 가장 길고 치열한 29개 절로 이루어진 제13장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우리를 이끕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오직 하나의 단일한 본질(*Essentia*)이시며, 그 단일한 신적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된 삼위(*Tres Personae*)가 영원토록 공존하심을 가르친다!” (1.13.1)

칼빈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단일한 본질'만을 고집하고 '삼위의 구별'을 내버린다면, 우리의 머릿
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공허한 허상에 불과하며, 실상은 철학적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삼위의 구별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본질의 일체성을 깨뜨린다면, 우리는 가증한 다신론이나 삼신론의 수렁에 빠

오늘 60분의 집중 강독을 통해 우리는 헛된 호기심의 사변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이 이끄는 거룩한 경계선 안에서 삼위 일체의 장엄한 신비 앞에 엎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 1. 성경 계시에 기초한 본질(Essentia)의 일체성과 삼위(Personae)의 구별 교리를 정립한다 (1.13.1~6).
- 2. 신구약 성경 본문을 통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신성을 변증한다 (1.13.7~15).
- 3. 사벨리우스의 양태론(Modalism), 아리우스의 종속론(Arianism), 세르베투스의 광신을 성경적으로 논파한다 (1.13.21~29).
- 4. 삼위 하나님의 상호내주(Perichoresis) 신비를 묵상하고, 삼위일체적 기도 생활과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실천한다 (1.13.16~20).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지성소로의 초대: 신비 앞의 경외와 겸손 (1.13.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본질(Essentia)과 위격(Persona): 정통 신학 용어의 필연성 (1.13.2~6)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성자와 성령의 참된 신성: 성경적 증거의 거대한 반석 (1.13.7~15)
- 34:00 ~ 44:00 (10분): [제3대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와 상호내주(Perichoresis) (1.13.16~20)
- 44:00 ~ 52:00 (8분): [제4대지] 역사적 이단의 격멸: 사벨리우스, 아리우스, 세르베투스 (1.13.21~29)
- 52:00 ~ 60:00 (8분): [결론 및 결단 기도] 현대 성도의 삼위일체적 삶: 기도와 거룩한 연합 (1.13.16~20)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지성소로의 초대: 신비 앞의 경외와 겸손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평생 동안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가장 확신에 찬 어조로 변호했던 교리의 정수, 바로 ‘삼위일체(Trinitas)’ 교리의 현장으로 들어섭니다.

강의 라틴어 표제를 정직하게 읽어봅시다:

in scripturis ab ipsa creatione)”

칼빈은 이 지성소의 문턱에 서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지적 교만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 다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신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는 기꺼이 침묵하고, 성경이 인도하는 곳까지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인간의 호기심이 날뛰는 것만큼 치명적인 독약은 없다!” (1.13.1, 21)

초대 교부 힐라리우스는 "우리가 삼위일체를 다 이해하려 들면 미치기 쉽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삼위일체가 난해한 사변의 족쇄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참된 내적 생명임을 선포합니다.

성경을 열 때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말씀(성자)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창 1:1-3).

요단강에서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물에서 올라오셨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으며,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 3:16-17).

오늘 강의를 통해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영원토록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으로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 영혼으로 경배를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제1대지] 본질(Essentia)과 위격(Persona): 정통 신학 용어의 필연성 (10:00 ~ 22:00)

(슬라이드 3 & 4 제시: 한 본질과 삼위의 구별, 칼빈의 페르소나 정의)

칼빈은 제2절부터 6절에 걸쳐 교회가 왜 성경 본문에 문자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삼위일체’(Trinitas), ‘본질’(Essentia), ‘위격’(Persona), ‘동일 본질’(Homooousios) 같은 전문 용어를 도입해야만 했는가를 명쾌하게 변호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만하게 묻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나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왜 인간이 고안해 낸 낯선 라틴어나 헬라이어 철학 용어로 순진한 성도들의 신앙을 얹매려 하는가?”

종교개혁 당시에도 극단적 재세례파들과 반삼위일체론자들은 “성경에 없는 용어는 모조리 폐기해야 한다”며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칼빈은 이들을 향해 엄숙하게 반박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 ‘그의 본체(히포스타시스, Hypostasis)의 정확한 형상(Character hypostaseos autou)’이라고 불렀다. 사도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동일한 본질’과 함께 ‘구별되는 위격적 실

경의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 교회를 파괴하려는 뱀 같은 이단들의 탈출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운 불가피한 방패이다!” (1.13.2-5)

칼빈이 제시하는 위격(Persona)의 라틴어 원전 정의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신학적 금자탑입니다 (슬라이드 4):

“위격이란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실존하는 하나의 구별된 주체로서(subsistentia in essentia Dei), 다른 위격들과 상호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전달될 수 없는 고유한 특성(proprietate incommunicabili)으로 구별되는 실체이다!” (1.13.6)

여기서 칼빈이 사용한 ‘하나님의 본질 안의 실존(Subsistentia in essentia Dei)’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위격은 본질과 분리된 별개의 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단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 영원토록 실존하십니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각 위격은 서로에게 전달되거나 섞일 수 없는 고유한 특질을 지니십니다.

교부들이 아리우스 이단과 싸울 때 "성자는 성부와 본질이 비슷하다(Homoiousios)"는 교묘한 타협안을 거부하고 "동일한 본질(Homousios)"이라는 단 한 글자의 차이를 목숨 걸고 지켜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학 용어는 진리를 수호하는 요새이며,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생명선입니다.

[제2대지] 성자와 성령의 참된 신성: 성경적 증거의 거대한 반석 (22:00 ~ 34:00)

(슬라이드 5, 6, 7 & 8 제시: 뒤러 『삼위일체 경배』 (1511), 성자의 신성, 피에로 『그리스도의 세례』 (1450), 성령의 신성)

이어지는 13장 7절부터 15절에서 칼빈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종횡무진 관통하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한 신성을 찬란하게 변증합니다.

먼저 슬라이드 5와 6을 보십시오. 알브레히트 뒤러의 명작 『삼위일체 경배』 (1511)가 증언하듯, 하늘과 땅의 모든 성도와 천군 천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동일한 영광의 찬양을 바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1)

그리스도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품속에 계셨던 영원한 말씀(Logos)이시며, 골로새서 1장 16절이 증언하듯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만물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경이로운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속했던 ‘여호와(YHWH)’라는 지극히 거룩한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 이사야 8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 선포되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인용합니다 (벧전 2:8).

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만물의 굴복으로 선포합니다 (롬 14:10-11, 빌 2:10-11).

- 시편 102편 25절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라는 찬양은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성자 예수님을 향한 말씀으로 확증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 자국과 창 자국을 만지고 얹드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지니이다 (요 20:28)”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슬라이드 7과 8을 보십시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명작 『그리스도의 세례』 (1450)에서 비둘기 형상으로 성자 위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묵상하십시오.

성령은 공허한 에너지나 비인격적인 감화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흑암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혼돈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탄식한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가? 성령 자신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1.13.14-15)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으며 했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거룩한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으며, 이 세 위격은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3대지] 영원한 질서와 상호내주(Perichoresis): 성경적 일치 (34:00 ~ 44:00)

(슬라이드 9 & 10 제시: 발광 성경 패널, 마 28:19 & 고후 13:13, 삼위의 경륜적 질서)

이제 우리는 슬라이드 9에 찬란하게 빛나는 성경 본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지상 대명령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Names)’”이라고 복수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단 하나의 이름(eis to onoma)”으로 단수를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 역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칼빈은 제18절에서 교부 그레고리우스 나지안젠의 감격적인 고백을 인용합니다:

“내가 ‘하나’를 생각하자마자 나는 즉시 ‘셋’의 광채에 둘러싸인다. 그리고 내가 ‘셋’을 구별하자마자 나는 즉시 ‘하나’에게로 되돌아간다!” (1.13.17)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 하나님의 경륜적 질서(*Ordo oeconomicus*)를 보십시오:

- 성부(Pater): 모든 사역의 원천이자 시작(*Fons et origo*)이십니다.
- 성자(Filius): 하나님의 지혜요 작정이시며 경륜(*Sapientia et consilium*)이십니다.
- 성령(Spiritus Sanctus): 구원의 효력이요 능력(*Virtus et efficacia*)이십니다.

이 질서는 위격 간의 우열이나 시간적 선후를 뜻하지 않습니다.

성부는 성자보다 크시거나 먼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삼위는 영원 전부터 동일한 영광과 권능을 지니시며, 서로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상호내주(페리코레스시스, Perichoresis / Circumincessio)’의 신비를 누리십니다.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이 충만히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거하시며,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내주하십니다. 이 완벽한 사랑의 연합이 바로 구원의 영원한 터전입니다.

[제4대지] 역사적 이단의 격멸: 사벨리우스, 아리우스, 세르베투스 (44:00 ~ 52:00)

(슬라이드 11 & 12 제시: 4대 비교 매트릭스, 역사적 이단 분쇄)

칼빈은 13장 후반부(21~29절)에서 교회의 영혼들을 사냥하려 했던 사탄의 치명적인 이단들을 성경의 검으로 무참하게 베어 넘깁니다.

첫째, 사벨리우스(Sabellius)의 ‘양태론(Modalism)’입니다.

사벨리우스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지킨다는 구실로 위격의 영원한 구별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배우처럼 가면을 바꾸어 쓰며, 구약에는 성부로, 신약에는 성자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으로 모습을 바꾼 단 한 분의 인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평신도들이 “하나님은 집에서는 아버지, 직장에서는 과장, 교회에서는 집사인 것과 같다”거나 “물-얼음-수증기와 같다”는 엉터리 비유를 쓰는데, 그것이 정확히 사벨리우스의 양태론 이단입니다!

칼빈은 이를 극악한 기만으로 규탄합니다:

만약 양태론이 맞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독백을 하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신 주님은 대국민 연극을 하신 것입니까?

요단강 세례 현장은 한 분 하나님이 1인 3역을 하며 연출한 사기극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삼위는 결코 양태가 아니며,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서로를 사랑하시고 대화하시는 구별된 세 인격이십니다.

둘째, 아리우스(Arius)의 ‘종속론(Subordinationism)’입니다.

아리우스는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En pote hote ouk en)"고 주장하며 그리스도를 최상의 피조물로 격하시켰습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이 아리우스의 직계 후예입니다.

칼빈은 외칩니다: 피조물은 결코 피조물을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성자는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16세기 미카엘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의 가증한 광신입니다.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를 가리켜 "머리가 셋 달린 지옥의 괴물 케르베로스"라고 조롱하며 모든 정통 신앙을 불살라버리려 했습니다.

칼빈은 세르베투스의 논리가 성경 전체를 조롱하는 사탄의 악마적 광기임을 폭로하고, 역사적 공의회(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아타나시우스 신경)가 확립한 정통 삼위일체 신앙의 깃발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제5대지 및 결론] 현대 성도의 삼위일체적 삶: 기도와 거룩한 연합 (52:00 ~ 60:00)

(슬라이드 13 & 14 제시: 목회적 적용 및 삶의 결단, 송영과 다음 주 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며 묻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골치 아픈 신학자들의 탁상공론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구원의 심장이며, 우리 매일의 기도 생활의 살아 있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신도 삶의 적용]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도우심 안에서(롬 8:26),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유일하신 중보를 힘입어(히 10:19-20),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품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리셨던 그 거룩한 삼위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특권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높이시며 영광을 돌리셨듯이, 주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할 때, 세상은 우리 가운데 계신 살아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일평생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 단일한 본질과 구별된 영원한 삼위 (Una Essentia in Tribus Personis):
- 성경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오직 한 본질이시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영원토록 구별되어 계심을 가르치며, 본질의 일체성과 위격의 구별 중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참 신지식을 잃어버립니다 (1.13.1).
- 사도 바울의 휘포스타시스와 위격(Persona)의 정밀 정의:
- 히브리서 1:3의 '본체의 형상'에 근거하여 위격이란 "하나님의 본질 안의 실존(Subsistentia in essentia Dei)으로서, 다른 위격들과 상호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전달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으로 구별되는 실체"입니다 (1.13.6).
- 성자와 성령의 참되고 영원한 신성 (Deitas Filii et Spiritus Sancti):
- 요 1:1, 골 1:16, 사 8:14의 증언대로 성자 그리스도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행 5:3-4와 고전 3:16대로 성령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1.13.7~15).
- 역사적 3대 이단의 성경적 분쇄 (사벨리우스·아리우스·세르베투스):
- 위격의 구별을 가면으로 축소한 양태론(사벨리우스), 성자를 피조물로 격하시킨 종속론(아리우스), 삼위일체를 괴물로 모독한 세르베투스의 광신을 배격하고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정통 신앙을 확립합니다 (1.13.21~29).
- 삼위일체적 삶과 기도의 회복 (Trinitarian Life & Prayer):
- 성령의 탄식과 도우심 안에서, 성자의 대속과 중보를 힘입어,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기도를 회복하고, 상호내주(Perichoresis)의 사랑으로 교회의 거룩한 일치를 이룹니다 (1.13.16~20).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막연히 '하늘에 계신 무서운 할아버지'나 '홀로 계신 외로운 절대자'처럼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들으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사랑의 인격적 교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마음을 열어줍니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본질과 위격의 정의): 칼빈이 정의한 위격(*Persona*)의 정의, 즉 "하나님의 본질 안의 실존 (*subsistentia in essentia Dei*)으로서 고유한 특성으로 구별된다"는 설명이 왜 세 하나님을 주장하는 '삼신론'과 구별을 없애는 '양태론'을 동시에 물리칠 수 있습니까?
- 질문 2 (성자와 성령의 신성): 구약의 '여호와'께 드러진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된 성경 구절 (사 8:14 -> 벰전 2:8, 요 20:28)과, 아나니아 사건(행 5:3-4)에서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본문을 강독하고 그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일상 속 이단적 비유 분쇄): 교회 안에서 흔히 쓰이는 "물-얼음-수증기"나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빠, 직장에서는 과장"이라는 비유가 왜 사벨리우스 양태론 이단에 해당하는지 토론하고, 올바른 삼위의 상호내주를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나누어 봅시다.
- 질문 4 (삼위일체적 기도의 회복): "성령 안에서,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께 나아가는 기도"의 삼위일체적 구조를 회복할 때, 내 메마르고 형식적이었던 기도 생활에 어떤 생명력 넘치는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호내주적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기도로 이끄십시오.
- 공동 기도 제목:
- 내 머릿속의 좁은 지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 했던 교만을 회개하고, 성경이 증언하는 삼위일체의 신비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

하소서.

- 우리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을 본받아, 분열과 다툼을 버리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제14장: 우주 만물의 창조와 천사론

[부제] 옛세 동안의 창조 경륜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실재 — 천사의 직무와 마귀의 꾀계 분쇄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14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교재 범위: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 (Book I) 제14주차 — 제1권 제14장 (1.14.1~22) - 강의 구성: 정식 60분 강독 강의 + 30~45분 소그룹 심화 나눔 모듈 - 핵심 주제: 옛세(6일) 창조의 역사성과 교육적 목적,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배려, 천사의 본질과 직무(히 1:14), 마귀론과 영적 전쟁(벧전 5:8-9), 마니교 이원론 및 중세 천사 숭배 분쇄 - 텍스트 색상 체계: - ● 네이비 (#182B49):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라틴어 원전 정본 핵심 발췌 (*Institutes Excerpts*) -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마니교 이원론, 미신적 천사 숭배)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우리는 지난 제13장에서 하나의 본질 안에 영원히 실존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내적 생명을 배웠습니다.

이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4장에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지혜와 선하심을 밖으로 드러내신 외적 사역, 곧 ‘우주 만물의 창조(*Creatio Mundi*)’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천사론(*Angelologia*)’을 다룹니다.

칼빈은 창조 교리를 단순한 우주 기원의 물리적 호기심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칼빈의 눈에 비친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지으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Theatrum Gloriae Dei*)’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온 우주를 옛세 동안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게 지으셨다. 이는 가장 자애로운 아버지가 갓 태어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온갖 집기구와 양식과 침상을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아기를 방으로 맞이하는 것과 같다!” (1.14.2, 22)

동시에 칼빈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이면에 실재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두 군대,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섬기는 ‘거룩한 천사들’과 성도들의 영혼을 삼키려 우는 사자처럼 날뛰는 ‘타락한 마귀들’의 실체를 성경의 빛으로 정확히 규명합니다.

를 얻으며, 마귀의 모든 간계를 꿰뚫어 보고 승리하는 영적 무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 1. 창세기 1장의 옛새(6일) 창조가 지닌 역사성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부성애적 배려를 이해한다 (1.14.1~4).
- 2. 성경이 계시하는 천사의 영적 본질과 직무(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김, 히 1:14)를 정립한다 (1.14.5~12).
- 3. 사탄의 기원과 타락,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제한되어 있음을 변증한다 (1.14.13~19).
- 4. 마니교적 이원론과 중세의 미신적 천사 숭배를 배격하고, 믿음의 전신갑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1.14.19~22).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영광의 극장: 창조와 보이지 않는 세계 (1.14.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옛새(6일) 창조와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배려 (1.14.1~4, 22)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천사의 직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사역자 (1.14.5~12)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마귀의 기원과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 (1.14.13~18)
- 46:00 ~ 54:00 (8분): [제4대지] 영적 전쟁과 성도의 전신갑주 (1.14.19~22)
- 54:00 ~ 60:00 (6분): [결론 및 결단 기도] 영광의 극장에서 승리하는 삶 (1.14.22)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영광의 극장: 창조와 보이지 않는 세계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찬란하게 묘사한 창조의 대서사시 속으로 들어옵니다.

강의 라틴어 표제를 보십시오:

“성경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헛된 신들과 뚜렷이 구별함 (*In ascripta mundi et omnium rerum creatione certis notis discerni verum Deum a commentitiis*)”

칼빈은 서두에서 이단자들과 불신자들이 창조 교리에 대해 던지는 불경건한 호기심을 엄히 질책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어떤 이들은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질문에 대해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진 자들을 위해 지옥을 짓고 계셨다”고 통렬하게 응수했습니다.
칼빈 역시 경고합니다:

“인간의 좁은 지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측량하려 드는 것은 눈먼 자가 태양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창조의 사실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 (1.14.1)

하나님께서 왜 온 우주를 단 1초 만에 순간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엿새(6일)라는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창조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칼빈은 외칩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교육적 자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신 숨씨를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묵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오늘 강독을 통해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목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엿새(6일) 창조와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배려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6일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부성애, 브뤼헬과 루벤스 『에덴동산』 1615)

칼빈은 제2절과 22절에서 창조의 순서 속에 담긴 경이로운 하나님의 부성애를 감격적으로 서술합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얀 브뤼헬과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걸작 『에덴동산과 인간의 타락』(1615)을 보십시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며, 온갖 동물들이 평화롭게 뛰노는 에덴동산의 완벽한 풍요를 보십시오.

성경이 선포하는 창조는 기존에 존재하던 영원한 물질을 다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無)의 상태에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지으셨습니다(창조의 무로부터의 창조, *Creatio ex nihilo*).

시편 104편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 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거니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시 104:2-5)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닷새 날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빛을 만드시고, 궁창과 바다를 가르셨으며, 땅에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를 풍성히 맺게 하셨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배치하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가축들을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마지막 여섯째 날에, 비로소 인간을 흠으로 빚어 그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양식과 안식처를 먼저 완벽하게 예비해 두셨다. 이는 자비로운 아버지가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 미리 옷을 짓고, 요람을 마련하며, 우유를 준비해 두는 것과 정확히 같다. 인간은 빈손으로 태어났으나, 눈을 떴을 때 이미 온 우주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했다!” (1.14.2, 22)

창세기 1장 31절의 선언을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alde bona*)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세계는 영지주의자들이나 플라톤주의자들이 주장하듯 더럽고 천한 악이 아닙니다.

피조물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선하심이 반사되는 영광스러운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릴 거룩한 문화 명령(창 1:28)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물질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부성애를 불신하는 배은망덕한 죄악입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십시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이 거대한 극장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제2대지] 천사의 본질과 직무: 보이지 않는 영적 사역자들 (22:00 ~ 34:00)

(슬라이드 6 & 7 제시: 천사의 본질과 수호 직무, 귀도 레니 『대천사 미카엘』 1636)

이제 칼빈은 제5절부터 12절에 걸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곧 ‘천사론(Angelologia)’을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따라 체계화합니다.

슬라이드 7에 제시된 귀도 레니의 걸작 『사탄을 짓밟는 대천사 미카엘』 (1636)을 보십시오.

황금빛 갑옷을 입고 위엄 있는 칼을 빼어 든 대천사 미카엘이 흥측한 사탄의 머리를 발로 짓밟고 있습니다.

칼빈은 천사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천사들은 육체가 없는 하늘의 영적 피조물(Spiritus coelestes)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고 성도들의 구원을 수호하기 위해 세움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요 사자(Nuntii)들이다!” (1.14.5-9)

히브리서 1장 14절은 선언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의 간구를 돕기 위해 보냄을 받은 천사와 바사 왕국의 영적 세력과의 치열한 전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므로 천사들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두려워 떠는 사환에게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영적 광경을 보여주셨듯이(왕하 6장), 하나님은 오늘도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연약한 성도들의 사망에 진을 치고 지키십니다.

칼빈은 여기서 중세 가톨릭의 허황된 ‘1인 1수호천사설’의 미신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중세 신학자들은 모든 신자에게 개별적인 수호천사가 하나씩 배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천사의 이름을 짓고 부적처럼 의지했다. 그러나 성경을 보라! 성경은 개별 신자 한 명을 지키기 위하여 단 한 명의 천사가 아니라, 하늘의 온 군대와 무수한 천사들이 에워싸고 진을 친다고 선언한다! (시 34:7, 91:11-12) 한 천사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온 천군 천사를 지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1.14.7)

또한 칼빈은 중세의 가짜 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가 날조한 9계급 천사론 같은 허황된 사변을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천사는 결코 우리의 예배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천사에게 중보 기도를 바치거나 성자처럼 숭배하는 것은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강도질하는 가증한 영적 간음이다!” (1.14.10-12)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동료 중일 뿐입니다.

[제3대지] 마귀론과 영적 전쟁: 묵인 사자와 십자가의 승리 (34:00 ~ 44:00)

(슬라이드 8 & 9 제시: 마귀의 타락과 사슬, 발광 성경 패널 히 1:14 & 뱀전 5:8-9)

이어지는 13절부터 19절에서 칼빈은 성도들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 곧 ‘사탄과 악한 영들’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성경은 악의 기원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악한 존재로 마귀를 창조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마귀의 사악함은 창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교만한 반역과 타락에 기인한 것이다 (유 1:6, 뱀후 2:4). 마귀는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타락하여 거짓의 아버가 되었다!” (1.14.16)

칼빈은 고대 마니교(Manichaeism)의 ‘이원론’을 성경의 권위로 격멸합니다.

마니교도들은 온 우주에 선한 신(하나님)과 악한 신(마귀)이 대등하게 맞서 싸우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한 맞수가 결코 아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아래 굴복해 있는 일개 피조물에 불과하다.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과 고삐(Frenum) 없이는 성도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 (1.14.17)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명쾌하게 외쳤습니다:

“마귀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마귀이다 (*The devil is God's devil*)!”

마귀는 하나님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작정과 섭리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심판과 연단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욥기 1장을 보십시오.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어전 앞에 섰려 하나님의 엄격한 허락의 테두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철장 권세 아래 묶여 있는 맹견과 같습니다. 줄에 묶인 개는 으르렁거리며 짖을 수는 있지만, 주인의 줄을 끊고 성도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슬라이드 9에 제시된 베드로전서 5장 8~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정수리를 박살 내셨습니다 (창 3:15, 골 2:15).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선포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골고다 언덕에서 무장해제당한 원수는 이미 패배한 자요, 지옥 형벌을 앞둔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무기력의 타파 (44:00 ~ 54:00)

(슬라이드 10, 11, 12, 13 & 14 제시: 이단 논파, 4대 매트릭스, 전신갑주, 워크숍, 송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은 창조와 천사론을 마치며 우리에게 엄중한 목회적 경고를 던집니다.

현대 성도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1. 마귀의 실재를 아예 무시하는 물질주의적 무감각: 영적 세계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심리적, 물질적 문제로만 치부하며 방심하다가 사탄의 유혹에 무참히 쓰러지는 자들입니다.
2. 사탄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미신적 공포: 감기만 걸려도 마귀 탓을 하고, 귀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두려

우리는 일상에서 다음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1. 나는 영적 전쟁의 실재를 인식하고 깨어 있는가? 사탄의 존재를 망각한 채 방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2.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창조의 배려를 신뢰하는가? 세상 염려에 짓눌려 하나님의 부성애를 의심하지는 않은가?
3. 나는 천사를 숭배하거나 미신적 공포에 빠져 있지 않은가?
4. 나는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는 대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5. 나는 날마다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하고 있는가?

[평신도 삶의 적용]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실재를 직시하십시오!

사탄은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에 불화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 공동체에 분열과 의심을 조장하며, 우리의 마음에 음란과 탐욕과 교만의 불화살을 쏘아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하시는 이가 대적보다 크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엡 6:14-17).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 앞에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천군 천사의 호위를 신뢰하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무로부터의 창조와 영광의 극장 (Creatio ex Nihilo & Theatrum Gloriae Dei):
2. 하나님은 영원한 물질 없이 오직 말씀으로 만물을 무에서 유로 지으셨으며, 온 우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양하도록 설계된 거룩한 무대입니다 (1.14.2, 20).
3. 옛새(6일)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성애적 배려 (Paterna Dei Providentia):
4. 하나님께서 단번에 짓지 않고 옛새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으신 후 인간을 맞이하신 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요람과 양식을 먼저 완비하는 사랑의 배려입니다 (1.14.2, 22).
5. 천사의 성경적 본질과 직무 (Servitores Salutis):
6. 천사는 숭배나 기도의 대상이 아니며, 오직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섬기도록 파송된 보이지 않는 영적 사역자들입니다 (히 1:14, 1.14.5~12).
7. 마귀의 피조성과 하나님의 절대적 고삐 (Diabolus sub Frenum Dei):

묶여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도를 해칠 수 없습니다 (1.14.13~18).

9. 이원론 배경과 전신갑주를 통한 영적 승리 (Eph 6:10-18):

10. 마니교의 대등한 선악 이원론을 배경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위에서 믿음의 전신갑주로 매일 승리합니다 (1.14.19~22).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을)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천사와 악한 영들)"에 대해 가졌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영화나 미디어를 통한 막연한 공포나 호기심은 없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미신적 호기심을 내려놓고 성경적 관점에서 영적 세계를 건전하게 바라보도록 대화를 유도합니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창조와 부성애):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세상을 먼저 완벽하게 지으신 후 인간을 창조하신 사실 (1.14.2)이 오늘날 물질과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내 마음에 어떤 안식과 확신을 줍니까?
- 질문 2 (천사의 사역과 한계): 히브리서 1:14을 묵상할 때 천사의 참된 직무는 무엇이며, 왜 교회가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에게 기도하는 것을 엄격히 금해야 합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마귀의 통제성과 십자가 승리): 마니교의 이원론(선신과 악신의 대등한 싸움)이 왜 틀렸으며, 욥기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고삐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에게 왜 큰 위로가 됩니까?
- 질문 4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 실천): 최근 내 일상(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사탄이 파고들려 했던 틈(의심, 분노, 음란, 탐욕 등)은 무엇이었으며, 이번 주간 어떤 영적 무기로 무장하겠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쳐내는 결단의 기도로 이끄십시오.

- 공동 기도 제목:

- 온 우주를 풍성히 예비하시고 지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부성애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꾀계를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승리하는 거룩한 용사가 되게 하소서.
- 우리 가정이 사탄의 분열과 미혹의 덫에 걸리지 않고, 성령의 전신갑주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소서.

제15장: 인간 창조와 영혼의 불멸성, 하나님의 형상

[부제] 흠으로 빚어진 육체와 생기 어린 영혼의 존엄 —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의 본질과 회복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15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교재 범위: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 (Book I) 제15주차 — 제1권 제15장 (1.15.1~8) - 강의 구성: 정식 60분 강독
강의 + 30~45분 소그룹 심화 나눔 모듈 - 핵심 주제: 인간의 이중적 본성(육체와 불멸적 영혼), 양심과 영혼의 비
물질성 증명,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의 본질(지식, 의, 거룩함, 골 3:10, 엡 4:24), 오시안더의 육체적 형상설 분
쇄,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 - 텍스트 색상 체계: - ● 네이비 (#182B49): 핵심 교리 명제 및 신
학적 정의 -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라틴어 원전 정본 핵심 발췌 (Institutes Excerpts) - ● 포레
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오류(유물론
적 영혼 사멸설, 오시안더 망상)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우리는 지난 제14장에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극장으로 창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찬란한 우주의 극장 한복판에 세움 받은 가장 영광스럽고도 존귀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
(Homo)’입니다.

존 칼빈은 제1권 제1장 첫 문장에서 선언했던 대원칙,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밀접하
게 연결되어 있다”는 원리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칼빈은 제15장을 통해 인간의 참된 본질을 두 가지 거대한 기둥으로 규명합니다:

“인간은 흠으로 빚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불멸의 영혼(Anima immortalis)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 속에는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 찬란하게 새겨져 있었다!” (1.15.1, 3)

현대 세속 유물론은 인간을 그저 ‘복잡하게 진화된 원숭이’나 ‘단백질 덩어리’로 격하시킵니다.

반면에 헛된 인본주의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를 망각한 채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교만을 부립니다.

칼빈은 성경의 거룩한 계시를 통해, 인간이 티끌에서 왔으므로 극진히 겸손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불멸의 영혼을 지녔으므로 영원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음을 명쾌하게 선포합니다.

여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 학습 목표

1. 인간의 육체적 비천함과 영혼의 불멸적 존엄성이라는 이중적 본성을 정립한다 (1.15.1~2).
2. 양심의 가책과 종교의 씨앗, 비물질적 사고 능력을 통해 영혼의 실재를 변증한다 (1.15.2).
3.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 외적 육체가 아닌 영혼의 '지식, 의, 거룩함'임을 증명한다 (1.15.3~4).
4. 타락으로 파괴된 형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중생으로 회복됨을 확신한다 (1.15.4~8).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인간이란 무엇인가: 티끌과 영혼의 신비 (1.15.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흠으로 빚어진 몸과 호흡으로 불어넣으신 영혼의 불멸성 (1.15.1~2)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의 참된 본질: 지식과 의와 거룩함 (1.15.3~5)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오시안더의 신화론과 철학적 오류(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 비판 (1.15.5~6)
- 46:00 ~ 54:00 (8분): [제4대지] 타락 전 아담의 자유의지와 영혼의 기능(지성과 의지) (1.15.7~8)
- 54:00 ~ 60:00 (6분): [결론 및 결단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 (1.15.4)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울 앞의 인간: 티끌과 영원의 신비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아는 가장 깊고 영광스러운 지식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강의 라틴어 제목을 보십시오:

“창조된 인간의 본성,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그리고 최초의 온전한 상태 (*Qualis homo sit creatus: ubi de animae facultatibus, de imagine Dei, libero arbitrio, et primaeva naturae integritate disseritur*)”

칼빈은 인간을 바라보며 두 가지 상반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는 ‘지극한 겸손’이요, 다른 하나는 ‘지극한 경이로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증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우리의 육체는 땅바닥의 티끌과 진흙으로 빚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권세를 가졌어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겸손의 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흙덩이에 자신의 거룩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은 금수나 벌레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무가치한 유기물이 아닙니다.

인간 속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통할 수 있는 ‘불멸의 영혼(Anima immortalis)’이 심겨 있습니다.

오늘 60분의 강독을 통해 내 영혼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흙탕물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형상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빚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영혼의 불멸성과 비물질적 실체성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영혼의 본질, 양심의 증거, 미켈란젤로 『아담의 창조』 1512)

칼빈은 제2절에서 사두개인들이나 고대 유물론자들, 그리고 영혼이 육체와 함께 소멸되거나 잠든다고 주장하는 이단자들의 궤변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미켈란젤로의 불후의 명작 『아담의 창조』 (1512)를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팔을 뻗어 흙으로 빚어진 아담의 손가락 끝에 생명의 불꽃을 전달하시는 바로 그 경이로운 찰나입니다.

영혼은 단순한 육체의 활력이나 숨결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칼빈의 첫 신학 저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534년에 발표된 『영혼 수면론 논박(Psychopannychia)』이었습니다!

당시 재세례파 광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부활의 날까지 무의식 상태로 잠을 잔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빈은 성경 전체의 증언을 들어 이 미혹을 단번에 분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 23:43)”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빌 1:23)”고 고백했습니다.

영혼이 잠들어 아무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지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십시오. 죽음 즉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누리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았습니다.

신자의 영혼은 죽음 즉시 깨어 있는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칼빈은 영혼이 육체와 독립하여 실존하는 ‘비물질적 실체(Substantia incorporea)’임을 증명하는 4가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서 두려움에 떨니다. 세상 법정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심판대 앞에 서 있음을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육체를 초월하는 신적 실체라는 확실한 표식입니다!

2. **하나님을 갈망하는 종교의 씨앗(*Semen religionis*)**: 동물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영원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어떤 야만인이라도 하늘을 우러러 신을 찾고 영원을 동경합니다 (전 3:11).

3. **육체의 감각을 초월하는 지성과 지혜의 활동**: 인간의 영혼은 잠자는 중에도 꿈을 꾸고, 과거나 미래를 사색하며, 우주의 별들을 계산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추론합니다. 육체적 뇌세포의 화학적 반응만으로는 이 찬란한 정신의 비물질성을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4. **성경의 일관된 증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 10:28).”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라고 외치셨고, 스테반은 돌에 맞으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행 7:59)”라고 기도했습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영혼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 후에도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삶 혹은 영원한 형벌로 직행한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빚으신 가장 고귀한 불멸의 걸작품이다!” (1.15.2)

동시에 칼빈은 플라톤의 ‘영혼 선재설(*Pre-existence of souls*)’과 동양의 ‘윤회설’을 단호히 배격합니다.

영혼은 창세 전부터 떠돌아다니다가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각 사람을 어머니의 태중에 지으실 때, 친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고유하고 거룩한 불멸의 영혼을 창조하십니다 (시 139:13-16).

그러므로 우리는 낙태나 생명 경시 풍조에 맞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모든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을 수호해야 합니다!

[제2대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본질과 거룩한 속성 (22:00 ~ 34:00)

(슬라이드 6 & 7 제시: 하나님의 형상의 정의, 골 3:10 & 엡 4:24, 라파엘로 『그리스도의 변모』 1520)

그렇다면 인간 창조의 절정인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인간의 외적 신체(두 발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직립 자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착각합니다.

칼빈 당시의 광신자 안드레아스 오시안더(*Andreas Osiander*)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육체적 형상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칼빈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살과 뼈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칼빈은 어거스틴의 통찰을 존중하면서도, 그런 사변적 유비에 갇히지 않고 성경의 명백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목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신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의 참된 본질을 정확하게 규명합니다 (슬라이드 6):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의 외적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내적 탁월함, 곧 ‘참된 지식(Scientia)과 의(Iustitia)
와 진리의 거룩함(Sanctitas)’에 있다!” (1.15.3-4)

슬라이드 7에 제시된 라파엘로의 명화 『그리스도의 변모』 (1520)를 보십시오.

다볼산 꼭대기에서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광채로 빛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무엇이라 증언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성도가 입게 되는 ‘새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명확히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 태초에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란:

- 하나님의 뜻을 왜곡 없이 정확히 분별하던 ‘완전한 지식(지성의 빛)’
 -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던 ‘완전한 의(의지의 거룩함)’
 - 모든 욕망과 정서가 하나님의 율법과 완벽하게 일치하던 ‘진리의 순결함’이었습니다!
- 아담의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온전히 반사되는 티 없는 맑은 거울이었습니다.

[제3대지] 형상의 파괴와 비극: 둘째 아담 안에서의 회복 (34:00 ~ 44:00)

(슬라이드 8 & 9 제시: 타락과 잔재, 발광 성경 패널 골 3:10 & 엡 4:24)

그러나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어떤 참극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름답고 눈부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 보편적 형상(*Imago Dei generalis*)의 잔재: 인간은 타락 후에도 짐승과 달리 여전히 이성과 언어, 양심과 사회적 문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에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창 9:6)”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타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살해당해서는 안 될 존엄성의 흔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2. 영적 형상(*Imago Dei specialis*)의 전적 상실: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영적 의와 거룩함은 완전히 파괴되고 소멸되었습니다!

칼빈의 비통한 진단을 들으십시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은 지독하게 파괴되고 일그러져, 이제 인간의 자연적 본성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그 어떤 영적 선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지성은 맹인이 되었고,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었으며, 마음은 부패한 정욕의 소굴로 전락하였다!” (1.15.4)

인간 스스로는 이 부서진 거울을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체현하신 유일한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부서진 거울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보혈로 씻어내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놀라운 형상의 회복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화의 과정이란 날마다 옛 사람의 부패를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덧입어 가는 영광스러운 재창조의 여정입니다.

[제4대지 및 결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존엄한 성도 (44:00 ~ 54:00)

(슬라이드 10, 11, 12, 13 & 14 제시: 이단 논파, 4대 매트릭스, 성화의 삶, 워크숍, 송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천박한 유행을 따라 짐승처럼 본능과 쾌락을 좇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의 시선에 영혼을 저당 잡힌 채 하나님의 형상다운 고귀함을 짓밟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해 다음 5가지 영적 자가진단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1. 내 지성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세속 미디어의 오염된 정보인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2. 내 의지는 누구에게 굴복하고 있는가? 나의 이기적 욕망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인가?

4.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지식, 의, 거룩함)를 맺고 있는가?

5. 나는 내 곁의 연약한 이웃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존엄성을 발견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칼빈은 제15장의 마지막 부분(6~8절)에서 영혼의 두 기능인 ‘지성(Intellectus)’과 ‘의지(Voluntas)’를 다루며 엄숙히 권면합니다:

[평신도 삶의 적용]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성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거짓된 세상 철학과 세속적 가치관에 생각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또한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할지라도 그들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의 존엄성’을 바라보며 사랑과 긍휼로 대우하십시오.

우리는 흠으로 빚어졌으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빚어져 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인간의 이중적 본성 — 비천한 육체와 불멸의 영혼 (Duae Partes Hominis):
2. 인간은 흠으로 지어진 연약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사 영원토록 멸망치 않는 불멸의 영혼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1.15.1~2).
3. 영혼의 불멸성을 확증하는 내적 증거 (Testimonia Immortalitatis):
4. 양심의 가책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영원을 사모하는 본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유하는 비물질적 능력은 영혼의 영원한 실재를 증언합니다 (1.15.2).
5.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의 본질 — 지식, 의, 거룩함 (골 3:10, 엡 4:24):
6. 하나님의 형상은 외적 신체에 있지 않고 영혼의 내적 순결성, 즉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온전한 의와 참된 거룩함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15.3~4).
7. 오시안더의 '신적 본질 유입설' 배경 (Refutatio Osiandri):
8.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적 본질이 직접 주입된 것이라는 오시안더의 궤변을 배격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본질적 구별을 수호합니다 (1.15.5).
9. 원시 자유의지와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

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1.15.4, 8).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내 삶에서 "인간은 그저 흙과 먼지에 불과하다"는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과,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고귀함이 있다"는 존엄성을 체감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육체적 한계(질병, 노화, 연약함)를 겸손히 인정하면서도, 복음 안에서 발견한 영혼의 가치를 기쁨으로 나누도록 격려합니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영혼의 불멸성 증거): 칼빈이 제시한 영혼의 비물질적 증거(양심의 가책, 하나님 갈망, 사고 능력) 중에서 내 삶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험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 질문 2 (하나님의 형상의 참된 본질): 골로새서 3:10과 에베소서 4:24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외모나 능력'이 아니라 '지식, 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이 외모지상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에 어떤 통렬한 메시지를 주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타락과 회복의 긴장):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부패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다는 교리를 붙잡을 때, 내 안의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 질문 4 (이웃을 향한 태도): 야고보서 3:9("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을 기억할 때, 내 가족, 직장 동료,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언어와 태도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벗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덧입는 성화의 삶을 결단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

- 흠으로 빚어진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여 날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소서.
-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날마다 새롭게 회복하게 하소서.
- 모든 이웃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비난과 저주 대신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내밀게 하소서.

제16강: 하나님의 섭리와 만물의 통치

[부제] 단순한 예지를 넘어선 능동적 주권 — 우연과 운명론을 배격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통치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16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교재 범위: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 (Book I) 제16주차 — 제1권 제16장 (1.16.1~9) - 강의 구성: 정식 60분 강독
강의 + 30~45분 소그룹 심화 나눔 모듈 - 핵심 주제: 섭리(*Providentia*)의 본질과 필연성, 단순 예지(*Praescientia*)
와 능동적 주권의 구별, 맹목적 우연(*Fortuna*)과 스토아 운명론(*Fatum*) 분쇄, 참새와 머리털까지 세시는 특별 섭리
(마 10:29-30, 잠 16:33) - 텍스트 색상 체계: - ● 네이비 (#182B49):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 버건
디 (#8B0000): 『기독교 강요』 라틴어 원전 정본 핵심 발췌 (*Institutes Excerpts*) -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세속적 왜곡(이신론적 자연주
의, 기계적 운명론, 미신적 우연론)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우리는 앞선 강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창조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마치 태엽 시계를 만들어 감아놓은 후 손을 떼고 멀리 떠나버린 시계공처럼, 자연법칙이라는 기계적 회
로에 세상을 내맡겨두신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온갖 사건과 재난과 만남들은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맹목적인 확률 게임에 불과합니까?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6장에서 창조 교리의 필연적 완성이자 기독교 신앙의 가장 든든한 요새인 ‘섭리
교리(Doctrina Providentiae)’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만물의 창조주로만 고백하고 그분의 섭리를 부인하는 자는, 사실상 하나님을 폐위시키는 자이다! 하
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계를 단 한순간도 방치하지 않으시며, 온 우주의 지극히 작은 먼지 하나까지도 자신의 전능하
고 은혜로운 손길로 친히 다스리신다!” (1.16.1, 4)

칼빈은 당시 유행하던 에피쿠로스학파의 ‘우연론(*Fortuna*)’과 스토아학파의 비인격적 ‘운명론(*Fatum*)’, 그리고 높은
하늘에서 세상을 관망만 한다는 ‘단순 예지설’을 성경의 겹으로 무참하게 깨부숩니다.

뜻한 손길을 발견하고,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 1. 이신론의 시계공 하나님론과 에피쿠로스의 우연론을 배격하고 성경의 능동적 섭리(Actuosa Gubernatio)를 정립한다 (1.16.1~4).
- 2. 스토아학파의 비인격적 운명론(Fatum)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지혜롭고 인격적인 작정과 통치를 변증한다 (1.16.8).
- 3.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Providentia Specialis)를 구별하여 참새와 머리털까지 돌보시는 부성애적 돌보심을 확신한다 (1.16.5~7).
- 4. 제2원인(Second Causes)을 사용하시되 거기에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유와 전능하심을 고백한다 (1.16.7~9).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시계공의 신을 거부하라: 살아 계신 주권자 (1.16.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섭리(Providentia)의 본질: 능동적이고 전능하신 통치 (1.16.1~4)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우연(Fortuna)과 운명(Fatum)의 분쇄: 참새와 머리털의 교리 (1.16.5~7)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특별 섭리(Providentia Specialis): 성도를 향한 개별적 돌보심 (1.16.6~7)
- 46:00 ~ 54:00 (8분): [제4대지] 제1원인과 제2원인: 자연법칙을 초월하시는 주권 (1.16.8~9)
- 54:00 ~ 60:00 (6분): [결론 및 결단 기도] 섭리의 품에 안기는 절대적 평안 (1.16.9)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시계공의 신을 거부하라: 살아 계신 주권자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신학의 가장 영광스럽고 위로가 넘치는 교리, 바로 ‘하나님의 섭리(Providentia Dei)’의 웅장한 대양으로 향해해 들어갑니다.

강의 라틴어 제목을 엄숙하게 읽어봅시다:

“Deum sua virtute mundum a se conditum fovere ac conservare, et singulas eius partes sua providentia regere”

“하나님을 우주를 단 한 번에 지으신 창조주로만 인정하고 그분의 영속적인 보존과 통치를 제거해 버리는 것은, 지극히 차갑고 공허한 이론에 불과하다. 참된 믿음은 창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을 운행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손길을 고백하는 것이다!” (1.16.1)

17~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이신론(Deism)’자들은 하나님을 ‘위대한 시계 제작자(Clockmaker)’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라는 정밀한 기계를 만들고 자연법칙의 태엽을 감아놓은 뒤, 뒤로 물러나 팔짱을 끼고 방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사상이 성경의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불신앙이라고 질타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졸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행 17:28)”

시편 104편 27~30절의 장엄한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단 1초라도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손을 놓으신다면, 우주는 그 즉시 태초의 흑암과 무(無)의 혼돈 속으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내 숨결 하나까지 붙들고 계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세밀한 통치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1대지] 섭리(*Providentia*)의 본질: 능동적이고 전능하신 통치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섭리의 정의, 능동적 주권, 렘브란트 『갈릴리 호수의 폭풍』 1633)

칼빈은 제3절과 4절에서 ‘섭리(*Providentia*)’라는 라틴어의 어원을 해부하며 논증을 발전시킵니다:

라틴어 ‘프로비덴티아(*Providentia*)’는 ‘앞을 내다본다’는 뜻의 ‘프로비데레(*Providere*)’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과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이를 왜곡하여 “섭리란 하나님이 높은 하늘 망루에 앉아 인간들이 자유의지로 행하는 일들을 미리 내다보시는 ‘단순한 예지(*Nuda praescientia*)’에 불과하다”고 격하시켰습니다.

칼빈은 이 비겁한 방관자적 하나님상을 단칼에 베어 넘깁니다 (슬라이드 4):

“섭리는 한가롭게 하늘에서 바라만 보는 눈길(*Speculatio*)이 아니다! 섭리는 만물의 키를 굳게 쥐고 계신 하나님의 능

인과 과정을 친히 작성하시고 집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다!” (1.16.3-4)

슬라이드 5에 제시된 렘브란트의 걸작 『갈릴리 호수의 폭풍 속의 그리스도』 (1633)를 보십시오.

집채만 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덮치고, 돛대는 부러졌으며,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통제 불능의 맹목적인 자연재해나 끔찍한 불운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바람과 바다를 혼드신 분도 하나님이지요, 배 고물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분도 만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항해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파도 앞에서도 기억하십시오. 그 바람과 파도는 우연히 일어난 재난이 아니라, 만물의 키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광풍은 단 한 줄기도 불어오지 않습니다!

[제2대지] 우연(*Fortuna*)과 운명(*Fatum*)의 분쇄: 참새와 머리털의 교리 (22:00 ~ 34:00)

(슬라이드 6 & 7 제시: 세속적 미신 분쇄, 참새와 머리털, 얀 브뤼헬 『노아의 방주』 1613)

이어지는 제5절부터 7절에서 칼빈은 인류 역사 속에서 섭리 교리를 가로막아 온 사탄의 두 가지 치명적인 거짓말을 정면으로 격멸합니다.

첫째, 에피쿠로스학과와 세속인들이 맹신하는 ‘우연(*Fortuna, Chance*)’입니다.

사람들은 걸핏하면 “재수가 좋았다”, “운이 나빴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칼빈은 단호히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우연’이나 ‘행운’이라는 단어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뜻밖의 돌발 사고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통치 아래에서는 단 하나의 우연도 없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십시오. 아합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아람 군대의 한 병사가 표적도 없이 “무심코 활을 당겨(1왕상 22:34)” 쏘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완전한 맹목적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살은 정확히 날아가 아합 왕의 갑옷 솔기 한 치의 틈새를 뚫고 심장을 갈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공의의 심판이, 인간의 무심한 활시위를 통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십시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둘째, 스토아학파(Stoics)의 비인격적인 ‘운명론(Fatum, Destiny)’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 만물이 냉혹하고 필연적인 원인과 결과의 쇠사슬에 묶여 돌아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의 사주팔자, 점성술, 혹은 기계론적 결정론이 바로 이 스토아 운명론의 변종입니다.

칼빈은 개혁주의 섭리론이 스토아 운명론과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사실을 역설합니다:

운명론은 인격이 없는 차가운 기계적 필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
지의 지혜로운 보살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30절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
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성도 여러분, 시장에서 혈값에 팔려 나가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사냥꾼의 그물에 걸리는 것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털 하나인들 어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빠지겠
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어떤 질병도, 어떤 만남과 이별도 맹목적인 운명이나 우연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세밀하고 사랑에 찬 통치 아래 있습니다!

[제3대지]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성도를 향한 편애적 사랑 (34:00 ~ 44:00)

(슬라이드 8 & 9 제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의 조화, 발광 성경 패널 마 10:29-30 & 잠 16:33)

칼빈은 제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를 두 가지 차원으로 심화하여 설명합니다.

슬라이드 7에 제시된 얀 브뤼헬의 걸작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동물들』(1613)을 보십시오.

수많은 동물들이 쌍을 지어 방주로 질서정연하게 걸어 들어가는 장엄한 광경입니다.

1. 일반 섭리(*Providentia generalis*): 하나님은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질서정연하게 보존하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를 내리시고(마 5:45), 계절의 순환과 낮과 밤을 운행하시며, 들짐승들에게 먹이를 공급하십니다 (시 104편).
2. 특별 섭리(*Providentia specialis*):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백성, 곧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눈동자와 같이 특별하고 편애적인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중에도 방주를 섭리적으로 지키셨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으며,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칼빈은 감격에 겨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온 우주의 군대를 호령하시지만, 그분의 모든 섭리의 최종적인 초점은 바로 자신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를 수호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데 맞춰져 있다! 성도가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조차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밀한 손길이다!” (1.16.8)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셉을 가장 기구한 운명의 피해자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요셉은 형들 앞에서 무엇이라고 신앙고백을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창 45:5, 50:20)”

이것이 바로 모든 악과 역경까지도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바꾸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개혁주의 성도의 영원한 닻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 말한 ‘모든 것(*panta*)’에는 성도의 번영과 형통뿐 아니라, 질병, 파산, 박해, 심지어 칼과 사망까지도 포함됩니다. 칼빈은 박해받는 프랑스 개혁교회 위그노 성도들에게 보낸 목회적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격려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로마 가톨릭의 화형대와 교수대가 결코 원수들의 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확신하십시오. 성도의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기록되어 있으며, 박해자들의 잔인한 광기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의 재갈에 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 이상의 고난은 단 1초도 여러분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섭리 신앙이 주는 절대적 안식과 담대함 (44:00 ~ 54:00)

(슬라이드 10, 11, 12, 13 & 14 제시: 이단 논파, 4대 매트릭스, 섭리의 안식, 워크숍, 송영)

현대인들은 왜 그토록 불안과 우울과 불면증에 시달립니까?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맹목적인 우연과 불운에 내 미래를 맡겨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섭리 교리를 가슴에 품은 개혁주의 성도는 결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르쳐 주는 섭리 신앙의 3대 영적 유익을 기억하십시오:

1. **과거에 대한 무한한 감사:** 지나온 모든 순간, 쓰라린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까지도 나를 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었음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2. **현재에 대한 지극한 인내:** 지금 내게 닥친 질병, 경제적 위기, 억울한 오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3. **미래에 대한 놀라운 담대함:** 내 미래는 불확실한 운명에 내맡겨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을 믿고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며, 성도 개개인의 내면을 정밀하게 점검하는 [섭리 신앙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를 여러분 가슴에 제시합니다:

1. **[언어 진단]** 나는 평소 일상 대화에서 "재수가 좋았다", "운이 나빴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비성경적 우연의 언어를 무의식적으로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2. **[고난 진단]** 뜻밖의 질병, 재정적 손실, 대인관계의 실패를 만났을 때,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며 맹목적 불운을 원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 섭리를 바라보니까?
3. **[불안 진단]**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마치 내 인생의 선장이 나 자신뿐인 것처럼 노심초사하며 잠 못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4. **[위로 진단]** 공중의 참새 한 마리도,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하신 부성애가 오늘 내 고단한 일상에 실재적인 위로와 안식이 되고 있습니까?
5. **[찬양 진단]** 과거의 쓰라린 상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며 감사의 찬송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까?

[평신도 삶의 적용] 성도 여러분, 불안과 염려의 보따리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홀로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오늘 밤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능동적 보존과 지속적 통치 (Actuosa Gubernatio):
2. 섭리는 높은 하늘에서 바라보는 단순 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매 순간 능력의 말씀으로 불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작정의 집행입니다 (1.16.3~4).
 3. 에피쿠로스의 맹목적 우연론(Fortuna) 분쇄:
4. 세상에 우연이나 맹목적 사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제비뽑기와 참새 한 마리의 떨어짐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작정 안에 있습니다 (잠 16:33, 마 10:29, 1.16.5).
 5. 스토아학파의 비인격적 운명론(Fatum) 배격:
6. 기독교의 섭리는 차가운 인과율의 사슬이나 필연적 운명이 아니라,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지니신 하늘 아버지의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주권입니다 (1.16.8).
 7. 특별 섭리(Providentia Specialis)와 성도의 보존:
8.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보편적으로 다스리실 뿐 아니라, 특히 자기 백성인 성도들을 위해 천하 만물을 움직이시며 머리털 하나까지 세십니다 (1.16.6~7).
 9. 제1원인(First Cause)과 제2원인(Second Causes)의 바른 이해:
10. 하나님은 자연법칙과 인간의 수단(제2원인)을 통하여 역사하시되 그 수단에 얽매이지 않으시며, 기적과 섭리적 간섭을 통해 자신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1.16.7~9).
-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운이 좋았다"거나 반대로 "정말 재수가 없었다"고 느꼈던 사건이 있습니까? 섭리 교리를 배운 지금 그 사건을 어떻게 다시 해석하게 됩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행운/우연'의 언어를 성경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언어로 전환하도록 부드럽게 이끌어 줍니다.

- 질문 1 (예지와 섭리의 구별): 칼빈이 섭리를 단순한 '관조적 예지'가 아니라 '능동적 주권'이라고 강조한 이유 (1.16.3-4)는 무엇이며, 이것이 내 기도 생활에 주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 질문 2 (참새와 머리털 본문 강독): 마태복음 10:29-30을 함께 읽고,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와 성도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는 선언이 현재 내가 겪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어떤 실질적인 위로를 줍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우연과 운명론 분쇄): 세상의 비인격적인 '운명론(스토아/사주팔자)'과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남아 있는 미신적 태도는 없습니까?
- 질문 4 (요셉의 고백과 상처의 치유): 창세기 50:20의 요셉의 고백("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처럼, 내 삶에서 과거의 상처나 실패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한 열매로 바뀐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와 통제욕을 내려놓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생애 전체를 의탁하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 공동 기도 제목:
- 내 인생을 맹목적인 우연이나 불운에 맡기며 불안에 떨었던 불신앙을 회개하게 하소서.
-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부성애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키를 잡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과거에 감사하고 현재에 인내하며 미래를 담대히 맞이하게 하소서.

제17장: 섭리 교리의 올바른 적용과 유익

[부제]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인내, 미래에 대한 담대함 — 섭리 교리가 주는 3대 영적 유익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17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교재 범위: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 (Book I) 제17주차 — 제1권 제17장 (1.17.1~14) - 강의 구성: 정식 60분 강독 강의 + 30~45분 소그룹 심화 나눔 모듈 - 핵심 주제: 섭리 교리의 실천적 목적(Quonam spectet haec doctrina), 섭리와 인간 책임의 거룩한 조화(잠 16:9), 수단(Media)의 성실한 사용과 게으른 자의 궤변 분쇄, 섭리의 3대 시제(과거 감사·현재 인내·미래 담대함), 요셉(창 45:5, 50:20)·욥(욥 1:21)·다윗(삼하 16:10)의 모범, 하나님의 '후회하심'(Poenitentia Dei)에 대한 적응 화법(Accommodatio) 해명(민 23:19 vs 삼상 15:11, 욥 3:10)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라틴어 원전 정본 핵심 발췌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목회적 위로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세속적 왜곡 (운명론적 방종, 원망과 복수심, 성경 난해 구절 오해)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지난 1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키를 굳게 쥐시고, 공중의 참새 한 마리와 성도의 머리털 하나까지 능동적으로 다스리신다는 장엄한 섭리 교리를 확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지극히 솔직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거대한 섭리 교리가 오늘 내 삶의 고단한 현실, 억울한 누명, 경제적 파탄, 질병과 불안의 한복판에서 대체 무슨 실제적 유익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교리를 차가운 지식의 장난감이나 메마른 신학자들의 사변적 논쟁거리로 치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존 칼빈은 단호히 선언합니다.

섭리 교리는 상아탑의 현학적 유희가 아니라, 피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환난의 풀무불 속에서 영혼의 닦을 내리게 하며, 미래의 공포를 이기게 하는 ‘성도의 가장 견고한 영적 요새’입니다!

칼빈은 제1권 제17장 전체를 할애하여, 섭리 교리가 신자의 삶 속에 맺는 찬란한 3대 영적 열매를 선포합니다:

- 2. 현재에 대한 지극한 인내 (Patientia in praesentia)
- 3. 미래에 대한 놀라운 담대함 (Securitas in futurum)

오늘 60분 강의를 통해 우리는 섭리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게으름과 원망의 족쇄를 끊어내고, 우리 인생의 선장이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 1. 섭리가 인간의 게으름이나 무책임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규명하고 수단(Media)의 올바른 사용을 정립한다 (1.17.3~5).
- 2. 요셉과 욥과 다윗의 모범을 통해 인간 원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을 바라보는 현재적 인내를 체득한다 (1.17.6~9).
- 3. 미래에 대한 모든 근심과 불안을 하나님의 부성애적 돌보심에 맡기는 담대함(Securitas)을 확립한다 (1.17.10~11).
- 4.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후회하심'의 참된 신학적 의미(신인동형론적 적응, Accommodatio)를 해명한다 (1.17.12~14).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섭리 교리의 참된 목적: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1.17.1~2)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섭리와 인간의 책임: 잠언 16:9와 수단의 거룩한 사용 (1.17.3~5)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과거의 감사와 현재의 인내: 요셉, 욥, 다윗의 영적 승리 (1.17.6~9)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미래에 대한 담대함과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한 해명 (1.17.10~14)
- 46:00 ~ 54:00 (8분): [제4대지] 섭리 신앙의 3대 시제(과거 감사, 현재 인내, 미래 담대) (1.17.6~11)
- 54:00 ~ 60:00 (6분): [결론 및 결단 기도] 인생의 선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김 (1.17.11)

II.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도입] 섭리는 왜 필요한가? — 관념적 사변을 찢고 눈물 골짜기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신학의 가장 따뜻하고 실천적인 장,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7장으로 들어섭니다.

(우리에게 그 유익이 분명해지도록 하기 위해 이 교리는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가!)

칼빈은 첫 문장에서부터 교리가 삶과 유리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지식은 공허한 사변으로 공중을 날아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 교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마음을 평안케 하며, 우리로 하여금 온갖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명백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1.17.1)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난을 만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뜻밖의 사기를 당하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불의의 사고로 잃거나, 사업이 부도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왜 하필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이런 악한 일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반대로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할 때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진폭 속에서 방황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의 구체적인 사건들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오늘 본문에서 섭리 교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을 구속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모든 상처와 은혜,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답답함,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의 불확실한 두려움까지도, 섭리 교리의 빛 아래 들어올 때 비로소 거룩한 의미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전개될 원전의 장엄한 강독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염려가 찬송으로 바뀌는 영적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1대지] 섭리와 인간의 책임: 잠언 16:9와 ‘수단(Media)’의 거룩한 사용 (10:00 ~ 22:00)

(슬라이드 3 & 4 제시: 섭리와 인간 의무의 조화, 원전 정본 1.17.3~5 강독)

칼빈은 제3절부터 5절에 걸쳐, 섭리 교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쳐드는 마귀의 간교한 핑계, 곧 '게으른 자의 궤변'을 단칼에 베어 넘깁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슬라이드 3):

"하나님께서 내 죽을 날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면, 내가 굳이 좋은 음식을 먹고 병원에 갈 필요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죽을 운명이면 약을 먹어도 죽을 것이고, 살 운명이면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도 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면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조심하며 땀 흘리는 것은 다 헛수고가 아닙니까?"

심지어 더 악한 자들은 자기가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진 것뿐인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까?"

칼빈은 이들을 향해 엄중한 호통을 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가증한 오만이요, 사탄이 심어준 치명적인 광기이다!”

천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칼빈의 주해를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슬라이드 4):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삶의 연한과 한계를 정해 놓으셨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수단을 사용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위탁하셨다. 주께서는 위험을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와 약재를 공급하셨으며, 생명을 유지할 곡식과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련해 주신 이 ‘수단들(Media, 제2원인)’을 성실히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당연한 청지기의 본분이다. 주께서 수단을 제정하셨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의무이다. 위험을 피하라고 경고하셨다면 무모하게 뛰어들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섭리는 결코 별거벗은 채로 오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상의 수단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온다!” (1.17.4)

성도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 결코 운명론적 게으름이나 무책임한 방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정직하게 계획하고, 땀 흘려 일하며, 건강을 돌보고, 자녀들을 눈물로 교육하며, 위기의 순간을 지혜롭게 대비해야 합니다.

수단 자체를 우상화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내팽개치고 요행을 바라는 것도 섭리를 조롱하는 오만입니다. 수단을 성실히 사용하되 그 결과를 오직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개혁주의 성도의 품격입니다.

[제2대지] 과거의 감사와 현재의 인내: 요셉, 욥, 다윗의 영적 승리 (22:00 ~ 34:00)

(슬라이드 5, 6 & 7 제시: 영화 감독 MET 소장 『요셉』, 감사와 인내의 교리, 라 투르 『아내에게 조롱받는 욥』 1650)

칼빈은 제6절부터 9절에서 성도가 인생의 순경(형통)과 역경(환난)을 통과할 때 섭리를 어떻게 가슴에 품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성경 인물들의 삶을 통해 실증합니다.

첫째, 형통 속에서의 과거에 대한 무한한 감사(Gratitudo)입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잘되며, 건강하고 평탄할 때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람에 빠집니다: "내가 밤잠 안 자고 노력해서 이룬 성과다! 내 능력과 수완이 뛰어난 덕분이다!"

그러나 섭리를 깨달은 성도는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대로 외칩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립니다.

둘째, 억울한 역경 속에서의 거룩한 인내(Patientia)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거나 타인에게 억울한 모함을 받을 때, 밤마다 이를 갈며 복수의 칼을 갑니다. 자기를 해친 '가해자'(제2원인)만 쳐다보기 때문에 영혼이 분노와 증오의 독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에 등장하는 세 명의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을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의 명화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잔인한 시기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고, 은 20개에 노예로 팔려갔으며,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요셉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요셉은 형들을 향해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감행해도 할 말이 없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별별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요셉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창세기 45장 5절과 50장 20절의 그 위대한 신앙고백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의 악행(제2원인)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의 악행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적 섭리(제1원인)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형들을 향한 미움과 복수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형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입 맞추며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7에 제시된 조르주 드 라 투르의 명작 『아내에게 조롱받는 욥』(1650)을 보십시오.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종기로 뒤덮인 몸을 굽고 있는 욥을 향해,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강도들이 욥의 모든 가축과 종들을 약탈하고 살해했습니다. 거친 들바람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 열 남매가 한순간에 몰살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도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하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옷을 찢고 엎드려 무엇이라고 예배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극심한 박탈감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피난길에 올랐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사울 가문의 시므이가 흙먼지를 날리며 다윗을 향해 저주의 독설을 쏟아부을 때, 분노한 장수 아비새가 "이 죽은 개 같은 자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이라고 만류합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삼하 16:10, 12)."

성도 여러분,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원수만 쳐다보면 우리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막대기를 쥐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노를 멈추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제3대지] 미래에 대한 담대함과 하나님의 ‘후회하심’ 해명 (34:00 ~ 46:00)

(슬라이드 8, 9 & 10 제시: 나뭇잎 소리와 평안, 발광 성경 패널 시 23:4 & 창 45:5, 적응 화법 1.17.12~14)

칼빈은 제10절과 11절에서 섭리가 없는 불신자의 끔찍한 비참함과 섭리를 믿는 성도의 찬란한 평안을 극적으로 대비시킵니다.

섭리를 모르는 불신자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모든 위험 앞에서 벌벌 떨니다.

집 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자동차가 돌진하지 않을까, 암에 걸리지 않을까,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레위기 26장 36절의 준엄한 경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바람에 불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섭리를 믿지 못하는 자는 굴러가는 마른 나뭇잎 하나에도 사시나무 떨듯 떨며 평생을 공포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슬라이드 9 발광 패널):

슬라이드 9의 황금빛 테두리 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다윗의 시편 23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칼빈은 가슴 벅찬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을 두르고 있다는 확신이 임할 때, 성도는 비로소 깊은 영적 안식(Securitas)을 얻는다. 성도는 담대히 외친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위험도, 어떠한 사탄의 권세도 내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다!’” (1.17.11)

이어지는 제12절부터 14절에서 칼빈은 성경을 읽는 평신도들이 가장 자주 혼란에 빠지는 난해 구절을 명쾌하게 해명합니다 (슬라이드 10).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삼상 15:11)",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려던 재앙을 돌이키사 뜻을 뉘우치셨다(욥 3:10)"는 표현이 나옵니다.

회의론자들과 이단들은 이를 악용하여 "하나님의 작정도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변하는 것 아니냐?"며 하나님의 불변성을 조롱합니다.

칼빈은 민수기 23장 19절의 절대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기록한단까?

칼빈은 이를 ‘하나님의 거룩한 적응 화법(Accommodatio)’으로 풀어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티끌 하나 오차 없이 작정하셨으며, 그 뜻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말을 건네는 어머니가 아기의 웅얼이에 맞춰 혀 짧은 소리를 내듯, 하나님께서는 우둔하고 유한한 인간의 눈높이에 자신을 낮추어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사역의 외적 양상이 달라질 때, 인간의 정서와 언어의 틀을 빌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표현하신 것일 뿐, 하나님의 내적 작정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적응 화법의 신비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신실하심을 더욱 견고히 붙들게 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섭리 신앙의 3대 시제와 5대 영적 자가진단 (46:00 ~ 54:00)

(슬라이드 11, 12, 13 & 14 제시: 이단 논파 매트릭스, 3대 영적 유익, 5대 자가진단 문진표, 송영)

새기십시오:

1. **과거에 대한 감사 (Gratitudo):**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 아픔과 실패까지도 나를 정금같이 빛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2. **현재에 대한 인내 (Patientia):** 나를 찌르는 가시와 억울한 원수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며 침묵으로 인내하십시오.
3. **미래에 대한 담대함 (Securitas):** 내 미래는 우연이나 운명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을 믿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오늘 강의를 정리하며, 성도 개개인의 내면을 정밀하게 점검하는 [섭리 신앙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를 제시합니다:

1. [원망 진단] 고난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를 해친 사람(제2원인)만을 원망하며 분노와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2. [교만 진단] 사업이 번창하거나 일이 잘 풀릴 때, 내 지혜와 수완을 은근히 과시하며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를 망각하지는 않습니까?
3. [게으름 진단]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건강 관리나 미래 준비, 성실한 노동과 같은 마땅한 은혜의 수단을 게을리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4. [불안 진단] 레위기 26:36의 말씀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나뭇잎 소리 같은 세상의 풍문에 지레 겁을 먹고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5. [용서 진단] 나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향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했던 요셉의 섭리적 용서가 오늘 내 삶에서 실천되고 있습니까?

[평신도 삶의 적용]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와 불안의 보따리를 전능하신 섭리의 주님 발아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홀로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과거에 감사하고, 현재에 인내하며, 미래를 담대히 맞이하는 복된 섭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섭리와 수단의 유기적 결합 (God's Ordained Means):
2. 섭리는 수단을 무시하는 운명론이 아니며, 하나님은 지혜로운 방편(음식, 의술, 법, 노동)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

4. 요셉이 형들의 악행 뒤에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 섭리를 보았듯(창 50:20), 성도는 제2원인인 가해자에게 복수심을 불태우지 않고 주님의 주권에 의탁합니다 (1.17.8).
5.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한 신인동형론적 적응 (*Accommodatio*):
6. 성경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지성에 맞추어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의 관계 변화를 인간의 언어로 적응하여 묘사하신 것입니다 (1.17.12~13).
7. 신자의 3대 시제 신앙 (과거 감사, 현재 인내, 미래 담대):
8. 지나온 과거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Gratitudo*), 현재의 고난을 묵묵히 견디며(*Patientia*), 다가올 미래의 모든 불확실성 앞에서도 영원한 안전(*Securitas*)을 확신합니다 (1.17.6~11).
9. 나뭇잎 소리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절대적 안식:
10. 섭리를 불신하는 자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 소리에도 떨지만(레 26:36), 섭리를 신뢰하는 성도는 천만인이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담대함을 누립니다 (시 3:6, 1.17.11).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최근 내 마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나뭇잎 소리"(건강, 재정, 자녀, 진로에 대한 풍문이나 염려)는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체면을 내려놓고 일상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두려움과 통제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따뜻한 공감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수단과 책임의 조화): 칼빈이 "섭리는 언제나 별거벗은 채로 오지 않고 수단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온다"고 강조한 이유(1.17.4)는 무엇이며, 이것이 내 일상생활(건강 관리, 직업적 성실성)에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질문 2 (요셉의 고백 강독): 창세기 45:5와 50:20을 함께 소리 내어 읽고, 요셉이 형들의 악행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영적 비결을 나누어 봅시다.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원수와 제2원인 극복): 내게 상처나 손해를 입힌 사람을 생각할 때 여전히 솟구치는 분노가 있습니까? 그 사람 너머에서 나를 겸손하게 빛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삼하 16:10 다윗의 고백)을 묵상할 때 어떤 용서의 결단이

- 질문 4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표현하는 구절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불변성과 적응 화법(Accommodation)을 어떻게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성도들이 섭리의 3대 시제(과거 감사, 현재 인내, 미래 담대함)를 가슴에 품고, 미래의 통제욕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맡기도록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 깃든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 억울한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가해자에게 원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연단을 바라보며 인내와 용서를 실천하게 하소서.
 - 세상의 헛된 나뭇잎 소리에 요동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여 담대히 전진하게 하소서.

제18강: 악인의 행위까지 공의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부제] 절대 주권과 신정론의 완성 — 악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18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교재 범위: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 (Book I) 제18주차 — 제1권 제18장 (1.18.1~4) - 강의 구성: 정식 60분 강독 강의 + 30~45분 소그룹 심화 나눔 모듈 - 핵심 주제: 단순 허용론(Nuda permissio)의 궤변 분쇄, 욕·아합·압살롬·바로의 성경적 실증, 원인의 구별(Distinctio causarum)과 목적의 차이(Diversitas finium),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Auctor peccati)가 아니심, 십자가 사건(행 4:27-28)에 나타난 섭리의 절정, 하나님의 뜻의 단일성(Simplicitas voluntatis)과 어거스틴의 명제, 인간 이성의 교만한 심문 금지(롬 9:20, 롬 11:33) - 텍스트 색상 체계: - ● 네이비 (#182B49):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라틴어 원전 정본 핵심 발췌 (Institutes Excerpts) -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목회적 위로 -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세속적 왜곡(소극적 허용론, 이원론, 하나님을 심문하는 교만)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제1권 창조주 하나님 지식의 장엄한 대단원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마지막 최종장인 제18장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18주 동안 우리는 참된 지식의 두 축에서 출발하여 성경의 자증적 권위, 삼위일체의 신비, 우주와 인간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의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권의 가장 높은 영적 에베레스트 정상, 신학 역사상 인간 이성이 가장 두려워하며 도망치려 했던 신정론(Theodicy)의 최종 난제 앞에 섰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모든 사건을 섭리하신다면, 역사 속에 가득한 악인들의 패역과 사탄의 잔혹한 광기는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악인의 행위까지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Auctor peccati)란 말인가?”

"하나님은 악을 직접 원하시거나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악인이 제멋대로 하도록 팔짱을 끼고 '그저 허용 (Permissio)'하셨을 뿐이다!"

그러나 칼빈은 18장 1절에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한가롭게 구경하는 방관자(Spectator otiosus)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탄과 악인의 광포한 음모마저도 손에 쥐시고 자신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속의 도구로 사용하시되, 자신은 티끌만큼의 불의나 죄악에도 결코 오염되지 않으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만유의 주재이시다!”

오늘 60분 강의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얇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려는 인본주의적 허용론을 완전히 타파하고, 악인의 악행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구원을 완성하시는 십자가의 웅장한 섭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 1. 단순 허용설(Nuda Permissio)의 궤변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적극적 주권 통치를 변증한다 (1.18.1).
- 2. 악인의 사악한 동기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목적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가 아니심을 규명한다 (1.18.2).
- 3. 어거스틴의 통찰에 따라 하나님의 뜻의 단일성과 경륜의 신비를 체계화한다 (1.18.3).
- 4. 제1권 창조주 하나님 지식을 총결산하고, 측량할 수 없는 주권 앞에 경외와 찬양을 올린다 (1.18.4).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신학 최대의 난제: 악의 문제와 신정론의 정점 (1.18.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단순 허용설'의 궤변 분쇄와 성경의 엄정한 증언 (1.18.1~2)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원인과 목적의 차이: 하나님은 왜 악의 조성자가 아니신가? (1.18.2)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하나님의 뜻의 단일성과 신비: 어거스틴의 명제 (1.18.3)
- 46:00 ~ 54:00 (8분): [제4대지] 제1권 창조주 하나님 지식의 총결산과 5대 자가진단 (1.18.4)
- 54:00 ~ 60:00 (6분): [결론 및 제1학기 수료 결단 기도]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향한 송영 (1.18.4)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도입] 신학 최대의 난제와 신정론의 정점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이 장의 라틴어 정본 표제를 다 함께 엄숙히 읽어봅시다:

“Deum sic impiorum opera uti, et animos flectere, ut ipse mundus maneat ab omni labe”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행위를 사용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굽히시되, 자신은 온갖 흠과 오염으로부터 순결하게 보존되신다!)

칼빈은 첫머리에서 인간 이성의 비겁한 타협을 통렬히 꾸짖습니다 (1.18.1):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도 그들의 불법에 전혀 오염되지 않으시며, 그들과 더불어 활동하시면서도 죄책을 지지 않으시며, 자신이 쓰시는 그 사탄과 악인들을 지극히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행하심(Actio)과 허용하심(Permissio)을 구별하는 헛된 회피책이 고안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성경 곳곳에서 엄숙히 선포하신다!”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행위 배후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위험한 사상이 아닌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반문합니다:

만일 사탄과 악인들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자기들 멋대로 활동하고 하나님은 그저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신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통제 불능의 카오스(혼돈)가 될 것이 아닙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악인들이 날뛰는 것을 보며 안절부절못하시는 무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머리칼 하나, 그들의 사악한 계략의 발걸음 하나까지도 철저히 통제하시며, 마침내 그들의 악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속의 경륜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제1대지] '단순 허용론'의 궤변과 하나님의 적극적 통치 (10:00 ~ 22:00)

(슬라이드 3 & 4 제시: 단순 허용론 비판, 4대 성경적 실증: 욥, 아합, 압살롬, 바로)

칼빈은 18장 1절과 2절에서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이 고안해 낸 '소극적 허용론(Nuda permissio)'을 성경의 명백한 본문들로 산산조각 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의 책임이 돌아갈까 봐 두려워하여 "하나님은 악을 허락만 하셨을 뿐 관여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일갈합니다:

“하나님을 변호해 드린다는 알팍한 인간적 명분으로 성경의 명백한 증언을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이다!”

성경을 정직하게 펴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그저 팔짱을 끼고 허락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 욥의 재앙 (욥 1:21): 갈대아 강도들과 스바 사람들이 침략하여 욥의 모든 가축을 약탈하고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 배후에서 사탄이 준동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욥은 결코 "강도들이 내 재산을 빼앗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옴은 강도들이나 사탄을 보지 않고, 그들을 심판과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보았습니다!

2. 아합을 속인 거짓말하는 영 (왕상 22:20~23):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 미가야 선지자에게 천상 어전회의의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꺾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죽게 할꼬" 하실 때, 한 영이 나와 "내가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는 그를 꺾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3. 압살롬의 패륜 범죄 (삼하 12:12, 16:22):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미 다윗에게 무엇이라 경고하셨습니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압살롬의 사악한 정욕 배후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밋세바 범죄에 대한 공의로운 징계를 집행하고 계셨습니다!

4.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함 (출 4:21, 9:12):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를 그저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자들의 악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칼빈은 엄숙히 묻습니다 (슬라이드 4):

“이 무수한 성경의 엄정한 증언 앞에서도 감히 '하나님은 단지 허용하셨을 뿐'이라는 비겁한 핑계 뒤로 숨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명령이 없이는 사탄도, 악인의 손가락 하나도 결코 움직일 수 없다!” (1.18.2)

그렇다면 이제 신학 최대의 핵심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도구로 쓰신다면, 악인이 저지른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가?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Auctor peccati)란 말인가?”

칼빈은 온 힘을 다해 외칩니다:

“천부담만부당하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Deus non est auctor peccati), 스스로 어떤 오염도 받지 아니하시는 지극히 순결하고 거룩하신 빛이시다!”

이 역설의 신비를 명쾌하게 이해하기 위해 칼빈은 개혁주의 교의학의 가장 위대한 금자탑 중 하나인 ‘원인의 구별 (Distinctio causarum)과 목적의 차이(Diversitas finium)’를 제시합니다.

슬라이드 6에 제시된 매트릭스를 보십시오:

하나의 동일한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과 악인(피조물)이 의도하는 목적은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카라바조의 불멸의 걸작 『그리스도의 체포 - 유다의 입맞춤』 (1602, 아일랜드 국립미술관 소장)을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가롯 유다가 번뜩이는 눈빛으로 스승 예수의 뺨에 입을 맞추고, 갑옷을 입은 로마 군병들이 쇠사슬을 들이대며 거룩하신 주님을 덮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의 현장입니다!

- 가롯 유다의 목적: 더러운 돈에 눈이 먼 탐욕과 배신이었습니다.
- 대제사장들의 목적: 시기와 질투로 무죄한 자를 죽이려는 살인욕이었습니다.
- 본디오 빌라도의 목적: 민란이 두려워 불의를 용인한 비겁한 보신주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오직 자신들의 타락한 정욕에 따라 행동했기에, 그 끔찍한 죄책은 100% 그들 자신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27~28절의 사도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악인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정욕을 따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동일한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시는 우주 최대의 사랑과 거룩한 공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악인은 악을 도모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지극히 거룩하신 구원자이시며,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의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7에 제시된 렘브란트의 걸작 『벨사살의 잔치』 (1635, 런던 국립미술관 소장)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금잔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던 벨사살 왕의 궁전 벽에, 신비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잔혹한 침략과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려 있었으며,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제국을 단 하루아침에 심판하셨습니다. 악인의 모든 교만과 악행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 아래서 공의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마침내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집니다!

[제3대지] 하나님의 뜻의 단일성과 신비: 어거스틴의 명제 (34:00 ~ 46:00)

(슬라이드 8, 9 & 10 제시: 하나님의 뜻의 단일성, 발광 성경 패널 행 4:27-28 & 사 10:5, 교만한 이성 분쇄 롬 9:20)

칼빈은 18장 3절에서 회의론자들의 두 번째 교만한 반론을 격파합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살인과 악행을 엄히 금지하시면서, 은밀한 섭리로는 악인의 악행을 통해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다면, 하나님께 두 가지 상반된 뜻(의지)이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자기모순에 빠지신 분이란 말인가?"

칼빈은 교부 어거스틴의 『엔키리디온』 (Enchiridion)을 인용하며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단 하나이며 지극히 조화롭다. 결코 하나님 안에 두 개의 모순된 뜻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피조물인 우리의 유한하고 타락한 지성이 하나님의 무한하고 은밀한 경륜의 신비를 다 헤아리지 못하여 두 개처럼 보일 뿐이다!” (1.18.3)

어거스틴의 유명한 명제를 기억하십시오:

“놀랍고 형언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해지는 일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악인들은 겉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계명(Preceptive Will)을 짓밟고 반역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날뛰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밀하고 주권적인 작정(Decretive Will)

슬라이드 9에 찬란한 황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이사야 10장 5절을 보십시오: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앗수르 왕 산헤립은 자기가 온 세상을 정복하는 줄 알고 교만하게 으스스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산헤립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한 자루 막대기와 몽둥이에 불과했습니다!

칼빈은 제4절에서 인간 이성의 헛된 호기심과 건방진 심문을 엄중히 꾸짖습니다 (슬라이드 10).

토기장이를 향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대드는 진흙 덩어리 같은 인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외쳤던 로마서 9장 20절의 일갈을 들으십시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인간의 좁은 머리로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를 재단하려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비극과 악인의 횡포 앞에서도, 성도가 취해야 할 가장 합당한 태도는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입을 가리고 무릎을 꿇는 거룩한 경외입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제1권 총결산과 5대 영적 자가진단 (46:00 ~ 54:00)

(슬라이드 11, 12, 13 & 14 제시: 신정론 매트릭스, 3대 영적 안식, 5대 자가진단 문진표, 로마서 11장 송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는 『기독교 강요』 제1권 18주간의 대장정을 완주했습니다!

칼빈이 제1권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 먼 우주 끝에서 줄고 계신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친히 붙들고 계시며, 참새 한 마리도, 악인의 악행까지도 자신의 선하신 구속 경륜 안에서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며, 성도 여러분의 내면을 점검하는 [악인의 행위와 섭리 신앙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를 제시합니다:

1. [신정론 진단] 세상에 가득한 불의와 악인들의 득세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가만히 계시는가"라며 회의와 불신앙에 빠지지 않습니까?
2. [원수 진단] 내게 고통과 피해를 준 가해자를 대할 때, 복수심에 눈이 멀기보다 그 너머에서 나를 정금같이 빛으시는

- 3. [십자가 진단] 유다와 빌라도의 가장 사악한 범죄까지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바꾸어 버리신 하나님의 역설적 지혜를 찬양합니까?
- 4. [핑계 진단]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으니 어쩔 수 없다"며 내 게으름이나 은밀한 죄악을 섭리의 핑계 뒤로 숨기려 하지 않습니까?
- 5. [경외 진단] 내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신비 앞에서도 입술을 가리고 "주는 의로우시도다"라며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평신도 삶의 적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사탄이 광포하게 날뛰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한 승리와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의 날개 아래서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 1. 단순 허용설(Nuda Permissio)의 인본주의적 궤변 분쇄:
- 2. 하나님은 사탄과 악인의 행위를 한가롭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며, 악인의 자유의지에 주권을 양도하지 않으시고 친히 역사의 주재로서 통치하십니다 (1.18.1).
- 3. 행위의 목적과 동기의 질적 차이 (Duo Agentes):
- 4. 사탄과 악인은 탐욕과 시기과 반역의 악한 동기로 행하나, 하나님은 그 동일한 사건을 공의로운 심판과 자기 백성의 연단이라는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므로 하나님은 결코 악의 조성자(Auctor Peccati)가 아니십니다 (1.18.2).
- 5. 십자가 대속에 나타난 섭리의 최고 절정 (행 2:23, 4:27-28):
- 6. 헤롯, 본디오 빌라도, 로마 군병들은 각자의 사악한 죄악으로 그리스도를 못 박았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섭리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대속이 성취되었습니다 (1.18.2).
- 7. 하나님의 뜻의 단일성과 거룩한 신비 (Voluntas Dei Una):
- 8. 하나님의 뜻이 모순되어 둘로 나뉜 것이 아니며, 외적으로 계시된 도덕법에 거역하는 인간의 죄악까지도 내적인 영원한 경륜 안에서 신비롭게 통괄하십니다 (어거스틴, 1.18.3).
- 9. 인간 이성의 월권 금지와 거룩한 찬양 (롬 11:33-36):

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어"라고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1.18.4).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뉴스나 일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되고 번영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에 들었던 솔직한 회의나 답답함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행통 앞에서 느끼는 솔직한 인간적 감정을 털어놓도록 격려하되, 시편 73편의 아삽의 고백처럼 말씀의 빛으로 인도합니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십자가와 섭리의 절정): 사도행전 4:27~28을 함께 읽고, 유대와 빌라도의 사악한 의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작정이 어떻게 하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만나는지 나누어 봅시다.
- 질문 2 (욥의 신앙고백): 욥기 1:21을 강독하고, 욥이 강도들이나 사탄을 탓하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원인의 구별을 묵상해 봅시다.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신가): 칼빈이 강조한 '원인의 구별(제1원인 vs 제2원인)과 목적의 차이'가 왜 하나님을 죄의 책임으로부터 순결하게 변증하는 핵심 열쇠인지 설명해 봅시다.
- 질문 4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의 경외): 내 삶에서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고난이나 불의한 사건 앞에서, 로마서 9:20과 11:33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지적 교만은 무엇입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악인의 손에 휘둘리지 않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가정을 의탁하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 공동 기도 제목:
 - 악인의 행통을 부러워하거나 불의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불신앙을 회개하게 하소서.
 - 십자가 위에서 모든 악을 이기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찬양하게 하소서.

•

서게 하소서.

제19장: 아담의 타락과 원죄, 인류의 부패

[부제] 거룩한 절망에서 피어나는 구속의 은혜 — 왜 인간은 자기도취를 버리고 자신의 전적 부패를 직시해야 하는가?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1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2학기 — 구속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Book II, 19~35주) - 주차: 제19주 (제2권 제1장: 아담의 타락과 반역으로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고 원시 상태에서 부패하였음 / *Adae lapsu et defectione totum humanum genus maledictioni fuisse addictum, et a primaeva conditione degenerasse: ubi de peccato originali*)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제2학기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거대한 문을 여는 기초석입니다. 칼빈은 구속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으로 '자기를 아는 지식(Notitia sui)', 곧 인간의 비참함과 전적 부패(Total Depravity)를 직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속 심리학의 자기도취(Philautia)와 펠라기우스주의의 도덕적 낙관론을 성경과 칼빈의 정본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오직 십자가 중보자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룩한 절망'의 영성을 선포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 버진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 옐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펠라기우스주의/세속 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우리는 지난 제1학기 18주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장엄한 설계자이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온 피조 세계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는 섭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2학기로 넘어가며 우리는 엄숙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토록 선하시고 영광스러우시다면, 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토록 참혹한 죄악과 불의, 고통과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왜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서도 끊임없이 악으로

세상 철학과 현대 심리학은 이 질문에 대해 끊임없이 인간의 편을 들며 속삭입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인간의 본성은 선한데 환경과 제도가 악해서 잠시 일탈했을 뿐이다. 긍정적인 자존감(Self-esteem)을 회복하고 교육을 혁신하면 인간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심지어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펠라기우스(Pelagius) 같은 이들은 “아담의 죄는 단지 나쁜 본보기에 불과하며, 인간은 여전히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을 시작하며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선고를 받은 죄수이며 영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곡하며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박하게 붙잡을 수 없다. 거룩한 절망이야말로 참된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이다!”

2. 강의 학습 목표

- 고대 델포이 신전의 ‘너 자신을 알라’는 격언과 성경이 명하는 ‘자기를 아는 지식(*Notitia sui*)’의 근본적 차이를 규명하고, 거짓 자기도취(*Philautia*)를 타파한다.
- 아담의 타락 사건이 단순한 과일 한 알의 식탐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불신앙(*Incredulitas*)과 교만(*Superbia*),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면적 반역임을 원전 정본을 통해 논증한다.
- 아담의 죄가 모방(*Imitatio*)에 의해 전달된다는 펠라기우스주의 오류를 반박하고, 혈통적 유전과 영적 전파(*Propagatio*)에 의한 원죄(*Peccatum Originale*)의 참된 성경적 정의를 체계화한다.
-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한 전인(*Totus homo*)의 전적 부패를 겸손히 인정하고, 매일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결단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거짓 자기도취의 가면을 벗고 거룩한 거울 앞에 서다 (2.1.1~3)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아담의 반역과 죄의 본질: 불신앙, 교만, 배은망덕 (2.1.4~5)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원죄의 참된 정의와 펠라기우스주의 모방설 분쇄 (2.1.6~8)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전적 부패(Total Depravity): 영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2.1.9~11)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거룩한 절망에서 피어나는 십자가 복음의 영광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구하는 겸손의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학기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제2학기의 대주제는 “구속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나 십자가의 보혈을 곧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칼빈이 제2권 제1장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먹살을 잡고 끌고 가는 자리는, 바로 ‘인간의 비참함과 추악한 죄악의 현장’입니다. 왜 칼빈은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기 전에 이토록 어둡고 처절한 인간론부터 파고드는 것일까요?

칼빈은 제1절에서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격언, 델포이 아폴론 신전 기둥에 새겨져 있던 “너 자신을 알라(*Nosce te ipsum*)”라는 문장을 소환합니다.

세상 철학자들은 이 격언을 인용하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간이여, 네 안에는 신적인 위대함이 숨겨져 있다.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고 너 자신의 고귀한 존엄성을 기억하라!”
오늘날 현대 세속 문화와 자기계발서, 심리학자들도 똑같은 소리를 되풀이합니다. “너는 너를 사랑해야 한다. 네 안의 거인을 깨워라. 너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선하다.”

그러나 칼빈은 2권 1장 2절에서 이러한 인간의 태도를 가리켜 “맹목적인 자기애와 가증한 자기도취(*Philautia*)”라고 통렬하게 질타합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거짓 칭찬에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합니다. 의사가 “당신은 건강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거짓 진단을 내려주면 기뻐하지만, “당신은 뱃속까지 암세포가 퍼져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라고 진실을 말하면 화를 내며 귀를 막아버립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고 명할 때, 그것은 우리의 잘난 점을 찾아 우쭐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 때 부여받았던 원래의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과, 타락 이후 완전히 부패하여 누더기가 되어버린 현재의 비참한 상태를 대조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벽한 파산자이며, 단 하나의 의로움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끔찍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의 거짓된 의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칼빈의 정본 강독을 통해 우리의 참모습을 직시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1대지] 아담의 반역과 죄의 본질 — 과일 한 알의 문제가 아니다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미켈란젤로의 『타락과 낙원 추방』 & 2.1.4 원전 강독)

칼빈은 제4절에서 에덴동산에서 일어난 인류 최초의 타락 사건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많은 불신자들과 가벼운 신자들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두고 빈정거립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쪼쪼하게 과일 하나 따 먹었다고 온 인류에게 영원한 저주와 죽음을 내리시는가? 그깟 사과 한 알이 무슨 대수라고 온 세상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

칼빈은 2.1.4에서 이러한 세속적 비아냥거림을 단호하게 논파합니다. 칼빈의 원문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대개 아담의 죄를 무절제한 식욕(食慾)으로 이해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유치한 해석이다. 온갖 좋은 실과가 사방에 풍성하게 널려 있는 낙원에서 겨우 과일 하나를 먹고 싶어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 죄의 본질이겠는가! 아담의 반역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Incredulitas)’이었다!” (2.1.4)

성도 여러분, 아담의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불신앙(*Incredulitas*)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사탄)이 나타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속삭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대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거짓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성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둘째는 교만(*Superbia*)과 반역입니다.

사탄의 결정적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다스림을 받는 겸손한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 자기가 선악의 최종 판정관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려 한 것입니다!

셋째는 배은망덕(*Ingratitudo*)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 에덴의 모든 풍요를 누리게 하신 창조주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는커녕, 겨우 한 나무를 금하셨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인색한 폭군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사건은 단순한 음식 섭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짓밟고 일어난 전면적인 군사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영적 대반역에 대해 의로운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공의로운 일이었습니다.

[평신도 삶의 적용]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의 뿌리를 보십시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윤리적 실수 이전에,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는 교만한 반역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주여,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대지] 원죄의 참된 정의와 펠라기우스주의 비판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마사초의 『낙원 추방』 & 2.1.6-8 원전 강독)

그렇다면 첫 조상 아담의 범죄는 어떻게 오늘 우리와 연결됩니까?

교회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이단인 펠라기우스(Pelagius)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담의 죄는 오직 아담 자신에게만 해를 끼쳤을 뿐이다. 오늘 태어나는 갓난아이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 에덴동산에 있던 상태와 똑같이 무죄하고 순결하다.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아서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른들의 악한 행동을 ‘모방(Imitatio)’하기 때문이다!”

“아담은 그저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온 인류의 뿌리요 대표였다. 그러므로 그의 부패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부패한 상태 속에 빠지게 되었다. 죄의 전염은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헛소리하듯 ‘모방(Imitatio)’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출생을 통한 ‘혈통적 유전과 번식(Propagatio)’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부패한 나무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가지와 줄기는 똑같이 부패한 독기를 머금을 수밖에 없다.” (2.1.6)

사도 바울의 명쾌한 선언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12)

만약 펠라기우스의 말대로 죄가 모방에 불과하다면, 아직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어떤 악행도 모방한 적이 없는 갓난아이가 왜 질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릅니까?

사망은 죄의 삯입니다. 어린아이조차 죽음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유전받았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제8절에서 교회사상 가장 명확하고 성경적인 원죄(Peccatum Originale)의 정의를 선포합니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원죄란 우리 본성의 유전적 타락성과 부패성이다. 그것은 영혼의 모든 부분들에 퍼져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온갖 ‘육체의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으킨다!” (2.1.8)

칼빈은 원죄의 성격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죄책(Reatus)’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반역에 동참한 언약적 후손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진노의 자녀(에베소서 2:3)입니다.

둘째는 ‘오염(Pollutio)’입니다. 우리 영혼의 내적인 샘물 자체가 맹독으로 오염되어 있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썩듯 온갖 더러운 탐욕과 시기, 분노와 음란의 열매들을 토해내게 됩니다.

[주의할 점] 현대인들은 흔히 “내가 구체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고발하는 죄의 본질은 행동 이전에 ‘오염된 본성 자체’입니다. 독사는 사람을 아직 물지 않았을 때에도 그 이빨 속에 독을 품고 있기에 이미 독사인 것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패한 본성을 품고 태어납니다.

[제3대지] 전적 부패(Total Depravity) — 영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패널(롬 5:12 & 엡 2:3) & 2.1.9 원전 강독)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가톨릭은 인간의 영혼을 쪼개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육체와 하위 감각 영역은 심각하게 오염되었지만, 인간 영혼의 가장 고귀한 부분인 ‘이성(Ratio)’과 ‘자유의지(Liberum Arbitrium)’는 여전히 선한 불씨를 간직하고 있다!”

칼빈은 제9절에서 이 타협적인 인본주의를 향해 종교개혁의 거대한 망치를 내리칩니다:

“아담이 참된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죄는 영혼의 일부분이 아니라 ‘영혼의 모든 부분’을 남김없이 장악하였다! 천박한 육체의 욕망뿐만 아니라,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두운 불신앙이 인간 정신의 최고 보루인 이성을 점령하였고, 교만이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지성소까지 뚫고 들어갔다. 그러므로 영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의 물결이 넘쳐흐르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2.1.9)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5대 강령의 첫 번째 기초적인 ‘전적 부패(Total Depravity)’, 라틴어로 ‘토투스 호모(Totus Homo, 전인적 부패)’ 교리입니다!

전적 부패란 인간이 악마처럼 매 순간 가장 극악한 죄만을 짓는다는 뜻(Total Depravity vs Utter Depravity)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기능 — 진리를 분별하는 지성,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감정, 거룩을 결단해야 할 의지 — 영혼의 모든 부품들이 죄로 인해 치명적으로 망가지고 뒤틀려 버렸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 썩어질 우상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정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죄의 멍에 아래 죄사슬로 묶여 버렸습니다.

칼빈은 제10절에서 엄숙하게 덧붙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비참한 상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고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 모든 저주와 부패는 순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인간 자신의 배역과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이다!” (2.1.10)

[결론 및 결단] 거룩한 절망에서 피어나는 십자가 복음의 영광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역사적 화폭 &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추악한 영적 환부를 거울 앞에 낱알이 드러내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칼빈은 바로 그 거룩한 통곡과 절망을 기대하며 이 글을 썼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전적 부패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도 끊임없이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Self-righteousness)’를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나 불신자들과 같지 않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십일조도 바치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교만한 영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안내를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조명 아래 내 영혼의 밑바닥을 들여다본 자는, 두 손을 들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복음 18:13)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절감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은 땅에서 하늘로, 나 자신에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됩니다!

부패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책과 사망을 짊어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의 잘남과 의로움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으십시오.

자기도취의 거짓 안개에서 깨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빚어져 가는 참된 개혁신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자기도취 (*Philautia*)의 치명성과 자기를 아는 참된 지식:
2. 인간은 선천적으로 거짓 칭찬과 자기도취에 취하기를 좋아하지만, 성경이 명하는 자기 인식은 본래의 거룩했던 상태와 타락 후의 전적 파산 상태를 대조하여 뼈저리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2.1.1~3).
3. 아담의 범죄의 본질 —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교만한 반역:
4. 선악과 사건은 단순한 음식 섭취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멸시한 불신앙(*Incredulitas*)이자 창조주의 왕권을 찬탈하려 한 교만한 대반역이었습니다 (2.1.4).
5. 원죄 (*Peccatum Originale*)의 성경적 정의 — 죄책과 오염의 유전:
6. 원죄는 아담의 나쁜 본을 단순히 모방(*Imitatio*)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근원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에게 혈통적으로 전달된 유전적 부패이자 죄책(*Reatus*)과 오염(*Pollutio*)입니다 (2.1.6~8).
7.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 Totus Homo*) — 전인격적 오염:
8. 타락의 오염은 영혼의 일부(육체나 감정)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최고 보루인 이성과 지성,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전 영혼을 남김없이 장악했습니다 (2.1.9).
9. 거룩한 절망 (*Sancta Desperatio*)과 구속자 그리스도께로의 인도:
10. 자신의 영적 파산과 무능을 뼈저리게 자각하지 않는 자는 결코 복음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없으며, 전적 부패의 자각이야말로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복된 관문입니다 (2.1.1~2, 10).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자기도취 탈피 진단]: 세상 심리학의 무조건적인 자존감(Self-esteem) 고취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적나라한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있는가?

근원적 불신앙과 교만에서 비롯됨을 통찰하는가?

3. [원죄와 연대 책임]: 내가 아담의 타락한 후손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엡 2:3)였음을 잊지 않고 있는가?
4. [전적 부패 겸손 진단]: 내 지성과 도덕성조차 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 스스로는 단 하나의 선이나 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음을 고백하는가?
5. [오직 십자가 피난처]: 나의 비참함과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절대적인 생명줄로 붙들고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현대 세상과 미디어는 끊임없이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반면 오늘 칼빈은 “자기도취(*Philautia*)를 버리고 영적 파산자임을 깨달으라”고 외칩니다. 이 두 메시지가 내 일상과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 솔직한 느낌을 나누어 봅시다.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세상의 심리학적 위로에 얼마나 깊이 젖어 있는지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이끄십시오. 자존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없는 자기 의와 공정이 복음의 은혜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온유하게 설명하십시오.

[2단계: 본문 속으로 (Primary Source Reflection, 15분)]

- 심층 질문 1 (죄의 본질): 칼빈은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의 본질을 ‘단순한 과일 한 알의 식탐’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불신앙(*Incredulitas*)’과 ‘교만(*Superbia*)’이라고 규명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나 내 감정을 더 신뢰하는 불신앙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  [인도자 코칭]: 피조물이 창조주의 왕권을 침탈하려 했던 반역의 성격을 명확히 부각시키십시오. 작은 불순종처럼 보이는 행동 이면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교만이 도사리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 심층 질문 2 (원죄와 전적 부패): 펠라기우스는 “죄는 단지 본보기의 모방(*Imitatio*)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칼빈과 성경(롬 5:12)은 왜 “죄는 혈통적 유전(*Propagatio*)에 의한 본성의 부패”라고 선언합니까? ‘전적 부패(*Total*

- 💡 [인도자 코칭]: 전적 부패는 ‘인간이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타락했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의 모든 기능(지성, 감정, 의지)이 오염되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을 바르게 정립해 주십시오.

[3단계: 삶과 사역으로 (Application, 12분)]

- 나눔 질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과 비교하여 은근히 내 도덕성이나 종교적 열심을 의지하는 ‘바리새인적인 자기 의’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나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를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영혼에 얼마나 절대적인 생명줄로 다가오는지 구체적으로 고백해 봅시다.

- 💡 [인도자 코칭]: 종교적 위선과 영적 교만을 내려놓고, 매일 십자가 보혈의 은혜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깊이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로 연결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십시오.

[4단계: 합심 기도와 파송 (Prayer & Commission, 6분)]

- 합심 기도 제목:
 - 내 안의 헛된 자기도취와 자기 의를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을 주소서.
 -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신뢰하게 하시고, 사탄의 거짓된 유혹과 교만을 물리치게 하소서.
 -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절망에 가두지 않고, 오직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복이 되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면 세상의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 A: 전적 부패는 인간이 매 순간 최악의 악행만을 저지른다는 뜻(극단적 악)이 아니라, 영혼의 모든 기능이 오염되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영적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상의 일반 도덕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한 억제 덕분입니다.
- Q2: 자신의 죄인 됨을 인정하기 두려워하며 우울증에 빠질까 걱정하는 성도에게는?
 - A: 칼빈이 말한 '거룩한 절망(Sancta Desperatio)'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절망이 아니라, 거짓된 자기 의를 깨뜨리고 오직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품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구원의 산통임을 따뜻하게 위로하십시오.

제20장: 사람의 비참한 현 상태: 의지의 자유를 빼앗긴 채 종의 상태에 매여 있음

[부제] 죄의 노예가 된 의지와 성령의 해방 —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없는가?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2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2학기 - 구속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Book II, 19~35주) - 주차: 제20주 (제2권 제2장: 사람의 비참한 현 상태: 의지의 자유를 빼앗긴 채 종의 상태에 매여 있음 / *Hominem nunc ereptae arbitrii libertati praeda esse, et miserae servituti addictum*)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신학적 격전지인 '자유지(Liberum Arbitrium)'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장엄한 교의학적 강독입니다. 칼빈은 철학자들의 헛된 자율성 환상과 중세 로마 교회의 신인협동설을 성경 원문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정본으로 통렬히 격파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상실된 초자연적 은사(*Dona supernaturalia*)와 부패한 자연적 은사(*Dona naturalia*)의 구분을 정밀하게 해설하고, 영적 소경 상태에 갇힌 인간을 오직 성령의 주권적 은혜로 해방하시는 복음의 절대성을 선포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 옐로우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자유지 맹신/스콜라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지난 제19장에서 우리는 아담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원죄(*Peccatum Originale*)의 유전적 부패성 아래 놓였으며,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전인(*Totus homo*)이 전적으로 부패했음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가장 실제적이고 날카로운 신학적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면, 오늘 우리에게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지(Liberum Arbitrium)’가 남아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의지는 죄의 사슬에 묶인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부터 현대의 인본주의 사상가들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언제나 인간의 '자유지'를 거룩한 신단 위에 올려두고 숭배해 왔습니다.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인간은 스스로 선을 선택할 내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중세 로마 가톨릭의 스콜라 신학자들도 “타락 이후에도 인간의 자유지는 상처를 입었을 뿐 죽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할 능력이 남아 있다”고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제2장에서 인간의 이 마지막 자존심을 향해 통렬한 사형선고를 내립니다. 칼빈의 대선언을 들으십시오: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지’가 있다는 말은 인간을 속이는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이다. 인간의 의지는 죄를 짓도록 강요(Coactio)받지는 않으나,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Necessitas)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영적인 선에 관하여 인간은 완전히 눈먼 소경이며, 오직 성령께서 의지를 해방하여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실 때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다!”

2. 강의 학습 목표

1. 세속 철학자들의 자유지 이상화와 교부들의 모호한 용어 사용을 비판하고, ‘자유지’라는 용어가 왜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교만을 심어주는지 규명한다.
2. 타락으로 완전히 상실된 ‘초자연적 은사(Dona supernaturalia)’와 심각하게 오염된 ‘자연적 은사(Dona naturalia)’의 교의학적 구분을 확립한다.
3. 인간의 이성이 이 땅의 정치, 예술, 학문(일반은총)에서는 작동하지만, 영적인 하나님 지식과 구원에 관해서는 완전한 흑암(요 1:5) 속에 갇혀 있음을 논증한다.
4. 자신의 의지적 결단을 자랑하는 공로사상을 버리고, 묵인 의지를 거듭나게 하사 선택 소원을 품게 하시는 성령의 주권적 은혜만을 찬양하는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간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선택의 자유'라는 현대인의 환상과 영적 죄사슬 (2.2.1~3)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자유지'라는 거짓된 이름: 교부들의 타협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실 (2.2.4~8)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상실된 초자연적 은사와 부패한 자연적 은사: 지성의 영역 (2.2.12~17)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영적 소경인 인간 지성과 죄에 매인 의지의 필연성 (2.2.18~27)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의지의 죄사슬을 끊으시는 성령의 거듭나심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내 의지의 자만을 버리고 주권적 은혜에 항복하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주제는 교회 역사상 가장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주제이자,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핵심 교리입니다. 바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2장, “사람의 비참한 현 상태: 의지의 자유를 빼앗긴 채 종의 상태에 매여 있음”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Liberty)’와 ‘선택(Choice)’입니다.

수많은 마케팅 전문가들과 미디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당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며,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의지로 창조하십시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신앙을 일종의 ‘소비자적 선택’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내 자유의지로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내 결단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으며, 내가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자유롭습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면 내 안에서 미움이 사라집니까?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의지를 발동하면 밤새 잠 못 들게 하던 불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까? 내가 탐욕과 음란을 품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거룩한 천사처럼 살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결심하고, 다음 날 아침 똑같은 죄의 수렁에 곤두박질치는 비참한 자신을 목격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처절한 실존을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19, 24)

칼빈은 오늘 2권 2장에서 인간의 이 뼈아픈 노예 상태를 정면으로 해부합니다. 세상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고 거짓 위로를 던지지만, 그것은 환자에게 마약 주사를 놓아 파멸로 이끄는 독약과 같습니다. 오늘 60분의 강독을 통해, 인간의 부패한 의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직시하고, 우리를 죄의 죄사슬에서 건져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해방의 복음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자유의지’라는 거짓된 이름 — 교부들의 타협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실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뒤리의 『멜랑콜리아 I』 & 2.2.4-8 원전 강독)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학과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하늘의 신적인 불꽃’으로 칭송하며, 이성이 의지를 지휘하여 언제든지 덕(Virtue)을 선택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죄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교회의 교부들조차 철학자들의 조롱을 두려워하여 이 거짓된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소스토무스나 오리게네스 같은 초기 교부들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에게도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약간은 남아 있다”고 타협적인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칼빈은 제7절과 제8절에서 교부들의 이러한 우유부단함을 매섭게 질타합니다:

“자유의지(Liberum Arbitrium)’라는 명칭은 실로 너무나 거창하고 위험한 이름이다. 이 명칭을 들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선과 악을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는 주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성경과 아우구스티누스가 명백히 증언하듯이, 인간의 의지는 죄의 멍에 아래 짓눌려 쇠사슬에 묶여 있다.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자에게 어찌 ‘자유의지’라는 영광스러운 왕관을 씌워줄 수 있단 말인가!” (2.2.7-8)

칼빈은 교회사 최고의 스승 아우구스티누스의 서릿발 같은 선언을 인용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악용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의지의 자유를 동시에 잃어버렸다. 의지는 죄의 정복을 받아 종의 상태로 전락하였다!” (De Correptione et Gratia, cap. 1)

여기서 칼빈은 지극히 중요한 교의학적 구분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강제(Coactio)에 의해 억지로 죄를 짓는가, 아니면 자발적 필연(Necessitas)으로 죄를 짓는가?”

누군가 등 뒤에서 총을 겨누고 억지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강제’라고 합니다. 인간은 결코 사탄이나 외부에 의해 강제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이 죄를 지극히 사랑하고 탐닉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여 기쁘게 죄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본성이 이미 죄로 철저히 썩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선을 선택하는 것은 영적으로 ‘불가능한 필연’입니다.

즉, 인간의 의지는 ‘자발적으로 죄를 짓지만, 필연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신학이 선포하는 ‘노예 의지(Servum Arbitrium)’의 진실입니다!

[평신도 삶의 적용]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의지의 힘이나 결단력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번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순간 베드로처럼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매일 아침 “주여, 내 부패한 의지는 죄를 향해 달려갈 뿐이오니, 성령의 밧줄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엎드리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제2대지] 상실된 초자연적 은사와 부패한 자연적 은사 (22:00 ~ 34:00)

그렇다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 본성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사라졌고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칼빈은 제12절에서 교회사에 길이 남을 불후의 공식을 정립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확정해야 한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 은사들(Dona supernaturalia)’은 완전히 박탈되었으며, ‘자연적 은사들(Dona naturalia)’은 심각하게 부패하고 더러워졌다!” (2.2.12)

성도 여러분, 이 구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초자연적 은사(*Dona supernaturalia*)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 영원한 의와 거룩함, 하늘의 영생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이 거룩한 은사들은 타락의 순간 인간 영혼에서 ‘단 0.001%도 남김없이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타락한 자연인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선한 것이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둘째, 자연적 은사(*Dona naturalia*)란 무엇입니까?

사물을 분별하는 지성(이성), 판단력, 예술적 감각, 언어 능력, 사회를 조직하는 정치력 등 인간 본연의 기능들입니다.

이것들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마저 사라졌다면 인간은 짐승과 똑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적 은사들은 ‘죄의 맹독으로 철저히 뒤틀리고 오염’되었습니다.

마치 최고급 맑은 유리잔에 치명적인 독극물이 쏟아져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유리잔의 형태는 남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은 죽음의 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칼빈은 묻습니다: “왜 불신자 철학자나 세속 정치가, 예술가들 중에서도 그토록 눈부신 지혜와 법률, 아름다운 문학 작품들이 나오는가?”

칼빈은 2.2.14-16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반 은총(*Gratia Generalis*)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고대 이교도 작가들의 글에서 정의와 정치적 질서에 관한 찬란한 통찰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빛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모든 진리는 그 출처가 어디이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타락한 본성을 완전히 방치하셨다면 온 세상은 당장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 성령의 일반적 은사로 불신자들의 부패를 억제하시고 지혜를 나누어주신 것이다.” (2.2.15-16)

[주의할 점]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신자 학자들이 발견한 수학 공식이나 뛰어난 건축 기술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이 땅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한 잠정적인 선물일 뿐,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3대지] 영적 세계를 향한 완전한 소경 — 요한복음 1:5의 증언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고전 2:14 & 요 8:34-36) & 2.2.18-20 원전 강독)

칼빈은 제18절부터 제21절에 이르러, 인간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를 가장 엄밀하게 규정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앎의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일반은총 아래서 이 땅의 일들은 어느 정도 탐구하고 훌륭한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늘의 일들(Res caelestes)’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부성애적 자비, 우리의 구원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거룩한 순종입니다.

이 하늘의 일들에 관하여 인간의 이성은 어떤 상태입니까? 칼빈의 단호한 선언을 들으십시오:

“하늘나라와 구원에 관한 영적 진리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은 대낮의 햇빛 아래서 길을 잃고 해매는 박쥐보다 더 캄캄한 소경이다! 사도 요한이 장엄하게 선언한 바와 같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요 1:5). 인간의 영혼은 빛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을 만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파묻혀 있다!” (2.2.18-19)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전 2:14)

인간이 아무리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열 개 받고 노벨상을 수상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조명 없이는 성경 66권에 담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단 한 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걸림돌’일 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시체에게 아무리 교향악을 들려준들 반응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스스로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 것은, 내 지성이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 닫힌 영의 눈을 강권적으로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겔 36:26)!

[결론 및 결단] 묵인 의지를 해방하시는 은혜의 성령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칼빈이 제2권 제2장에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가혹한 진실을 이토록 집요하게 논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기력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의지의 힘으로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헛된 교만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내 의지의 무능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 8:34, 36)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방종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해방’입니다!

그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에 부어주실 때만 주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이것을 결단했습니다”라는 교만한 기도를 내려놓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엎드리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도 내 묶인 의지를 풀어주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자유의지 (*Liberum Arbitrium*)'라는 명칭의 치명적 위험성:
2. 인간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표현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자만심을 심어주므로 배격되어야 하며, 타락한 의지는 죄의 노예 상태에 매여 있습니다 (2.2.7~8).
3. 강제 없는 필연성 (*Necessitas sine Coactione*):
4. 인간의 죄는 외부의 강요(*Coactio*)에 의해 억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본성의 자발적인 욕망에 따라 필연적으로(*Necessitas*) 범해지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2.2.5).
5. 초자연적 은사의 상실과 자연적 은사의 부패:
6. 타락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초자연적 은사(의, 거룩, 진리)는 완전히 박탈되었고, 이성과 의지 같은 자연적 은사마저 심각하게 오염되어 어둠에 갇혔습니다 (2.2.12).
7. 일반은총의 영역과 구원 지식의 절대적 영적 소경:
8. 인간의 이성은 정치, 가정, 기술, 인문학 등 지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일정한 분별력을 발휘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과 구원에 관해서는 완벽한 흑암(요 1:5) 속에 있습니다 (2.2.13, 18).
9. 의지의 참된 해방 — 오직 성령의 주권적 갱신:

원하거나 행할 수 없으며, 구원은 인간 의지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2.2.27).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의지 자만 탈피]: 내가 내 자유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선택해 구원받았다는 인본주의적 공로의식을 버리고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는가?
2. [죄의 종노릇 자각]: 선을 행하기 원하면서도 끊임없이 넘어지는 연약함 앞에서, 내 부패한 의지가 은혜 없이는 죄의 노예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가?
3. [지성적 교만 경계]: 세상 학문과 세련된 지식을 자랑하다가 십자가 복음의 영적인 신비를 놓쳐버리는 영적 소경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가?
4. [자발적 책임 고백]: 나의 범죄와 게으름을 환경이나 사탄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부패한 마음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임을 정직하게 회개하는가?
5. [성령의 주권적 의존]: 빌립보서 2:13 말씀처럼, 내 안에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내 삶과 의지의 주도권을 온전히 양도하고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새해나 특별한 결단의 시간에 “올해는 반드시 성경 통독을 하겠다”, “화를 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지만, 내 의지의 박약함으로 인해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내 의지의 한계를 가장 뼈아프게 느꼈던 순간을 나누어 봅시다.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실패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자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을 먼저 나누십시오. 의지의 나약함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 본성의 영적 실존임을 부드럽게 짚어줍니다.

[2단계: 본문 속으로 (Primary Source Reflection, 15분)]

- 심층 질문 1 (자유의지의 허상): 칼빈은 왜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의지(Liberum Arbitrium)’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위험하며,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 인간의 의지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까? ‘강제(Coactio)는 없으나 필연(Necessitas)으로 죄를 짓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 [인도자 코칭]: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사탄이 강제로 조종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패한 욕망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짓기 때문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설명하십시오. 그러나 그 본성이 부패했기에 스스로 하나님을

- 심층 질문 2 (은사의 구분과 영적 소경): 칼빈은 타락으로 인해 ‘초자연적 은사’는 완전히 상실되었고 ‘자연적 은사’는 심각하게 부패했다고 규명했습니다. 불신자 과학자나 예술가들이 이 땅의 일(일반은총)에서는 탁월한 업적을 남기면서도, 왜 십자가 복음(요 1:5, 고전 2:14) 앞에서는 완벽한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  [인도자 코칭]: 지적 학식과 영적 구원의 지식이 전혀 별개의 차원임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조명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3단계: 삶과 사역으로 (Application, 12분)]

- 나눔 질문: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의지로 하나님을 택했고, 내 열심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은근한 자기 자랑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빌 2:13)는 말씀 앞에서, 이번 주간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구체적인 영역은 무엇입니까?

-  [인도자 코칭]: 성도들이 ‘내 의지의 결단’을 신뢰하던 태도를 내려놓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실제적인 행복의 결단으로 이어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4단계: 합심 기도와 파송 (Prayer & Commission, 6분)]

- 합심 기도 제목:
- 내 부패한 의지의 무능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매 순간 나를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하시는 십자가 은혜만을 붙들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자율성 우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람의 결단이나 프로그램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성령의 주권적 역사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 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라는 질문에는?
- A: 칼빈의 '강제(Coactio)와 필연(Necessitas)의 구별'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억지로 강요해서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부패한 욕망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죄를 기뻐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심판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 Q2: 불신자 석학들이나 훌륭한 학자들을 볼 때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에게는?

•

차이를 설명하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성령의 거듭나심 없이는 천국 문턱조차 볼 수 없습니다(요 3:3).

제21장: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저주받을 것 뿐임

[부제] 거룩한 억제와 은혜의 전적 사역 — 왜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며 오직 단독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가?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3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2학기 - 구속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Book II, 19~35주) - 주차: 제21주 (제2권 제3장: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저주받을 것뿐임 / *Ex corrupta hominis natura nihil nisi damnabile prodire*)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인간의 도덕적 자화자찬을 완전히 분쇄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Sola Gratia*)의 필연성을 확증하는 교의학적 절정입니다. 칼빈은 성경이 말하는 '육신(Caro)'의 개념을 전인적 시각으로 해명하고, 로마서 3장의 엄중한 기소장을 강독합니다. 불신자 사회의 시민적 덕성은 인간 본성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Gratia cohibens*)'의 산물임을 밝히며, 중세 로마 교회의 신인협동설(*Synergism*)을 박살 내고 거듭남과 회심이 100% 하나님의 단독 사역(*Monergism*)임을 선포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 옐로우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신인협동설/공로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지난 제20장에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의지가 죄의 멍에에 묶인 '노예 의지(*Servum Arbitrium*)'이며, 영적인 구원의 진리에 대해 완전한 흑암(요 1:5) 속에 갇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과 교회가 가장 자주 던지는 실존적 의문과 정면으로 부딪치게 됩니다:

“성경은 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저주받을 것뿐’이라고 극단적으로 매도하는가?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고 청렴한 불신자들도 많지 않은가? 아리스티데스의 정의, 소크라테스의 절제, 카밀루스의 애국심은

인간의 자율성을 숭상하는 세상 도덕주의자들은 성경의 이 선언을 듣고 분노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너무나 모욕한다. 인간의 도덕적 선행과 숭고한 희생을 저주받을 악행 취급하는 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에라스무스(Erasmus) 역시 인간의 손을 들어주며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것을 붙잡고 협력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제3장에서 타협을 거부합니다. 칼빈의 서릿발 같은 선언을 들으십시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라는 썸에서 솟아나는 모든 물줄기는 본질상 치명적인 독을 머금고 있다. 불신자에게서 나타나는 고귀한 덕성은 본성의 선함이 아니라 악의 폭발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억제 은혜(Gratia cohibens)의 선물일 뿐이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는 모든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죄(Splendida peccata)’에 불과하다. 구원은 인간의 협력이나 오직 하나님의 100% 주권적 단독 은혜(Monergism)로만 성취된다!”

2. 강의 학습 목표

- 성경에서 ‘육신(Caro)’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신체가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전인(Totus homo)을 가리킴을 파악하고, 로마서 3장의 기소장을 강독한다.
- 불신자 사회의 시민적 덕성이 인간의 자율적 선행이 아니라 악의 분출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억제 은혜(Gratia cohibens)’임을 원전으로 규명한다.
- 은혜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협력한다는 신인협동설(Synergism)의 치명적 오류를 반박하고, 돌마음을 제하고 살마음을 주시는 주권적 단독 사역(겔 36:26)을 체계화한다.
- 자신의 도덕성이나 종교적 봉사를 내세우는 모든 자기 의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께서 심어주신 은혜의 소원(빌 2:13)에 감사하며 겸손히 엎드린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도덕적 자화자찬의 환상과 성경의 차가운 메스 (2.3.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전인적 부패로서의 육신(Caro)과 로마서 3장의 기소장 (2.3.1~2)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불신자의 시민적 덕성과 하나님의 억제 은혜(Gratia Cohibens) (2.3.3~4)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신인협동설(Synergism) 분쇄: 돌마음을 제하시는 100% 단독 은혜 (2.3.5~8)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권적 사랑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자기 의를 배설물로 버리고 주권적 은혜만 자랑하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기독교 강요』 제2권 제3장의 제목은 우리의 인간적인 자존심을 사정없이 무너뜨립니다: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저주받을 것뿐임 (*Ex corrupta hominis natura nihil nisi damnabile prodire*)”

세상 사람들은 이 제목만 보고도 눈살을 찌푸립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왜 이렇게 인간을 비관적으로 보는가? 인간이 평생 이웃을 돕고 정직하게 살며 사회에 기여한 선행까지 모조리 저주받을 죄악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편협한 독단이 아닌가?”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칼빈 개인의 염세주의적 성격에서 나온 독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청진기이자, 피할 수 없는 성경의 메스입니다.

암에 걸린 환자에게 의사가 “당신은 겉모습이 아주 말쑥하고 옷을 잘 차려입었으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거짓 위로를 던진다면, 그것은 환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는 것입니다. 참된 의사는 겉모습에 속지 않고 환부의 밑바닥까지 칼을 대어 썩은 고름을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칼빈은 오늘 2권 3장에서 인간이 자기 의를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모든 썩은 누더기들을 낱알이 파헤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완전한 빛 앞에 서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다른 이웃이나 흉악범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착하게 살았다”는 알팍한 바리새인적 위안에 숨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외모나 사회적 체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영혼의 뿌리’를 보십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의 거짓된 도덕적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순전한 은혜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1대지] ‘육신(Caro)’이라는 전인적 진단과 로마서 3장의 기소장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브뤼헬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우화』 & 2.3.1-2 원전 강독)

칼빈은 제1절에서 성경이 인간을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인 ‘육신(Caro)’의 개념을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이라고 하면 단지 살과 피로 이루어진 물리적 몸, 혹은 동물적인 성욕이나 식욕 같은 하위 충동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을 인용하며 단언합니다:

“성경이 인간을 가리켜 ‘육신’이라 부를 때,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관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전인(Totus homo)’, 곧 인간의 가장 고결한 이성과 지성, 마음의 가장 깊은 의지까지를 남김없이 포함하는 말이다!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요 3:6)라고 선언하셨을 때, 니고데모의 고결한 도덕성과 종교적 지식까지도 전부 육신에 불과하다고 규정하신 것이다.” (2.3.1)

이어 칼빈은 제2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18절에서 온 인류를 향해 낭독한 성령의 준엄한 기소장을 펼쳐 듭니다: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롬 3:10-18, 2.3.2)

성도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사형선고를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흉악 연쇄살인범들만을 향해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적이고 도덕적이었던 로마 시민과 헬라 철학자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암송하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 낭독한 것입니다!

칼빈은 묻습니다: “우리 중 누가 감히 이 선언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비록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강도질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목구멍 속에 이웃을 향한 잔인한 험담이 숨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함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본질상 로마서 3장의 고발에 100% 해당하는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제2대지] 시민적 덕성과 하나님의 ‘억제 은혜(Gratia Cohibens)’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카라바조의 『다윗과 골리앗』 & 2.3.3-4 원전 강독)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선량한 사람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불신자 중에서도 자기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애국자, 가난한 이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자선사업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선행도 다 헛것이란 말입니까?”

칼빈은 제3절과 제4절에서 이 난제를 신학적으로 가장 눈부시게 풀어냅니다. 칼빈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물론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어떤 이는 방탕하고 파렴치하게 죄를 짓는 반면, 어떤 이는 정직하고 절제하며 고결한 삶을 산다. 고대 로마의 영웅 카밀루스는 조국을 배신한 카틸리나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다. 그러나 그 차이가 인간 본성의 선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그것은 인간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당장 죄악으로 자멸하지 않도록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제어하시고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Gratia cohibens)’의 역사이다!” (2.3.3-4)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나운 맹수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맹수가 우리 안에서 암전하게 앉아 있는 것은, 그 맹수가 온순한 양으로 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단단한 쇠사슬이 맹수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까? 쇠사슬 때문입니다!

쇠사슬을 풀어놓는 순간, 맹수는 사납게 달려들어 사람을 물어뜯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이 바로 그 맹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회의 법률, 수치심, 명예욕, 형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성령의 일반적인 억제 은혜를 통해 죄인들의 마음을 쇠사슬로 묶어두셨습니다.

말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칼빈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을 빌려 단언합니다:

불신자가 행하는 아무리 위대한 도덕적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만족과 명예욕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죄(*Splendida peccata*)’에 불과합니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된 시체라 할지라도 시체는 여전히 썩은 냄새를 풍길 뿐이듯, 하나님 없는 인간의 의는 영적인 악취를 풍길 뿐입니다.

[신학적 경고] 교회 안에서도 도덕주의의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착하게 살고 남을 돕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지 않은 모든 인간의 행위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3대지] 신인협동설(Synergism) 격파와 100% 주권적 단독 은혜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롬 3:10-12 & 겔 36:26) & 2.3.6-9 원전 강독)

이제 칼빈은 제6절부터 제9절에 걸쳐, 종교개혁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새를 사수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세 가톨릭과 인본주의자들의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산산조각 내는 일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다(선행은총). 그러나 그 은혜는 문 앞에 놓인 선물과 같다. 그 선물을 자기 자유의지의 손으로 열어보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발로 차버릴 것인지는 인간 자신의 협력에 달려 있다!”

얼마나 달콤하고 그럴듯한 논리입니까? 인간의 공로와 자존심을 살려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2.3.6-8에서 성경 말씀을 들어 이 사탄의 독소를 완전히 쳐부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인간의 나약한 의지를 살짝 거들어주는 보조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찌그러진 의지를 펴서 고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대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이다! 선한 의지는 인간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산물이다!” (2.3.6)

에스겔 36장 26절의 장엄한 약속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돌맹이가 스스로 살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외부의 전능하신 창조주의 손길이 개입하여 돌을 깨뜨리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야만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그 소원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시작부터 완성까지, 구원은 인간의 1% 협력이 들어갈 틈이 없는 ‘하나님의 100% 주권적 단독 사역 (Monergism)’입니다!

[결론 및 결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Soli Deo Gloria)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역사적 화폭 &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칼빈이 제2권 제3장에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저주받을 것뿐”이라고 못 박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자량을 티끌처럼 흩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Soli Deo Gloria)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구원에 인간의 협력이 1%라도 들어간다면,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내가 그래도 저 불신자보다는 믿을 만한 지혜와 결단력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자기 의를 뽐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톨의 자기 자랑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전 4:7)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자기 파산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내 본성에서 나온 것은 허물과 죄와 부끄러움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나를 죄악의 파멸에서 지키셨고, 주님의 주권적인 단독 은혜가 돌 같은 내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품은 성도만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유혹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주께서 친히 완성하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성경이 고발하는 '육신 (Caro)'의 전인격적 의미:
2. '육신'은 단순한 신체나 감각적 욕망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전체(*Totus Homo*)를 가리키며 하나님과 원수 되는 본성입니다 (2.3.1).
3. 로마서 3장의 전면적 유죄 선언과 보편적 파산:
4. 사도 바울이 시편을 인용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선언한 것은 특정 악인이 아닌 모든 인간의 실존적 영적 상태입니다 (2.3.2).
5. 불신자의 시민적 덕성과 하나님의 억제 은혜 (*Gratia Cohibens*):
6. 카밀루스나 소크라테스 같은 불신자들의 영웅적 덕성은 본성의 선함이 아니라, 사회의 붕괴를 막으시고 인류를 보존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악의 분출을 고삐로 억제하신 일반은총의 결과입니다 (2.3.3~4).
7. 하나님 없는 도덕적 선행의 실체 — '빛나는 죄 (*Splendida Peccata*)':
8. 믿음과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인간적 의와 선행은 외형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자기 사랑과 교만이라는 썩은 뿌리에서 나온 빛나는 죄에 불과합니다 (2.3.4).
9. 신인협동설 (*Synergism*) 분쇄와 100% 단독 은혜 (*Monergism*):
10.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은혜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36:26 말씀대로 돌 같은 완고한 마음을 단번에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살 같은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전적인 단독 은혜입니다 (2.3.5~8).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도덕주의 착각 탈피]: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괜찮은 자로 여기는 바리새적 자기 의를 버렸는가?
2. [육신의 전인성 자각]: 내 지성과 신앙적 열심조차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육신(Caro)'의 악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겸손히 경계하는가?
3. [억제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끔찍한 범죄에 빠지지 않은 것이 내 품성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고삐로 내 악한 본성을 억제해 주신 덕분임을 고백하는가?
4. [동기의 순결성 진단]: 나의 헌신과 선행이 사람들의 칭찬이나 영적 우월감을 얻기 위한 '빛나는 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순수한 찬양인가?
5. [주권적 단독 은혜 찬양]: 내 죽은 마음에 먼저 찾아오셔서 돌마음을 제하시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100% 주권적 구원 은혜만을 평생 자랑하고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 나눔 질문: 세상에서 정말 착하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볼 때, “저런 착한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을까?” 하는 신학적 의문이나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직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도록 경청하십시오. 인간적 도덕성의 기준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차분하게 나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2단계: 본문 속으로 (Primary Source Reflection, 15분)]

- 심층 질문 1 (억제 은혜와 시민적 덕성): 칼빈은 불신 사회에 나타나는 정직, 절제, 애국심과 같은 시민적 덕성을 왜 ‘인간 본성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Gratia cohibens)’의 선물이라고 규명했습니까? 죄사슬에 묶인 맹수의 비유를 통해 설명해 보십시오.

-  [인도자 코칭]: 일반은총의 억제력이 없다면 인류 사회가 당장 파멸했을 것임을 설명하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착한 행동 이면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믿음의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빛나는 죄’에 불과함을 부각시킵니다.

- 심층 질문 2 (신인협동설 vs 단독 은혜): 중세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신인협동설)”고 가르쳤습니다. 반면 칼빈과 성경(겔 36:26, 빌 2:13)은 왜 “거듭남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 단독 역사(Monergism)”라고 선언합니까?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영적 위로는 무엇입니까?

-  [인도자 코칭]: 만약 구원이 내 의지의 협력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매일 구원의 확신을 잃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견인의 은혜로 연결하십시오.

[3단계: 삶과 사역으로 (Application, 12분)]

- 나눔 질문: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봉사, 헌금, 윤리적 삶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지체들 앞에서 은근히 ‘자기 의’를 내세웠던 적은 없습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전 4:7)는 질문 앞에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야 할 영적 자량은 무엇입니까?

-  [인도자 코칭]: 바리새인적인 자기 의와 공로주의를 회개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선한 소원조차 오직 성령께서 부어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감사의 결단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4단계: 합심 기도와 파송 (Prayer & Commission, 6분)]

-
-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열매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단 한 톨의 자기 자랑도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소서.
-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 안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새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 우리 교회가 사람의 도덕적 결단이 아닌, 오직 십자가 보혈의 대속과 성령의 주권적 능력만을 찬양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불신자들의 선행을 '빛나는 죄'라고 하면 너무 배타적이지 않나요?"라는 질문에는?
- A: 인간 사회적 관점(수평적 관계)에서는 칭찬받아 마땅한 선행이지만,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수직적 관계)에서 볼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한 것은 본질적 반역임을 설명해 주십시오.
- Q2: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결단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 A: 회개와 믿음은 성도의 인격적 결단으로 나타나지만, 그 결단조차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의 열매'이지 구원의 '원인'이 아님을 빌립보서 2:13으로 균형 있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22장: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제] 삼중적 행위와 주권적 통치 — 동일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 사탄, 인간은 어떻게 역사하며 악인의 행위까지 주관하시는가?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4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2학기 - 구속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Book II, 19~35주) - 주차: 제22주 (제2권 제4장: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 Quomodo operetur Deus in cordibus hominum)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폴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신정론(Theodicy)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개혁신학의 가장 심오하고 정밀한 분석입니다. 칼빈은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는지를 옅의 고난을 통해 명쾌하게 해설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단순 방임설(Nuda permissio)'을 성경으로 논파하고, 사탄이 하나님의 죄사슬에 묶인 도구에 불과함을 입증하며, 악인의 횡포 속에서도 성도가 절대적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반석 같은 섭리 신앙을 확립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이원론/단순방임설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우리는 지난 제20장과 제21장에서 타락한 인간의 의지가 죄의 종이 되었으며,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본질상 저주받을 것뿐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역사와 인생의 수많은 비극 앞에서 가장 처절한 신학적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죄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악인들의 범죄와 세상의 참혹한 비극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단지 뒷짐 지고 바라보시는 방관자이신가? 성경은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면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난제 앞에서 고대 마니교도들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대등하게 싸운다는 ‘이원론(Dualism)’의 섀길로 빠졌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스콜라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변명하기 위해 ‘단순 방임설(Nuda permissio)’을 조작해 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도록 명령하시거나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버려 두실 뿐이다.”

그러나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제4장에서 성경의 명백한 증언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칼빈의 놀라운 선언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악의 세계를 무력하게 방관하시는 구경꾼이 아니시다. 동일한 하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악인이 함께 역사하지만, 사탄과 인간의 동기는 사악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지극히 거룩하다! 사탄은 하나님의 죄사슬에 묶인 집행자에 불과하며, 하나님은 악인의 완악한 마음까지도 자신의 공의로운 심판과 택한 백성의 연단을 위해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

2. 강의 학습 목표

1. 욥의 고난 사건을 통해 ‘하나님, 사탄, 사람’의 세 주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삼중적 원인론을 체계화한다.
2. 성경의 명백한 본문(출 4:21, 삼상 16:14)을 근거로, 단순 방임설(Nuda permissio)의 오류를 논파하고 사법적 심판으로서의 마음의 완악함을 규명한다.
3.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한 악의 군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 아래 묶여 있는 도구적 사역자임을 논증한다.
4. 세상의 불의와 악인의 횡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들의 손길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롬 8:28) 안에서 절대적 평안을 누린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인생의 캄캄한 밤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2.4.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욥의 고난과 삼중적 원인론: 하나님, 사탄, 갈대아 사람 (2.4.1~2)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단순 방임설(Nuda Permissio)의 궤변과 바로의 완악함 (2.4.3~4)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사탄의 도구성: 하나님의 죄사슬에 묶인 집행자 (2.4.5)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악인의 횡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평안 (2.4.6~8)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주권적 통치자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기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인생의 캄캄한 밤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00:00 ~ 10:0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강독할 『기독교 강요』 제2권 제4장은 성도들이 인생의 거센 풍랑과 억울한 고난을 만났을 때, 영혼을 지탱해 주는 가장 깊은 신학적 답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Quomodo operetur Deus in cordibus hominum*)”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극과 억울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악랄한 상사에게 모함을 당해 쫓겨나거나,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꾼에게 한순간에 빼앗기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흉악한 범죄자의 손에 희생당했을 때, 우리 영혼의 밑바닥에서 피 맺힌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저 악인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저 사탄의 잔인한 장난질을 왜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을 버립니다. “이 세상에 악이 이토록 가득한 것을 보니 하나님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선하지 않은 분이다!”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변호한답시고 이렇게 둘러댁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악인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도 눈물 흘리며 바라보실 뿐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그것은 성경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한 꼭두각시로 격하시키는 신성모독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악인의 칼날 앞에서도 결코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오늘 60분의 강독을 통해,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한 마음과 사탄의 꾀계까지도 어떻게 한 치의 오차 없이 다스리사 자신의 영광과 택한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톡톡히 목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동일한 사건, 세 가지 다른 주체 — 욥의 고난의 신비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귀스타브 도레의 『루시퍼의 추락』 & 2.4.2 원전 강독)

칼빈은 제2절에서 교회사상 가장 명쾌하고 충격적인 신학적 모델을 제시합니다. 바로 욥기 1장에 나타난 ‘**욥의 참상**’입니다.

하루아침에 욥의 수천 마리 가축이 약탈당하고, 종들이 칼에 맞아 죽었으며, 열 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 몰사했습니다.

칼빈은 묻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을 일으킨 주인공은 대체 누구인가?”

성경은 놀랍게도 동일한 사건 속에 세 가지 주체가 함께 역사했음을 폭로합니다:

첫째는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강도들입니다.

그들은 남의 재물을 약탈하여 자기 탐욕을 채우려는 악랄한 범죄의 동기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둘째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욥을 절망에 빠뜨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게 만들려는 잔혹하고 악의적인 동기로 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셋째는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경은 욥의 입술을 통해 무엇이러 고백합니까? “스바 사람이 빼앗아 갔다”거나 “사탄이 가져갔다”고 탄식하지 않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 1:21)

칼빈은 2.4.2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해설합니다. 칼빈의 원문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의 동일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목적과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흠 없이 빛나고, 사탄과 인간의 악행은 마땅한 정죄를 받는다! 사탄과 악인들은 불의한 정욕으로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를 도구로 삼아 자신의 의로운 심판과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신다. 행위의 악함은 그것을 행하는 자의 사악한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그것을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결코 아니다!” (2.4.2)

성도 여러분, 이 신비로운 원리를 묵상해 보십시오!

사형집행관이 판사의 판결에 따라 흉악범을 처형합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외적 행위는 살인자와 동일하지만, 판사와 집행관은 공의를 행한 것이요 살인자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물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의 탐욕과 사탄의 시기를 사용하사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순결하심에는 티끌만 한 오점도 묻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건 속에서 인간은 자기 탐욕으로 죄를 짓고 100%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행의 배후에서 온 우주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주권자이십니다!

[제2대지] 단순 방임설(Nuda Permissio)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능동적 사법권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렘브란트의 『사울과 다윗』 & 2.4.3-4 원전 강독)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변호하겠다는 알팍한 생각으로 늘 ‘단순 방임설(Nuda permissio)’ 뒤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완악해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뜻에 불과하다.”

칼빈은 제3절과 제4절에서 이 비겁한 인본주의적 궤변을 단호하게 논파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단지 ‘방임(허용)’으로 축소하려는 자들은 성경의 수많은 명백한 증언들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이 방관하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출 4:21)이라고 능동적으로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버려두실 때, 그것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사탄에게 넘겨주어 정욕의 노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두렵고 공의로운 사법적 심판(Iudicium Dei)이다!” (2.4.3-4)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의 충격적인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사슬을 푸셔서 사울의 영혼을 번뇌와 광기로 뒤덮이게 하는 사법적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법관이 범죄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넘겨주듯,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자들을 사탄의 권세 아래 넘겨주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하십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들어내시는 분(Author of sin)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맑은 샘물에 독을 타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죄로 썩어 있는 영혼의 고삐를 풀어 그들의 부패한 본성대로 질주하도록 사법적 유기(Judicial Abandonment)의 판결을 내리시는 지극히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제3대지] 사탄은 하나님의 죄사슬에 묶인 도구에 불과하다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요 1:21 & 잠 21:1) & 2.4.5-8 원전 강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오해하여, 하나님과 사탄이 마치 백중세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마니교 이단이 빠졌던 ‘이원론(Dualism)’의 덫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몰래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 하나님은 깜짝 놀라 수습하러 다니시는 분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칼빈은 제5절에서 사탄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독립된 주권을 가진 악의 군주가 아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여 활동하는 중에 불과하다!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이 없이는 욱의 몸에 손가락 하나 대지 못했고,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사탄은 하나님의 단단한 죄사슬에 묶여 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고삐를 늦추시는 한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2.4.5)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영적 위로입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지만, 그 사자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슬에 묶여 있는 맹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도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칼빈은 제6절부터 제8절에서 잠언 21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마치 붓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제국의 황제와 독재자들의 마음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물줄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의 마음의 물꼬를 트시면,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 아래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결론 및 결단] 주권자의 날개 아래 누리는 절대적 안식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역사적 화폭 &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두렵고 장엄한 주권의 심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교리는 우리를 차가운 숙명론으로 몰아넣기 위험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악인의 모함과 횡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영적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위대한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요셉은 피 맺힌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악한 시기심으로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행의 배후에서 온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하시는 거룩한 섭리를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으로 예수를 팔았고, 빌라도는 비겁함으로 사형을 언도했으며, 대제사장들은 시기심으로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극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모든 악행을 통해 온 인류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가장 찬란한 구원의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악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원수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악인의 칼날조차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안에 쥐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며,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장막 아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며, 성도 개개인의 내면을 정밀하게 점검하는 [사람의 마음과 주권적 섭리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를 제시합니다:

1. [원망 진단] 억울한 공격이나 고난을 당할 때, 가해자인 사람만을 쳐다보며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2. [동기 진단] 욕의 고난처럼 겉으로는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연단의 뜻과 사탄의 파괴적 꾀계를 분별하는 영적 안목이 있습니까?
3. [담대함 진단] 사탄과 악인의 모든 준동이 하나님의 손에 묶인 사슬 아래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 오늘 내 일상에 실제적인 담대함과 평안을 주니까?
4. [용서 진단] 요셉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며 가해자를 품는 복음적

5. [주권 진단] 왕들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임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 미래와 교회의 장래를 온전히 의탁하며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 동일한 사건 안에서의 삼중적 작인 (욥의 고난 모델):
- 스바 사람과 갈대아인은 탐욕으로 악탈했고 사탄은 파멸의 악의로 격동했으나, 하나님은 성도의 연단과 의의 증명을 위해 이를 주권적으로 주관하셨으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2.4.1~2).
- 단순 방임설 (*Nuda Permissio*)의 궤변 분쇄:
-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단지 내버려 두셨다고 하지 않고 "완악하게 하셨다(출 4:21)"고 선언하며, 이는 공의로운 사법적 형벌로서 악인의 눈먼 본성을 심판의 도구로 내어버려 두시는 적극적 통치입니다 (2.4.3~4).
- 사탄의 도구성과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
- 사탄은 스스로 독립하여 움직이는 악의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허락과 명령의 쇄사슬에 묶여 악인의 심판과 교회의 정결을 위해 제한적으로 쓰임받는 집행자에 불과합니다 (2.4.5).
- 악의 조성자가 아니신 거룩하신 하나님 (*Auctor Peccati*):
- 동일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악인은 사악한 동기와 이기적 목적으로 행하나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목적으로 통치하시므로, 하나님은 결코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거룩하십니다 (2.4.2, 4).
- 성도의 고난에 대한 절대적 안식과 평안:
- 신자는 눈앞의 핍박자와 악한 마귀만을 바라보며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모든 악의 손길까지 다스려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롬 8:28) 전능하신 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2.4.6~8).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 [원망 극복 진단]: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악인의 괴롭힘을 받을 때, 인간적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가?
- [삼중 원인 분별]: 욥처럼 재난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하며, 마귀나 환경 탓을 넘어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가?
- [영적 안도감 진단]: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신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묶인 사역자임을 알고 담대함을 얻는가?
- [마음의 완악함 경계]: 바로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마음을 강박하게 고집부리다가 공의로운 사법적 버림(유기)에 처해지지 않도록 매일 회개하는가?
- [섭리적 평안 확신]: 로마서 8:28 말씀처럼, 악인의 횡포와 질병과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내 영혼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악의적인 행동이나 억울한 일로 인해 큰 상처와 고통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왜 저 악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하고 답답해했던 기억을 나누어 봅시다.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겪었던 삶의 아픔과 억울함에 깊이 공감하십시오. 칼빈의 신학이 단지 사변적 이론이 아니라 고난받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살아있는 복음임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2단계: 본문 속으로 (Primary Source Reflection, 15분)]

- 심층 질문 1 (삼중적 원인론): 칼빈은 욥의 고난 사건에서 스바 사람(갈대아 강도), 사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동일한 사건 속에서 세 주체가 함께 역사하지만, 왜 죄의 책임은 인간과 사탄에게만 있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십니까?

-  [인도자 코칭]: 행위의 선악은 마음의 ‘동기와 목적’에 달려 있음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사탄과 강도는 탐욕과 파멸을 위해 행했으나 하나님은 거룩한 연단과 공의를 위해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순결하심에는 티가 없음을 확증합니다.

- 심층 질문 2 (단순 방임설 비판과 사탄의 한계): 하나님이 악을 단지 ‘구경하고 방관하신다(단순 방임설)’는 생각이 왜 비성경적입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쇠사슬에 묶인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욥 1:12, 잠 21:1)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에게 어떤 절대적인 위로를 줍니까?

-  [인도자 코칭]: 세상의 악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날뛰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손길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성도들에게 영적 담대함을 심어주십시오.

[3단계: 삶과 사역으로 (Application, 12분)]

- 나눔 질문: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창 50:20)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볼 때,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그 배후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  [인도자 코칭]: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결단의 기도로 이끌어 주십시오.

[4단계: 합심 기도와 파송 (Prayer & Commission, 6분)]

- 합심 기도 제목:
-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악인의 횡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 나를 해하려 했던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용서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숙한 믿음을 주소서.
- 사탄의 모든 꾀계를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바로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나요?"
- A: 바로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한 본성을 가진 자였으며, 하나님께서 은혜의 고삐를 거두시고 그의 악한 본성대로 행동하도록 사법적으로 내버려 두신(유기하신) 것이므로 심판받기에 합당함을 설명해 주십시오.
- Q2: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섭리를 어떻게 전해야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 A: 신학적 정답을 차갑게 가르치기보다, 옴의 친구들처럼 선부른 판단을 삼가고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사탄이 당신을 흔들고 있지만 그 사탄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다"는 위로를 전하십시오.

제23장: 자유 의지를 변호하여 제기되는 혼한 반론들을 반박함

[부제] 율법의 거울과 단독적 은혜 — 명령, 상급, 성경 본문을 오해하여 자유의지의 허상을 세우려는 궤변들에 대한 칼빈의 결정적 변증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5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2학기 - 구속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Book II, 19~35주) - 주차: 제23주 (제2권 제5장: 자유 의지를 변호하여 제기되는 혼한 반론들을 반박함 / Refutatio obiectionum quae pro defensione liberi arbitrii solent afferri)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의지의 무능력을 방어하기 위한 개혁주의 변증학의 백미입니다. 칼빈은 스콜라주의자들과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철학적 상식(형벌과 상급, 권면의 가치)과 성경의 계명들, 그리고 조건부 약속들과 개별 구절(신 30:11, 눅 10:30 등)을 오역하여 자유의지를 변호하려는 모든 궤변을 총 19개 절에 걸쳐 철저히 격파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인간의 '역량의 척도'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거울'임을 밝히고, 인간의 구원과 회심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단독적인 은혜(Monergism)에만 기초함을 명증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 옐로우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펠라기우스 궤변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우리는 지난 제20강부터 제22강까지 타락한 인간의 의지가 죄에 완전히 매여 종노릇하고 있으며(제20강), 부패한 본성에서는 오직 저주받을 열매만 나오며(제21강), 심지어 악인의 마음과 역사의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제22강) 성경적 엄벌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교만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과 스콜라 신학자들, 그리고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인간 안에 작은 선의 불씨나 자율적인 결단의 능력이 남아있다고 변호하려 애써왔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가? 행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는 하나님은 잔인한 폭군이 아닌가? 지킬 수 없는데 벌을 주신다면 불공정하며, 자유로운 선택이 없는데 선행에 상을 주신다는 것은 넌센스가 아닌가? 신명기 30장에는 ‘이 명령이 네게 어렵지 않다’고 했고,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는 ‘거반 죽었다’고 했으니 인간에게 절반의 선택 능력은 남아있지 않은가?”

이러한 반론들은 얼핏 들으면 매우 그럴듯한 상식과 윤리적 타당성을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제5장의 19개 절을 통해 이 모든 논리가 ‘율법의 본질에 대한 무지’와 ‘성경 본문의 억지 알레고리 왜곡’에서 비롯된 치명적인 독단임을 밝혀냅니다. 칼빈의 단호한 선언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능력을 재는 자(*regula potentiae*)가 아니라, 우리의 무능과 죄악을 폭로하는 거울(*speculum infirmitatis*)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의 빛을 청구하시며, 그 불가능성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도망치게 하신다!”

2. 강의 학습 목표

- 철학적 상식에 근거한 반론들(필연성과 죄책, 상급과 공로, 권면의 유용성)을 아우구스티누스와 베르나르의 논증으로 명쾌하게 반박한다 (1~5절).
- 성경의 명령과 계명, 조건부 약속들이 인간의 자율적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님을 규명하고 율법의 참된 용도를 확립한다 (6~11절).
- 신명기 30:11-14, 롬 9:16, 눅 10:30 등 자유의지론자들이 오용하는 대표적 성구들의 바른 문맥과 사도 바울의 복음적 해석을 체계화한다 (12~19절).
- 인간의 자기 의존적 교만을 완전히 분쇄하고, 시작부터 영광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는 참된 찬양과 겸손의 예배자로 바로 선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상식이라는 이름의 교만: 자유의지의 변호자들과 마주하다 (2.5.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이성 and 철학적 상식에 근거한 반론들의 논파 (2.5.1~5)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율법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곡해 분쇄: 능력의 척도가 아닌 무능의 거울 (2.5.6~11)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억지 알레고리와 성경 왜곡 교정: 신명기 30장과 선택 사마리아인 (2.5.12~19)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고 은혜의 반석 위에 서라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내 의지의 우상을 부수고 오직 은혜만을 자랑하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기독교 강요』 제2권 제5장은 기독교 신학사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의 전쟁터입니다. 제목 자체가 매우 직설적입니다:

“자유 의지를 변호하여 제기되는 흔한 반론들을 반박함 (*Refutatio obiectionum quae pro defensione liberi arbitrii solent afferrī*)”

칼빈은 본 장에서 상대방의 논리를 조금도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있는 그대로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통제권과 주도권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복음이 “너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너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선을 틔끝만큼도 행할 수 없다”고 선언할 때, 자연인은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그러면 내가 로봇이라는 말입니까? 내가 꼭두각시입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왜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회개하라, 순종하라’고 설교하십니까? 할 수도 없는 일을 왜 외칩니까?”

칼빈 당시 로마 가톨릭의 소르본 학파 신학자들과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는 이와 같은 인간의 상식적 반발을 등에 업고 종교개혁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칼빈과 루터의 신학은 도덕을 파괴하고 성도들을 나태하게 만든다!”

오늘 60분 동안 우리는 칼빈이 16세기 제네바에서 소르본의 스콜라 학자들을 향해 성경의 칼날을 어떻게 휘둘렀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칼빈의 논증을 따라가다 보면,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자들의 상식이 얼마나 얕박한 인본주의적 억지인지, 그리고 인간의 무능력을 선언하는 개혁교리가 왜 도리어 영혼을 해방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가장 복된 은혜의 복음인지를 눈물겹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1대지] 이성과 철학적 상식에 근거한 반론들의 논파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알브레히트 뢰러의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 (1514) & 1~5절 원전 강독)

칼빈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인간의 '상식'과 철학적 이성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네 가지 반론을 차례대로 논파합니다.

1. 첫 번째 반론: 필연성과 죄책 (1절)

적들은 주장합니다: “죄가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없다. 죄가 자발적인 것이라면 인간은 얼마든지 죄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칼빈은 단호히 선언합니다. 죄의 본질은 ‘자발성(*voluntas*)’에 있지, ‘피할 수 있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강요에 의해 억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패한 정욕으로 자발적으로 악을 갈망하고 선택합니다.

칼빈은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를 인용하며 외칩니다:

“사람은 필연성에 의해 매여 있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다. 의지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으나,

도리어 그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입증할 뿐이다!” (2.5.1)

2. 두 번째 반론: 상급과 형벌의 정당성 (2~3절)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물든 스콜라 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에게 선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능력이 없다면, 악을 행했다고 벌을 내리는 것은 불의하며, 선을 행했다고 상을 주는 것은 허구다!”

칼빈은 형벌과 상급의 본질을 분리하여 완벽하게 해명합니다:

첫째, **형벌의 정당성**: 형벌은 인간의 자발적인 죄책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히 공정한 보응입니다. 악을 행한 근원이 우리 자신의 악한 의지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둘째, **상급의 신비**: 그렇다면 하나님이 신자들의 순종에 상을 주시는 것은 그들의 자유의지적 공로 때문입니까?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위대한 고백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은사들에 상을 주시는 것이다! (*Deus non merita nostra coronat, sed dona sua*)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소원과 능력을 은혜로 부어주시고(빌 2:13), 마침내 그 은혜의 열매를 보시고 마치 우리의 공로인 양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2.5.2)

그러므로 상급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증명하는 근거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성적 자비와 너그러우심을 찬양하는 근거일 뿐입니다!

3. 세 번째 반론: 왜 동일한 본성에서 선악의 차이가 생기는가? (3절)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타락한 본성을 지녔다면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가?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가 차이를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묻습니다.

칼빈은 대답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는 모두 한 덩어리의 부패한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차별적 은혜(*gratia discriminans*)’와 영원한 선택입니다!

4. 네 번째 반론: 권면과 설교의 무용론 (4~5절)

“인간이 순종할 능력이 없다면 성경의 권면과 훈계, 설교자의 책망은 헛된 시간 낭비가 아닌가?”

칼빈은 하나님의 사역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는 말씀의 권면**을 사용하시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 일하십니다.

불신자에게 권면은 그들의 핑계를 막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하는 증언이 됩니다.

반면 택함받은 성도에게 권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도구가 되어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의 채찍이 됩니다!

[제2대지] 성경의 계명, 약속, 책망에 근거한 반론들의 논파 (22:00 ~ 35: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카라바조의 『마태의 소명』 (1599-1600) & 6~11절 원전 강독)

이제 칼빈은 6절부터 11절까지, 대적들이 성경을 들이밀며 주장하는 세 가지 핵심 반론들을 산산이 조각냅니다.

대적들은 출애굽기와 선지서에 나오는 수많은 계명들—“나를 사랑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을 제시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목석(木石) 같은 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겠는가? 능력이 없는데 명령하신다면 하나님은 조롱하시는 분인가?” 이것이 바로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던 유명한 명제입니다: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할 수 있다(*Si mandavit, possumus*).”

칼빈은 율법에 대한 지독한 무지를 꾸짖으며 외칩니다: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들로써 재는 습관은 율법에 대한 치명적인 무지에서 생겨난 것이다! 계명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한 의무를 선언하기 위함이다. 율법은 인간에게 빛을 청구하는 채권 증서와 같아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파산 선고를 내리게 만드는 거울이다!” (2.5.6)

성경은 “돌아오라(율 2:12)”고 명령하는 동시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 “주여 나를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렘 31:18)”라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의 무능을 폭로하시고, 복음을 통해 성령으로 그 일을 행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2. 회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인가? (9절)

어떤 중도적 신학자들은 이렇게 타협하려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면 인간이 자기 몫의 의지를 발휘하여 협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수많은 교회를 좀먹고 있는 ‘신인협동설(Synergism)’입니다.

칼빈은 에스겔 36장 26절을 인용하며 이 타협안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돌 같은 마음에 상처를 내어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돌 같은 마음을 아예 제거하시고 살 같은 부드러운 새 마음을 창조하신다! 회심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50 대 50으로 손을 잡는 합작품이 아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듯, 하나님께서 홀로 시작하시고 홀로 완성하시는 단독적 은혜(Monergism)의 기적이다!” (2.5.9)

3. 조건부 약속과 책망의 진정한 목적 (10~11절)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사 1:19)”,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마 7:7)”는 성경의 조건부 약속들은 자유의지를 뜻합니까?

칼빈은 설명합니다: 조건부 약속은 복을 받기 위해 인간이 자력으로 조건을 채우라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살 수 있다는 은혜의 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가혹한 책망은 인간의 핑계를 분쇄하고 스스로의 완악함을 통회하게 만드는 치료의 도구입니다.

[제3대지] 성경 개별 구절 및 알레고리 왜곡의 논파 (35:00 ~ 48:00)

(슬라이드 9 & 10 제시: 광채 나는 말씀 패널 & 신명기 30장 및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논증)

해부합니다.

1. 신명기 30:11-14의 왜곡 분쇄 (12절)

대적들은 모세의 말을 가장 강력한 방패로 삼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들은 외칩니다: “보라! 모세가 행할 수 있다고 명백히 기록하지 않았는가?”

칼빈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10장 6~8절을 펼쳐 들며 이 궤변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모세의 이 본문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 신명기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결코 율법의 행위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킨다고 선포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음부에 내려갈 수도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복음을 새겨주셨기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5.12)

모세는 율법의 문자를 지킬 인간의 육적 능력을 칭송한 것이 아니라, 장차 새 언약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이 누릴 복음의 은혜를 예언한 것입니다!

2. 성경의 관용적 표현: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일" (14~15절)

성경이 신자들의 행위를 가리켜 “너희의 착한 행실(마 5:16)”이라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 자신의 능력에서 나왔다는 뜻입니까?

칼빈은 주기도문을 예로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오늘 우리에게 우리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그 빵이 우리의 능력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양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선한 열매를 하나님은 너그럽게도 ‘우리의 것’이라 불러주시는 은혜의 수사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3. 로마서 9:16과 고린도전서 3:9의 왜곡 (17절)

스콜라주의자들은 롬 9:16—“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을 비틀어, “인간의 원함과 달음박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왜곡했습니다.

칼빈은 이를 통렬히 꾸짖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은혜에 덧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근거에서 인간의 모든 원함과 달음질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유일한 원인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전 3:9)”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외적 직무를 뜻할 뿐, 영혼의 중생에 인간의 부패한 의지가 하나님과 손을 잡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4. 누가복음 10:30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억지 알레고리 논파 (19절)

스콜라 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은 자(*semi-mortuus*)’로 버려진 사람을 인류의 모형이라 부르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강도(사탄)를 만나 상처를 입었으나 완전히 죽지 않고 ‘절반은 살아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는 자유의지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절반쯤은 남아있다!”

칼빈은 이 경솔하고 유치한 알레고리를 준열하게 비판합니다:

“성경은 비유의 목적을 벗어난 자의적 알레고리로 장난쳐서는 안 된다! 성경 전체의 명백한 증언을 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인류가 상처 입어 절반쯤 살아있다고 말하는가? 아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mortui eratis*) 너희’라고 선언한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송장이 된 자에게 무슨 절반의 생명이 남아있단 말인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 (2.5.19)

[결론 및 권면] 오직 은혜의 반석 위에 서라 (48:00 ~ 60:00)

(슬라이드 11 & 14 제시: 요약 비교 매트릭스 & 최종 송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의를 마무리하며 칼빈이 제5장 전체를 통해 우리 가슴에 새겨주고자 하는 단 하나의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변호하고 선한 능력을 주장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교만의 발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고, “주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율법의 단 하나의 계명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결단과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에, 나의 연약함과 넘어짐 속에서도 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빌 1:6).

모든 인간적 자량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자유의지의 허망한 모래성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 1. 명령과 능력의 혼동에 대한 분쇄 (*Praeceptum non est Mensura Facultatis*):
- 2. 성경의 계명("내게로 돌아오라", "지키라")은 인간의 자율적 실천 역량을 증명하는 잣대가 아니라, 인간의 파산과 무능을 비추는 거룩한 거울(*Speculum*)입니다 (2.5.6~7).

4. 타락한 인간은 죄의 노예로 묶여 있어 필연적으로 범죄하나, 사탄이나 외부의 강요가 아닌 자기 자신의 타락한 정욕으로 자발적으로 악을 갈망하므로 심판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2.5.1).
5. 상급 (*Praemium*)의 본질 — 공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의 관류:
6. 성도의 선행에 주어지는 상급은 인간 행위의 공로에 대한 채무 변제가 아니라, 어거스틴의 통찰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자신의 은사에 덧붙여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2.5.2).
7. 자의적 알레고리 왜곡(선한 사마리아인의 '거반 죽은 자') 분쇄:
8. 대적들은 비유 속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었다'는 묘사를 악용해 인간에게 절반의 선한 능력이 남아있다고 꾀변을 늘어놓았으나, 성경은 명백히 우리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자(엡 2:1)"임을 선언합니다 (2.5.19).
9. 율법의 궁극적 목적 — 그리스도께로 도망치는 몽학선생:
10. 율법의 지킬 수 없는 높은 요구는 인간의 의지를 단련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자만을 꺾고 십자가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께로 전력질주하게 만드는 구원의 채찍입니다 (2.5.8, 11).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명령-능력 오해 탈피]: 성경의 높은 도덕적 명령을 대할 때 "내 힘으로 해내겠다"는 교만을 버리고, 즉시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2. [공로주의 청산]: 헌신과 봉사의 대가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려는 기복적 채권자 의식을 버리고, 모든 것이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는가?
3. [반쪽 타락 경계]: "나는 그래도 저 악인들보다는 착하다"며 내 안에 약간의 선한 불씨가 남아있다고 착각하는 영적 '거반 죽은 자'의 교만을 배격하는가?
4. [율법의 거울 기능 인정]: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의로움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내 연약함과 죄인 됨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며 회개하는가?
5. [신인협동설 단호 배격]: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인간의 협력이 아닌, 오직 100% 하나님의 주권적 단독 은혜(빌 1:6)만을 평생 찬양하기로 결단하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 도입 (*Ice Breaking & Intro*, 7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힘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려다” 깊은 좌절과 무력감에 빠졌던 경험을 나누며 마음을 엽니다. 2. 본문 탐구 (*Scripture & Calvin*, 15분): 칼빈이 반박한 대적들의 꾀변(명령=능력, 상급=공로, 거반 죽은 자)을 짚어보고 율법의 참된 용도를 확인합니다. 3. 심층 토론 (*Deep Reflection*, 15분): ‘신인협동설’의 유혹이 현대 신앙생활(기도, 전도, 헌신)에서 어떻게 교묘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말씀을 붙잡으며 성령의 주권적 역사를 구하는 합심기도로 마칩니다.

심층 토론 질문 4선

Q1. [이해 질문] 율법의 명령과 인간의 능력

대적들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명령하셨다면 인간에게 돌아올 능력이 있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칼빈은 왜 계명이 인간의 '역량의 척도'가 아니라 '무능의 거울'이라고 반박했습니까?

💡 [인도자 코칭]

조원들이 율법을 '도덕적 달성 목표'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파산 상태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갈 3:24)으로서의 복음적 기능을 이해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Q2. [교리 질문] 상급과 은혜의 관계

신앙생활에서 충성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면류관과 상급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은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자신의 은사에 상을 주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고백이 왜 성도에게 참된 겸손과 기쁨을 주는지 나누어 봅시다.

💡 [인도자 코칭]

행위 구원론이나 공로주의적 기복신앙을 경계하고, 우리가 행한 작은 선행조차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맺은 열매임을 깨달아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도록 지도하십시오.

Q3. [변증 질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전적 타락

스콜라 학자들은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었다’는 비유의 묘사를 근거로 인간에게 절반의 선한 능력이 남아있다고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과 비교할 때, 이 알레고리적 왜곡이 왜 위험한 독단인지 토론해 봅시다.

💡 [인도자 코칭]

성경 해석에서 문맥을 무시한 자의적 알레고리가 얼마나 위험한 이단을 낳는지를 짚어주고, 인간은 영적으로 조금 아픈 환자가 아니라 완전히 호흡이 끊어진 시체였음을 명확히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입술로는 ‘오직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열심을 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은밀한 신인협동설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의지의 교만을 내려놓고 빌 2:13의 은혜를 의지할 구체적인 영역은 무엇입니까?

 [인도자 코칭]

자녀 양육, 전도 대상자, 자신의 반복되는 죄의 습관 등 인간의 의지로 해결하려다 지친 영역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지킬 수도 없는 계명을 왜 주셨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 A: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사다리가 아니라, 우리의 빛의 크기와 파산 상태를 깨닫게 하여 유일한 보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시는 거룩한 거울임을 설명해 주십시오(롬 3:20, 갈 3:24).
- Q2: 성도들이 상급에 대해 오해하여 공로주의에 빠질 때는 어떻게 지도합니까?
- A: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서툰 그림을 칭찬하고 선물을 주시듯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은혜에 덧붙여 상을 주시는 너그러운 사랑 때문임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24장: 타락한 인간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구해야 함

[부제] 유일한 중보자와 언약의 닻 — 막연한 유신론을 넘어, 오직 십자가의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구속의 신비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6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2학기 - 구속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Book II, 19~35주) - 주차: 제24주 (제2권 제6장: 타락한 인간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구해야 함 / *Hominem lapsum quaerere debere redemptionem in Christo*)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인간의 전적 파산(1~5장)을 지나, 드디어 복음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기독교론의 관문입니다. 칼빈은 타락한 인간에게 창조 시의 탁월함이 수치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진노의 재판관으로 변하셨음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중보자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도, 긍휼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와 다윗 언약,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음을 논증하고, 막연한 철학적 유신론(이슬람, 유대교, 자연신학)의 허망함을 산산조각 냅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 버진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막연한 자연신학/유신론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우리는 제19강부터 제23강까지 타락한 인류의 비참한 현주소를 처절하게 해부했습니다.

아담의 반역으로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고(제19강), 의지는 죄의 종이 되었으며(제20강), 부패한 본성에서는 악한 열매만 맺히고(제21강), 심지어 악인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며(제22강), 인간의 그 어떤 궤변으로도 자유의지의 허상을 세울 수 없음(제23강)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완전히 파산 선고를 받고 지옥의 심연 앞에 선 죄인에게 남은 길은 무엇입니까?

스스로는 단 한 걸음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죽은 자들이 과연 어디에서 구원을 찾아야 합니까?

존 칼빈은 제2권 제6장에서 드디어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구속의 문을 활짝 엽니다:

“타락한 인간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구해야 한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신(God)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신은 자비로우시니 나 같은 착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거야.”

철학자들은 우주의 제일원인이나 절대자를 논하고, 이슬람교도나 유대교인들도 유일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단언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상숭배’이자 ‘멸망의 덫’에 불과합니다!

타락 이후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두려운 재판관이시기에, 중보자의 손을 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에 불살라질 뿐입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1. 타락 이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무용해졌으며, 중보자 그리스도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규명한다 (1절).
2.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 한나의 찬가, 다윗 언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한결같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있었음을 논증한다 (2~3절).
3. 이레나이우스의 ‘신적 적응(Accommodation)’ 개념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이 성자 안에서 자신을 낮추사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이해한다 (4절).
4. 막연한 종교적 유신론을 배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참된 언약적 확신을 소유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파산 선고 이후 — 영혼의 유일한 피난처를 향하여 (2.6.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타락한 인간과 중보자의 절대적 필연성: 정죄의 심판관에서 아버지로 (2.6.1)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구약 언약의 붉은 실선: 희생 제사, 한나의 노래, 다윗 왕조 (2.6.2~3)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신적 적응(Accommodation)과 성육신의 사랑: 다가오시는 하나님 (2.6.4)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중보자 그리스도의 품에 영원히 안식하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파산 선고 이후 — 영혼의 유일한 피난처를 향하여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강요』 제2권 제6장의 거룩한 문턱을 넘어섭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읽어보십시오:

지난 19장부터 23장까지 칼빈이 이끌었던 진단은 참으로 가혹하고 어두웠습니다.

영적인 메스를 들고 우리의 심장 밑바닥까지 찌르며, 우리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죄인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지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탄식했을지 모릅니다: “칼빈 목사님, 너무 잔인합니다. 인간에게 희망을 조금이라도 남겨주셔야 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은 칼빈의 잔인함이 아니라 참된 의사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환자의 암 덩어리를 완전히 도려내지 않고 미봉책으로 덮어두면 환자는 죽습니다.

칼빈이 인간의 의지와 공로를 철저히 진토에 묻어버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유일한 생명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만들기 위함이었습시다!

오늘 강독하는 제6장은 바로 그 절망의 골짜기 끝에서 터져 나오는 복음의 여명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 안에서 망해버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예비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와 선지자들의 외침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는지, 오늘 60분의 강독을 통해 여러분 영혼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제1대지] 타락한 인간과 중보자의 절대적 필연성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엘 그레코의 『구세주 그리스도』 (1600) & 2.6.1 원전 강독)

칼빈은 제1절의 첫 문장부터 우리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온 우주의 피조물 중 가장 탁월하고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 그 탁월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칼빈의 원문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인류 전체가 아담 안에서 망하였고, 우리가 최초로 부여받은 그 탁월함과 고귀함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크나큰 수치가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로서 자신을 나타내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땅한 멸망을 선고하시는 재판관으로서 나타나시는 것이다!” (2.6.1)

참으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자연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더 이상 따뜻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죄인은 ‘공포’와 ‘떨림’만을 느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뵈 때마다 우리의 유죄 판결만이 더욱 명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명쾌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똑똑한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은 자연을 관찰하고 사색하여 하나님께 도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우상숭배와 허망한 미신이었습니다.

칼빈은 외칩니다:

“십자가의 도(道)가 인간의 이성에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다시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기를 원한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며,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누릴 수 없다!” (2.6.1)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요 4:22).”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니까? 유대 민족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 보내시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제2대지] 구약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닻 — 약속된 그리스도 (22:00 ~ 35: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용』 (1520) & 2.6.2~3 원전 강독)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양과 소의 피를 바쳐서 구원받았고, 신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칼빈은 이러한 세대주의적 오해를 철저하게 분쇄합니다.

칼빈의 선언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중보자를 떠나서는 결코 옛 백성들에게 자비를 보이신 일도 없고, 그들에게 은혜에 대한 소망을 주신 일도 없다! 율법에 나타나 있는 모든 희생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시는 단번의 속죄 이외에는 다른 곳에서 죄 용서를 찾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2.6.2)

구약의 제단에서 흘려진 수천만 마리 양과 소의 피는 그 자체로 죄를 없앨 능력이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히 10:4).

그 피는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하나님의 어린양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칼빈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춥니다:

첫째, 한나의 찬가 (삼상 2:10):

아직 이스라엘에 왕 제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왕을 바라보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둘째, 다윗 언약과 시편의 증언:

하나님은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에브라임 장막을 버리셨으나, 오직 유다 지파 다윗을 택하사 영원한 왕국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시 78:60~70).

다윗 왕조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형상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편 12절에서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시편 80편 17절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人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성도들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중보자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선지자들의 일치된 소망 (3절):

유다 왕 아하스가 불신앙으로 떨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뜬금없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인간의 모든 안전과 평화가 무너져 내릴 때, 선지자들은 언제나 메시아의 오심을 가리켰습니다.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합 3:13).”

아모스는 외칩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암 9:1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 역사상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모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3대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신앙의 허상 (35:00 ~ 48:00)

(슬라이드 9 & 10 제시: 광채 나는 말씀 패널 & 이레나이우스의 신적 적응 논증)

이제 칼빈은 제4절에서 종교다원주의와 막연한 자연신학의 심장을 겨냥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하나님만 잘 믿고 착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 14:1)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닳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공허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광 중에 거하시기에, 타락한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영광에 짓눌려 소멸할 뿐이다.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골 1:15)’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안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 (2.6.4)

칼빈은 고대 교부 이레나이우스(Irenaeus)의 장엄한 통찰을 인용합니다:

“스스로 무한하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안에서 유한하게 되셨다. 이는 우리의 미천한 지성이 하나님의 광대한 영광에 압도당해 부서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미천한 분량에 맞추어 주신 것이다(신적 적응 / Accommodation)!” (2.6.4)

하나님은 저 아득히 높은 하늘에 계신 범접할 수 없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고후 4:6)을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칼빈은 당대의 무슬림들(투르크인), 유대인들, 그리고 철학자들을 향해 준열하게 선언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늘과 땅을 만드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큰소리쳐도, 그들에게 중보자가 없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단 한 방울도 맛보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두려운 심판관으로 마주하게 될 뿐이다!”

[결론 및 권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 (48:00 ~ 60:00)

(슬라이드 11 & 14 제시: 비교 매트릭스 & 최종 송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6장의 강독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도덕도, 우리의 선행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마른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죄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안식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막연한 세상의 종교적 낙관론을 버리십시오.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인간적 종교성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 영원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타락 이후 창조주 신지식의 무용성과 진노의 대면:
2.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오직 무서운 진노와 유죄 판결만을 마주하게 되므로, 중보자 그리스도 없는 신지식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2.6.1).
3.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필연성 (*Unicus Mediator*):
4.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심연을 잇고 하나님을 공포의 재판관이 아닌 '자비로운 아버지'로 알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뿐입니다 (2.6.1).
5. 구약 신앙의 그리스도 중심적 통일성:
6. 구약의 족장들과 성도들 역시 율법의 행위나 짐승의 피가 아니라, 희생 제사와 선지자들의 예언과 다윗 언약(삼하 7장) 속에 약속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2.6.2~3).
7. 신적 적응 (*Accommodatio Dei*)과 성육신의 사랑:
8.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신을 낮추사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2.6.4).
9. 종교다원주의 분쇄와 십자가 복음의 배타적 유일성:
10.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모든 이방 종교와 철학적 유신론은 멸망의 덧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만 영생의 문이 열립니다 (2.6.1, 4).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중보자 진단]: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도 내 도덕적 성실함이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은밀한 교만에 빠져 있지 않은가?
2. [언약 진단]: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한 도덕적 영웅담이나 율법주의적 교훈으로 읽지 않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붉은 언약의 실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3. [기도 진단]: 기도할 때 그저 막연한 절대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가?
4. [다원주의 진단]: "모든 종교는 결국 통한다"는 세상의 종교다원주의적 타협 앞에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유일성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가?
5. [적응 진단]: 타락한 인간의 지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 자신을 맞추어 주신 신적 적응의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 도입 (Ice Breaking & Intro, 7분): 예수님을 믿기 전, 혹은 신앙생활 중 '막연하게 하나님을 상상하고 두려워했던' 경험을 나누며 마음을 엽니다. 2. 본문 탐구 (Scripture & Calvin, 15분): 타락 이후 창조주 하나님이 왜 심판관이 되셨는지, 구약의 제사와 다윗 언약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켰는지 살펴봅니다. 3. 심층 토론 (Deep Reflection, 15분): 현대의 종교다원주의(“모든 종교는 산 정상에서 만난다”)의 주장이 칼빈의 중보자 신학 앞에서 왜 무너지는지 토론합니다. 4. 결단 및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합심기도로 마칩니다.

심층 토론 질문 4선

Q1. [이해 질문] 타락과 창조주의 관계 변화

칼빈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창조 시의 탁월함이 오히려 크나큰 수치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2.6.1). 왜 타락한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이 아니라 정죄와 공포의 원인이 됩니까?

💡 [인도자 코칭]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에게, 거룩한 창조주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유죄성을 폭로하는 두려운 심판관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Q2. [구약 탐구] 구약 백성들의 구원의 닻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나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오실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한나의 찬가(삼상 2:10)와 다윗 언약(삼하 7장)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 [인도자 코칭]

구약과 신약이 다른 구원의 길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음을 확인하도록 도와주십시오.

Q3. [변증 질문] 종교다원주의와 중보자의 유일성

현대인들은 “알라를 믿든 야훼를 믿든 유일신을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다원주의적 유신론을 선호합니다. 칼빈은 요 14:1과 골 1:15를 들어 왜 중보자 없는 하나님 신앙이 허망한 우상숭배에 불과하다고 논박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 속에 계시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신을 계시하셨음을 강조하고, 이레나이우스의 신적 적응을 함께 상기시켜 주십시오.

Q4. [삶의 적용]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을 멀리 계신 엄한 재판관처럼 느끼며 두려워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나의 기도와 일상에 어떤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주니까?

💡 [인도자 코칭]

자신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완벽한 중보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히 4:16) 복음적 자유를 누리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나요?"라는 질문에는?
- A: 구약 성도들은 희생 제사의 어린양의 피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요 8:56)고 증언하셨음을 설명해 주십시오.
- Q2: 종교다원주의에 물든 성도에게 중보자의 유일성을 어떻게 변증합니까?
- A: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긴 유죄 판결자이므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죄 없는 중보자 없이는 그 어떤 신이나 철학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십자가 대속으로 명쾌하게 논증하십시오.

제25강: 모세 율법의 목적과 3중 용도

[부제] 정죄의 거울, 사회적 억제, 그리고 성도의 삶의 거룩한 규범 —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자 삶의 등불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7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교재 범위: 제2학기 구속주 하나님 (Book II) 제25주차 — 제2권 제7장 (2.7.1~17) - 강의 구성: 정식 60분 강독 강의 + 30~45분 소그룹 심화 나눔 모듈 - 핵심 주제: 율법의 신적 기원과 목적(Legem datam fuisse), 율법의 불가능성과 인간 육체의 무능력(롬 8:3), 율법의 3중 용도(제1용도 정죄의 거울과 몽학선생 갈 3:24, 제2용도 시민적 악의 억제, 제3용도 성도를 위한 삶의 규범 Tertius usus legis), 율법폐기론(Antinomianism)의 방종 분쇄, 도덕법의 연속성과 의식법의 성취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라틴어 원전 정본 핵심 발췌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목회적 위로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바리새적 율법주의, 무율법주의적 방종)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율법은 저주의 율가미인가, 은혜의 선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신학의 가장 위대하고도 실천적인 교리적 정원, 『기독교 강요』 제2권 제7장으로 들어섭니다.

이 강의 라틴어 정본 제목은 매우 길고 심오합니다:

“Legem datam fuisse, non quae populum veterem in se retineret, sed quae foveret spem salutis in Christo usque ad eius adventum”

(율법이 주어졌으나, 이는 구약 백성을 그 아래 가두어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그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북돋우기 위함이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얹매는 무서운 멍에가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구약의 율법을 배워야 합니까?"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맵니다.

또 다른 극단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율법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계명에 얽매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방종한 율법폐기론(Antinomianism)의 늪에 빠집니다.

존 칼빈은 이 장에서 종교개혁 역사상 가장 탁월하고 균형 잡힌 ‘율법의 3중 용도(Triplex usus legis)’를 천명합니다:

1. 제1용도: 정죄의 거울 —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Usus theologicus / elenchcticus)
2. 제2용도: 시민적 억제 — 악인들의 난폭함을 막아 사회 질서를 보존하는 재갈 (Usus civilis / politicus)
3. 제3용도: 성도의 삶의 거룩한 규범 — 거듭난 자녀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끄는 삶의 등불 (Usus didacticus / normativus)

특히 제3용도는 칼빈 신학의 찬란한 면류관이자, 개혁주의 성도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만드는 영적 원동력입니다. 오늘 60분 강의를 통해 율법에 대한 모든 오해를 벗어던지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1. 율법의 신적 기원과 목적을 규명하고, 타락한 인간 육체의 무능력(롬 8:3)으로 인한 불가능성을 이해한다.
2. 율법의 제1용도(정죄의 거울)와 제2용도(시민적 억제)의 교의학적 기능을 체계화한다.
3. 칼빈 신학의 정점인 율법의 제3용도(성도의 삶의 규범, *Tertius usus legis*)를 통해 율법폐기론을 배격한다.
4.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된 자녀로서, 기쁨과 자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결단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율법의 참된 목적: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불꽃 (2.7.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율법의 신적 기원과 불가능성의 역설 (2.7.1~5)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율법의 제1용도(정죄의 거울)와 제2용도(사회적 재갈) (2.7.6~11)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칼빈 신학의 꽃: 율법의 제3용도(*Tertius usus legis*)와 성화 (2.7.12~17)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은혜 안에서 거룩한 계명을 순종하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우 여러분. 우리는 지난 24강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 잃어버린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그토록 엄중하고 세밀한 율법을 주셨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습니까?

칼빈은 제7장의 첫 문장에서 율법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선명하게 밝힙니다 (2.7.1):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구약 백성을 율법 자체의 테두리 안에 영원히 가두어두기 위한 감옥이 아니었다. 율법의 참된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 안에서 발견될 구원의 소망을 구약 백성의 가슴속에 끊임없이 복돋우고 양육하는 데 있었다!”

율법은 복음과 원수가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거룩한 한 쌍의 은혜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상처와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엑스레이(X-ray)라면, 복음은 그 상처를 피 묻은 손으로 껴매고 살려내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엑스레이 자체가 사람을 고치지는 못하지만, 엑스레이로 암 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환자는 의사에게 가지 않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의로 가득 찬 타락한 인간들을 영적 무덤에서 깨워내사, 유일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앞으로 달려오게 하시려고 시내산에서 거룩한 율법을 반포하신 것입니다.

[제1대지] 율법의 신적 기원과 불가능성의 역설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율법의 본질, 율법의 불가능성 롬 8:3, 필립 드 샤파뉴 『모세』 1648)

칼빈은 제1절부터 5절에서 율법의 완전성과 인간의 비참한 무능력 사이의 충돌을 엄정하게 분석합니다.

첫째,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완전한 반영입니다.

율법은 시시한 도덕 군자들의 윤리 규범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극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의 완벽한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義)의 수준은 인간의 겉모양뿐 아니라, 마음의 가장 은밀한 동기와 생각과 욕망까지 하나님의 기준에 100% 일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과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무섭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나의 계명이라도 평생 단 1초 동안 어긴다면, 그는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약 2:10).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주셔서 인간을 절망하게 하십니까?

회의론자들은 하나님이 심술궂은 폭군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3절을 인용하며 명쾌하게 변증합니다:

“율법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롬 7:12).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원인은 율법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죄로 부패한 인간 육체의 무능력(Infirmity carnis) 때문이다!” (2.7.5)

슬라이드 5에 제시된 필립 드 샤파뉴의 걸작 『십계명 돌판을 든 모세』 (1648, 에르미타주/밀워키 미술관 소장)를 보십시오.

모세의 이마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그가 든 십계명 돌판은 차갑고 단단한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돌판의 글자들은 1밀리미터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타는 공의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돌판의 기준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허황된 자만심, 곧 "내가 노력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바리새적 교만을 산산조각 내시기 위하여,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거룩한 율법의 벽 앞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제2대지] 율법의 제1용도와 제2용도: 거울과 재갈 (22:00 ~ 34:00)

(슬라이드 6 & 7 제시: 율법의 제1용도와 몽학선생 갈 3:24, 루카스 크라나흐 『율법과 은혜』 1529, 율법의 제2용도 시민적 재갈)

이제 칼빈은 제6절부터 11절에서 율법이 역사 속에서 감당하는 첫 두 가지 사역을 해명합니다.

1. 율법의 제1용도: 정죄의 거울 (*Usus theologicus / elenchticus*)

칼빈은 율법의 첫 번째 사역을 ‘거울(Speculum)’에 비유합니다 (2.7.7):

“사람이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에 묻은 더러운 얼룩과 때를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의 추악한 무능력과 뼈아픈 죄악과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똑똑히 보게 된다!”

율법은 우리를 말가벗깁니다.

내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음란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시기하는 죄인인지를 숨김없이 폭로합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3장 20절 말씀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 제1용도의 최종 목적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몽학선생, *Paedagogus*)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슬라이드 7에 제시된 종교개혁의 기념비적 판화, 루카스 크라나흐의 『율법과 은혜(율법과 복음)』 (1529, 고타 프리텐슈타인 성 소장)를 보십시오!

화폭의 좌측을 보십시오. 아담이 벌거벗은 채 해골과 죽음의 사자에게 쫓겨 지옥의 유허불 속으로 떠밀려 가고 있고, 산 위에서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리키며 그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화폭의 우측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옆구리에서 터져 나온 보혈의 물줄기가 죄인의 가슴을 적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무덤을 박차고 사망 권세를 짓밟고 계십니다!

율법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죄를 보고 절망하여 통곡하는 자만이, 비로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율법의 제2용도: 시민적 억제 (*Usus civilis / politicus*)

칼빈은 제10절과 11절에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을 ‘재갈과 굴레(*Fraenum*)’로 설명합니다.

세상에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수많은 불신자들과 흉악한 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세상에 법이 없고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세상은 약육강식과 살인과 강도질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율법의 형벌과 사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 악인들의 손발을 묶으시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이것은 비록 악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내적 변화는 아닐지라도, 온 인류와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반은총적 배려입니다.

[제3대지] 칼빈 신학의 꽃: 율법의 제3용도(*Tertius usus legis*)와 성도의 거룩한 삶 (34:00 ~ 46:00)

(슬라이드 8, 9 & 10 제시: 율법의 제3용도 본질, 발광 성경 패널 시 119:105 & 마 5:17, 율법폐기론 분쇄)

이제 우리는 제12절부터 17절에 걸쳐 전개되는,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위대한 공헌이자 칼빈 신학의 백미인 ‘율법의 제3용도(*Tertius usus legis*)’에 도달했습니다!

루터(Luther)는 율법의 제1용도(정죄)와 제2용도(시민적 억제)를 탁월하게 밝혔지만, 때때로 율법을 성도의 신앙생활과 날카롭게 대립시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usus)’이다!” (2.7.12)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갈 3:13).

그렇다면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옛 폐품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정죄의 칼날이 제거된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거룩한 삶의 안전한 안내자요 등불’로 다가옵니다!

슬라이드 9에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나는 시편 119편 105절과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 5:17)

칼빈은 감격에 겨워 율법의 제3용도를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2.7.12):

1. 가장 훌륭한 교서(Doctrina): 성도는 율법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날마다 명확하게 배웁니다.
2. 거룩한 채찍(Stimulus): 우리 안에는 여전히 게으름과 옛 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율법은 졸고 있는 성도의 영혼을 채찍질하여, 자만하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화의 경주를 달리도록 독려합니다!

칼빈은 제13절에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율법은 완전히 무익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지껄이는 율법폐기론자(Antinomians)들을 향해 준열한 버락을 내립니다 (슬라이드 10):

“율법에서 그리스도인을 해방한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해방이지, 율법의 ‘거룩한 가르침’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 율법의 교훈을 내던져 버리는 자는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방종한 사탄의 종이다!”

모세의 의식법(제사, 할례, 음식 규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림자가 실체로 성취되어 종결되었지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Moral Law)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입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와 5대 영적 자가진단 (46:00 ~ 54:00)

(슬라이드 11, 12, 13 & 14 제시: 3대 용도 비교 매트릭스, 성도의 기쁨, 5대 자가진단 문진표, 최종 송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0분 강의를 마무리하며 시편 1편 2절의 복 있는 사람을 바라봅시다: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노예에게 법은 감옥의 쇠창살이지만, 사랑받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훈계는 인생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이자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값없이 구원받았기에,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기쁨으로 계명을 순종하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며, 성도 개개인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율법 신앙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를 제시합니다:

1. [거울 진단] 율법의 거울 앞에서 내 도덕적 자만과 공로 의식이 산산조각 나고, 오직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 예수만을 붙들고 있습니까?
2. [몽학선생 진단] 계명을 대할 때마다 내 무능력을 절감하고,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3. [방종 진단]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십계명이나 성경의 윤리는 대충 살아도 상관없다"는 무율법주의적 방종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4. [제3용도 진단]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옥죄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기쁘시게 해 드리는 즐거운 삶의 나침반으로 다가옵니까?
5. [순종 진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하라는 율법의 대강령이 오늘 내 가정과 일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되고 있습니까?

[평신도 삶의 적용] 성도 여러분. 율법의 거울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율법의 모든 정죄를 벗어던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다윗처럼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라고 노래하며 날마다 거룩한 순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율법의 신적 기원과 불가능성의 원인 — 인간 육체의 무능:
2.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육체(Infirmetas carnis, 롬 8:3)로 인해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2.7.5).
3. 율법의 제1용도 — 정죄의 거울 (*Speculum*)과 몽학선생:

자가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2.7.6~7).

5. 율법의 제2용도 — 시민적 악의 억제를 위한 공적 재갈 (*Fraenum*):

6. 아직 거듭나지 않은 악인들의 난폭함과 범죄를 형벌의 공포로 억제하여 인류 사회의 공공질서와 교회의 안전을 보존합니다 (2.7.10~11).

7. 율법의 제3용도 — 성도의 삶의 거룩한 규범 (*Tertius Usus Legis*):

8. 칼빈 신학의 꽃인 제3용도는 율법의 가장 본래적인 주된 용도로서, 구원받은 자녀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등불입니다 (2.7.12).

9. 율법폐기론 (*Antinomianism*)의 방종 분쇄와 도덕법의 영속성:

10. 의식법(제사, 절기)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어 종결되었으나,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도덕법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순종의 길입니다 (2.7.13~16).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거울 진단]: 율법의 거울 앞에서 내 도덕적 자만과 공로 의식이 산산조각 나고, 오직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 예수만을 붙들고 있는가?
2. [몽학선생 진단]: 계명을 대할 때마다 내 무능력을 절감하고,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3. [방종 진단]: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십계명이나 성경의 윤리는 대충 살아도 상관없다"는 무율법주의적 방종에 물들어 있지 않은가?
4. [제3용도 진단]: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옥죄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기쁘시게 해 드리는 즐거운 삶의 나침반으로 다가오는가?
5. [순종 진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하라는 율법의 대강령이 오늘 내 가정과 일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되고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느낌(부담감, 두려움, 거부감, 혹은 고마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음적 의미로 인도합니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거울과 몽학선생): 로마서 3:20과 갈라디아서 3:24를 읽고, 율법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초등교사)인지 칼빈의 '거울 비유(2.7.7)'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질문 2 (크라나흐 판화 묵상): 루카스 크라나흐의 『율법과 은혜』 그림에서 좌측(율법의 정죄와 죽음)과 우측(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승리)의 대비가 내 구원 간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누어 봅시다.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율법의 제3용도와 성화):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끝났다"는 율법폐기론의 주장이 왜 치명적인 오류인지, 칼빈이 강조한 '성도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제3용도(2.7.12)'를 중심으로 토론해 봅시다.
- 질문 4 (사랑의 순종): 요한일서 5장 3절("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처럼, 억지 의무가 아닌 사랑의 순종으로 계명을 지키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은혜를 누리되, 율법의 거룩한 규범을 따라 세상 속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회를 이끍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율법의 거울 앞에서 내 교만과 자기 의를 깨뜨리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 은혜를 핑계 삼아 죄와 타협하는 방종을 버리고, 율법을 등불 삼아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구원받았는데 굳이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 A: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율법 준수는 끝났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의 지침(제3용도)'으로서의 율법은 여전히 유효함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에 부모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 Q2: 계명을 지키려다 자꾸 실패하여 죄책감에 빠지는 성도에게는?
 - A: 율법의 제1용도를 상기시키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정죄에 머물지 말고 즉시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달려가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하십시오.

제26강: 도덕법(십계명)의 해설

[부제] 마음의 내적 순결과 사랑의 완성 — 두 돌판에 새겨진 거룩한 삶의 원리와 십계명 강해의 대원칙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8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교재 범위: 제2학기 구속주 하나님 (Book II) 제26주차 — 제2권 제8장 (2.8.1~59) - 강의 구성: 정식 60분 강독 강의 + 30~45분 소그룹 심화 나눔 모듈 - 핵심 주제: 십계명 해석의 3대 황금 원칙(영적 내면성·제유법 시베크도카·두 돌판의 질서), 제1돌판 경건(Pietas, 1~4계명), 제2돌판 사랑과 공의(Caritas, 5~10계명), 외적 문자주의와 바리새주의 격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롬 10:4, 롬 13:10) - 텍스트 색상 체계: - ● 네이비 (#182B49):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라틴어 원전 정본 핵심 발췌 (Institutes Excerpts) -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목회적 위로 -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문자주의적 형식주의, 위선적 외식)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십계명은 낡은 율법 조항인가, 살아 있는 영적 규범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신학의 가장 광대한 윤리적 정원이자, 기독교인의 성화의 삶을 밝히는 최고의 햇불인 『기독교 강요』 제2권 제8장으로 들어섭니다.

이 강의 라틴어 제목은 “Legis moralis explicatio”, 곧 「도덕법(십계명)의 해설」입니다.

칼빈은 무려 59개 절에 걸쳐 십계명 전체를 한 자 한 자 정밀하게 해부하며, 종교개혁 역사상 가장 탁월하고 깊이 있는 성경적 십계명 강해를 완성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십계명을 대할 때 구약 시대의 케케묵은 도덕적 금지 조항 정도로 치부하곤 합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으니 나는 십계명을 웬만큼 지키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존 칼빈은 이러한 바리새적 문자주의를 단칼에 베어 넘깁니다!

칼빈은 선포합니다:

“인간의 법관은 겉으로 드러난 손발의 범죄만을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의 가장 은밀한 골방, 영혼의 뿌리 깊은 동기와 숨은 욕망까지 꿰뚫어 보시는 영적인 법이다!” (2.8.6)

1. 영적 내면성 (Lex est spiritualis): 겉모양뿐 아니라 마음의 온전한 순결을 요구함
2. 제유법 (Synecdoche): 금지 명령 속에는 그 반대되는 적극적 선을 행하라는 명령이 내포되어 있음
3. 두 돌판의 거룩한 질서: 제1돌판의 경건(하나님 사랑)이 없는 제2돌판의 도덕(이웃 사랑)은 위선에 불과함

오늘 60분 강의를 통해 우리는 십계명이 결코 우리를 억압하는 차가운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초대장임을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1. 십계명 서문(출 20:2)의 복음적 성격을 이해하고,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은혜의 선물임을 확증한다.
2. 십계명 해석의 3대 황금 원칙(영적 내면성, 제유법, 두 돌판의 위계질서)을 체계화한다.
3. 제1돌판의 경건(Pietas)과 제2돌판의 사랑(Caritas)을 통해 외적 문자주의와 바리새적 위선을 분쇄한다.
4.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일상 속에서 적극적인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성화의 삶을 결단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십계명의 서문: 은혜 위에 세워진 율법 (2.8.13~15)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십계명 해석의 3대 황금 원칙 (2.8.1~12)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제1돌판: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경건과 참된 예배 (2.8.13~34)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제2돌판: 이웃을 향한 거룩한 사랑과 공의의 실천 (2.8.35~50)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계명을 즐거워하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십계명의 서문: 은혜 위에 세워진 율법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이 시작되기 직전, 출애굽기 20장 2절의 장엄한 선언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칼빈은 이 서문(Praefatio)의 중요성을 침이 마르도록 강조합니다 (2.8.13~15):

하나님께서서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피 흘림을 통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이제 너희가 내 사랑받는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읽을 때 공포에 질린 노예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사의 눈으로 십계명을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제1대지] 십계명 해석의 3대 황금 원칙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3대 해석 원칙, 제유법의 비밀, 귀도 레니 『모세』 c. 1620)

칼빈은 제1절부터 12절에 걸쳐 십계명을 오해해 온 유대교 랍비들과 중세 스콜라주의자들의 껍데기뿐인 율법관을 폭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 기초한 3대 해석 원칙을 세웁니다.

첫째 원칙: 율법의 영적 내면성 (Lex est spiritualis, 롬 7:14)

세상의 법관은 살인을 저지른 칼이나 도둑질한 손길만을 다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의 깊은 심연을 수술합니다 (슬라이드 4):

칼빈은 마태복음 5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일갈하신 주님의 음성을 상기시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품은 살기 어린 미움이 곧 살인이요, 겉으로 정숙할지라도 가슴속에 타오르는 불결한 음욕이 곧 간음입니다!

둘째 원칙: 제유법 (Synecdoche) — 적극적 의의 명령

십계명의 대부분은 “~하지 말라”는 부정형 금지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를 보고 "안 하기만 하면 장땡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문법적 수사학인 ‘제유법(Synecdoche)’의 원리를 밝혀냅니다 (2.8.8~10):

하나님께서 가장 극단적인 한 가지 죄악을 금지하실 때, 그것은 그 죄악과 관련된 모든 잔뿌리의 악을 금하심과 동시에, ‘그 반대되는 가장 거룩한 선을 온 힘을 다해 행하라’는 적극적 명령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입은 자를 돌보라는 명령입니다!

- “도둑질하지 말라”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 재물을 기쁨으로 나누어 주는 청지기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셋째 원칙: 두 돌판의 질서와 균형

슬라이드 5에 제시된 귀도 레니의 걸작 『모세』(c. 1620)를 보십시오.

모세의 두 손에 들려 있는 두 돌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웅변합니다:

- 제1돌판 (1~4계명): 하나님을 향한 경건(*Pietas*)입니다. 인간 삶의 으뜸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 제2돌판 (5~10계명): 이웃을 향한 사랑과 공의(*Caritas / Iustitia*)입니다.

칼빈은 교부 어거스틴의 유명한 저작 『영과 문자(De Spiritu et Littera)』를 인용하며 엄중히 경고합니다:

성령 없는 돌판의 문자는 오직 인간을 죽이고 정죄할 뿐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부드러운 살 마음에 새겨주신 생명의 법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이 없는 이웃 사랑은 썩은 뿌리 위에 핀 조화에 불과하며, 이웃을 향한 사랑과 공의가 없는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증한 위선입니다!

[제2대지] 제1돌판 강해: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경건 (22:00 ~ 34:00)

(슬라이드 6 & 7 제시: 제1~4계명 정밀 주해, 렘브란트 『십계명 돌판을 부수려는 모세』 1659)

이제 칼빈은 제1돌판의 네 계명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밝힙니다.

1.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2.8.16)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 어떤 피조물과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돈, 명예, 자녀, 자기 자신이 바로 현대인의 가증한 신들입니다.

2.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2.8.17~21)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 형상이나 그림으로 가두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불경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3. 제3계명: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2.8.22~27)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과 영광 자체입니다.

습관적인 헛된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는 종교적 사기, 하나님을 가볍게 부르는 모든 불경을 금하십니다. 성도는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칼빈은 안식일의 3대 목적을 명쾌하게 해설합니다:

5. 첫째, 영적 안식: 성도가 자기 자신의 일과 육욕을 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어맡김.
6. 둘째, 공적 예배: 말씀을 듣고 성례를 행하며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함.
7. 셋째, 쉼과 안식: 노동하는 종들과 피조물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성취되었으므로, 주일은 율법적 명제가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슬라이드 7에 제시된 렘브란트의 명작 『십계명 돌판을 부수려는 모세』(1659)를 보십시오.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춤추던 이스라엘의 패역을 목도한 모세가 의분을 참지 못하고 돌판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인간은 거룩한 언약의 축복에서 떨어져 공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제3대지] 제2돌판 강해: 이웃을 향한 거룩한 사랑과 공의 (34:00 ~ 46:00)

(슬라이드 8, 9 & 10 제시: 제5~10계명 정밀 주해, 발광 성경 패널 롬 13:8-10, 제10계명 탐심과 산상수훈)

이어지는 제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거룩한 성화의 열매들을 가르칩니다.

1.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2.8.35~38)

칼빈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정당한 권위(스승, 직장 상사, 국가 통치자)에 대한 순종과 공경으로 확장합니다.

권위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유함으로 다스려야 하며, 성도는 기쁨으로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2.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2.8.39~40)

칼빈은 제유법을 적용하여 가슴을 찌르는 선언을 합니다:

“마음속에 품은 분노와 악의, 복수심, 멸시의 눈빛까지도 살인이다! 성도는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처한 자를 건져내고,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어 안아야 한다!”

3.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2.8.41~44)

우리 몸은 성령의 거룩한 전입니다.

외적 음행뿐 아니라, 눈으로 짓는 음욕, 귀로 듣는 음란한 농담, 마음에 품은 부정한 정욕까지 철저히 금하십니다. 성도는 거룩한 혼인의 순결을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 아니라, 불공정한 상거래, 과도한 이자, 노동자의 품삯을 착취하는 행위, 세금 탈루가 모두 도둑질입니다.

성도는 정직한 땀을 흘려 이웃에게 베푸는 거룩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5. 제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2.8.47~48)

법정에서의 위증뿐 아니라, 일상 대화에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뒷담화, 험담, 거짓 소문 유포를 엄히 금하십니다. 성도는 이웃의 인격과 명예를 내 것처럼 아끼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6. 제10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2.8.49~50)

십계명의 웅장한 피날레입니다!

앞선 계명들이 외적 행동과 결의된 죄를 다루었다면, 제10계명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숨어 꿈틀거리는 ‘탐심 (Concupiscentia)’의 뿌리를 겨냥합니다 (슬라이드 10).

남의 성공을 질투하고, 남이 가진 것을 탐내며, 내 분복에 불만을 품는 마음의 악한 욕망을 완전히 뿌리 뽑으라는 명령입니다!

슬라이드 9의 눈부신 황금빛 패널에 새겨진 로마서 13장 8~10절을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제4대지 및 결론]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와 5대 영적 자가진단 (46:00 ~ 54:00)

(슬라이드 11, 12, 13 & 14 제시: 율법관 비교 매트릭스, 십계명의 삶, 5대 자가진단 문진표, 최종 송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계명의 웅장한 거울 앞에 서 보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열 계명 중 단 하나의 계명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수없이 살인했고, 음욕을 품었으며, 탐심에 눈이 멀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0장 4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Telos)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십계명의 모든 의를 십자가와 생애를 통해 100%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계명을 볼 때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의 손을 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거룩한 법을 즐거워하며 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칼빈은 제네바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격에 겨워 권면했습니다:

“성도들이여, 십계명을 날마다 아침 거울처럼 묵상하십시오. 십계명은 나를 정죄하는 잔인한 채찍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온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는 가장 안전한 복음의 나침반입니다!”

[평신도 삶의 적용]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옳아매는 사슬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마음의 내면을 살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결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품어 안으며,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 십계명의 은혜 언약적 기초 — 서문의 복음성 (출 20:2):
-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속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삶의 규범입니다 (2.8.13~15).
- 율법의 영적 내면성 (*Lex est Spiritualis*)과 산상수훈의 연속성:
- 인간의 법은 손발의 외적 행위만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의 가장 깊은 동기와 은밀한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며, 살인과 간음은 마음의 분노와 음욕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2.8.6).
- 해석의 황금 열쇠 — 제유법 (*Synecdoche*)의 적극적 계명성:
- 십계명의 모든 금지 명령은 악을 피하라는 소극적 명령에 그치지 않고, 그 반대되는 선(이웃의 생명, 정절, 재산, 명예의 증진)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전인적 요구를 내포합니다 (2.8.8~10).
- 두 돌판의 거룩한 위계질서 — 경건 (*Pietas*)과 사랑 (*Caritas*):
- 제1돌판(하나님 사랑)의 참된 경건이 뿌리내리지 않은 제2돌판(이웃 사랑)의 도덕성은 위선이며, 동시에 이웃을 향한 공의와 사랑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가증한 기만입니다 (2.8.11~12).
-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Finis Legis Christus*):

스도의 완전한 의를 덧입어 기쁨의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2.8.51, 57).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내면 진단]: 겉으로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않고, 마음속에 품은 은밀한 미움과 음욕까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2. [두 돌판 진단]: 주일 공적 예배의 경건(제1돌판)과 주중 일터에서의 정직한 상거래 및 이웃 사랑(제2돌판)이 삶 속에서 온전히 일치하고 있는가?
3. [제유법 진단]: 단순히 악을 저지르지 않는 소극적 태도에 머물지 않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지켜주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가?
4. [탐심 진단]: 내게 주신 분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은밀한 시기와 탐욕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5. [복음 진단]: 십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내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날마다 의지하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십계명 열 가지 계명 중에서 내 일상에서 지키기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계명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체면을 내려놓고 마음의 은밀한 탐심이나 분노, 혹은 주일 안식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산상수훈과 율법의 내면성): 마태복음 5:21~28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 2.8.6을 함께 읽고, 살인과 간음의 죄를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하신 주님의 의도를 묵상해 봅시다.
- 질문 2 (제유법의 실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제유법(Synecdoche)의 원리로 해석할 때,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을 넘어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적극적인 나눔과 구제는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두 돌판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할 변화는 무엇입니까?

- 질문 4 (제10계명과 탐심): 골로새서 3:5("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탐욕(재정, 인정욕구, 자녀 성공)을 점검하고 자족의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십계명의 거울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기도로 이끎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겉모습만의 바리새적 형식주의를 벗어던지고, 마음의 은밀한 동기까지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소서.
 -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예배와 이웃을 향한 정직한 사랑이 삶 속에서 온전히 조화를 이루게 하소서.
 -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미움 대신 용서를, 탐욕 대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제유법(Synecdoche)의 원리를 평신도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 A: "살인하지 말라"가 단순히 칼로 사람을 찌르지 않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며 어려움에 처한 자를 적극적으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임을 산상수훈(마 5장)과 연결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Q2: 십계명을 가르칠 때 성도들이 무거운 율법주의적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게 하려면?
- A: 십계명의 서문("나는 너를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을 끊임없이 상기시키십시오. 계명은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시험지가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주신 '가족 생활 지침서'임을 따뜻하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제27장: 율법의 그림자에서 복음의 찬란한 빛으로

[부제] 구약의 희미한 모형을 넘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린 구속의 찬란한 영광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9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교재 범위:** 제2학기 구속주 하나님 (Book II) 제27주차 — 제2권 제9장 (2.9.1~5) - **강의 구성:** 정식 60분 강독 강의 + 30~45분 소그룹 심화 나눔 모듈 - **핵심 주제:** 율법과 복음의 유기적 관계(Christum sub Lege cognitum, in Evangelio exhibitum), 구약의 그림자(Umbra)와 모형(Typus)을 넘어선 신약의 실체(Veritas), 복음(Evangelium)의 참된 정의와 광의·협의의 구별, 마르시온(Marcion)의 이원론적 이단 분쇄, 시므온의 찬가(눅 2:29-32)와 엠마오 도상의 부활 주님(눅 24:27), 은혜의 풍성함과 성도의 감사 - **텍스트 색상 체계:** - ● **네이버 (#182B49):**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 **버전디 (#8B0000):** 『기독교 강요』 라틴어 원전 정본 핵심 발췌 (Institutes Excerpts) -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목회적 위로 -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마르시온주의 이원론, 구약 무용론)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는 같은 복음을 믿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신학의 가장 영광스럽고 눈부신 전환점인 『기독교 강요』 제2권 제9장으로 나아갑니다.

이 장의 장엄한 라틴어 원전 제목을 보십시오:

“Christum, licet sub Lege Iudaeis cognitum fuerit, tamen nonnisi in Evangelio primum exhibitum fuisse”

(그리스도께서 비록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지셨으나, 오직 복음 안에서 비로소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전혀 다른 두 개의 책처럼 분리하려는 위험한 유혹에 빠집니다:

"구약은 무서운 진노와 피비린내 나는 제사의 책이고, 신약은 사랑과 은혜의 책이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닌가?"

초대교회 시대에 마르시온(Marcion)이라는 이단은 바로 이 사악한 생각에 빠져 "구약의 창조신은 잔인한 악신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이 참된 선신이다"라며 구약 성경 전체를 찢어버렸습니다.

칼빈은 단호히 선포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다! 구약의 족장들과 성도들도 율법의 제사와 예언이라는 ‘그림자(Umbra)’를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이르러,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친히 오심으로써 그 모든 그림자가 걷히고 대낮의 태양처럼 찬란한 ‘실체(Veritas)’가 활짝 열렸다!” (2.9.1)

오늘 60분 강의를 통해 우리는 구약의 희미한 촛불 아래서 메시아를 사모했던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배우고, 오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찬란한 태양 빛 아래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특권을 입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 1. 구약과 신약의 언약적 통일성을 파악하고, 아담 이후 인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증한다.
- 2. 구약의 그림자(Umbra)와 신약의 실체(Veritas)의 관계를 여명의 빛과 정오의 태양 비유를 통해 체계화한다.
- 3.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여 구약을 폄하하는 마르시온(Marcion)의 이원론적 이단을 단호히 논파한다.
- 4.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찬란한 복음의 정오를 누리는 신약 성도로서의 무한한 감사와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결단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여명의 새벽빛에서 찬란한 정오의 태양으로 (2.9.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율법 아래 알려지신 그리스도: 그림자와 모형의 시대 (2.9.1~2)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복음(Evangelium)의 참된 정의: 약속의 성취와 실체의 도래 (2.9.2~3)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마르시온 이단 분쇄와 율법과 복음의 조화 (2.9.4~5)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은혜의 정오를 살아가는 성도의 특권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여명의 새벽빛에서 찬란한 정오의 태양으로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동이 트기 직전, 하늘 한구석이 희미하게 밝아오며 새벽별이 반짝입니다.

그 새벽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 곧 태양이 떠오르겠구나" 하는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지평선 위로 솟아올라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가득 채울 때, 그 희미한 새벽빛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태양의 눈부신 광채가 새벽빛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바로 이 ‘여명의 빛과 정오의 태양’으로 비유합니다 (2.9.1):

구약의 율법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이 희미하게 비추었던 ‘새벽빛과 별빛의 시대’였습니다.

반면 신약의 복음 시대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사 온 우주를 비추시는 ‘찬란한 정오의 태양의 시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2천 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요 8:56).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히 11:26).

다윗은 성령에 감동하여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내 주(Adonai)"라고 고백했습니다 (시 110:1).

그러나 그들이 보았던 그리스도는 어디까지나 모형과 휘장과 제물의 피 너머에 가려진 희미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살과 피를 찢으사 활짝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깨달을 때, 우리의 가슴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제1대지] 율법 아래 알려지신 그리스도: 그림자와 모형의 신비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그림자와 실체의 대비, 히브리서 10:1 원전 주해, 렘브란트 『성전의 시므온』 1631)

칼빈은 제1절과 2절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와 직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는지를 논증합니다.

구약의 성막을 가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이 흠 없는 어린양을 끌고 와 머리에 안수하고 목을 따니다.

피가 제단 사방에 뿌려지고, 고기는 불태워져 연기로 올라갑니다.

소나 양의 피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과 4절은 선언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Umbra)일 뿐이요 참 형상(Veritas)이 아니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그렇다면 구약 백성은 왜 그 수많은 짐승을 잡았습니까?

칼빈은 외칩니다 (슬라이드 4):

“짐승의 피 자체가 효력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다! 어린양의 피는 장차 십자가에서 단번에 흘려질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가리키는 거룩한 손가락이었다! 구약의 신자들은 그 제물을 드리면서,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먼 미래의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2.9.2)

슬라이드 5에 제시된 렘브란트의 걸작 『성전의 시므온과 아기 예수』 (1631, 헤이그 마우리츠하위스 소장)를 보십시오.

어두컴컴한 예루살렘 성전 높은 제단 아래, 백발이 성성한 늙은 시므온이 마침내 품에 안긴 핏덩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한 줄기 찬란한 하늘의 빛이 노인의 눈물 젖은 얼굴과 아기 예수의 몸을 비추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평생 율법의 제사와 예언의 두루마리를 읽으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약의 마지막 성도였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았을 때, 무엇이라고 터져 나오는 찬송을 부릅니까?

누가복음 2장 29~3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그림자의 시대가 끝나고, 마침내 온 우주를 비추는 참된 구원의 실체가 자기 두 손에 안겨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실체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거저 주어졌습니다!

[제2대지] 복음(Evangelium)의 참된 정의와 약속의 성취 (22:00 ~ 34:00)

(슬라이드 6 & 7 제시: 복음의 참된 정의, 광의와 협의의 복음, 카라바조 『엠마오의 저녁식사』 1601)

칼빈은 제2절과 3절에서 ‘복음(Evangelium)’이라는 단어의 성경적 어원과 신학적 정의를 명확하게 정립합니다.

헬라어 ‘에우안겔리온(Euangelion)’은 ‘기쁜 소식(Bona et laeta nuntiatio)’을 뜻합니다.

칼빈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1. 넓은 의미의 복음 (광의의 복음): 아담이 타락한 직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가리킵니다.

2. 좁은 의미의 복음 (협회의 고유한 복음): 약속되었던 그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실제로 성취되고 역사 속에 온전히 드러난 신약의 복음 선포를 뜻합니다!

칼빈은 감격에 겨워 선언합니다 (슬라이드 6):

“구약의 복음이 ‘장차 오실 구주에 대한 약속’이었다면, 신약의 복음은 ‘이미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에 대한 선포’이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찬란한 영광의 차이가 있다!” (2.9.2)

슬라이드 7에 제시된 카라바조의 불멸의 명작 『엠마오의 저녁식사』 (1601, 런던 국립미술관 소장)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곁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식탁에서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번쩍 뜨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전율의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길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풀어주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은 고백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눅 24:32)”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모세의 율법과 제사와 예언들이 실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노래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 제자들의 영혼은 거룩한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제3대지] 마르시온 이단 분쇄: 율법과 복음의 완전한 조화 (34:00 ~ 46:00)

(슬라이드 8, 9 & 10 제시: 마르시온주의 격파, 발광 성경 패널 마 13:16-17 & 골 2:17, 율법과 복음의 유기적 통일)

칼빈은 제4절과 5절에서 초대교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어지럽혀 온 마르시온(Marcion)과 마니교적 이원론의 독버섯을 철저히 격멸합니다 (슬라이드 8).

마르시온주의자들은 주장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서로 모순된다! 율법은 악하고 복음은 선하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롭다!"

칼빈은 이 사탄의 거짓말을 향해 호통을 칩니다: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칼빈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유명한 통찰을 인용하며 이를 더욱 명료하게 확증합니다: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Novum Testamentum in Vetere latet), 구약은 신약 안에서 활짝 밝혀진다(Vetus in Novo patet)!”

교부 요한 크리소스토무스(Chrysostomus) 역시 모형론을 설명하며 외쳤습니다: "새벽별이 빛나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고, 아침 노을이 걷히는 것은 정오의 태양이 만유를 가득 채우기 위함이다!"

골로새서 2장 17절의 사도 바울의 장엄한 선언을 보십시오 (슬라이드 9 발광 패널):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와 몸은 서로 다투는 원수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실체인 몸이 실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드리워지는 은혜의 투영입니다!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계셨고 역사의 주관자로 다스리셨기에, 구약의 시간 속에서 율법이라는 거룩하고 정교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결코 율법을 폐기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오랜 세월 애타게 사모하며 손짓하여 가리켰던 그 영광스러운 실체를 온전히 채워 넣음으로써 율법을 거룩하게 성취하고 영화롭게 완성합니다!

슬라이드 9에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나는 마태복음 13장 16~17절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나산의 모세도, 갈멜산의 엘리야도, 눈물의 예언자 이사야도 그토록 보고 싶어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사모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영원한 복음을, 오늘 우리는 기록된 성경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온 마음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의인들보다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특권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복음의 정오를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은혜의 정오를 살아가는 성도의 특권 (46:00 ~ 54:00)

(슬라이드 11, 12, 13 & 14 제시: 구약과 신약 비교 매트릭스, 복음의 찬란한 영광, 5대 자가진단 문진표, 최종 송영)

우리는 지금 희미한 촛불의 시대가 아니라, 한낮의 태양빛이 쏟아지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희미한 그림자만 보고도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구약 성도들 앞에서, 대낮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불평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칼빈은 엄숙하게 권면합니다 (2.9.5):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일수록, 성도는 더 큰 감사와 더 거룩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영원한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셨으니, 우리는 매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야 한다!”

[평신도 삶의 실제적 적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불안과 방황의 긴 그림자 시대를 지나,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온전히 안기십시오!

더 이상 옛 언약 아래 갇힌 종들처럼 두려움이나 율법주의적 정죄에 사로잡혀 신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요 19:30) 외치시며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성전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사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산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율법의 모든 의를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찬란한 사랑과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소망과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율법과 복음의 유기적 연속성 — 동일한 은혜 언약의 실체:

2.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른 두 종교가 아니며, 아담 타락 이후 모든 구원은 오직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동일한 은혜 언약입니다 (2.9.1).

3. 구약의 그림자 (*Umbra*)와 신약의 실체 (*Veritas*):

4.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여명의 희미한 새벽빛과 같은 그림자였고, 신약의 복음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떠오른 대낮의 정오의 태양빛입니다 (2.9.1~2).

5. 복음 (*Evangelium*)의 참된 정의 — 약속의 온전한 성취:

6.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구속의 약속들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마침내 실체로 명백하게 나타났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2.9.2).

8. 구약의 창조신과 신약의 구속주를 쫓개어 구약을 폐기하려는 마르시온주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독하는 악한 꾀변이며, 구약 성경 전체가 실상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2.9.4).
9. 신약 성도의 비길 데 없는 영적 특권과 거룩한 책임:
10. 구약의 왕들과 선지자들도 간절히 보기 원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실체를 소유한 신약 성도는, 더 큰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2.9.4~5).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실체 진단]: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한 옛날 역사나 윤리 교훈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관되게 증언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복음을 발견하고 있는가?
2. [특권 진단]: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보지 못했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완성된 복음을 누리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3. [통일성 진단]: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실하게 일하시는 한 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굳게 신뢰하는가?
4. [엠마오 진단]: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할 때,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는가?
5. [시므온 진단]: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 영혼의 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족합니다"라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렵고 두렵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복음의 빛 아래서 구약의 그림자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기대감을 나누어 봅시다.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가졌던 구약에 대한 거리감을 인정하되, 칼빈의 '그림자와 실체' 비유를 통해 구약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그리스도의 예고편인지를 깨닫도록 돕습니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를 안았을 때 터져 나온 감격의 고백을 묵상해 봅시다.

- 질문 2 (엠마오 도상의 뜨거움): 누가복음 24:27, 32을 강독하고, 구약 성경 전체가 실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왜 불타올랐는지 나누어 봅시다.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마르시온 이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세속적 오해가 왜 복음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왜곡인지 토론해 봅시다.
- 질문 4 (신약 성도의 특권과 책임): 마태복음 13:16~17 말씀처럼, 구약의 왕들과 선지자들보다 더 큰 은혜의 정오를 살아가는 신약 성도로서 내가 회복해야 할 감사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말씀의 깊은 맛을 누리며 담대히 세상을 이기도록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신실하신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 희미한 모형을 넘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보았사오니, 날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소서.
 - 시므온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엠마오 제자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말이 왜 틀렸습니까?"
- A: 구약에도 이미 복음의 약속과 메시아의 은혜가 가득 차 있었고, 신약에도 거룩한 계명과 순종이 강조됩니다. 구약은 복음의 '그림자와 약속'이었고 신약은 그 '실체와 성취'라는 점진적 계시의 원리를 설명해 주십시오.
- Q2: 구약 성경 읽기를 지루해하거나 건너뛰려는 성도에게는?
- A: 엠마오 도상의 예수님처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영적 보물찾기의 기쁨을 맛보도록 돕고, 그림자를 알아야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음을 권면하십시오.

제28강: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 (동일한 은혜언약)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 구약 성도들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었음 (Book 2, Ch. 10)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10장 집중 강의안 (60분 폴타임 강의)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칼빈 기독교 강요 80강 마스터클래스 (제2학기: 구속주 하나님)
- 교재 범위: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라틴어 최종결정판) 제2권 제10장 (*De similitudine Veteris et Novi Testamenti*, 2.10.1 ~ 2.10.23)
- 강의 구성: 60분 본 강의 및 강독 대본 + 30~45분 소그룹 워크숍 및 심층 토론
- 핵심 주제: 구약과 신약의 본질적 일치 (언약의 실체, 영생의 소망, 그리스도의 중보), 물질적 약속의 영적 지향성, 세르베투스/재세레파의 오류 분석
- 텍스트 색상 체계:
 - 남색 (#182B49): 핵심 교리 명제, 칼빈 라틴어 원전 직역 및 신학적 정의
 - 자주색 (#8B0000): 반론 박멸, 논쟁 및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신학적 오류와 이단 사설 (재세레파/세르베투스)
 - 녹색 (#1E5631): 성경 원문 주해, 목회적 위로, 평신도 실천 적용 및 영적 권면
 - 황금색 (#B8860B): 핵심 암송 요절, 성령의 조명, 묵상 및 결단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0장에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다루는 가장 웅장하고 감격적인 신학적 파노라마를 펼쳐 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의식중에 "구약은 율법과 진노의 책이고 신약은 은혜와 사랑의 책"이라거나, "구약 유대인들은 짐승 제사와 율법 준수를 통해 현세적 가나안 땅의 복을 받았고,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 하늘나라 영생을 얻는다"는 치명적인 이분법에 빠져 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천박한 왜곡을 엄중히 꾸짖으며, 구약과 신약은 '본질(substantia)'에 있어서 완벽하게 동일한 단 하나의 은혜언약(foedus gratiae)임을 증명합니다.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 성도들이나 동일한 성령으로 거듭났고, 동일한 영생의 소망을 품었으며,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시대에 따른 경륜과 전달 방식의 외적 '형태(administratio)'에만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구약과 신약이 본질(substantia)에 있어서 완벽하게 동일한 단 하나의 은혜언약임을 체계적으로 논증한다.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신앙이 현세적 복이 아닌 영원한 하늘 본향과 부활을 바란 나그네 신앙이었음을 확인한다.

구약 백성을 돼지 취급하며 구약의 영적 가치를 폄하한 재세레파와 세르베투스의 이단적 오류를 논파한다.

구약의 물질적 약속을 영원한 기쁨의 거울이자 보증으로 이해하고, 현대 변영신학을 극복하는 순례자 영성을 함양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00:00 ~ 10:00 (10분): [도입]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웅장한 통일성 (2.10.1~2)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언약의 통일성: 구약과 신약의 세 가지 본질적 일치 (2.10.1~4)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족장들의 나그네 인생과 영생의 신앙 (2.10.5~14)
34:00 ~ 46:00 (12분): [제3대지] 다윗, 욥, 선지자들의 부활과 영생 증언 (2.10.15~19)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물질적 약속의 참된 성격과 재세례파 격파 (2.10.20~23)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동일한 은혜언약의 상속자로서의 순례자 결단

II.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웅장한 통일성 (00:00 ~ 05: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대지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0장의 위대한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De similitudine Veteris et Novi Testamenti)"입니다.

우리가 지난 27강(제9장)에서 복음이 율법의 희미한 그림자를 걷어내고 정오의 찬란한 태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냈음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본질적인 의문이 우리 영혼에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같은 선조들은 우리와 다른 종류의 종교를 믿었던 것인가? 그들은 단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많은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 만족했던 자들이었는가? 그들은 영원한 천국과 영생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말인가?"

초대교회의 마르시온부터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재세례파(Anabaptists)와 미카엘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 그리고 오늘날의 수많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거침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백성을 마치 "우리 안에 갇혀 배만 채우면 만족하는 가축"처럼 취급하며, 구약의 언약은 단지 흠에 속한 물질적 번영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제10장 첫 머리에서 단호하고도 영광스러운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아니다! 천부당만부당한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 족조들과 맺으신 언약은 그 본질(substantia)과 실체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와 맺으신 언약과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으며, 완전히 동일하고 하나이다!" (2.10.1)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구원 계획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제1대지] 언약의 통일성: 구약과 신약의 세 가지 본질적 일치 (05:00 ~ 17:00)

(슬라이드 3 & 4 제시: 세 가지 본질적 일치와 3대 핵심 기둥)

칼빈은 제1절부터 제4절에 걸쳐, 구약과 신약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세 가지 반석 같은 기초 명제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언약신학(Covenant Theology)의 심장부입니다.

첫째, 구약 성도들이 소망하고 바라보았던 언약의 목적은 현세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생의 불멸성(immortalitas)이었습니다 (2.10.1). 구약의 거룩한 족장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복을 결코 이 땅의 번영에 한정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분명하게 내다보고 갈망했습니다.

둘째, 구약의 언약 역시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순전한 자비와 은혜(sola gratia)로 말미암아 체결되었습니다 (2.10.2). 율법주의자들은 구약 백성이 율법의 조문들을 완벽히 행함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착

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반박합니다: "율법 아래 있던 자들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저주와 정죄밖에 받을 것이 없음을 처절히 깨달았다. 그들이 붙잡았던 유일한 닻은 아브라함에게 값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적 자비였다!"

셋째, 구약 성도들 역시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과의 생명적 교제를 누렸습니다 (2.10.2). 칼빈은 외칩니다: "중보자가 없이는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1초도 나아갈 수 없다! 구약의 족장들이 드렸던 모든 희생 제물의 피, 성막의 휘장, 대제사장의 흉패는 모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룩한 모형이었다. 구약 성도들은 그 그림자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구원을 얻었다!"

슬라이드 4에 정리된 3대 기둥을 보십시오.

영생의 소망 (Spes Immortalitatis): 가나안 땅 너머 영원한 하늘 성을 바라봄.

무조건적 은혜 (Sola Gratia): 행위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언약적 사랑.

그리스도의 중보 (Christo Mediatore): 피 흘림의 모형을 통해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붙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이 진리를 소름 돋을 정도로 명백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구치는 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 오늘 우리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대하며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제2대지] 족장들의 나그네 인생과 영생의 신앙 (17:00 ~ 32:00)

(슬라이드 5, 6 & 7 제시: 티치아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족장들의 나그네 신앙, 렘브란트 『이삭의 희생』)

이제 칼빈은 제5절부터 제14절까지, 구체적으로 구약 족장들의 실제 삶을 파헤치며 성경 원문을 들어 논증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핵심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칼빈은 이 구절을 기가 막히게 주해합니다 (2.10.7):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의와 생명과 영원한 복락의 샘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그 사람을 육체의 죽음과 썩어짐 속에 버려두신다면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두개인들을 향해 친히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무엇이라 꾸짖으셨는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육체의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 찬란하게 박혀 있음을 확증하셨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티치아노의 걸작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1542-1544, 베네치아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 소장)을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평화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레위 제사 제도를 뛰어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만났음을 밝혀줍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소망이 현세의 복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고향 갈대아 우르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평생을 이방인처럼 텐트를 치고 옮겨 다니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쫓겨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조카 롯과 갈등을 겪었으며, 백 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시험을 받았습니

다.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실제로 돈을 주고 소유했던 유일한 땅은,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 헛 족속에게 산 막벨라 굴 매장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슬라이드 7에 제시된 렘브란트의 불후의 명화 『이삭의 희생』(1635, 에르미타주 미술관 소장)을 보십시오. 칼을 들고 아들의 목을 찌르려던 아브라함의 손을 천사가 다급하게 낚아채는 극적인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백 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증언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는 눈앞의 현세적 축복에 목을 맨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활 권능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또 어떠했습니까?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밧단아람으로 도망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양을 쳤습니다. 돌아와서는 딸 디나가 욕을 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20여 년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년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 47:9).”

칼빈은 준엄하게 묻습니다 (2.10.13):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이 단지 현세의 물질적 풍요였다면, 야곱은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고 비참한 실패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외쳤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창 49:18)!' 족장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함으로써, 더 나은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있었음을 온 세상에 입증한 것이다!”

[제3대지] 다윗, 욥, 선지자들의 부활과 영생 증언 (32:00 ~ 45:00)

(슬라이드 8 & 9 제시: 시편, 욥기, 선지자들의 부활 신앙, 슬라이드 9 발광 성경 패널)

칼빈은 제15절부터 제19절에 걸쳐, 족장 시대를 지나 다윗과 시편 기자들, 그리고 욥과 구약 선지자들의 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들의 고백 속에는 영생과 부활의 광채가 눈이 부시도록 빛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성왕 다윗과 아삽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16편 10절에서 노래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 시편 구절이 다윗 자신의 육체를 넘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본 예언임을 명백히 증언했습니다 (행 2:31).

시편 73편에서 악인의 행통함을 보며 미끄러질 뻔했던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 깨달은 고백을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 73:25~26)” 이 땅의 육체와 재물이 쇠약해져 흠으로 돌아갈지라도, 성도의 영원한 기업(분깃)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극한에서 몸부림치던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욥 19:25~27):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Goel)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닦은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살점이 문드러지고 구더기가 들끓는 비참한 채터미 위에서, 욥은 자신을 구속하실 살아계신 중보자를 바라보았고, 마지막 날 육체의 부활 속에서 자신의 두 눈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알현할 영광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사야 26장 19절을 보십시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에스겔 37장의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들이 여호와와 생기(루아흐)를 받아 극히 큰 군대로 살아나는 환상은, 단지 바벨론 포로 귀환을 넘어 그리스도의 부활 권능으로 완성될 영원한 부활의 모형이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은 또 무엇이라 선언합니까? “땅의 티

꿀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처럼 구약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영생과 부활, 그리고 오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슬라이드 9에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나는 히브리서 11장 13~16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 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사모했던 본향은 중동의 가나안 흠바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거룩한 하늘 성,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4대지 및 결론] 물질적 약속의 참된 성격과 재세례파 격파 (45:00 ~ 60:00)

(슬라이드 10, 11, 12, 13 & 14 제시: 재세례파 오류 분쇄, 구약·신약 비교 매트릭스, 5대 자가진단 문진표, 최종 송영)

그렇다면 칼빈은 제20절부터 제23절에서 마지막 결정적인 질문에 답합니다: “칼빈 선생이여,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영생과 은혜에 있어서 동일하다면, 왜 구약 성경에는 토지의 소산, 가축의 번성, 원수로부터의 보호, 장수와 건강 같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약속들이 그토록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재세례파와 세르베투스는 이 질문을 빌미 삼아 구약 백성을 “돼지나 소처럼 땅의 풀만 뜯던 자들”이라고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불경건한 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적 섭리(divina pedagogia)를 밝혀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의 유아적이고 미성숙한 상태를 불쌍히 여기셨다. 영적인 것을 직접 이해하기에 아직 연약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복과 가나안 땅을 통해 장차 주실 영원한 하늘 기업을 맛보게 하시는 ‘거울이자 보증(speculum ac pignus)’으로 삼으신 것이다!” (2.10.20)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칠 때 그림책을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을 통해 천국의 무한한 풍요를 보여주셨고, 다윗 왕국의 번영을 통해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물질적 복 그 자체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라는 거울을 통해 하늘의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명쾌하게 설파했습니다: “육적인 약속들은 영적인 복락의 상징이었다. 지혜로운 자들은 모형을 통해 실체를 사모했으나, 우매한 자들은 모형 자체를 목적으로 삼다가 멸망했다.”

슬라이드 11에 제시된 [구약과 신약의 언약 통일성 비교 매트릭스]를 보십시오:

언약의 본질: 구약(은혜언약, Sola Gratia) = 신약(은혜언약, Sola Gratia)

구원의 근거: 구약(오실 그리스도의 중보) = 신약(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궁극적 소망: 구약(하늘 본향과 영생, 부활) = 신약(새 하늘과 새 땅, 영생)

경륜의 방식: 구약(그림자, 모형, 물질적 보증) ↔ 신약(실체, 성취, 성령의 직접적 조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오늘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동일한 은혜언약과 영생 신앙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를 제시합니다:

[본향 진단] 나는 이 땅의 물질적 성공이나 안락함에 만족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복주의 진단] 구약의 물질적 복을 오해하여 기복신앙(변영신학)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 축복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삶의 제1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통일성 진단] 성경 전체(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의 동일한 은혜언약 아래 있음을 확신하며, 구약 말씀을 대할 때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부활 진단] 읍과 다윗처럼, 극심한 질병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부활의 확신으로 담대히 서 있습니까?

[기업 진단]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의 무게를 깨닫고,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내 영혼의 가장 값진 기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평신도 삶의 실제적 적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며, 구약 성도들이 피 흘리며 갈망했던 복음의 완성된 열매를 누리는 상속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겪는 환난이나 가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며, 여러분을 위해 영원한 하늘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오직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감격을 품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III.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은혜언약의 본질적 단일성 (*Substantia Foederis*):

구약과 신약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종교가 아니며, 동일한 영생의 소망, 동일한 값없는 자비, 동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에 기초한 단 하나의 은혜언약입니다 (2.10.1~4).

구약 족장들의 나그네와 본향 신앙 (*Peregrinatio et Patria*):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도 나그네로 살며 이 땅의 흠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지 않고 하늘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2.10.5~14).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영생의 확신 (*Resurrectio Carnis*):

읍과 다윗과 선지자들은 육체의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과 최후 심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2.10.15~19).

구약의 현세적 축복의 본질 — 하늘 기업의 거울과 보증 (*Speculum ac Pignus*):

구약의 물질적 복락과 가나안 땅의 축복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유아적 단계의 백성에게 영원한 천국 기업을 가르치기 위해 주신 그림책이자 거울이었습니다 (2.10.20).

재세례파와 세르베투스의 이단적 오류 분쇄:

구약 성도들을 짐승처럼 현세적 쾌락만을 구하던 자들로 비하한 광신자들의 주장은 성경 전체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모독하는 악한 궤변입니다 (2.10.20~23).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본향 진단]: 나는 이 땅의 물질적 성공이나 안락함에 만족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기복주의 진단]: 구약의 물질적 복을 오해하여 기복신앙(변영신학)에 빠져 있지 않은가? 물질적 축복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삶의 제1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통일성 진단]: 성경 전체(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의 동일한 은혜언약 아래 있음을 확신하며, 구약 말씀을 대할 때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있는가?

[부활 진단]: 읍과 다윗처럼, 극심한 질병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부활의 확신으로 담대히 서 있는가?

[기업 진단]: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의 무게를 깨닫고,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내 영혼의 가장 값진 기업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IV.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나눔 질문: 평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나?" 혹은 "물질적 복만 바랐던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가졌던 오해를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하고, 칼빈의 언약 통일성 교리가 주는 해방감을 맛보도록 부드럽게 이끕니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질문 1 (마태복음 22:32 예수님의 선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영생과 부활을 증명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질문 2 (히브리서 11:13~16 나그네 신앙): 족장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나그네로 살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이유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질문 3 (기복신앙과 물질적 약속의 오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구약의 물질적 복(신명기 28장의 복 등)을 문자 그대로 현대의 부와 성공으로 환원하는 기복주의에 빠집니다. 칼빈이 밝힌 '거울이자 보증(speculum ac pignus)' 개념으로 이를 어떻게 교정할 수 있습니까?

질문 4 (고난 속의 율의 신앙): 욥기 19:25~27의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라는 고백이 질병과 재정적 위기를 겪는 성도에게 어떤 궁극적 위로를 주는지 토론해 봅시다.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인도자 마무리 코칭: 썩어질 세상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며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공동 기도 제목: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은혜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물질적 복에 눈멀지 않고, 아브라함과 족장들처럼 하나님 자신을 영원한 분깃으로 삼는 참된 순례자가 되게 하소서.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생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Q1: "구약 성도들도 정말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A: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2:32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과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시다.

Q2: 구약의 물질적 복을 강조하는 기복주의 성도를 어떻게 권면해야 합니까?

A: 구약의 물질적 복(가나안 땅, 풍년, 장수 등)은 영적인 천국 기업을 보여주기 위한 '거울이자 시청각 교재'였음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신약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일깨워 주십시오.

제29강: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그림자와 실체, 복음의 자유) 강의 안 및 강독 대본

부제: 모험의 시대를 넘어 성령의 풍성함으로 — 새 언약의 영광과 복음의 자유 (Book 2, Ch. 11)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11장 집중 강의안 (60분 플타임 강의)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칼빈 기독교 강요 80강 마스터클래스 (제2학기: 구속주 하나님)
- 교재 범위: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라틴어 최종결정판) 제2권 제11장 (*De differentia unius Testamenti ab altero*, 2.11.1 ~ 2.11.14)
- 강의 구성: 60분 본 강의 및 강독 대본 + 30~45분 소그룹 워크숍 및 심층 토론
- 핵심 주제: 구약과 신약의 5대 차이점 (물질적 모형↔영적 실체, 그림자↔본체, 문자↔성령, 종의 두려움↔아들의 자유, 이스라엘↔만국 만민), 하나님의 교육적 경륜과 변덕 반론 박멸
- 텍스트 색상 체계:
 - 남색 (#182B49): 핵심 교리 명제, 칼빈 라틴어 원전 직역 및 신학적 정의
 - 자주색 (#8B0000): 반론 박멸, 논쟁 및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신학적 오류와 이단 사설 (마르시온/재세례파)
 - 녹색 (#1E5631): 성경 원문 주해, 목회적 위로, 평신도 실천 적용 및 영적 권면
 - 황금색 (#B8860B): 핵심 암송 요절, 성령의 조명, 묵상 및 결단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존 칼빈은 지난 제10장에서 구약과 신약이 '본질(substantia)'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한 하나의 은혜언약(foedus gratiae)임을 성경 원문과 족장들의 부활 신앙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제11장에 이르러 칼빈은 동전의 다른 한 면을 조명합니다. 즉, 본질은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계시하시고 집행하시는 '경륜의 형태(administratio)'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실로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5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모순이나 충돌로 보지 않고, 어두운 새벽빛이 정오의 찬란한 태양빛으로 발전하는 '점진적 성취와 풍성함의 확장'으로 설명합니다. 신약 성도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찬란한 성령의 조명, 아들로써 누리는 완전한 자유, 그리고 온 세상 열방으로 확장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지평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구약과 신약의 경륜적 5대 차이점(모형/실체, 문자/성령, 종/아들, 편재/보편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한다.

옛 언약의 몽학선생 역할과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구속사적 교육 경륜(divina pedagogia)으로 이해한다.

하나님의 언약 갱신을 변덕이라 비난하는 마르시온과 불경건한 자들의 궤변을 의사와 아버지의 비유로 논파한다.

종의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 안에서 참된 복음의 자유와 순종을 실천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00:00 ~ 10:00 (10분): [도입] 동전의 양면: 동일한 본질 속의 찬란한 차이 (2.11.1)

10:00 ~ 22:00 (12분): [제1대지] 모형에서 실제로: 제1 & 제2 차이점 (2.11.1~6)
22:00 ~ 34:00 (12분): [제2대지] 문자와 성령, 종의 명예와 아들의 자유: 제3 & 제4 차이점 (2.11.7~10)
34:00 ~ 46:00 (12분): [제3대지] 한 민족의 담장을 열고 만국 만민에게로: 제5 차이점 (2.11.11~12)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하나님의 교육적 경륜과 변덕 반론 박멸 (2.11.13~14)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양자의 영과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자녀의 결단

II.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부] 동전의 양면: 동일한 본질 속의 찬란한 차이 (00:00 ~ 05: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대지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8강에서 우리는 감격스러운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욥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언약 아래 있었으며, 그들 역시 현세의 번영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과 하늘 본향의 영생을 갈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11장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칼빈 선생이여, 구약과 신약이 본질에 있어서 완벽하게 하나라면, 왜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그토록 명백하게 구분하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요 '더 뛰어난 직분'이라고 소리 높여 찬양합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칼빈은 제11장 제1절에서 매우 균형 잡히고 우아한 어조로 답변을 시작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언약의 '본질(substantia)'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을 집행하고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외적 '경륜의 방식(administratio)'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자신의 거룩한 은혜를 더욱 찬란하고 풍성하게 드러내셨다!” (2.11.1)

칼빈은 이 경륜의 차이를 다섯 가지 위대한 대조(Quinque differentiae)로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5대 차이점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특권과 자유와 성령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전율하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1대지] 모형에서 실제로: 제1 & 제2 차이점 (05:00 ~ 18: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제1 & 제2 차이점, 프라 안젤리코 『수태고지』)

칼빈이 밝히는 제1차이점은 바로 "물질적 모형에서 영적 실제로의 전환"입니다 (2.11.1~3).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늘 기업의 영원한 소망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들의 연합함을 배려하여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지상적 축복, 토지의 소산, 육체의 번성이라는 거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음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거울과 모형을 걷어 치우고, 우리 영혼의 시선을 곧바로 영원한 하늘의 영적 유업으로 직결시키셨습니다! 칼빈은 외칩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의 흙이나 포도나무로 우리의 눈을 유혹하지 않으신다! 복음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하늘 지성소로 인도하여 영원한 영생의 실체를 맛보게 한다!” (2.11.1)

이어서 제2차이점은 "그림자와 예표에서 진리와 본체로의 완성"입니다 (2.11.4~6).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사모했으나, 그들은 아직 육신을 입고 역사 속에 오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제사 제도의 수많은 향소와 양의 피, 성막의 휘장, 번제단의 불, 절기라는 '그림자(umbrae)'를 통해 그리스도를 멀리서 희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독생자의 영광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르네상스 초기의 거장 프라 안젤리코의 불멸의 프레스코화 『수태고지』 (1440-1445, 피렌체 산 마르코 수도원 소장)를 보십시오. 대천사 가브리엘이 순결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무릎을 꿇고 인류 구속의 영원한 신비를 선포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림 왼쪽 상단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장면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첫 아담의 반역으로 닫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둘째 아담이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태동과 함께 활짝 열린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과 의식들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 영원히 그 임무를 완수하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실체(corpus)가 당도했으니 그림자는 물러가야 마땅합니다!

[제2대지] 문자와 성령, 종의 멍에와 아들의 자유: 제3 & 제4 차이점 (18:00 ~ 33:00)

(슬라이드 6 & 7 제시: 제3 & 제4 차이점, 안 반 에이크 『신비한 어린양에 대한 경배』)

이제 칼빈은 바울 서신과 예레미야서의 가장 깊은 신학적 심연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제3차이점은 "문자와 성령(Littera vs Spiritus)"의 대조입니다 (2.11.7~8).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돌판에 기록된 외적 문자에 머무를 때 타락한 인간에게는 오직 정죄와 죽음만을 선고할 뿐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행해야 할지는 가르쳐주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내적 생명력과 능력을 1그램도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음은 어떠합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새 언약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믿는 자의 심비(心碑), 즉 부드러운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직접 새겨 넣으십니다! 칼빈은 환호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영혼을 찌르고 죽이는 '정죄의 직분'이었다면, 신약의 복음은 죽은 자를 살려 순종하게 만드는 '영과 의의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2.11.8)

이어서 제4차이점은 성도의 내면적 상태에 관한 것으로, "종의 두려움과 속박에서 아들의 담대함과 자유로의 해방 (Servitus vs Libertas)"입니다 (2.11.9~10).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기억하십시오. 상속자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매여 있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었지만, 아직 미숙한 아동기에 있었기에 율법의 엄격한 규율과 의식법이라는 멍에 아래서 두려움과 전전긍긍함으로 양육받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신약의 성도는 더 이상 지성소의 휘장 밖에서 벌벌 떠는 노예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힘입어, 존귀하신 하나님의 무릎 위에 안겨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르짖는 자유로운 친자녀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슬라이드 7에 제시된 플랑드르 르네상스의 기적, 안 반 에이크의 『신비한 어린양에 대한 경배』 (1432, 겐트 성 바프 대성당 소장)를 보십시오. 제단 위에서 계신 하나님의 어린양의 가슴에서 솟구치는 거룩한 보혈이 성배로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린양의 보좌를 둘러싸고 구약의 족장들과 신약의 사도들, 순교자들과 온 세상 성도들이 생명수의 샘 곁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처럼,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닌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게 하였습니다!

[제3대지] 한 민족의 담장을 헐고 만국 만민에게로: 제5 차이점 (33:00 ~ 44:00)

(슬라이드 8 & 9 제시: 제5 차이점, 슬라이드 9 찬란한 발광 성경 패널)

이제 칼빈은 구약사의 지리적·민족적 지평을 뒤흔드는 제5차이점, 즉 **"한 민족의 국한에서 온 세상 만국 만민으로의 대폭발"**을 선포합니다 (2.11.11~12).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을 택하셨습니다. 시편 147편 19~20절은 노래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데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 민족들은 어둠 속에 버려져 있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이라는 담장(구분벽)을 세우사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16절의 위대한 선언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한 가운데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모세 의식법의 철벽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의 좁은 언덕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와 유럽과 아시아와 아메리카,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로 흘러넘쳤습니다! 오늘 이방인의 혈통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제5차이점, 신약의 우주적 복음 확장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9에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나는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로마서 8장 15절의 발광 패널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봅시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후 3:6)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롬 8:15)

[제4대지 및 결론] 하나님의 교육적 경륜과 변덕 반론 박멸 (44:00 ~ 60:00)

(슬라이드 10, 11, 12, 13 & 14 제시: 하나님의 경륜, 5대 차이점 매트릭스, 5대 자가진단 문진표, 최종 송영)

칼빈은 제13절과 14절에서 불경건한 자들이 제기하는 마지막 교활한 질문을 완전히 격멸합니다: “칼빈 선생,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우셨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신 변덕쟁이란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신약의 밝은 빛을 주시지 않고 구약의 복잡한 그림자를 거치게 하셨습니까?”

칼빈은 이 신성모독적 질문을 향해,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속사적 교육 경륜(divina pedagogia et oeconomia)'을 제시하며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나, 인간의 연약함과 성장의 계절에 맞추어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지혜를 베푸신 것이다!” (2.11.13)**

칼빈의 명쾌한 두 가지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지혜로운 의사의 비유: 노련한 의사는 겨울철의 처방과 여름철의 처방을 다르게 내립니다. 환자의 병세가 위중할 때의 치료법과 회복기 때의 식이요법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의사의 지식과 목표는 변함이 없으나 환자의 상태에 맞추어 처방을 바꿀 뿐입니다.

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 훌륭한 아버지는 자녀가 갓난아이일 때는 젖을 먹이고 요람에 눕이며 위험한 칼을 쥐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장성하여 청년이 되면 성인의 옷을 입히고 가문의 기업을 맡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불변하나 자녀의 성숙도에 맞추어 교육 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류는 영적 아동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율법이라는 몽학선생(초등교사)을 두셨고, 그림책과 같은 물질적 모형들을 통해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때가 차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영적 성년의 자유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오래 참으심과 지혜의 극치입니다!

슬라이드 11에 정리된 [구약과 신약의 5대 차이점 비교 매트릭스]를 한눈에 정리해 보십시오:

소망의 지평: 구약(지상적 가나안 복락의 모형) ↔ 신약(하늘 영생의 직접적 계시)

계시의 형태: 구약(희생 제사와 의식의 그림자) ↔ 신약(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실체 본체)

사역의 성격: 구약(돌판의 문자, 정죄와 죽음의 직분) ↔ 신약(마음에 새긴 성령, 생명과 의의 직분)

신앙의 정서: 구약(미성숙한 종의 멍에와 두려움) ↔ 신약(양자의 영 안에서 누리는 아들의 담대한 자유)

언약의 범위: 구약(이스라엘 한 민족의 율타리) ↔ 신약(땅끝까지 모든 열방과 만민의 구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점검하는 [새 언약의 영광과 복음의 자유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를 제시합니다:

[자유 진단]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전히 종처럼 두려움과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 진단] 내 신앙생활은 억지로 규칙을 지키는 메마른 외적 '문자'의 종교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자원하여 순종하는 '생명의 법'의 종교입니까?

[실체 진단]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적 번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있습니까?

[특권 진단] 구약의 족장들과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성령의 내주하심과 완성된 계시의 풍성함을 소유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열방 진단] 막힌 담을 허무신 복음의 능력을 믿고, 교회 안팎의 인종적, 계층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 모든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까?

[평신도 삶의 실제적 적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그늘 아래서 떨던 종들이 아니라, 복음의 찬란한 정오의 태양빛 아래 춤추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죄책감이나 율법주의적 강박관념에 얽매어 노예처럼 탄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아들의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III.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모형에서 실체로의 전환 (*De Umbra ad Veritatem*):

구약의 제사와 물질적 약속은 장차 올 하늘 영생을 보여주는 모형이었으나, 신약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 본체로 완성되었습니다 (2.11.1~6).

돌판의 문자에서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으로 (*Litera et Spiritus*):

옛 언약은 인간의 죄를 정죄하는 외적 문자였으나, 새 언약은 성령의 은혜로 마음 판에 새겨져 자발적 순종과 생명을 낳습니다 (2.11.7~8).

종의 두려움에서 아들의 자유와 양자의 영으로 (*Servitus et Libertas*):

구약 성도들이 율법의 엄위 아래 종처럼 떨었던 반면,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2.11.9~10).

한 민족의 울타리에서 온 인류 보편 교회로 (*Universalis Gratia*):

모세 율법으로 둘러싸였던 담장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국 만민이 하나의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2.11.11~12).

하나님의 불변성과 구속사적 교육 경륜 (*Divina Pedagogia*):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인간의 성장 단계와 구속사의 때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완전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11.13~14).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자유 진단]: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전히 종처럼 두려움과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성령 진단]: 내 신앙생활은 억지로 규칙을 지키는 메마른 외적 '문자'의 종교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자원하여 순종하는 '생명의 법'의 종교인가?

[실체 진단]: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적 번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있는가?

[특권 진단]: 구약의 족장들과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성령의 내주하심과 완성된 계시의 풍성함을 소유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열방 진단]: 막힌 담을 허무신 복음의 능력을 믿고, 교회 안팎의 인종적, 계층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 모든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있는가?

IV.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나눔 질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운 감시자'처럼 느끼며 종처럼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다정한 아버지'로 깊이 체험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율법주의적 두려움을 나누도록 유도하고, 신약 성도가 받은 '양자의 영'이 주는 위로를 자연스럽게 소개합니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질문 1 (로마서 8:15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권세가 신약 성도의 일상 기도와 삶에 어떤 담대함을 가져다주는지 나누어 봅시다.

질문 2 (고린도후서 3:6 문자와 영):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의 참뜻을 칼빈의 해설에 근거하여 나누어 봅시다.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질문 3 (하나님의 교육적 경륜): "하나님이 변덕쟁이가 아니라 지혜로운 아버지처럼 시대를 따라 교육 방식을 발전시키셨다"는 칼빈의 통찰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어떤 명쾌한 시각을 제공합니까?

질문 4 (에베소서 2:14 막힌 담의 파쇄):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었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개인의 삶 속에서 허물어야 할 편견이나 장벽은 무엇입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인도자 마무리 코칭: 율법주의적 정죄를 벗어던지고 아들의 참된 자유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뜨겁게 기도하도록 인도합니다.

공동 기도 제목:

두려움의 영을 버리고 양자의 영 안에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소서.

외적 문자에 얽매인 메마른 종교가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에 새겨주신 생명의 법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열방을 품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Q1: "구약 성도들은 종이었고 신약 성도들만 자녀입니까?"

A: 구약 성도들도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미성숙한 단계에 있었기에 마치 후사가 어렸을 때 청지기 밑에 종처럼 지낸 것과 같습니다(갈 4:1~3). 신약 성도는 성년이 되어 아들의 권세와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Q2: 복음의 자유를 방종이나 율법 폐기론으로 오해하는 성도에게는?

A: 참된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으로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성령의 자유'임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제30강: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의 직분을 행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야 했음 (성육신의 필연성)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구속자 —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무는 성육신의 신비 (Book 2, Ch. 12)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12장 집중 강의안 (60분 플타임 강의)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칼빈 기독교 강요 80강 마스터클래스 (제2학기: 구속주 하나님)

- 교재 범위: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라틴어 최종결정판) 제2권 제12장 (*Christum, ut Mediatoris officium praestaret, factum fuisse hominem*, 2.12.1 ~ 2.12.7)

- 강의 구성: 60분 본 강의 및 강독 대본 + 30~45분 소그룹 워크숍 및 심층 토론

- 핵심 주제: 중보자 성육신의 필연성(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기뻐하신 뜻),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셔야 했던 이유 (*Cur Deus Homo*), 거룩한 교환(*Admirabile commercium*), 오시안더의 사변적 망상 격파

- 텍스트 색상 체계:

- 남색 (#182B49): 핵심 교리 명제, 칼빈 라틴어 원전 직역 및 신학적 정의

- 자주색 (#8B0000): 반론 박멸, 논쟁 및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신학적 오류와 이단 사설 (오시안더/사변신학)

- 녹색 (#1E5631): 성경 원문 주해, 목회적 위로, 평신도 실천 적용 및 영적 권면

- 황금색 (#B8860B): 핵심 암송 요절, 성령의 조명, 묵상 및 결단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2장에서 기독교론(Christology)의 심장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본질적 통일성과 찬란한 경륜적 차이를 살펴본 후, 이제 그 모든 언약의 유일한 중심이시며 성취자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칼빈은 질문합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없었는가?" 칼빈은 인간 중심의 사변이나 공허한 추측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공의의 법정에 기초하여 성육신의 절대적 필연성(*necessitas incarnationis*)을 천명합니다. 또한 참 사람이 아니면 짓값을 치를 수 없고, 참 하나님이 아니면 사망을 이길 수 없었던 구속의 신비를 통해, 종교개혁의 가장 감격적인 복음 개념인 '놀라운 교환(*Admirabile commercium*)'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어야만 했던 성육신의 필연성을 논증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비참을 취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주신 '놀라운 교환(*Admirabile commercium*)'의 은혜를 깊이 체화한다.

죄인의 구속과 무관하게 성육신을 사변적으로 주장한 안드레아스 오시안더의 망상을 성경 원문으로 논파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기독교론의 관문: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2.12.1)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성육신의 필연성과 임마누엘의 신비 (2.12.1)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셔야 했던 필연적 이유 (2.12.2~3)
34:00 ~ 46:00 (12분): [제3대지] 거룩하고 복된 교환: Admirabile Commercium (2.12.2~3)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오시안더의 사변적 망상 격파와 구속 신앙 회복 (2.12.4~7)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하는 구속 신앙의 결단

II.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부] 기독교론의 관문: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00:00 ~ 05: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대지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2장, 기독교론의 거룩한 성소 문턱에 섰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의 직분을 행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야 했음(Christum, ut Mediatoris officium praestaret, factum fuisse hominem)"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을 멎게 만든 가장 신비롭고 거룩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먼지와 같고 벌레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Cur Deus Homo)?"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은 이 질문을 두고 공허한 철학적 사변과 가상적 질문들을 늘어놓으며 탁상공론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제12장 첫머리에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성육신의 필연성은 공허한 사변이나 단순한 자연적 필연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decretum caeleste)과 기뻐하신 뜻에서 비롯된 거룩한 필연성이다!" (2.12.1)

오늘 우리는 이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무한한 공의가 십자가와 말구유에서 어떻게 입 맞추었는지를 눈물과 감격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1대지] 성육신의 필연성과 임마누엘의 신비 (05:00 ~ 17:00)

(슬라이드 3 & 4 제시: 성육신의 필연성과 임마누엘의 신비)

칼빈은 제1절에서 인간의 처절한 영적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존재론적 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반역과 타락으로 인해, 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죄악의 무한한 심연'이 생겨났습니다.

칼빈은 준엄하게 묘사합니다: "우리의 불의와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를 너무나 멀리 갈라놓았기에, 인간은 지렁이처럼 땅바닥을 기어 다니면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손가락 하나 닿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을 사르는 소멸하는 불이요, 인간의 죄악은 마른 지푸라기와 같아서,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영원한 멸망의 잿더미가 될 뿐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심연을 메울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늘로 기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 도덕, 종교적 열심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무한한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칼빈은 감격에 겨워 외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셔야만 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은 영원히 0퍼센트였다!" (2.12.1)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선포하는 '임마누엘(Immanuel)'의 참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마태복음 1장 23절이 확증한 이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응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피와 살을 취하셔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한 인격 안에서 영원히 결합시키셨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바울의 선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양쪽 모두의 손을 잡고 화해를 이루려면,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제2대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셔야 했던 필연적 이유 (17:00 ~ 32:00)

(슬라이드 5, 6 & 7 제시: 헤라르트 다비트 『성탄』, *Cur Deus Homo* 2대 기둥, 조르조네 『목자들의 경배』)

칼빈은 제2절과 제3절에서 안셀무스의 고전적 명제인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Cur Deus Homo*)?"를 더욱 깊고 명쾌하게 해설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왜 반드시 '참 사람(*Verus Homo*)'이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iustitia Dei*) 때문입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당사자는 천사도 아니요 동물도 아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은, 죄를 지은 바로 그 인간 본성(*humana natura*)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고, 죄지은 인간 본성이 짓값인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아 피를 흘려야 함을 엄중히 요구했습니다! 천사의 피나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짓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2.12.3): "우리의 육신이 반역을 저질렀으므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짓값을 치르셔야 했다. 첫 아담의 불순종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셔야 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초기 네덜란드 플랑드르의 거장 헤라르트 다비트(*Gerard David*)의 걸작 『성탄/그리스도의 탄생』(c. 1500, 빈 미술사 박물관 소장)을 보십시오. 어둠이 짙게 깔린 마구간 바닥에 갓 태어난 아기 예수가 알몸으로 누워 계십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천사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어린 시선으로 그 연약한 아기를 경배합니다. 그 아기는 환영(*phantom*)이 아니었습니다. 추위를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며, 연약한 살갗을 지닌 참된 인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증언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을 수 없는 신성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우리를 대신하여 참된 죽음을 맛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왜 반드시 '참 하나님(*Verus Deus*)'이셔야 했습니까? 만약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의인이나 온전한 인간에 불과했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순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영원한 사망의 무게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죄의 짓값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에 영원한 형벌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그 진노의 무게에 짓눌려 영원히 지옥의 심연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칼빈은 외칩니다: **“죽음을 삼켜 이기고, 사탄의 대가리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신성의 전능하신 권능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무덤 문을 깨치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줄 수 없다!”** (2.12.2)

신성이 인성과 결합되었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한 청년의 비극적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도말하고도 남는 "무한한 가치와 효력을 지닌 거룩한 대속의 제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행 20:28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제3대지] 거룩하고 복된 교환: *Admirabile Commercium* (32:00 ~ 45:00)

(슬라이드 7 & 8 제시: 조르조네 『목자들의 경배』, 복된 교환의 은혜)

이제 칼빈은 초대 교부 아타나시오스(Athanasius)와 아우구스티누스를 거쳐 종교개혁의 가장 눈부신 보석으로 빛나는 개념을 쏟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라틴어로 '아드미라빌레 콤포머키움(Admirabile Commercium)', 즉 '놀랍고 복된 거룩한 교환'입니다!

칼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2.12.2):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의 아들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비참과 연약함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고, 자신의 영광과 풍성함을 거저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분은 친히 죽음을 맛보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집어삼키셨고, 자신의 의로써 우리의 불의를 완전히 덮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상속해 주셨다!”

이 얼마나 황홀한 신비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과 저주와 가난과 수치를 독생자 예수께서 몽땅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누리시던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의로움과 천국 기업을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슬라이드 7에 제시된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서정적 거장 조르조네(Giorgione)의 걸작 『목자들의 경배』(c. 1505-1510, 워싱턴 국립미술관 소장)를 보십시오. 허름한 동굴 어귀에서 남루한 누더기를 걸친 목자들이 무릎을 꿇고 갓 태어나신 평화의 왕 예수를 경배합니다. 아기 예수의 작은 몸에서 찬란한 영적 광채가 뿜어져 나와 목자들의 어둡고 주름진 얼굴을 환하게 비춥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던 가난한 목자들이, 온 우주의 주재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품 앞에서 영원한 하늘의 왕족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이신 성육신의 찬란한 은혜입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오시안더의 망상 격파와 5대 영적 자가진단 (45:00 ~ 60:00)

(슬라이드 10, 11, 12, 13 & 14 제시: 오시안더 격파, 성육신 기독교론 매트릭스, 5대 자가진단 문진표, 최종 송영)

칼빈은 제4절부터 제7절까지, 당대의 루터교 신학자였던 안드레아스 오시안더(Andreas Osiander)의 기괴한 꾀변을 철저하게 격멸합니다. 오시안더는 주장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셨을 것이다! 성육신은 죄를 사하기 위한 비상수단이 아니라, 피조세계를 완성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이었다!"

얼핏 들으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고상한 신학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사변을 향해 맹렬한 신학적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백한 증언을 짓밟는 교만한 호기심(curiositas)이며 망상이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는 그리스도께서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셨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2.12.4)

성경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경 그 어디에도 죄와 무관한 사변적 성육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유일하고도 영원한 동기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가련한 저와 여러분을 피 흘려 살려내시기 위한 "구속의 사랑" 하나뿐이었습니다!

슬라이드 11에 정리된 [성육신의 필연성과 양성의 필연적 기능 매트릭스]를 보십시오:

참 인간 (Verus Homo): 공의의 만족(범죄한 인간 본성의 순종과 사망 형벌 담당), 연약함의 동정(히 4:15).

참 하나님 (Verus Deus): 무한한 진노의 극복, 사망과 마귀의 권세 파쇄, 부활과 영생의 획득 및 성령의 공급.

위격적 연합 (Unio Hypostatica):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원한 화평, 거룩한 교환(Admirabile Commercium) 성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의 영혼을 성육신의 은혜 앞에 비추는 [성육신의 신비와 구속 신앙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를 드립니다:

[낮아짐 진단]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 말구유와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음을 묵상할 때, 내 안의 교만과 높아지려는 탐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교환 진단] 나의 모든 죄와 비참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거저 받아 누리는 '놀라운 교환'의 감격 속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담대함 진단] 참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통을 친히 겪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고난의 때에 낙심치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까?

[사변 경계 진단] 공허한 세상 철학이나 신비주의적 사변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임마누엘 진단] 외롭고 캄캄한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있습니까?

[평신도 삶의 실제적 적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보좌에서 팔짱을 끼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눈물과 죽음의 자리에 친히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참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체휼하시며,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영원토록 능히 건져내십니다.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III.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성육신의 절대적 필연성 (*Necessitas Incarnationis*):

성육신은 우연한 사건이나 사후 처방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을 공의롭게 화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공의의 법정에 따른 절대적 필연성입니다 (2.12.1).

참 인간 (*Verus Homo*)이어야 했던 이유: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한 바로 그 인간 본성이 순종과 형벌을 감당해야 함을 요구하므로, 그리스도는 아담의 참된 인성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2.12.2~3).

참 하나님 (*Verus Deus*)이어야 했던 이유:

단순한 피조물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무게를 견딜 수 없고 사망을 이길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는 무한한 신적 능력을 가지셔야만 했습니다 (2.12.2~3).

놀라운 교환 (*Admirabile commercium*)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이며, 그분이 우리의 비참과 죽음을 짊어지시고 자신의 의와 영광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함입니다 (2.12.2).

오시안더의 사변적 성육신설 격파:

타락이 없었더라도 성육신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주장은 성경을 왜곡하는 교만한 호기심이며, 성경은 오직 죄인 구속을 위한 성육신만을 증언합니다 (2.12.4~7).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낮아짐 진단]: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 말구유와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음을 묵상할 때, 내 안의 교만과 높아지려는 탐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

[교환 진단]: 나의 모든 죄와 비참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거저 받아 누리는 '놀라운 교환'의 감격 속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담대함 진단]: 참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통을 친히 겪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고난의 때에 낙심치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가?

[사변 경계 진단]: 공허한 세상 철학이나 신비주의적 사변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임마누엘 진단]: 외롭고 캄캄한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있는가?

IV.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나눔 질문: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장면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인도자 코칭 팁: 막연한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를 넘어,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으신 낮아지심(비하)의 신비를 진지하게 묵상하도록 이끕니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질문 1 (히브리서 2:14~15): 예수님께서 왜 천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셔야만 했는지 성경 말씀을 토대로 나누어 봅시다.

질문 2 (놀라운 교환 Admirabile Commercium): 칼빈이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교환의 복음을 강독하고 그 감격을 고백해 봅시다.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질문 3 (Cur Deus Homo의 2대 기둥): "참 사람이 아니면 죄값을 치를 수 없고, 참 하나님이 아니면 사망을 이길 수 없다"는 명제가 왜 기독교 구원론의 절대적 반석인지 토론해 봅시다.

질문 4 (오시안더의 오류와 복음의 본질): 타락과 죄 사함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논하는 사변이 왜 위험하며,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어떻게 퇴색시키는지 나누어 봅시다.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인도자 마무리 코칭: 우리를 위해 피와 살을 취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공동 기도 제목: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와 십자가로 찾아오신 임마누엘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짊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신 '놀라운 교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게 하소서.

참 사람이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공감하며 섬기는 겸손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Q1: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굳이 십자가와 성육신 없이 말씀 한마디로 죄를 사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A: 하나님의 권능은 거룩하신 공의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죄의 죄값은 사망이기에, 공의로운 대속 없는 용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모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시면서 동시에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성육신과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음을 설명해 주십시오.

Q2: '놀라운 교환(Admirabile Commercium)'을 어떻게 일상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A: 자신의 수치와 절망과 죄책감을 홀로 짊어지지 말고 십자가 예수님께 기도로 넘겨드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와 사랑과 생명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도록 권면하십시오.

제31강: 그리스도께서 인간 본성의 참 본질을 취하셨음 (참된 인성과 가현설 박멸)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다윗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씨 —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취하사 시험을 받으신 구주 (Book 2, Ch. 13)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13장 집중 강의안 (60분 플타임 강의)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칼빈 기독교 강요 80강 마스터클래스 (제2학기: 구속주 하나님)

- 교재 범위: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라틴어 최종결정판) 제2권 제13장 (*Christum veram carnis humanae substantiam induisse*, 2.13.1 ~ 2.13.4)

- 강의 구성: 60분 본 강의 및 강독 대본 + 30~45분 소그룹 워크숍 및 심층 토론

- 핵심 주제: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Verus Homo*), 마네스/마르시온의 가현설(*Docetism*) 및 재세레파의 천상육체설(*Coelestis caro*) 분쇄, 성령의 초자연적 성결 사역을 통한 원죄 없는 잉태, 체휼하시는 대제사장

- 텍스트 색상 체계:

- 남색 (#182B49): 핵심 교리 명제, 칼빈 라틴어 원전 직역 및 신학적 정의

- 자주색 (#8B0000): 반론 박멸, 논쟁 및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신학적 오류와 이단 사설 (가현설/재세레파)

- 녹색 (#1E5631): 성경 원문 주해, 목회적 위로, 평신도 실천 적용 및 영적 권면

- 황금색 (#B8860B): 핵심 암송 요절, 성령의 조명, 묵상 및 결단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3장에서 기독교론의 가장 실제적이고도 위로가 넘치는 교리적 반석인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vera carnis humanae substantia*)을 천명합니다. 지난 30강에서 중보자로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어야 했던 거룩한 필연성을 확립한 칼빈은, 이제 고대 영지주의 가현설부터 16세기 재세레파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지속적으로 위협해 온 '인성 파괴 이단들'을 정면으로 격멸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수난은 한 편의 가짜 연극(환영)에 불과하며, 인간의 죄값은 단 1원도 값아지지 않았고,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허상으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교부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우스가 선언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취하지 않은 것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Quod non est assumptum, non est sanatum*)!" 칼빈은 성경 원문과 초대교회의 신경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실제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참 인간이셨음을 변증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원죄의 오염 없이 거룩하신 대속자가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참된 인성(살과 뼈와 영혼)을 취하셨음을 성경 원문으로 증명한다.

고대 영지주의 가현설(*Docetism*)과 재세레파의 천상육체설(수도관 통과설)의 이단성을 철저히 논파한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과 성령의 초자연적 성결 사역을 통해 원죄의 오염 없는 거룩한 인성을 변증한다.

우리의 모든 질고와 시험을 친히 체휼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간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00:00 ~ 10:00 (10분): [도입] 십자가 복음의 사활이 걸린 참 인성 교리 (2.13.1)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인성과 역사적 혈통 (2.13.1)

22:00 ~ 34:00 (12분): [제2대지] 가현설과 재세례파의 천상육체설 분쇄 (2.13.1~2)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원죄 없는 잉태: 성령의 초자연적 성결 사역 (2.13.3~4)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체휼하시는 대제사장과 성도의 담대함 (2.13.4)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참 사람이 되신 구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

II.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부] 십자가 복음의 사활이 걸린 참 인성 교리 (00:00 ~ 05: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대지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3장, "그리스도께서 인간 본성의 참 본질을 취하셨습니다(Christum veram carnis humanae substantiam induisse)"의 거룩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사탄은 기독교 2천 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두 가지 극단적인 거짓말로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해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인간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속삭이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깎아내렸습니다(아리우스주의).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훨씬 더 교묘하고 경건을 가장한 목소리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살과 피를 취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의 육체는 진짜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영적 껍데기였거나 환영에 불과했다"고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뒤흔든 영지주의 가현설(Docetism)이며,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재세례파 광신도들이 퍼뜨린 독버섯이었습니다.

칼빈은 제13장의 첫 문장을 열며 사탄의 이 교활한 거짓말을 향해 추상같은 호통을 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참된 인간의 본질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은 한 편의 공허한 신화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형제가 되사, 우리의 살과 피로 십자가에서 짓값을 치르셨다는 역사적 사실 위에만 서 있다!” (2.13.1)

교부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우스(Gregorius Nazianzenus)는 이 진리를 영원불멸의 명제로 요약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취하지 않은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Quod non est assumptum, non est sanatum)!”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취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패한 영혼과 찢어질 육체가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치료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1대지]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인성과 역사적 혈통 (05:00 ~ 17:00)

(슬라이드 3 & 4 제시: 성경의 증언과 다윗의 자손, 역사적 혈통)

칼빈은 제1절에서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참 인성을 얼마나 풍성하고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입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타락 직후 최초로 주셨던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Protoevangelium)'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메시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외계인이 아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Semen mulieris)'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 22:18).”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씨'가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분명히 주

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삼하 7:12)."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복음을 정의하며 첫마디로 선언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칼빈은 성경의 족보를 경시하는 자들을 질타합니다 (2.13.1):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그 길고 지루해 보이는 족보가 왜 기록되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의 실제적인 뼈와 살을 이어받은 역사적 인간이심을 온 인류의 법정에 공증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는 허공에 떠도는 구름이 아니라, 우리와 한 피를 나눈 실제적인 다윗의 자손이었다!"

[제2대지] 가현설과 재세례파의 천상육체설 분쇄 (17:00 ~ 32:00)

(슬라이드 5, 6 & 7 제시: 조토 『그리스도에 대한 애도』, 가현설·재세례파 박멸, 만테냐 『죽은 그리스도』)

칼빈은 제1절과 2절에서 초대교회의 이단 마르시온(Marcion)과 마네스(Manes, 마니교의 창시자), 그리고 16세기 재세례파 지도자 메노 시몬스(Menno Simons)의 궤변을 도록합니다.

마르시온과 마니교도들은 주장했습니다: "물질과 육체는 본래 악한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불결한 여성의 자궁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유령처럼 육체의 모양만 흉내 내셨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가현설(Docetism)입니다. 그리고 16세기 재세례파는 더욱 교묘한 논리를 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내려오셨다. 그분은 마리아의 살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수도관을 통과하는 물처럼(sicut aqua per tubum) 마리아의 몸을 단지 통과하셨을 뿐이다!"

칼빈은 이 불경건한 자들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사탄의 독설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살에서 나지 않고 하늘의 육체를 통과시키기만 했다면, 그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며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란 말인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혈통이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의 맏형이 될 수 없으며, 그분의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쇼에 불과하다!" (2.13.2)**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서양 회화의 아버지 조토 디 본도네(Giotto di Bondone)의 불후의 걸작 『그리스도에 대한 애도』(1305, 파도바 스크로베니 예배당 프레스코화)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차가운 시신을 안고 오열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의 처절한 비탄이 화폭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조차 옷을 찢으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못 자국이 나고, 창에 옆구리가 찢려 물과 피를 쏟아낸 진짜 인간의 육신이었습니다!

슬라이드 7에 제시된 안드레아 만테냐(Andrea Mantegna)의 파격적인 명작 『죽은 그리스도』(c. 1480, 밀라노 브레라 미술관 소장)를 보십시오. 대리석 침상 위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시신이 발끝에서 머리 쪽으로 내려다보는 극단적인 단축법(foreshortening)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에 뚫린 끔찍한 대못 자국, 손등의 상처, 핏기 없는 창백한 살갗, 축 늘어진 근육을 보십시오! 주님은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가현설자들의 주장처럼 아픔을 느끼는 척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육체적 고통과 사망의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하심이라!"** 주님이 진짜 피와 살을 지니셨기에, 그분의 피 흘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죄를 씻어내는 영원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3대지] 원죄 없는 잉태: 성령의 초자연적 성결 사역 (32:00 ~ 45:00)

(슬라이드 8 & 9 제시: 성령의 성결 사역, 슬라이드 9 찬란한 발광 성경 패널)

칼빈은 제3절과 제4절에서 대적자들이 던지는 가장 까다롭고 날카로운 반론을 다룹니다: "칼빈 선생, 만약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실제적인 살과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면, 아담의 모든 후손이 물려받는 원죄(peccatum originale)의 오염을 예수도 물려받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죄 있는 육신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칼빈은 이 의문에 대해 성령이 계시하는 가장 찬란한 성령론적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나 원죄에 오염되지 않으신 것은, 남자의 정액을 통한 자연적 생식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 권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의 순간 마리아의 본성을 순결하게 성결(sanctificatio)하사, 죄의 부패가 전이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차단하셨다!” (2.13.4)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선포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죄는 인간 본성 그 자체의 필수적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죄는 타락으로 인해 인간 본성에 덧씌워진 우연적 질병이자 오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을 죄 없이 순결하게 창조하셨듯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완벽하게 거룩한 상태로 지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의 참된 피와 살을 취하셨으며, 죄의 오염은 0.001밀리그램도 물려받지 않으신 흠 없는 어린양이 되셨습니다!

슬라이드 9에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나는 히브리서 2장 17절과 4장 15절의 발광 패널 말씀을 함께 낭독해 봅시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 2:17)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 4:15)

[제4대지 및 결론] 체휼하시는 대제사장과 성도의 담대함 (45:00 ~ 60:00)

(슬라이드 10, 11, 12, 13 & 14 제시: 체휼하시는 주님, 참 인성 대조 매트릭스, 5대 자가진단 문진표, 최종 송영)

칼빈은 제4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참 인성의 교리가 성도들의 실제 삶에 부여주는 한없는 목회적 위로를 쏟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셔야 했습니까? 단지 법적으로 죄값을 치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온몸으로 겪어 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주저앉으셨습니다 (요 4:6).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지독한 시장기를 느끼셨습니다 (마 4:2).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타는 듯한 갈증으로 신음하셨습니다 (요 19:28).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비통해하셨습니다 (요 11:35).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번민하시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통곡하셨습니다 (마 26:38, 히 5:7).

주님은 인간의 외로움, 가난, 배신, 오해, 육체의 질병,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뼈저린 것인지를 머리카락 이론으로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그 흠으로 빚어진 인간의 연약함 속으로 뛰어들어 오셔서 온몸으로 겪어 아십니다! 칼빈은 감격에 겨워 선언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바위나 대리석 같은 냉혈한이 아니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것처럼 아파하시며 깊이 체휼(sympatheia)하시는 자비롭고 신실한 구주이시다!” (2.13.4)

슬라이드 11에 정리된 [참 인성의 정통 교리와 이단 사설 대조 매트릭스]를 보십시오:

영지주의 가현설 (Docetism): 육체는 환영·겉대기 ↔ 정통 개혁신학: 마리아에게서 취하신 실제 살과 피 (히 2:14).

아폴리나리스주의: 인간 영혼 결여 ↔ 정통 개혁신학: 참된 인간 영혼과 육체의 온전한 취하 (마 26:38).

재세례파 천상육체설: 마리아를 통과만 함 ↔ 정통 개혁신학: 아브라함과 다윗 혈통의 실제 상속자 (롬 1:3).

죄 오염 주장: 마리아의 죄를 유전받음 ↔ **정통 개혁신학:** 성령의 초자연적 성결로 원죄 없는 거룩한 잉태 (눅 1:35).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리스도의 참 인성과 체휼 신앙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를 드립니다:

[실재 진단]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수난을 종교적 상징이나 신화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 실제 삶과 피를 찢으신 역사적 사실로 굳게 믿고 있습니까?

[체휼 진단] 고독과 질병과 슬픔을 겪을 때,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고통을 아신다"는 사실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담대함 진단] 죄책감에 짓눌려 숨지 않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대제사장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거룩 진단] 성령으로 잉태되사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의 정욕과 죄악의 유혹을 성령의 권능으로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까?

[공감 진단] 우리를 체휼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병들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지체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며 돌아보고 있습니까?

[평신도 삶의 실제적 적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한 피를 나눈 영원한 만행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눈물 흘리는 골방에, 주님은 차가운 마구간 바닥에 누우셨던 그 연약한 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이 배신당하고 억울하여 가슴을 칠 때,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던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부르시는 참 인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어떤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III.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의 필수성 (*Vera Carnis Substantia*):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참된 인성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인류의 젖값은 치러지지 않았으며, 취하지 않으신 것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2.13.1).

역사적 혈통의 실재성 (*Semen Abrahae et Davidis*):

성경은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혈통'으로 증언하며, 이는 허구가 아닌 실제적인 인간 혈통의 상속자이심을 증명합니다 (2.13.1).

가현설과 재세례파 천상육체설의 이단성:

육체를 껍데기나 유령으로 본 가현설이나, 마리아를 단지 수도관처럼 통과했을 뿐이라는 재세례파의 주장은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을 무너뜨리는 사탄적 궤변입니다 (2.13.1~2).

성령의 초자연적 성결을 통한 무죄성 (*Sanctificatio Spiritus*):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타락한 후손인 마리아의 살에서 나셨으나, 잉태 순간 성령의 초자연적 성결 사역으로 원죄의 오염 없이 거룩한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2.13.3~4).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의 무한한 위로 (*Sympatheia Pontificis*):

그리스도께서는 피곤과 주림, 슬픔과 번민 등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겪으셨기에, 시험받는 자들을 누구보다 깊이 체휼하시며 능히 도우십니다 (2.13.4).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실재 진단]: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수난을 종교적 상징이나 신화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 실제 삶과 피를 흘리신 역사적 사실로 굳게 믿고 있는가?

[체휼 진단]: 고독과 질병과 슬픔을 겪을 때,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고통을 아신다"는 사실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위로를 얻고 있는가?

[담대함 진단]: 죄책감에 짓눌려 숨지 않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대제사장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가?

[거룩 진단]: 성령으로 잉태되사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의 정욕과 죄악의 유혹을 성령의 권능으로 단호히 거절하고 있는가?

[공감 진단]: 우리를 체휼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병들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지체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며 돌아보고 있는가?

IV.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나눔 질문: 평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합니까, 아니면 '나와 똑같이 피곤하고 눈물 흘리셨던 인간 예수'의 이미지가 강합니까?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된 인간성을 간과하기 쉬움을 지적하며, 참 인성이 주는 영적 온기를 느끼도록 이끕니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질문 1 (히브리서 4:15 체휼하시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라는 말씀이 삶의 위기와 질병 속에서 어떤 실제적 힘이 되는지 나누어 봅시다.

질문 2 (칼빈의 가현설 반박):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진짜 피와 살을 취하지 않고 천상에서 내려온 신령한 몸을 통과만 시켰다는 재세례파의 주장이 왜 구원을 파괴하는지 칼빈의 논증을 되새겨 봅시다.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질문 3 (나지안조스의 명제): "그리스도께서 취하시지 않은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교부의 말이 왜 성육신의 온전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명제인지 토론해 봅시다.

질문 4 (성령의 성결 사역과 성도의 성화):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나 성령의 권능으로 원죄에 오염되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오늘 죄악 된 세상에 살면서도 성령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인도자 마무리 코칭: 우리의 모든 아픔을 체휼하시는 인간 예수,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께 마음의 짐을 다 털어놓고 기도합니다.

공동 기도 제목: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취하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리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찬양하게 하소서.

고독과 질병과 상처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고난당한 이웃과 지체들을 따뜻하게 품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Q1: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의 유혹과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A: 유혹에 굴복해 버린 자보다 유혹을 끝까지 이겨낸 자가 유혹의 무게를 훨씬 더 깊이 압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는 않으셨으나 죄의 모든 시험과 저항의 압력을 온몸으로 겪으셨기에 우리를 가장 깊이 체휼하실 수 있음을 설명해 주십시오.

Q2: 마리아의 살을 취했는데 어떻게 원죄가 유전되지 않았는지 성도가 궁금해할 때는?

A: 죄는 물질적 세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패와 오염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선언했듯이(눅 1:35) 성령의 지극히 높은 능력이 덮으사 잉태되는 순간 거룩하게 성결케 하셨음을 칼빈의 해설을 통해 안내하십시오.

제32강: 중보자의 두 본성이 한 위격을 이룸 (위격적 연합과 칼케돈 신경)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연합 — 성경의 속성 교통과 칼빈의 엑스트라 (Book 2, Ch. 14)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14장 집중 강의안 (60분 플타임 강의)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칼빈 기독교 강요 80강 마스터클래스 (제2학기: 구속주 하나님)
- 교재 범위: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라틴어 최종결정판) 제2권 제14장 (*Quomodo duae naturae mediatoris efficiant unam personam*, 2.14.1 ~ 2.14.8)
- 강의 구성: 60분 본 강의 및 강독 대본 + 30~45분 소그룹 워크숍 및 심층 토론
- 핵심 주제: 위격적 연합(Unio Hypostatica), 칼케돈 4대 원칙(혼합/변질/분열/분리 없이), 성경 해석 3대 분류, 속성의 교통(Communicatio Idiomatum), 칼빈의 엑스트라(Extra Calvinisticum), 네스토리우스/유티케스/세르베투스 이단 분쇄
- 텍스트 색상 체계:
 - 남색 (#182B49): 핵심 교리 명제, 칼빈 라틴어 원전 직역 및 신학적 정의
 - 자주색 (#8B0000): 반론 박멸, 논쟁 및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신학적 오류와 이단 사설 (네스토리우스/유티케스)
 - 녹색 (#1E5631): 성경 원문 주해, 목회적 위로, 평신도 실천 적용 및 영적 권면
 - 황금색 (#B8860B): 핵심 암송 요절, 성령의 조명, 묵상 및 결단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4장에서 정통 기독교론의 가장 웅장하고 정교한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앞서 제12장과 제1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셔야 했던 구속사적 필연성과 역사적 실재성을 확립한 칼빈은, 이제 이 두 본성(*duae naturae*)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한 위격(*una persona*) 안에서 어떻게 결합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가를 완벽한 필치로 해설합니다.

칼빈은 초대교회의 확고한 정통 신경인 칼케돈 신조(*Symbolum Chalcedonense*, AD 451)를 계승하여, 신성과 인성이 결코 혼합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결코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는 '위격적 연합(Unio Hypostatica)'을 천명합니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론 본문들을 세 가지 명쾌한 원칙으로 분류하고, '속성의 교통(Communicatio Idiomatum)'의 참뜻을 밝히며, 개혁주의 신학의 위대한 표지인 '칼빈의 엑스트라(Extra Calvinisticum)'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성의 참됨을 동시에 수호합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 칼케돈 4대 기둥(혼합 없이, 변질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에 기초한 한 위격 두 본성의 위격적 연합을 체계화한다.
- 성경 본문 해석의 3대 원칙과 속성의 교통(Communicatio Idiomatum)의 참된 성경적 의미를 확립한다.
- 칼빈의 엑스트라(Extra Calvinisticum) 교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인성의 참됨과 신성의 무한성을 온전히 보존한다.
- 네스토리우스, 유티케스, 세르베투스 등 위격과 본성을 왜곡하는 고대 및 현대 이단 사설을 논파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신비 중의 신비: 한 위격 안에 연합된 두 본성 (2.14.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위격적 연합과 칼케돈 신경의 4대 기둥 (2.14.1)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성경 본문 해석 3대 원칙과 속성의 교통 (2.14.2~3)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칼빈의 엑스트라: Extra Calvinisticum (2.14.4)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3대 이단(네스토리우스, 유틀케스, 세르베투스) 격멸 (2.14.5~8)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양성의 조화와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는 결단

II.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부] 신비 중의 신비: 한 위격 안에 연합된 두 본성 (00:00 ~ 05: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대지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4장, 온 우주에서 가장 장엄하고 신비로운 신학적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중보자의 두 본성이 한 위격을 이룸(Quomodo duae naturae mediatoris efficiant unam personam)"입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지니신 참 인간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영혼의 지성은 가장 거룩한 경외심으로 묻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신 분과 참 인간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안에서 어떻게 공존하시는가?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제3의 괴물이 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두 개의 인격이 따로따로 들어앉아 있는 것인가?"

칼빈은 제14장 첫머리에서 인간의 교만한 호기심을 제어하며, 성경이 계시하는 거룩한 선을 따라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해 말할 때 때로는 그분의 신성에만 합당한 것을 말씀하시고, 때로는 인성에만 속한 것을 말씀하시며, 때로는 두 본성을 한 위격 안에 아우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본성은 결코 섞이지 않으면서도 결코 분리되지 않고 오직 한 위격(una persona)을 이룬다!" (2.14.1)

이 위격적 연합의 신비를 올바르게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도말하는 무한한 신적 능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어떻게 지금도 영원한 우리 형제로서 우리를 체휼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제1대지] 위격적 연합과 칼케돈 신경의 4대 기둥 (05:00 ~ 17: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위격적 연합, 칼케돈 4대 원칙, 미켈란젤로 『피에타』)

칼빈은 제1절에서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즐겨 사용했던 친숙한 유비, 곧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결합'을 제시합니다.

인간을 보십시오. 인간은 비물질적이고 불멸하는 '영혼'과, 흙으로 빚어져 썩어질 '육체'라는 완전히 다른 두 실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육체가 아니며, 육체는 영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둘은 신비롭게 결합하여 오직 '한 사람'을 이룹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 "그는 지혜롭다"고 말할 때는 그의 영혼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는 키가 크고 숨을 거두었다"고 말할 때는 육체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이라는 한 인격 전체에 돌려집니다.

칼빈은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참된 신성과 참된 인성이 각각 고유한 본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오직 성자 하나님의 유일한 위격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셨다! 이것이 바로 위격적 연합(Unio Hypostatica)이다!" (2.14.1)

초대교회는 주후 451년 칼케돈 공의회(Council of Chalcedon)에서 이 신비를 네 가지 거룩한 부정적 부사로 선포했습니다 (슬라이드 4):

혼합 없이 (inconfuse):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반신반인(demigod)의 혼합물이 되지 않았다.

변질 없이 (immutabiliter): 신성이 인성으로 변하거나, 인성이 신성으로 증발하지 않았다.

분열 없이 (indivise): 두 본성이 두 인격으로 쪼개지지 않았다.

분리 없이 (inseparabiliter): 잉태의 순간부터 십자가, 무덤, 부활, 승천, 영원까지 두 본성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의 불멸의 조각 『피에타』 (1498-1499,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소장)를 보십시오. 어머니 마리아의 무릎 위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축 늘어진 육신을 보십시오. 갈비뼈의 굴곡, 손등의 핏줄, 축 처진 팔근육은 참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망하셨음을 처절하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 죽은 육신을 안고 있는 분은 단순한 인간 청년이 아닙니다! 그 인성은 신성과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무덤 속에 누워 계실 때에도 그 육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에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2대지] 성경 본문 해석 3대 원칙과 속성의 교통 (17:00 ~ 32:00)

(슬라이드 6 & 7 제시: 성경 해석 3대 분류, 속성의 교통, 레오나르도 다 빈치 『살바토르 문디』)

이제 칼빈은 제2절과 제3절에서 기독교 이단들에 빠지지 않고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기독교 성경 해석의 3대 분류 원칙'을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신성(divinitas)'에만 고유하게 속하는 본문들입니다 (2.14.2).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 8:58)",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요 17:5)",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골 1:16~17)." 이 말씀들은 인간 예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참 하나님의 신성을 선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인성(humanitas)'에만 고유하게 속하는 본문들입니다 (2.14.2). 광야에서 40일 후 시장하신 것, 우물가에서 피곤하신 것, 겔세마네에서 눈물로 통곡하신 것,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신음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마 4:2, 요 4:6, 19:30). 이것들은 하나님이 겪으실 수 없는, 오직 참된 피조물인 인간의 본성에만 속하는 연약함입니다.

셋째, 두 본성이 연합된 '중보자의 한 위격 전체'에 속하는 본문들입니다 (2.14.3).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우리의 죄를 속량하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심". 이것은 신성만으로도, 인성만으로도 행할 수 없으며, 오직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만이 행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교리인 '속성의 교통(Communicatio Idiomatum)'이 나옵니다 (2.14.2). 이것은 본성이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위격 안에서 인성의 속성과 신성의 속성이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한 인격'에 함께 돌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사도 바울의 장엄한 선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피가 없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피를 흘리신 분은 인간 예수이시지만, 그 인간 예수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한 위격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육체이지만, 그분이 곧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슬라이드 7에 제시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걸작 『살바토르 문디(Salvator Mundi, 세상의 구세주)』 (c. 1500)를 보십시오. 오른손을 들어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왼손에는 투명한 크리스털 보주(우주와 만유)를 들고 계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분의 그윽한 눈빛에는 인간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영원한 위엄이 한 화폭 안에서 눈부시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친히 손들어 축복하시는 참 사람이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제3대지] 칼빈의 엑스트라: Extra Calvinisticum (32:00 ~ 44:00)

(슬라이드 8 & 9 제시: 칼빈의 엑스트라, 슬라이드 9 찬란한 발광 성경 패널)

이제 칼빈은 제4절에서 개혁주의 기독교론의 가장 독창적이고 장엄한 신학적 금자탑을 선포합니다. 후대 신학자들은 이것을 '칼빈의 엑스트라(Extra Calvinisticum)'라고 불렀습니다.

루터교 신학자들은 주의 만찬(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에 물리적으로 편재(Ubiquitas)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의 무한성을 나누어받아 어디에나 편재하게 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주장을 엄격히 배격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육체가 무한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육체가 아닙니다! "유한은 무한을 다 담을 수 없다 (Finitum non est capax infiniti)!"

칼빈의 웅장한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2.14.4):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처녀의 태중에 거하시고 말구유에 누우셨을 때에도, 그분의 영원한 신성은 결코 마리아의 태중이나 팔레스타인의 좁은 땅덩어리에 갇히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태중과 십자가 위에서 참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시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무한한 신성으로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며 여전히 만물을 붙들고 통치하고 계셨다!”

이것이 바로 '칼빈의 엑스트라(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성 밖에서도 역사하심)'입니다! 성육신은 신성이 축소되어 인간의 몸 속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인성은 온전하고 참된 피조물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신성은 온 우주를 초월하여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성을 지니신 채 하늘에 계시며, 동시에 자신의 무한한 신성과 성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9에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나는 골로새서 2장 9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 2:9)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행 20:28)

[제4대지 및 결론] 3대 이단 격멸과 5대 자가진단 (44:00 ~ 60:00)

(슬라이드 10, 11, 12, 13 & 14 제시: 3대 이단 격멸, 위격적 연합 매트릭스, 5대 자가진단 문진표, 최종 송영)

칼빈은 제5절부터 제8절에 걸쳐, 교회사 속에서 위격적 연합의 거룩한 균형을 무너뜨린 3대 악성 이단들을 단칼에 베어 넘깁니다 (슬라이드 10).

첫째, 네스토리우스(Nestorius)를 격파합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두 본성을 구별하려다가 지나치게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인격과 인성의 인격, 즉 두 개의 위격(two persons)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빈은 분쇄합니다: "위격을 둘로 쪼개면 중보자는 없어진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따로, 하나님이신 분 따로라면 우리의 구원은 산산조각이 난다!"

둘째, 유티케스(Eutyches)를 격파합니다. 유티케스는 네스토리우스에 반발하다가 정반대의 극단으로 치달아,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의 바다에 떨어진 한 방울의 포도주처럼 신성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일성론 Monophysitism). 칼빈은 호통을 칩니다: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었다면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의 형제가 아니며, 피조물인 인간의 췌값을 치를 수 없다!"

셋째, 미카엘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를 격파합니다. 세르베투스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창세 전부터 신적 본질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며 영원한 삼위일체와 참 인성을 동시에 파괴했습니다. 칼빈은 성경의 칼날로 이 모든 이단 사설을 완전히 무덤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슬라이드 11에 정리된 [위격적 연합 기독교론 정통과 이단 비교 매트릭스]를 보십시오:

정통 개혁신학 (칼케돈 신경): 한 위격 (Una Persona), 두 본성 (Duae Naturae) — 혼합 없이, 변질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네스토리우스주의: 두 위격, 두 본성 (분열과 분리의 오류).

유티케스주의: 한 위격, 한 본성 (혼합과 변질의 오류, 인성의 흡수).

세르베투스주의: 삼위일체 부정, 신성과 인성의 혼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를 드립니다:

[구원 확신 진단]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내 죄값을 치르셨고, 참 하나님으로서 사망을 이기셨음을 믿기에, 구원의 영원한 안전을 확신합니까?

[기도 담대함 진단] 지금도 영화로운 인성을 입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동행 진단] '칼빈의 엑스트라'가 증언하듯,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실제로 충만히 함께 계심을 동행의 기쁨으로 누립니까?

[이단 분별 진단]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여 인성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인성만을 강조하여 도덕적 스승으로 전락시키는 온갖 현대적 이단 사설을 명쾌히 분별하고 있습니까?

[연합 진단]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한 위격 안에서 신비롭게 연합되었듯, 성도인 나 또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된 지체로 굳게 연합되어 있음을 고백합니까?

[평신도 삶의 실제적 적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며, 완벽하신 우리 형제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기에 우리를 해칠 원수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한숨과 연약함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한 위격 안에 완벽한 신성과 인성을 조화시키사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흔들림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II.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위격적 연합의 신비 (*Unio Hypostatica*):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성과 참된 인성은 혼합되거나 변질됨이 없고, 분열되거나 분리됨이 없이 오직 한 위격(*una persona*) 안에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2.14.1).

성경의 기독교론 본문 해석 3원칙:

성경의 그리스도 관련 구절은 (1) 신성에만 속한 것, (2) 인성에만 속한 것, (3) 중보자 한 위격 전체에 속한 것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2.14.2~3).

속성의 참된 교통 (*Communicatio Idiomatum*):

두 본성 자체의 속성이 서로 뒤섞이거나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한 위격 안에서 각 본성의 속성이 온전하게 발휘되며 한 인격의 행동으로 귀속됩니다 (2.14.2~3).

칼빈의 엑스트라 (*Extra Calvinisticum*):

영원한 말씀(Logos)이 동정녀의 태와 육신 안에 거하셨을 때에도, 그 무한하신 신성은 육체에 갇히지 않고 온 우주를 채우시며 다스리셨습니다 (2.14.4).

역사적 기독교론 3대 이단의 격별:

위격을 둘로 쪼갠 네스토리우스, 본성을 하나로 섞어버린 유티케스, 인성을 신화화한 세르베투스의 오류를 모두 배격하고 칼케돈 정통을 확수합니다 (2.14.5~8).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구원 확신 진단]: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내 죄값을 치르셨고, 참 하나님으로서 사망을 이기셨음을 믿기에, 구원의 영원한 안전을 확신하는가?

[기도 담대함 진단]: 지금도 영화로운 인성을 입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기도하고 있는가?

[동행 진단]: '칼빈의 엑스트라'가 증언하듯,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실제로 충만히 함께 계심을 동행의 기쁨으로 누리는가?

[이단 분별 진단]: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여 인성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인성만을 강조하여 도덕적 스승으로 전락시키는 온갖 현대적 이단 사실을 명쾌히 분별하고 있는가?

[연합 진단]: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한 위격 안에서 신비롭게 연합되었듯, 성도인 나 또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된 지체로 굳게 연합되어 있음을 고백하는가?

IV.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나눔 질문: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100% 인간이시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 머릿속에 어떤 신비감이 들니까? 평소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묵상해 보았습니까?

인도자 코칭 팁: 신비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교리이지만, 칼빈의 '영혼과 육체' 유비를 통해 친숙하게 접근하도록 돕습니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질문 1 (사도행전 20:28 하나님의 피):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표현한 이유가 칼빈이 설명한 '속성의 교통(Communicatio Idiomatum)' 안에서 어떻게 풀리는지 나누어 봅시다.

질문 2 (칼케돈의 4대 원칙): 혼합 없이, 변질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연합되었다는 칼케돈 신경의 선언이 왜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켜주는지 묵상해 봅시다.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질문 3 (칼빈의 엑스트라 Extra Calvinisticum):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워 계실 때에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셨다"는 칼빈의 통찰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체험하게 합니까?

질문 4 (네스토리우스와 유티케스의 현대적 적용): 오늘날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적 도덕가로 보거나(네스토리우스적 경향), 반대로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 신령함으로만 생각하는(유티케스적 경향) 오해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인도자 마무리 코칭: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완벽히 구원하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공동 기도 제목:

한 위격 안에 참 신성과 참 인성을 연합하사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참 인간 예수님,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참 하나님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소서.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Q1: "사도행전 20:28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 피가 있습니까?"

A: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피를 흘리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려 죽으신 '인간 예수'가 곧 참 '하나님'이신 한 위격이시기에, 성경은 위격의 연합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피'라는 장엄한 표현(속성의 교통)을 사용한 것임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시오.

Q2: '칼빈의 엑스트라(Extra Calvinisticum)'가 오늘날 성도에게 왜 큰 위로가 됩니까?

A: 주님은 육체로는 부활 승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무한하신 신성과 성령으로는 온 우주와 성도의 삶 구석구석에 편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제33강: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은혜 —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왕, 제사장)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영원한 진리의 빛, 교회의 불가침적 왕권, 단번의 속죄와 영원한 중보 (Book 2, Ch. 15)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15장 집중 강의안 (60분 플타임 강의)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칼빈 기독교 강요 80강 마스터클래스 (제2학기: 구속주 하나님)
- **교재 범위**: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라틴어 최종결정판) 제2권 제15장 (*Ut sciamus quonam fine missus a Patre fuerit Christus, et quid nobis attulerit, tria potissimum in eo spectanda: officium propheticum, regnum, et sacerdotium*, 2.15.1 ~ 2.15.6)
- **강의 구성**: 60분 본 강의 및 강독 대본 + 30~45분 소그룹 워크숍 및 심층 토론
- **핵심 주제**: 그리스도의 삼중직(Tria Munera: Prophet, King, Priest), 메시아(기름부음 받은 자)의 본질, 선지자직과 복음 계시의 완성, 왕의 직분과 교회의 영원한 영적 통치, 영원한 대제사장과 속죄의 효력, 로마 가톨릭의 교황권 및 미사 사제주의 분쇄
- **텍스트 색상 체계**:
 - **남색 (#182B49)**: 핵심 교리 명제, 칼빈 라틴어 원전 직역 및 신학적 정의
 - **자주색 (#8B0000)**: 반론 박멸, 논쟁 및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신학적 오류와 세속적 메시아관 (로마 가톨릭 위계질서 및 번영신학)
 - **녹색 (#1E5631)**: 성경 원문 주해, 목회적 위로, 평신도 실천 적용 및 영적 권면
 - **황금색 (#B8860B)**: 핵심 암송 요절, 성령의 조명, 묵상 및 결단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5장에 이르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위격적 연합이라는 본체론적 지식을 배운 후 반드시 나아가야 할 결정적인 목적을 제시합니다. 즉, "성부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시고 전수해 주셨는가?"라는 구원론적·기능적 질문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이름인 '메시아(기름부음 받은 자)'의 성경적 의미를 완벽하게 해명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명쾌하고 체계적인 기독교론 틀인 '삼중직(Tria Munera)'을 천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지혜이신 선지자(Propheta)이시며, 교회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왕(Rex)이시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을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제사장(Sacerdos)이십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의 유기적 결합을 모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공허한 이름으로만 부를 뿐, 참된 신앙의 능력과 위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1. 그리스도의 이름(기름부음 받은 자)에 내포된 삼중직(선지자, 왕, 제사장)의 구속사적 의미를 체계화한다.

2.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통해 모든 계시의 종결과 성경의 완전성을 확립한다.
3.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 교리를 통해 세상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의 불가침적 안전을 확신한다.
4. 단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근거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간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이름만의 그리스도를 넘어: 삼중직의 영광 (2.15.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구속사적 의미와 메시아 칭호 (2.15.1)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선지자 직분: 복음 계시의 종결과 온전한 지혜 (2.15.2)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왕의 직분: 영적 통치와 교회의 영원한 안전 (2.15.3~5)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제사장 직분: 단번의 속죄와 영원한 중보 (2.15.6)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삼중직의 구주를 찬양하고 제자로서 순종하는 결단

Ⅱ. 정식 60분 폴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부] 이름만의 그리스도를 넘어: 삼중직의 영광 (00:00 ~ 05: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대지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5장, 기독교론의 가장 찬란한 보석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Tria Munera)"의 장대한 전당으로 들어섭니다.

오늘 칼빈이 제15장 제목으로 내건 질문은 우리의 심장을 정통으로 찌릅니다:

“성부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셨는가? (Ut sciamus quonam fine missus a Patre fuerit Christus, et quid nobis attulerit)”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습관처럼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면, "그리스도(Christus)", 즉 히브리어로 "메시아(Messiah)"가 무슨 뜻인지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칼빈은 제15장 벽두에서 엄숙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이름만 공허하게 되되거나 단순히 역사적 인물로만 파악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죽은 지식에 불과하다. 성부께서 그분에게 부여하신 직무의 목적과 효력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2.15.1)

성경에서 기름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성별과 권능으로 거룩한 직분을 맡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의 사람에게 거룩한 관유를 부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단편적으로 훑내 내신 분이 아니라, 구속 역사의 정점에서 이 세 직분을 완벽하게 자신의 한 위격 안에 통합하시고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직무를 하나씩 깊이 파고들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 반석 위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제1대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구속사적 의미와 메시아 칭호 (05:00 ~ 17:00)

(슬라이드 3 & 4 제시: 삼중직 총론 매트릭스 및 기름부음의 의미)

칼빈은 제1절에서 구약의 기름부음 예식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음을 밝힙니다.

다윗의 시편 45편 7절은 예언하기를,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61장 1절은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세 가지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은, 장차 오실 참된 중보자께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한량없이 받으실 것을 예표한 그림자였다!” (2.15.1)

여기서 칼빈이 강조하는 지극히 목회적인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은, 그리스도 혼자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충만히 받으신 것은, 아론의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림같이(시 133:2),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그분의 몸인 교회와 지체된 우리 각 사람에게 넉넉하게 부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2.15.1)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Christianus)'이라 불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교회의 등록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분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거룩한 영적 기름부음—선지자적 진리의 지혜, 왕적인 승리의 권능, 제사장적 거룩한 헌신의 특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의 기름부음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진리를 증언하는 선지자가 되며 세상을 이기는 왕 같은 족속이 되었다!” (벤전 2:9)

[제2대지] 선지자 직분 — 계시의 종결과 온전한 지혜 (17:00 ~ 30:00)

* (슬라이드 5 & 6 계시: 피에트로 페루지노 명화 해설 및 선지자직 주해)*

이제 칼빈은 첫 번째 직분인 선지자 직분(Munus Propheticum)을 해설합니다(2.15.2).

구약 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언은 언제나 그림자였고, 장차 오실 실체이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때 성령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그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사 11:2).

칼빈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께 고백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요 4:25).

보십시오!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조차도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진리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밝혀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기름부음을 받으심으로써 성부의 온전한 뜻을 가르치시는 최고의 사도요 교사(Doctor)가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말씀하심으로써 계시의 문을 완전히 닫으셨으며,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셨다!” (2.15.2)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2절에서 장엄하게 증언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칼빈은 로마 가톨릭과 광신주의자들의 사악한 망상을 엄히 꾸짖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써 모든 예언과 계시는 온전한 마침표를 찍었다! 그런데 로마 교황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자신들의 교황령과 인간의 전통을 덧붙이고 있으며, 재세례파와 열광주의자들은 새로운 직통 계시를 주장한다. 이것은 최고의 교사이신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능멸하고 성경의 완전성을 짓밟는 가증한 신성모독이다!” (2.15.2)

(슬라이드 5 명화 제시: 피에트로 페루지노, 『열쇠의 수여』, 1481-1482, 시스티나 성당)

바티칸 시스티나 예배당 벽화인 페루지노의 『열쇠의 수여』를 보십시오. 중세 로마 교회는 이 그림을 교황의 절대적 수위권과 사제주의의 근거로 오용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천국의 열쇠란 어떤 교황 개인의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복음 진리의 선포, 곧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말씀"이라고 일갈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예언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확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적 무지와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시는 영원한 태양이 되셨다! 인간의 철학이나 사변이 가져다주지 못하는 구원의 지혜, 곧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 안에 남김없이 담겨 있다!” (2.15.2)

우리는 다른 어떤 새로운 음성이나 교황의 칙령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영원한 선지자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유일하고 완전한 등불입니다!

[제3대지] 왕의 직분 — 영적 통치와 교회의 영원한 안전 (30:00 ~ 45:00)

(슬라이드 7 & 8 제시: 렘브란트 명화 해설 및 왕권의 영적 본질)

이제 칼빈은 그리스도의 직무 중 성도들에게 가장 거대한 영적 안위와 승리를 안겨주는 왕의 직분(Munus Regium)을 규명합니다(2.15.3~5).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왕국을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변영의 제국'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지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 줄 군사적 영웅을 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현세의 부와 세속적 행통을 얻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변영신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칼을 들어 이 세속적 미망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상적이고 세속적인 성격의 것이었다면, 그 왕국은 결코 영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전적으로 '영적(spiritualis)'이다!” (2.15.3)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 첫째, 통치의 영역이 인간의 영혼과 양심입니다. 그리스도는 억압적인 법률이나 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성도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2. 둘째, 그 왕국의 복락이 썩어질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가난과 질병을 겪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있는 성도의 영혼은 사탄의 정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3. 셋째, 교회의 불가침적 안전(Aeterna securitas)을 보장합니다.

칼빈은 제3절에서 목회적 위로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유혹과 환난과 핍박에 에워싸일 때,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통치권을 쥐고 계시며, 음부의 권세가 결코 그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확신이다!” (2.15.3)

(슬라이드 7 명화 제시: 렘브란트 판 레인, 『부활하신 그리스도』, 1661,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

렘브란트의 걸작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오른손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으나, 그분의 눈빛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의 위엄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들을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보호하시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마침내 최후 승리의 날까지 우리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 8:35~37)

지상의 제국들과 독재자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적 왕국은 영원토록 쇠하지 않으며,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한 모든 성도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칼빈은 또한 제5절에서 바울의 고전 15장 24~28절,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통치하시고 마지막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적 통치가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중보자로서 교회를 보호하시던 경륜적 방식이 완성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친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영광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제4대지] 제사장 직분 — 단번의 속죄와 영원한 중보 (45:00 ~ 60:00)

* (슬라이드 9 ~ 14 제시: 발광 성경 패널, 제사장직 주해, 현대적 적용, 소그룹 나눔) *

마지막 세 번째 직무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기초요 심장인 제사장 직분(Munus Sacerdotale)입니다(2.15.6).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간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한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심연이 가로놓여 있으며,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 사함이 없습니다(히 9:22).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갔으나, 황소와 염소의 피는 인간의 죄책을 영원히 도말하지 못하는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다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흠 없는 몸을 십자가에 단번의 화목 제물(Hostia placabilis)로 드리셨다! 그분은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동시에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다!” (2.15.6)

칼빈은 여기서 로마 가톨릭의 가증한 '미사(Missa) 사제주의'를 통렬하게 박살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지닌 단번의 완성(Semel pro semper)이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사제들은 매일 미사를 드리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희생 제물로 바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의 완전성을 부정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찬탈하는 극악한 배교이다!” (2.15.6)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단지 과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영원토록 중보 기도(Intercessio)를 드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비록 날마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지을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늘 지성소에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살아 계셔서, 자신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탄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히 4:16; 2.15.6)

성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죄책을 들추어내며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고 참소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래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그렇다, 나는 비참한 죄인이다! 그러나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치르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친히 나를 변호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가르치는 제사장 직분의 무한한 위로와 평안입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기름부음 (*Munus Triplex*):

- '그리스도(메시아)'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분을 뜻하며,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 직분을 한 몸에 완성하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2.15.1).

2. 영원한 선지자 직분과 특별계시의 완결 (*Munus Propheticum*):

-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모든 진리와 지혜를 가져오신 최종적 대선지자이시며, 복음 이후에 새로운 계시나 교황의 인위적 교의를 덧붙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2.15.2).

3.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과 교회의 불가침적 안전 (*Munus Regium*):

-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의 정치적 왕국이 아닌 영적인 통치이며, 성도들을 사탄과 사망과 세상의 온갖 핍박 속에서도 영원히 보전하시는 절대적 보호의 원천입니다 (2.15.3~5).

4. 단번의 화목 제물과 영원한 대제사장 (*Munus Sacerdotale*):

- 그리스도는 친히 흠 없는 제물이자 대제사장이 되사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성하셨으며, 로마 교회의 반복되는 미사 희생은 이를 짓밟는 신성모독입니다 (2.15.6).

5. 성도의 삼중직적 참여와 거룩한 소명:

-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부여된 성령의 기름은 모든 지체인 성도들에게 흘러내리므로, 성도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 죄와 세상을 이기는 왕, 사랑과 기도로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2.15.1, 2.15.6).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진리 진단]: 나는 성경 66권에 계시된 영원한 선지자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나의 전 생애를 굴복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세속 철학이나 거짓된 신비주의 음성을 좇고 있는가?

2. [왕권 진단]: 나는 삶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며 교회의 절대적 보호자이심을 신뢰함으로 영적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눈앞의 환경에 굴복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가?

3. [속죄 진단]: 나의 구원이 나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완전한 속죄 제사에만 근거하고 있음을 확신하는가?

4. [기도 진단]: 나는 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 담대하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있는가?

5. [소명 진단]: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 땅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 죄와 세상을 이기는 왕, 이웃을 섬기고 축복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삼중적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예수님을 부를 때 그분이 나의 '선지자, 왕, 제사장'이심을 얼마나 의식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세 직분 중 가장 마음에 와닿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 인도자 코칭 팁: 단순한 교리 암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와 중보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나누도록 돕습니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히브리서 1:1~2):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계시의 종결'과 관련해 왜 중요합니까?

- 질문 2 (요한복음 18:36):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신 주님의 선언이 오늘날 교회의 정치화나 변영신학을 어떻게 교정합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단번의 속죄와 반복적 미사의 충돌): 칼빈이 로마 가톨릭의 미사를 비판하며 히브리서 9~10장의 '단번의 영원한 제사(hapax)'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 4 (만인제사장직의 현장 실천): 성도가 그리스도의 기름부음에 참여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제사장과 왕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주는 안전함과 위로를 붙들고 한 주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1. 우리의 유일한 진리이신 선지자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세상의 어떤 환난 앞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소서.
3.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까?"

- A: 그리스도의 왕권은 세상적인 무력이나 변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을 이기시는 '영적 왕권'입니다. 칼빈이 강조하듯 성도의 겉사람은 환난을 겪으나 영혼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안전을 누림을 설명해 주십시오.

- Q2: 성도 개개인이 어떻게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살 수 있습니까?

- A: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거짓에 맞설 때 '선지자'요, 죄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를 성령으로 물리칠 때 '왕'이며, 연약한 이웃을 위해 눈물로 중보기도하고 사랑으로 헌신할 때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임을 권면하십시오.

제34강: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성취 — 사도신경의 구속 단계들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수난, 십자가의 저주, 영혼의 지옥 고통, 부활과 승천의 영원한 승리 (Book 2, Ch. 16)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16장 집중 강의안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칼빈 기독교 강요 80강 마스터클래스 (제2학기: 구속주 하나님)
- **교재 범위**: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라틴어 최종결정판) 제2권 제16장 (*Quomodo Redemptoris partes impleverit Christus, ut nobis salutem acquireret; ubi de eius morte et resurrectione ac ascensu in caelum agitur*, 2.16.1 ~ 2.16.19)
- **강의 구성**: 60분 본 강의 및 강독 대본 + 30~45분 소그룹 워크숍 및 심층 토론
- **핵심 주제**: 구속 사역의 실행(구원의 획득),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진노의 조화, 능동적·수동적 순종,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 십자가의 저주(갈 3:13), 지옥 강하(Descensus ad Inferos)의 참된 영적 의미(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지옥의 진노와 영혼의 대속 고통), 부활의 의롭다 하심, 승천과 하늘 보좌 통치, 재림의 위로
- **텍스트 색상 체계**:
 - **남색 (#182B49)**: 핵심 교리 명제, 칼빈 라틴어 원전 직역 및 신학적 정의
 - **자주색 (#8B0000)**: 반론 박멸, 논쟁 및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신학적 오류 (문자적 림보 신화, 영혼 없는 육체주의, 심판에 대한 병적인 공포)
 - **녹색 (#1E5631)**: 성경 원문 주해, 목회적 위로, 평신도 실천 적용 및 영적 권면
 - **황금색 (#B8860B)**: 핵심 암송 요절, 성령의 조명, 묵상 및 결단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6장에서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사도신경(Symbolum Apostolicum)"의 기독교 고백 조항들을 한 절 한 절 정밀하게 추적합니다. 앞서 제15장에서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확립한 칼빈은, 이제 그 직무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실현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안겨주었는가를 장엄하게 서술합니다.

이 장은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에서부터 시작하여, 전 생애에 걸친 순종, 본디오 빌라도 치하의 수난,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 사도신경 최고의 난제인 '지옥 강하(Descensus ad Inferos)'의 영적 신비,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신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 재위, 마침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재림까지 구속사의 전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입니다. 칼빈은 특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육체적 고통을 넘어선 '영혼의 영적 고통(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감당하심)'을 밝혀냄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완성되었는지를 밝힙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1. 사도신경에 고백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전 단계(순종, 수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를 구속사적으로 체계화한다.

2.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이 나무에 달린 자의 율법적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적 사건임을 성경 원문으로 확증한다.
3. 사도신경의 '지옥 강하(Descensus ad Inferos)'를 로마 가톨릭의 림보 설화가 아닌, 십자가 위에서 영혼으로 겪으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바르게 해명한다.
4.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하나님 우편 재위, 재림의 영광에 근거하여 성도의 온전한 칭의와 종말론적 승리를 확신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사도신경의 심장: 구속의 단계를 밟아가다 (2.16.1~4)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구속의 원천과 순종의 전 생애 (2.16.1~4)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빌라도의 재판, 십자가의 저주, 죽으심과 장사되심 (2.16.5~7)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지옥에 내려가셨으며'(Descensus ad Inferos)의 참된 의미 (2.16.8~12)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 재위, 재림의 위로 (2.16.13~19)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구속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헌신의 결단

Ⅱ. 정식 60분 플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부] 사도신경의 심장: 구속의 단계를 밟아가다 (00:00 ~ 05: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대지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6장, 우리 신앙고백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성취"를 함께 강독합니다.

오늘 강의 라틴어 원제는 대단히 길고도 웅장합니다:

“Quomodo Redemptoris partes impleverit Christus, ut nobis salutem acquireret: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획득하시기 위해 구속자의 직무를 어떻게 완수하셨는가?”

칼빈은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전수되어 온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따라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을 씻으시고 의를 획득하기 위해 걸어가신 고난과 영광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짚어 나갑니다.

칼빈은 질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고, 죽음을 정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의와 생명을 안겨주셨는가?"

칼빈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 생애에 걸친 순종(oboedientia)으로써, 특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2.16.5)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입술로만 고백하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고백이 얼마나 피 묻은 복음의 진리인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1대지] 구속의 원천과 순종의 전 생애 (05:00 ~ 17:00)

(슬라이드 3 & 4 제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조화, 능동적·수동적 순종)

칼빈은 제1절부터 제4절까지, 구속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성도들이 반드시 풀어야 할 깊은 신학적 의문을 다룹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상태에서 이미 사랑하셨다면(요 3:16, 롬 5:8), 왜 그리스도의 화목 제사가 필요했는가? 반대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실 수 있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잔인한 폭군처럼 진노하시다가 예수님의 피를 보고서야 비로소 억지로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오해합니다. 칼빈은 이러한 왜곡을 단호하게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gratuitus amor*)이 구속의 제일 원인이요 시발점이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는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기에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이다!” (2.16.2~3)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인간)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범한 죄악은 무한히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짓밟은 것도 아니요, 공의가 사랑을 삼킨 것도 아니며, 사랑과 공의가 갈보리 언덕에서 입맞춘 거룩한 사건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비참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가를 절감하게 하기 위한 성령의 묵회적 화법(*accomodatio*)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롬 5:8).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순간뿐입니까?

칼빈은 로마서 5장 19절("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을 인용하며 천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신 순간부터,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신 전 생애에 걸쳐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셨다! 그분의 삶 전체가 우리를 위한 의의 획득이었으며, 그 순종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림이었다!” (2.16.5)

그리스도는 첫 아담이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의를, 전 생애에 걸친 흠 없는 순종으로 완벽하게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신학이 말하는 '능동적 순종(율법의 온전한 성취)'과 '수동적 순종(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받으심)'의 영광스러운 결합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옷을 덧입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의인으로 당당히 서게 됩니다!

[제2대지] 빌라도의 재판, 십자가의 저주, 죽으심과 장사되심 (17:00 ~ 30:00)

* (슬라이드 5 & 6 제시: 루벤스 명화 해설 및 십자가의 저주 주해) *

이제 칼빈은 사도신경의 중심 고백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주해합니다 (2.16.5~7).

성도 여러분, 왜 사도신경은 굳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신앙고백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칼빈은 여기서 놀라운 사법적 대속의 비밀을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도들의 칼이나 성난 군중의 사적 린치로 죽임당하지 않으시고, 세속 재판관 빌라도의 법정에서 서신 것은 지극히 심오한 구속사적 섭리이다! 빌라도는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세 번이나 공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 재판관의 입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그리스도는 흠 없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흉악한 죄인들의 죄책을 대신 짊어지고 법정적으로 정죄당하신 것이다!” (2.16.5)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죄 선언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님을 온 천하에 입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죄를 받으심으로써, 장차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설 우리가 완전히 무죄 방면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칼빈은 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거나 칼에 베이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를 신명기 21장 23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해설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죄책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 위에서 대신 받아 삼키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셨다!” (2.16.6)

* (슬라이드 5 명화 제시: 페테르 파울 루벤스, 『십자가에서 내리심』, 1612-1614, 안트베르펜 대성당)*

루벤스의 장엄한 제단화 『십자가에서 내리심』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창백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눈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겉으로 죽은 척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으로서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에 대해 위로로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신 것은 우리 옛 사람의 정욕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성도들의 무덤을 더 이상 영원한 파멸의 구덩이가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복된 안식처로 성별(sanctificatio)하기 위함이었다!” (2.16.7)

성도 여러분, 첫 아담은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땅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아리마대 요셉의 동산 무덤에 묻히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육체가 장차 들어갈 무덤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는 향기로운 침소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전 15장 55절에서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제3대지] '지옥에 내려가셨으며'(Descensus ad Inferos)의 참된 의미 (30:00 ~ 45:00)

* (슬라이드 7 & 8 제시: 사도신경 난해 구절 해설 및 영혼의 대속 고통)*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의 가장 난해한 구절이자 칼빈 기독교론의 가장 독창적이고 위대한 공헌 중 하나인 "지옥에 내려가셨으며(Descensus ad Inferos)" 조항에 도달합니다(2.16.8~12).

이 구절을 두고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지하 세계의 '선조 림보(Limbus Patrum)'로 내려가 구약 성도들의 영혼을 구출해 오셨다는 허황된 신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유치한 소설을 단호히 일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하 감옥으로 물리적으로 내려가셨다는 주장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유치한 동화에 불과하다! 사도신경이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뒤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덧붙인 것은, 단순히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의 반복이 아니다!” (2.16.8~9)

그렇다면 칼빈이 밝혀낸 지옥 강하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칼빈의 펜 끝은 여기서 전율할 만큼 깊은 영적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만 당하셨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을 것이다! 인간은 몸으로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였기에, 영혼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겪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공포, 영적 유기와 단절의 고통을 영혼 속에서 직접 겪으셨다! 이것이 바로 '지옥 강하'의 참뜻이다!” (2.16.10)

젯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으셨던 고뇌를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은 사자 굴과 화형대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담대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순교자들보다 더 큰 공포에 떨며 피땀을 흘리셨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잔은 인간의 죄를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의 진노의 잔이었기 때문이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신 그 순간, 그리스도는 지옥의 모든 고통과

영적 버림받음을 자기 영혼에 온전히 받아내셨다!” (2.16.11)

이 지옥 강하의 진리를 깨달을 때 성도들은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모든 진노와 고통을 이미 다 맛보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지옥의 정죄와 형벌이 다시는 미치지 못한다!” (2.16.12)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지옥의 흑암을 통과하셨기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영원토록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 13:5)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안에 영원히 안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4대지]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 재위, 재림의 위로 (45:00 ~ 60:00)

(슬라이드 9 ~ 14 제시: 그뤼네발트 명화 해설, 발광 패널, 부활·승천 주해, 소그룹 나눔)

그러나 그리스도는 지옥의 고통이나 무덤에 영원히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사도신경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단계들—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 재위, 그리고 재림—로 나아갑니다(2.16.13~19).

(슬라이드 7 명화 제시: 마티아스 그뤼네발트, 『부활』, 이센하임 제단화, c. 1512-1516, 콜마르 운터린덴 미술관)

그뤼네발트의 불후의 걸작 『부활』을 보십시오. 어둠을 찢고 눈부신 영광의 광채 가운데 떠오르시는 그리스도는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셨습니다.

칼빈은 부활의 삼중적 유익을 설명합니다(2.16.13):

1. 첫째, 우리의 칭의(Iustificatio)의 보증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를 씻었다면, 부활은 그분이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획득하셨음을 증명합니다(롬 4:25).
2. 둘째, 우리의 성화(Sanctificatio)와 새 생명의 원천입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십니다.
3. 셋째,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의 부활의 확실한 담보입니다.

이어지는 승천(Ascensio)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음을 뜻합니다(2.16.14).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Sessio ad dexteram Dei)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며, 교회의 머리로서 성령의 선물을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심을 나타냅니다(2.16.15).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intercessio)를 드리고 계신다. 사탄이 날마다 참소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의 구원을 영원토록 변호한다!” (2.16.16)

마지막으로 칼빈은 재림(Adventus)의 교리를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로 제시합니다:

“마지막 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구름 타고 오실 심판관이 누구인가? 저 멀리 계신 낯선 두려운 재판관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나의 신랑이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2.16.17)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최후 심판의 날은 공포와 파멸의 날이 아니라, 영원한 구속의 완성의 날이요 눈물이 씻겨지는 환희의 날이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고개를 들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할 수 있다!” (2.16.18)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영원한 조화:

-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랑으로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에 뿌리를 두고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만족시키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구속의 절정입니다 (2.16.1~4).

2. 그리스도의 전 생애에 걸친 순종 (*Tota Obedientia*):

-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생에 걸친 순종(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킴으로써 획득되었습니다 (2.16.5).

3. 나무에 달린 자의 저주와 법적 대속 (*Expiatio et Maledictio*):

-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세속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도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인들을 대신해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신 사법적 대속입니다 (2.16.5~7).

4. 지옥 강하의 영적 침연 (*Descensus ad Inferos*):

-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은 지하 감옥으로의 이동이나 림보 신화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영혼으로 죄인들이 당해야 할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친히 감당하셨음을 뜻합니다 (2.16.8~12).

5. 부활과 승천, 하나님 우편 재위의 승리 (*Resurrectio et Ascensio*):

-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온전한 칭의와 중생의 보증이며, 승천과 우편 재위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중보하시는 영원한 왕과 대제사장의 통치입니다 (2.16.13~19).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순종 진단]: 나는 내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전 생애를 바쳐 이루신 흠 없는 순종(능동적·수동적 순종)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신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불완전한 선행을 의지하고 있는가?

2. [십자가 진단]: 나는 십자가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율법적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나무 위에서 대신 받아 삼키신 대속의 자리임을 믿는가?

3. [지옥 진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영혼의 지옥 고통을 겪으셨기에, 나에게는 더 이상 영원한 정죄와 지옥의 형벌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가?

4. [보좌 진단]: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세상의 위기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는가?

5. [재림 진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할 때 심판의 두려움이 아닌,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구속주를 만난다는 기쁨과 소망으로 "마라나타"를 고백하고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가장 깊이 마음에 와닿거나 반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구절은 무엇입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암송에 머물던 사도신경이 실상은 피 묻은 복음의 고백임을 발견하도록 따뜻하게 대화를 유도합니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씀의 무게를 칼빈은 어떻게 풀이합니까?

- 질문 2 (마태복음 27:46):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주님의 절규가 칼빈의 '지옥 강하' 교리와 어떻게 직결됩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능동적 순종과 성도의 안식):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평생 율법에 순종하신 삶 전체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사실이 일상에 어떤 자유를 줍니까?
- 질문 4 (재림 소망과 심판의 위로): 장차 심판주로 오실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왜 성도에게 최대의 위로가 됩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십자가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부활 승천의 권능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승리하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1.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와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소서.
 2. 부활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3.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사도신경의 '지옥에 내려가셨으며'가 성경에 직접 나오는 표현입니까?"
 - A: 성경의 여러 본문(시 16:10, 행 2:27, 벰전 3:19 등)과 관련하여 초대교회부터 고백되었습니다. 칼빈은 이것이 물리적으로 지옥 지하 감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영혼으로 지옥의 영적 고통과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대신 감당하신 영적 대속의 극치임을 밝혔습니다.
- Q2: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성도에게는?
 - A: 마지막 심판대의 보좌에 앉으실 심판주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정죄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일깨워 주시고, 성도에게 심판날은 정죄의 날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과 영광의 날임을 확신시켜 주십시오.

제35강: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 —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은혜와 공로의 완전한 일치, 중세 스콜라주의 사변 분쇄, 제2학기 구속주 하나님 총결산 피날레 (Book 2, Ch. 17)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17장 집중 강의안 (60분 플타임 강의)

강의 개요 (Course Information)

- **과정명**: 칼빈 기독교 강요 80강 마스터클래스 (제2학기: 구속주 하나님 종강 피날레)
- **교재 범위**: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라틴어 최종결정판) 제2권 제17장 (*Christum vere et proprie promeritum esse nobis gratiam Dei et salutem*, 2.17.1 ~ 2.17.6)
- **강의 구성**: 60분 본 강의 및 강독 대본 + 30~45분 소그룹 워크숍 및 제2학기 수료 회고
- **핵심 주제**: 그리스도의 참된 공로(Meritum Christi),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공로의 완전한 조화, 속전(Pretium)과 화목 제물, 의의 전가(Imputatio), 피터 롬바르드(Peter Lombard) 및 스콜라 학파의 궤변 격파, 제1학기(창조주 하나님 01~18강)부터 제2학기(구속주 하나님 19~35강) 총결산, 제3학기(성령 하나님과 구원의 적용 36~54강) 예고
- **텍스트 색상 체계**:
 - 남색 (#182B49): 핵심 교리 명제, 칼빈 라틴어 원전 직역 및 신학적 정의
 - 자주색 (#8B0000): 반론 박멸, 논쟁 및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신학적 오류와 스콜라 사변 (피터 롬바르드의 자가 공로설 및 펠라기우스주의)
 - 녹색 (#1E5631): 성경 원문 주해, 목회적 위로, 평신도 실천 적용 및 영적 권면
 - 황금색 (#B8860B): 핵심 암송 요절, 성령의 조명, 묵상 및 결단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의 마지막 장인 제17장에 이르러, 기독교론과 구원론의 기초를 놓는 결정적인 대주제를 다룹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리고 고유하게(vere et proprie)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으셨다(promeritum esse)"는 선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로(Meritum)'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궤변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중세 스콜라 신학의 거두인 피터 롬바르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공로를 쌓으셨는가?"라는 호기심 섞인 쓸데없는 사변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리스도의 역사적 대속을 완벽하게 조화시킴으로써 이 모든 궤변을 분쇄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가 제일 원인이며,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 자비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불가결한 종속 원인이자 기초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2권의 장엄한 대미를 장식하며, 제1학기(창조주 하나님)와 제2학기(구속주 하나님) 35주의 전체 구속 역사를 총결산하고, 성령의 구원 적용을 다룰 제3학기로 성도들을 인도합니다.

2. 강의 학습 목표

1. 하나님의 값없는 주권적 은혜와 그리스도의 역사적 공로(Meritum Christi)가 완벽하게 일치함을 체계화한다.
2. 속전(Lytron), 화목 제물(Hilasterion), 칭의 등 성경 원문으로 증명되는 그리스도의 사법적 대속을 확증한다.
3.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공로를 얻었다는 피터 롬바르드와 중세 스콜라주의의 호기심 사변을 논파한다.
4. 1~35강(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전체 구속사를 총결산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온전히 안식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제2권의 장엄한 대단원: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라 (2.17.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와 그리스도의 공로의 완전한 조화 (2.17.1)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성경의 명백한 증거: 속전, 피 흘림, 의의 전가 (2.17.2~3)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자력 구원 분쇄 및 피터 롬바르드의 사변 척결 (2.17.4~6)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제2학기 총결산: 창조에서 구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안식 (2.17.1~6)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구속주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 찬양과 2학기 총결산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부] 제2권의 장엄한 대단원: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라 (00:00 ~ 05: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대지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침내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2권의 최정상이자, 제2학기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마지막 종강 강의인 제17장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칼빈이 제17장 제목으로 엄숙하게 선언하는 명제는 이러합니다:

“Christum vere et proprie promeritum esse nobis gratiam Dei et salutem: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그리고 고유한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획득하셨다(공로를 세우셨다)!” (2.17.1)

우리는 지난 17주 동안 타락한 인류의 비참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율법의 세 가지 용도, 구약과 신약의 연약적 통일성, 중보자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 위격적 연합의 신비, 선지자·왕·제사장의 삼중직, 그리고 사도신경의 수난과 죽으심, 지옥 강하와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칼빈은 이 모든 구속 사역의 기초이자 결론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Meritum Christi)"를 찬란하게 천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로'라는 단어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구원이 오직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말을 쓸 수 있는가?"라고 반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칼빈과 함께 성경을 펼쳐 들고,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성자 그리스도의 피 묻은 공로가 어떻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의 거룩한 구원의 찬송으로 울려 퍼지는지를 푹푹히 묵도하게 될 것입니다!

[제1대지]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와 그리스도의 공로의 완전한 조화 (05:00 ~ 17:00)

(슬라이드 3 & 4 제시: 은혜와 공로의 양립, 구속의 제일 원인)

칼빈은 제1절에서 일부 변론가들이 제기하는 잘못된 이분법을 통렬하게 반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는 상호 배타적인가? 공로를 주장하면 은혜가 훼손되고, 은혜를 높이면 공로가 무너지는가?"

칼빈은 망설임 없이 일갈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대립시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종속되며 그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열매이다!” (2.17.1)

칼빈의 설명을 경청하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어떤 외부적 압력이나 인간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영원하고 주권적인 '값없는 기뻐하심(Beneplacitum Dei)'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값없는 사랑을 인간에게 베푸시기 위해, 거룩하신 공의를 만족시킬 유일한 통로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순종과 피 흘림을 구원의 방편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가 구원의 제1원인(Causa prima)이라면, 그리스도의 순종과 공로는 그 자비가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기초요 도구적 원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기 위해 그리스도의 공로를 깎아내리는 것은, 샘의 근원을 높인답시고 그 물을 마시는 생명수의 물줄기를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이다!” (2.17.1)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에서 이 신비로운 조화를 노래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성부의 영원한 사랑이 택정(Praedestinatio)의 원천이며,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그리스도의 참된 공로는 결코 충돌하지 않으며, 완벽한 한 쌍을 이루어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구원의 반석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높인다! 은혜는 중보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공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 중보자의 손길이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자비와 어린 양의 피 묻은 공로를 동시에 찬양하는 자이다!” (2.17.1)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눈물이나 결단이나 공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단 1초도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스도의 흠 없는 완전한 공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죄와 사탄의 참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제2대지] 성경의 명백한 증거 — 속전, 피 흘림, 의의 전가 (17:00 ~ 30:00)

* (슬라이드 5 & 6 제시: 판 데르 베이던 명화 해설 및 대속의 성경적 어휘) *

이제 칼빈은 제2절과 제3절에서 성경 전체를 종횡무진하며,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리고 고유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값을 치르셨음을 성경의 무수한 본문으로 입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25절에서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또한 갈라디아서 4장 4~5절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19절은 더욱 명백합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칼빈은 이 성경 본문들에 나오는 핵심 단어들—'속량(Apolytrois)', '속전(Pretium, Lytron)', '화목 제물(Hilasterion)', '화목(Katallage)'—을 분석하며 외칩니다:

“성경이 값을 주고 샀다(속전), 피로 씻었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 범정에 지불하신 참된 공로(meritum)가 실재함을 웅변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빚진 죄책을 자신의 생명이라는 무한한 대가로 완전히 청산하셨다!” (2.17.2)

골로새서 2장 14절은 선언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죄책의 증서,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채무 증서를 주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직접 못 박아 찢어버리셨습니다!

* (슬라이드 5 명화 제시: 로히어르 판 데르 베이던, 『십자가 삼충제단화』, c. 1443-1445, 빈 미술사 박물관)*

플랑드르 르네상스의 거장 로히어르 판 데르 베이던의 제단화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와, 그 발치에서 오열하는 마리아와 사도 요한의 모습이 비장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는 결코 단순한 도덕적 본보기나 감상적인 모범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달래고, 율법의 모든 정죄를 영원히 도말하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전가(imputatio)해 주는 무한한 구속의 효력을 지닌 보혈이다!” (2.17.3)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셨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의 빚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죄의 빚은 이미 골고다에서 십자가로 완제(Tetelestai)되었습니다!

[제3대지] 자력 구원 분쇄 및 피터 롬바르드의 사변 척결 (30:00 ~ 45:00)

* (슬라이드 7 & 8 제시: 렘브란트 명화 해설 및 중세 스콜라 신학 비판)*

칼빈은 제4절부터 제6절까지, 중세 스콜라 신학의 비조(鼻祖)라 불리는 피터 롬바르드(Peter Lombard, c. 1096 – 1160)의 『명제집(Sententiae)』에 등장하는 헛된 궤변을 정면으로 분쇄합니다.

스콜라 학자들은 탁상공론에 빠져 해괴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공로를 쌓으셨는가? 즉,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것은 그분이 자신을 위해 획득하신 보상인가?”

칼빈은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며 이 사변을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피터 롬바르드와 스콜라 학자들의 이러한 사변은 지극히 헛되고 유해한 호기심의 극치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획득하셔야 했다는 주장은, 그분이 영원 전부터 성부와 동등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모독하는 사악한 발상이다!” (2.17.6)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우주의 영광과 찬송을 이미 충만히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자신을 위해 덧붙일 어떤 영광이나 공로도 결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치욕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오직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Pro nobis)!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일하셨다는 구절은 없다. 그분이 겪으신 모든 순종과 피 흘림은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완전한 이타적 대속이었다!” (2.17.6)

중세 교회는 인간의 공로를 '상당한 공로(meritum de condigno)'와 '합당한 공로(meritum de congruo)'로 쪼개며, 인간의 선행이나 고행, 성인들의 잉여 공로로 구원의 자격을 채울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단언합니다:

“인간의 자력 구원을 꿈꾸는 모든 펠라기우스주의와 가톨릭 공로주의는 십자가의 완전성을 모독하는 파렴치한 배은망덕이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흠 없는 의와 피 흘리심 위에만 100% 세워진다!” (2.17.5)

* (슬라이드 7 명화 제시: 렘브란트 판 레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1631, 생방상 성당)*

렘브란트의 초기 걸작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어두운 배경 속에서 오직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에 드리운 처절한 고독과 고뇌가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주님은 왜 이 처절한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셨습니까? 자신을 위해서였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영원히 멸망당해야 마땅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습시다!

[제4대지] 제2학기 총결산: 창조에서 구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라 (45:00 ~ 60:00)

* (슬라이드 9 ~ 14 제시: 발광 패넌, 01~35강 총결산 매트릭스, 제3학기 예고, 감사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2학기 전체를 총결산하는 감격적인 정상에 섰습니다!

우리가 제1학기(01강~18강)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영광스럽게 창조하셨고 섭리로 다스리시지만, 인간은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전적 타락에 빠져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학기(19강~35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율법의 거울로 죄를 깨닫게 하시며, 구약의 수많은 예표와 언약으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마침내 때가 차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주셨고, 왕으로서 교회를 영원히 보호하시며,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단번의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의를 구하는가?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있다! 속죄를 구하는가? 그분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다! 능력을 구하는가? 그분의 왕권 안에 있다! 영생을 구하는가? 그분의 부활 안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서 다른 것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이다!” (2.16.19)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보화가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어떻게 실제로 전달되고 적용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2천 년 전 골고다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의 영혼 속에서 어떻게 생명수가 되어 역사합니까?

칼빈은 제3권 제1장 첫머리에서 그 답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머물러 계시는 한, 그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고 고난받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시키실 때에만, 그리스도의 모든 보화가 우리의 것이 된다!” (3.1.1)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학기, 제3학기(36강~54강):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 성령 하나님과 구원의 적용(신앙, 회개, 칭의, 성화, 기도, 예정)"에서 다루게 될 거룩한 구원의 파노라마입니다! 지난 35주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은혜와 공로의 완전한 조화 (*Gratia et Meritum*):

-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는 결코 충돌하지 않으며, 성부의 주권적 사랑이 제일 원인이고 그리스도의 공로는 은혜를 성도에게 전달하는 온전한 기초입니다 (2.17.1).

2. 사법적 대속과 속전의 실재성 (*Lytron et Expiatio*):

-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범이나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 완벽하게 치르신 실제적 속전이며, 그분의 순종이 우리에게 의로 온전히 전가되었습니다 (2.17.2~3).

3. 피터 롬바르드의 스콜라적 사변 분쇄:

-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공로를 얻으셨다는 헛된 가설은 성경을 왜곡하는 교만한 호기심이며, 주님은 오직 타락한 자기 백성을 위해 모든 피와 순종을 쏟으셨습니다 (2.17.4~6).

4. 그리스도의 온전한 충분성 (*Christus Omnia in Omnibus*):

- 죄 사함, 의로움, 거룩함, 지혜, 구원 등 영생에 필요한 모든 보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완전히 갖추어져 있으므로, 인간의 선행이나 성자의 공로를 덧붙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2.17.6).

5. 제2학기 구속주 하나님의 총결산 피날레:

- 1학기(창조주 하나님, 01~18강)와 2학기(구속주 하나님, 19~35강)를 통해 인간의 전적 타락과 율법의 용도,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구속 성취를 확립함으로써 제3학기 성령의 구원 적용으로 나아갈 반석을 완성합니다.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은혜 진단]: 나의 구원이 나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주권적 자비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혈 공로에만 100% 근거하고 있음을 확신하는가?

2. [완전성 진단]: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Tetelestai)"고 선언하셨음을 믿고, 나의 어떤 종교적 행위나 열심으로 도 구원의 자격을 보태려 하지 않는가?

3. [스콜라 분쇄]: 신앙생활에서 지적인 호기심이나 사변적 논쟁에 빠져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4. [그리스도 중심]: 의와 평강, 지혜와 거룩함, 그리고 영원한 승리까지 나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충만히 거함을 고백하는가?

5. [성령 대망]: 십자가의 구속을 나의 심령 속에 적용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다음 학기 배움을 기대하고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제2학기 19강부터 35강까지 17주 동안 '구속주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내 신앙의 패러다임을 가장 크게 뒤엎었던 핵심 주제나 구절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학기를 마치는 기쁨과 감격을 나누며 서로의 영적 성장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훈훈한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로마서 3:24~25):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는 말씀에서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가 어떻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니까?
- 질문 2 (요한복음 19:30):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외침이 우리의 구원 확신과 영적 안식에 어떤 최종적 마침표를 찍어주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은혜와 공로의 조화): "내가 구원받은 것은 100% 값없는 은혜이지만, 그리스도 편에서는 피를 흘려 치르신 엄청난 공로의 대가였다"는 사실이 나의 감사와 예배 생활에 어떤 거룩한 변화를 가져옵니까?
- 질문 4 (제3학기 성령론으로의 도약):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완성하신 구속이 내 심령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주관적으로 적용되고 열매 맺어야 하는지 기대와 소망을 나누어 봅시다.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2학기를 완주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평생 자랑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뜨겁게 기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1. 흠 없는 어린양의 보혈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소서.
 2. 어떤 율법주의나 공로 사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3. 다음 학기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날마다 거룩한 성화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구원이 전적인 은혜라면 왜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단어가 필요합니까?"
 - A: 우리 편에서는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받았기에 전적인 '은혜'이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려 죄값을 치르셨기에 완전한 '공로'입니다. 은혜의 기초가 곧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명확히 가르쳐 주십시오.
- Q2: 제2학기를 마치며 탈진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성도에게는?
 - A: 1~35강 동안 배운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는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참된 안식의 복음임을 일깨워 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주십시오.

제36강: 성령의 은밀한 역사와 그리스도의 은혜: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와 묶는 거룩한 띠 — 성령의 내주와 믿음의 기원 (Book 3, Ch. 1)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1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36주 (제3권 제1장: 성령의 은밀한 역사와 그리스도의 은혜)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엠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온 우주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밖에 머물러 계시는 한 그분의 모든 사역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강력한 역사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실 때에만, 십자가의 모든 보화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성령의 은밀한 역사를 통하여”

2. 강의 학습 목표

1.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성령의 은밀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됨을 확증한다.
2. 성령을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룩한 띠(vinculum)'로 정의한 칼빈의 핵심 명제를 체계화한다.
3. 인간의 자율적 결단이나 선행 공로를 앞세우는 펠라기우스주의 및 스콜라주의의 오류를 논파한다.
4. 내주하시는 성령의 조명과 인치심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연합 속에서 살아간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제3권의 문을 열며: 왜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인가? (3.1.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는 거룩한 띠: 성령의 명칭과 사역 (3.1.1~2)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믿음의 주된 동력자이신 성령: 내적 조명과 거듭남 (3.1.3~4)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의 표상들: 불, 샘물, 기름, 인치심 (3.1.3)

•

쇄 (3.1.4)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연합을 구하는 결단

Ⅱ. 정식 60분 폴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장, “성령의 은밀한 역사와 그리스도의 은혜”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웁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는 거룩한 띠: 성령의 명칭과 사역 (3.1.1~2) (10:00 ~ 22:00)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성령의 불가결성 (*Necessitas Spiritus*)'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모든 구원의 보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적용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3.1.1).”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거룩한 연합의 띠 (*Vinculum Unionis*)'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신비롭고 유기적으로 연합시켜,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하는 유일한 띠입니다 (3.1.1).”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El Greco, Pentecost (c. 1600)』을 주목해 보십시오.

불의 혀처럼 강림하시는 성령과 제자들 위에 임한 천상의 빛 — 십자가의 구속을 성도들의 마음에 인치시는 성령의 은혜.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2대지] 믿음의 주된 동력자이신 성령: 내적 조명과 거듭남 (3.1.3~4)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тезе는 '믿음의 유일한 조성자 (*Auctor Fidei*)'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이성 은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초자연적 조명과 인치심을 통해서만 참된 믿음에 도달합니다 (3.1.3~4).”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тезе는 '성령의 다양한 성경적 표상들'입니다:

“성령은 성령을 영적 목마름을 축이는 '생수', 더러움을 태우는 '불', 은혜를 덧입히는 '기름부음', 영원한 구원을 확증하는 '보증과 인침'으로 계시합니다 (3.1.3).”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의 표상들: 불, 샘물, 기름, 인치심 (3.1.3)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Rembrandt *The Apostle Paul* 1657)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 로마서 8:9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 요한복음 14:16-17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말씀과 성령의 불가분적 일치 (Cum Verbo et Per Verbum)'입니다:

“성령은 결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떠나 사사로운 환상으로 일하지 않으시며, 오직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3.1.4).”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Rembrandt van Rijn, The Apostle Paul (1657)』을 보십시오.

서신을 기록하며 성령의 깊은 감동 속에 잠긴 사도 바울 —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시는 성령의 내적 조명.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뜻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성령의 불가결성 (*Necessitas Spiritus*):
2.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모든 구원의 보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적용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3.1.1).
3. 거룩한 연합의 띠 (*Vinculum Unionis*):
4.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신비롭고 유기적으로 연합시켜,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하는 유일한 띠이십니다 (3.1.1).
5. 믿음의 유일한 조성자 (*Auctor Fidei*):
6. 인간의 타락한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초자연적 조명과 인치심을 통해서만 참된 믿음에 도달합니다 (3.1.3~4).
7. 성령의 다양한 성경적 표상들:
8. 성경은 성령을 영적 목마름을 축이는 '생수', 더러움을 태우는 '불', 은혜를 덧입히는 '기름부음', 영원한 구원을 확증하는 '보증과 인침'으로 계시합니다 (3.1.3).
9. 말씀과 성령의 불가분적 일치 (*Cum Verbo et Per Verbum*):
10. 성령은 결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떠나 사사로운 환상으로 일하지 않으시며, 오직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3.1.4).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연합 진단]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2천 년 전의 역사적 사건에 머물지 않고, 오늘 내 심령 속에 성령으로 실체화된 구원임을 확신하는가?
 2. **[내주 진단]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며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심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는가?
 3. **[조명 진단]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내 지적 능력이 아닌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며,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가?
 4. **[분별 진단] 감정적 흥분이나 비성경적 환상을 좇지 않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건전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가?
 5. **[기쁨 진단]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시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의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가?
-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은밀한 역사와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로마서 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니까?
- 질문 2 (요한복음 14:16-17):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 A: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로움은 하늘 보좌에만 머물 뿐 우리의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창조하사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생명으로 결합시키시기 때문입니다.
- Q2: 은사주의나 감정적 체험에 치우친 성도를 어떻게 지도해야 합니까?
- A: 성령의 가장 위대한 열매는 방언이나 신비체험 이전에 '말씀을 깨닫는 눈'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룩한 성화'임을 차근차근 권면해 주십시오.

제37장: 참된 믿음의 정의와 특성: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 막연한 감정을 넘어선 성령의 인침 (Book 3, Ch. 2)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2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37주 (제3권 제2장: 참된 믿음의 정의와 특성)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신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엠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가톨릭은 교회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암묵적 믿음(fides implicita)'이나 구원의 확신이
결여된 불확실한 동의를 믿음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란 막연한
종교적 추측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약속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cognitio)이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인쳐진 것'임을 천명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며,”

2. 강의 학습 목표

1. 로마 교회의 '암묵적 신앙'을 배격하고, 칼빈의 고전적 '믿음의 정의'를 원전으로 정립한다.
2. 믿음의 대상(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자비)과 믿음의 주체(성령의 조명)를 체계화한다.
3. 신자의 삶 속에서 겪는 의심과 영적 씨름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보존되는지 변증한다.
4. 머리로만 아는 지적 동의를 넘어 심장에 새겨지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긴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거짓 믿음의 안개를 걷어내다: 왜 믿음의 정의가 중요한가?
(3.2.1~2)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암묵적 신앙(Fides Implicita)의 맹점과 성경적 지식의 우위
(3.2.3~6)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칼빈의 믿음의 정의: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과 성령의 인치심
(3.2.7~14)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신자의 연약함과 의심: 믿음의 시련과 승리의 확신
(3.2.15~28)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믿음의 뿌리인 하나님의 자비와 열매인 담대한 안식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장, “참된 믿음의 정의와 특성”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암묵적 신앙(Fides Implicita)의 맹점과 성경적 지식의 우위 (3.2.3~6) (10:00 ~ 22:00)

원전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참된 믿음의 본질적 정의 (*Fidei Definitio*)'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에 기초하여 성령으로 심장에 인쳐진 것입니다 (3.2.7).”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암묵적 신앙의 허상 분쇄'입니다:

“성경과 교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교회가 가르치는 바를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로마 교회의 암묵적 신앙은 미신에 불과하며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3.2.3~5).”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Caravaggio, The Incredulity of Saint Thomas (1601–1602)』을 주목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도마 — 인간의 의심을 깨뜨리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는 참된 믿음의 확신으로 이끄시는 주님.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믿음의 지식성과 심장성 (*Cognitio et Affectus*)'입니다:

“믿음은 지성(지식)에 빛을 비추는 것으로 시작하여 심장(감정과 의지)에 뿌리를 내리는 전인격적 확신입니다 (3.2.8, 3.2.33).”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신자의 연약함과 믿음의 잔재'입니다:

“참된 신자라도 의심과 두려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께서 심어주신 믿음의 작은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고 승리합니다 (3.2.17~20).”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신자의 연약함과 의심: 믿음의 시련과 승리의 확신 (3.2.15~28)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Rembrandt Abraham and the Angels)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 히브리서 11:1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 에베소서 3:12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구원의 확신과 영적 담대함 (Plerophoria)'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므로 양심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며, 죽음과 심판 앞에서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합니다 (3.2.15~16).”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Rembrandt van Rijn, Abraham and the Angels (1646)』을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아브라함 —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개혁신학적 믿음의 전형.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뜻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참된 믿음의 본질적 정의 (*Fidei Definitio*):
2.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에 기초하여 성령으로 심장에 인쳐진 것입니다 (3.2.7).
3. 암묵적 신앙의 허상 분쇄:
4. 성경과 교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교회가 가르치는 바를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로마 교회의 암묵적 신앙은 미신에 불과하며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3.2.3~5).
5. 믿음의 지식성과 심장성 (*Cognitio et Affectus*):
6. 믿음은 지성(지식)에 빛을 비추는 것으로 시작하여 심장(감정과 의지)에 뿌리를 내리는 전인격적 확신입니다 (3.2.8, 3.2.33).
7. 신자의 연약함과 믿음의 잔재:
8. 참된 신자라도 의심과 두려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께서 심어주신 믿음의 작은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고 승리합니다 (3.2.17~20).
9. 구원의 확신과 영적 담대함 (*Plerophoria*):
10.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므로 양심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며, 죽음과 심판 앞에서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합니다 (3.2.15~16).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지식 진단] 내 믿음은 성경 말씀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참된 지식'에 뿌리내리고 있는가?
 2. **[확신 진단] 내 감정의 기복이나 행위의 완벽함에 의존하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구원의 확신을 두고 있는가?
 3. **[시련 진단] 삶의 고난과 영적 의심이 밀려올 때, 절망에 빠지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불씨를 붙들고 씨름하는가?
 4. **[대상 진단] 나의 열심이나 믿음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만을 바라보는가?
 5. **[평안 진단]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아들의 영 안에서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믿음의 정의와 특성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히브리서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 질문 2 (에베소서 3:12):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드는데, 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라고 묻는 성도에게는?

-

신, 확신과 두려움 사이에서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이 드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Q2: 맹목적인 '믿습시다' 식의 기복 신앙을 어떻게 교정해야 합니까?

- A: 믿음은 대상이 없는 감정적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지식임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읽고 묵상하도록 안내하십시오.

제38강: 믿음으로 말미암는 중생과 회개: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일평생에 걸친 자아의 죽음과 영의 새 생명 — 복음적 회개의 본질 (Book 3, Ch. 3)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3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38주 (제3권 제3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중생과 회개)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엠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Regeneratio)'을 다룹니다. 많은 이들이 회개를 칭의의 선행 조건으로 오해하지만, 칼빈은 회개가 참된 믿음에서 솟아나는 거룩한 열매임을 밝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어,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죽임(mortificatio)'과 성령 안에서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살림(vivificatio)'으로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단 한 번의 눈물 흘림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자아를 부인하고 성화되어 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어 옛사람을 죽이고”

2. 강의 학습 목표

1. 믿음과 회개의 유기적 관계(믿음에서 솟아나는 회개)를 구원론적으로 정립한다.
2. 회개의 2대 요소인 '옛사람의 죽임(Mortificatio)'과 '새사람의 살림(Vivificatio)'을 체계화한다.
3. 회개를 일시적 감정 분출이 아닌 일평생에 걸친 성화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4.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모하는 거룩한 거듭남의 열매를 일상의 삶 속에서 맺어간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값싼 은혜를 넘어서: 회개의 성경적 정의와 회복 (3.3.1~2)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믿음에서 피어나는 회개: 선후 관계의 바른 정립 (3.3.3~4)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회개의 두 기둥: 옛사람의 죽임(Mortificatio)과 새사람의 살림(Vivificatio) (3.3.5~9)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일평생의 성화로서의 회개: 완전주의와 도덕폐기론 분쇄 (3.3.10~15)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참된 회개의 7대 열매(고후 7:11)와 평신도의 거룩한 순종 (3.3.16~21)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3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중생과 회개”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믿음에서 피어나는 회개: 선후 관계의 바른 정립 (3.3.3~4)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Guercino Tears of Saint Peter 및 원전 정본 강독)

첫 번째 테제는 바로 '회개의 참된 정의 (*Poenitentiae Definitio*)'입니다:

“회개는 우리 삶을 참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진지한 두려움에서 생겨나며, 육과 옛사람의 죽음과 영의 살림으로 이루어집니다 (3.3.5).”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믿음과 회개의 관계'입니다:

“회개는 결코 믿음에 앞서 인간이 행하는 공로적 조건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맞본 참된 믿음의 토양에서만 복음적 회개가 싹틔입니다 (3.3.1~2).”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Guercino, The Tears of Saint Peter (1639)』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을 부인한 후 닭 우는 소리에 통곡하는 베드로 — 복음의 빛 앞에서 옛사람의 죽음과 참된 복음적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의 모범.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2대지] 회개의 두 기둥: 옛사람의 죽음(*Mortificatio*)과 새사람의 살림(*Vivificatio*)
(3.3.5~9)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тезе는 '죽임과 살림의 이중 구조 (*Mortificatio et Vivificatio*)'입니다:

“육적 본성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력화하는 죽임과, 성령의 활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살림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3.3.8~9).”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тезе는 '평생에 걸친 회개의 지속성'입니다:

“중생한 성도 안에도 여전히 죄의 잔재(*fomes peccati*)가 남아 있기에, 회개는 일회적 통과 의례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치러야 할 영적 전투입니다 (3.3.10~14).”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일평생의 성화로서의 회개: 완전주의와 도덕폐기론 분쇄 (3.3.10~15)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Rembrandt Judas Returning the Thirty Pieces of Silver)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 고린도후서 7:10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 에스겔 36:26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복음적 회개와 율법적 후회의 구별'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형벌의 공포 때문에 절망하는 것은 율법적 후회요, 베드로처럼 주님의 자비로운 눈빛 앞에서 통곡하며 돌이키는 것이 복음적 회개입니다 (3.3.4).”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Rembrandt van Rijn, Judas Returning the Thirty Silver Pieces (1629)』을 보십시오.

은 삼십을 제사장들에게 던지며 절망하는 유다 — 용서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거짓 회개(세상 근심)의 비참함.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닮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3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회개의 참된 정의 (*Poenitentiae Definitio*):
2. 회개는 우리 삶을 참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진지한 두려움에서 생겨나며, 육과 옛사람의 죽임과 영의 살림으로 이루어집니다 (3.3.5).
3. 믿음과 회개의 관계:
4. 회개는 결코 믿음에 앞서 인간이 행하는 공로적 조건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맞본 참된 믿음의 토양에서만 복음적 회개가 싹틔입니다 (3.3.1~2).
5. 죽임과 살림의 이중 구조 (*Mortificatio et Vivificatio*):
6. 육적 본성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력화하는 죽임과, 성령의 활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살림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3.3.8~9).
7. 평생에 걸친 회개의 지속성:
8. 중생한 성도 안에도 여전히 죄의 잔재(*fomes peccati*)가 남아 있기에, 회개는 일회적 통과 의례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치러야 할 영적 전투입니다 (3.3.10~14).
9. 복음적 회개와 율법적 후회의 구별:
10. 가룟 유다처럼 형벌의 공포 때문에 절망하는 것은 율법적 후회요, 베드로처럼 주님의 자비로운 눈빛 앞에서 통곡하며 돌이키는 것이 복음적 회개입니다 (3.3.4).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돌이킴 진단] 내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자책이나 형벌의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인가?
 2. **[죽임 진단]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기심과 탐욕, 음란과 교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3. **[살림 진단] 죄를 피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거룩을 적극적으로 즐거워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4. **[지속성 진단] 과거의 회개 체험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부패함을 직시하며 회개하는가?
 5. **[열매 진단] 고린도후서 7:11이 증언하는 간절함과 애통함과 거룩한 두려움의 열매가 내 대인관계와 직장 생활에서 나타나는가?
-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중생과 회개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고린도후서 7: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 됩니까?
- 질문 2 (에스겔 36:26):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 A: 구원의 법적 신분(칭의)은 단번에 주어졌으나, 성도의 내면에는 여전히 죄의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매일 손발을 씻듯이 회개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설명해 주십시오.
- Q2: 죄책감 때문에 절망에 빠진 성도를 어떻게 위로해야 합니까?
- A: 성령의 책망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사탄의 참소와 다릅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신 후 즉시 십자가의 넘치는 자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히 크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제39강: 스콜라 신학의 거짓 회개론 비판: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고해성사와 보속의 멍에를 깨뜨리고 십자가 은혜로 나아감 (Book 3, Ch. 4)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4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39주 (제3권 제4장: 스콜라 신학의 거짓 회개론 비판)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Confessio Auricularis)와 보속설(Satisfactio)'을 성경의 칼날로 낱알이 해체합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은 회개를 '통회(contritio), 고백(confessio), 보속(satisfactio)'의 세 단계로 쪼개고, 사제에게 모든 은밀한 죄를 낱알이 털어놓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양심을 결박했습니다. 또한 금식이나 순례 같은 인간의 행위로 죄의 형벌을 보속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칼빈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완전한 십자가 대속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사탄의 장치임을 폭로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39장: 스콜라 신학의 거짓 회개론 비판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2. 강의 학습 목표

1. 중세 스콜라 신학의 3단계 회개론(통회·고백·보속)의 반성정적 허구성을 파헤친다.
2. 사제 고해의 명예를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성경적 죄 고백을 회복한다.
3.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보속(satisfactio)임을 확인하고, 인간 행위 보속설을 논파한다.
4. 율법적 정죄와 교권의 속박에서 벗어나 복음이 주는 완전한 용서와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영혼을 결박한 중세의 족쇄: 고해성사의 비극적 실상 (3.4.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통회(Contritio)의 덫: 완전한 슬픔을 요구하는 고문실 (3.4.2~3)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귓속말 고해(Confessio Auricularis)의 성경적 근거 박멸과 교권주의 폭로 (3.4.4~18)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보속(Satisfactio)의 신성모독: 그리스도의 피를 무력화하는 인간의 대가 (3.4.25~30)

•

(3.4.19~24)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십자가의 온전한 사죄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결단

Ⅱ. 정식 60분 폴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4장, “스콜라 신학의 거짓 회개론 비판”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웁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통회(Contritio)의 뜻: 완전한 슬픔을 요구하는 고문실 (3.4.2~3) (10:00 ~ 22:00)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스콜라주의 통회설의 잔혹성'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슬픔을 쏟아내야만 용서받는다든 주장은 어떤 인간도 도달할 수 없는 절망의 고문실에 양심을 밀어 넣는 것입니다 (3.4.2~3).”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사제 귓속말 고해의 비성경성'입니다:

“사제에게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낱알이 열거해야 한다는 법은 교회의 인위적 횡포이며, 성경은 오직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직접 고백할 것을 명합니다 (3.4.4~7).”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Lucas Cranach Confession Woodcut』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39강: 스콜라 신학의 거짓 회개론 비판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2대지] 귓속말 고해(*Confessio Auricularis*)의 성경적 근거 박멸과 교권주의 폭로
(3.4.4~18) (22:00 ~ 34:00)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성령이 인정하는 참된 죄 고백'입니다:

“성령이 명하는 고백은 (1) 하나님 앞에서의 은밀한 자백, (2) 이웃에게 지은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 (약 5:16), (3) 공동체의 공적 죄에 대한 회개뿐입니다 (3.4.9~12).”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인간 보속설의 십자가 모독'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외에 인간의 고행이나 금식이나 헌금으로 죄책과 형벌을 보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을 짓밟는 신성모독입니다 (3.4.25~27).”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보속(*Satisfactio*)의 신성모독: 그리스도의 피를 무력화하는 인간의 대가
(3.4.25~30)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Philippe de Champaigne Saint Augustine)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셀라)”

— 시편 32:5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 마태복음 9:6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천국 열쇠 권세의 참뜻
(*Potestas Clavium*)'입니다:

“사제가 사죄권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할 때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사죄를 확증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3.4.14~15).”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Philippe de Champaigne Saint Augustine』을 보십시오.

구속의 은혜를 삶과 성화의 열매로 증거하는 거룩한 시각적 감동.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닿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4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스콜라주의 통회설의 잔혹성:
2.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슬픔을 쏟아내야만 용서받는다든 주장은 어떤 인간도 도달할 수 없는 절망의 고문실에 양심을 밀어 넣는 것입니다 (3.4.2~3).
3. 사제 귓속말 고해의 비성경성:
4. 사제에게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낱알이 열거해야 한다는 법은 교회의 인위적 횡포이며, 성경은 오직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직접 고백할 것을 명합니다 (3.4.4~7).
5. 성경이 인정하는 참된 죄 고백:
6. 성경이 명하는 고백은 (1) 하나님 앞에서의 은밀한 자백, (2) 이웃에게 지은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약 5:16), (3) 공동체의 공적 죄에 대한 회개뿐입니다 (3.4.9~12).
7. 인간 보속설의 십자가 모독:
8.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외에 인간의 고행이나 금식이나 헌금으로 죄책과 형벌을 보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을 짓밟는 신성모독입니다 (3.4.25~27).
9. 천국 열쇠 권세의 참뜻 (*Potestas Clavium*):
10. 사제가 사죄권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할 때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사죄를 확증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3.4.14~15).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사죄 확신 진단] 내 죄가 사제나 목회자의 선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완전히 씻겨졌음을 확신하는가?
 2. **[양심 자유 진단]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어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보상하려 하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가?
 3. **[직접 고백 진단]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한 심령으로 솔직하게 죄를 자백하는가?
 4. **[화해 진단]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체면을 차리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도모하는가?
 5. **[복음 전파 진단] 천국 열쇠의 권세가 복음의 말씀에 있음을 믿고, 죄책에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를 담대히 전하는가?
-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콜라 신학의 거짓 회개론 비판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시편 32: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 질문 2 (마태복음 9:6):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야고보서 5:16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에는?

-

니다. 성도 간에 서로 잘못된 죄를 솔직히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라는 사랑의 권면이지, 사제주의적 고해성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Q2: 하나님께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죄책감이 떠나지 않는 성도에게는?

- A: 그 죄책감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참소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9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을 붙들고, 십자가의 피가 이미 모든 죄를 도말하셨음을 선포해 주십시오.

제40강: 보속설의 연장: 면죄부와 연옥의 허상: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훼손하는 인간적 교권 장삿속 고발 (Book 3, Ch. 5)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5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40주 (제3권 제5장: 보속설의 연장: 면죄부와 연옥의 허상)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연옥(Purgatorium)' 교리를 정면으로 격파합니다. 로마 교회는 순교자들과 성인들이 쌓아놓은 여분의 공로가 천국의 '공로의 보물창고(thesaurus meritorum)'에 쌓여 있으며, 교황이 열쇠로 이를 꺼내어 돈을 받고 팔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죽은 신자들이 연옥의 불 속에서 남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협박하며 유가족들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칼빈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무한하고 완전한 피의 대속을 값싼 동전 조각으로 전락시킨 가증한 우상숭배임을 통렬히 고발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40장: 보속설의 연장: 면죄부와 연옥의 허상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2. 강의 학습 목표

1. 교황청의 '잉여 공로설'과 면죄부 장사의 반성정적 사기성을 명쾌하게 논파한다.
2. 연옥 교리가 성경의 증언이 아니라 이방 철학(플라톤주의)과 사제들의 탐욕에서 유래했음을 증명한다.
3.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유일한 '연옥(정화)'임을 성경 원문으로 확증한다.
4. 죽음의 공포와 연옥의 미신에서 벗어나, 죽는 즉시 주님 품에 안기는 참된 소망을 확립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탐욕으로 물든 중세 교회: 테첼의 면죄부 판매와 종교개혁의 도화선 (3.5.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잉여 공로설(Thesaurus Meritorum)의 허상과 성도 공로의 본질 (3.5.2~4)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연옥(Purgatorium) 신화의 기원: 플라톤주의와 교권의 결탁 (3.5.6~8)

•

(3.5.9~10)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피 흘리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정결이심 (3.5.6)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십자가 신앙의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5장, “보속설의 연장: 면죄부와 연옥의 허상”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Lucas Cranach Selling of Indulgences* 및 원전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면죄부 교리의 신성모독성'입니다:

“면죄부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100% 지불된 죄책과 형벌을 인간 사제가 돈을 받고 사면해 줄 수 있다는 가증한 사기극입니다 (3.5.1~2).”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성인의 잉여 공로설 분쇄'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며, 성인들조차 스스로의 죄 사함을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빌려야 했던 죄인들입니다 (3.5.3).”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Lucas Cranach Selling of Indulgences*』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40장: 보속설의 연장: 면죄부와 연옥의 허상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유일한 연옥'입니다:

“성경은 신자의 죄를 정화하는 불을 말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요일 1:7)'는 피의 정화만을 선포합니다 (3.5.6).”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연옥 교리의 폐해'입니다:

“연옥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자비한 고문관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반쪽짜리로 격하시키며 영혼을 평생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3.5.6~7).”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성경 본문 왜곡 바로잡기: 고전 3:15, 마 12:32의 참된 해석 (3.5.9~10) (34:00 ~ 46:00)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 히브리서 9:12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 베드로전서 1:18-19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신자의 죽음과 즉각적인 안식'입니다:

“성경은 신자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즉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고 증언합니다 (빌 1:23, 눅 23:43, 계 14:13) (3.5.8).”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Hieronymus Bosch Fall of the Damned』을 보십시오.

구속의 은혜를 삶과 성화의 열매로 증거하는 거룩한 시각적 감동.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닮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 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5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면죄부 교리의 신성모독성:
2. 면죄부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100% 지불된 죄책과 형벌을 인간 사제가 돈을 받고 사면해 줄 수 있다는 가증한 사기극입니다 (3.5.1~2).
3. 성인의 잉여 공로설 분쇄:
4.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며, 성인들조차 스스로의 죄 사함을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빌려야 했던 죄인들입니다 (3.5.3).
5. 그리스도의 피가 유일한 연옥:
6. 성경은 신자의 죄를 정화하는 불을 말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요일 1:7)'는 피의 정화만을 선포합니다 (3.5.6).
7. 연옥 교리의 폐해:
8. 연옥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자비한 고문관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반쪽짜리로 격하시키며 영혼을 평생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3.5.6~7).
9. 신자의 죽음과 즉각적인 안식:
10. 성경은 신자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즉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고 증언합니다(빌 1:23, 눅 23:43, 계 14:13) (3.5.8).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십자가 충분성 진단] 내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 다른 어떤 공로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2. **[죽음관 진단]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 연옥이나 막연한 공포가 아닌, 즉시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는가?
3. **[인간 우상화 배경] 목회자나 유명한 성자를 지나치게 신격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영원한 중보자로 바라보는가?
4. **[기복적 현금 경제] 현금이나 종교적 봉사를 나의 죄를 탕감받거나 축복을 사내기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지 않는가?

기록된 복음의 순결함을 지키고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속설의 연장: 면죄부와 연옥의 허상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히브리서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니까?
- 질문 2 (베드로전서 1:18-19):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 Q1: '고린도전서 3:15의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연옥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에는?
- A: 바울이 말한 불은 연옥의 불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날에 사역자들의 가르침과 공력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태우는 물리적 불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임을 명확히 가르쳐 주십시오.
- Q2: 세상을 떠난 부모나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미사나 위령 기도를 바라는 성도에게는?
- A: 죽은 자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며, 산 자가 죽은 자의 영혼 상태를 바꿀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 따뜻하게 위로하고 살아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제41강: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경의 가르침: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함을 향한 부르심과 거룩의 동기 (Book 3, Ch. 6)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6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41주 (제3권 제6장: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경의 가르침)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엠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Christiani)』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전개합니다. 칼빈은 질문합니다: '오직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칼빈은 철학자들의 메마른 도덕론이나 율법주의적 공로 사상을 배격하고, 성도의 성화의 유일한 동기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자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와의 생명적 연합의 필연적 열매'임을 밝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41강: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경의 가르침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2. 강의 학습 목표

1.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율법적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임을 확증한다.
2. 신구약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삶의 통일된 규범으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체계화한다.
3. 말뿐인 신앙고백에 머무는 위선과 도덕폐기론의 거짓된 영성을 단호히 논파한다.
4. 완전주의의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전진하며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의 자세를 함양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성화의 출발점: 왜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3.6.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목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감 (3.6.2)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델: 그리스도와와의 신비적 일치 (3.6.3)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복음의 참된 지식: 허끝의 자랑이 아닌 삶의 체화 (3.6.4)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완전주의의 경계와 점진적 성화의 순례길 (3.6.5)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6장,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경의 가르침”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웁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목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감 (3.6.2)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Rembrandt Moses with the Tablets 및 원전 정본 강독)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성도의 성화의 유일한 동기'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획득하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3.6.2).”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일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외적 계명의 준수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온유와 순종의 형상을 삶 속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3.6.3).”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Rembrandt Moses with the Tablets』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41강: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경의 가르침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2대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델: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일치 (3.6.3)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복음의 교리는 허끝으로 논쟁하는 사변이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침투하여 감정과 온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3.6.4).”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점진적 성화와 완전주의 배경'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완전무결한 도덕적 완전성에 도달할 수 없으나,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며 끊임없이 쫓대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3.6.5).”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복음의 참된 지식: 허끝의 자랑이 아닌 삶의 체화 (3.6.4)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Caravaggio Saint Francis in Ecstasy)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로마서 12:1-2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 하셨느니라”

— 베드로전서 1:15-16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철학적 도덕론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세속 철학자들은 인간의 자부심과 자율적 의지를 부추기지만, 복음은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거룩을 추구하게 합니다 (3.6.1~2).”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Caravaggio Saint Francis in Ecstasy』을 보십시오.

구속의 은혜를 삶과 성화의 열매로 증거하는 거룩한 시각적 감동.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닿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6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2.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획득하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3.6.2).
3.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일치:
4.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외적 계명의 준수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온유와 순종의 형상을 삶 속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3.6.3).
5. 참된 신앙 지식의 성격:
6. 복음의 교리는 허끝으로 논쟁하는 사변이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침투하여 감정과 온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3.6.4).
7. 점진적 성화와 완전주의 배경:
8. 성도는 이 땅에서 완전무결한 도덕적 완전성에 도달할 수 없으나,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며 끊임없이 쫓대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3.6.5).
9. 철학적 도덕론과 복음의 차이:
10. 세속 철학자들은 인간의 자부심과 자율적 의지를 부추기지만, 복음은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거룩을 추구하게 합니다 (3.6.1~2).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동기 진단] 내가 경건 생활과 순종에 힘쓰는 동기가 사람의 칭찬이나 구원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인가?
2. **[제화 진단] 내 신앙 지식이 머리와 허끝의 교리에 머물지 않고, 매일의 언어와 선택과 행동 속에서 실제로 살아 숨쉬는가?
3. **[전진 진단] 과거의 영적 경험이나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쫓대를 향해 날마다 조금씩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가?
4. **[겸손 진단] 자신의 연약함과 죄의 잔재를 직시하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겸손히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는가?
5. **[거룩 진단]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구별됨의 자부심을 지키고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경의 가르침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로마서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 됩니까?
- 질문 2 (베드로전서 1:15-16):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지 않습니까?'라는 방종주의자에게는?
- A: 칼빈은 '그리스도는 결코 쪼갤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리스도를 칭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필연적으로 그분을 성화의 주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다면 그의 믿음은 죽은 거짓 믿음임을 엄중히 일깨워 주십시오.
- Q2: 자신의 성화가 너무 느려 자책하는 성도에게는?

-

다. 칼빈의 위로처럼 비록 비틀거리고 넘어질지라도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제42강: 그리스도인 삶의 요체: 자기부인: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내 뜻과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이웃을 섬김 (Book 3, Ch. 7)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7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42주 (제3권 제7장: 그리스도인 삶의 요체: 자기부인)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엠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Abnegatio Nostri)'을 선포합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의 뿌리 깊은 질병은 '자기애(philautia)'와 자울성에 대한 교만한 집착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Non sumus nostri)!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Dei sumus)!'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뜻과 이성을 포기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자이며,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참된 섬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42강: 그리스도인 삶의 요체: 자기부인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2. 강의 학습 목표

1.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칼빈의 자기부인 명제를 체계화한다.
2. 타락한 인간 본성의 핵심 질병인 자기애(philautia)의 파괴적 실상을 밝히고 논파한다.
3. 이웃 사랑의 참된 근거가 상대방의 자격이 아니라 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에 있음을 확립한다.
4. 내 뜻과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청지기 삶을 결단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기독교 윤리의 심장: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3.7.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소유권의 이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전인격적 헌신 (3.7.1~3)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자기애(Philautia)의 척결과 참된 겸손의 미덕 (3.7.4)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이웃 사랑: 원수까지 품는 복음적 사랑 (3.7.5~7)

•

(3.7.8~10)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자아의 왕좌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결단

Ⅱ. 정식 60분 폴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7장, “그리스도인 삶의 요체: 자기부인”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웁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소유권의 이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전인격적 헌신 (3.7.1~3) (10:00 ~ 22:00)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소유권의 근본적 전복 (*Non Sumus Nostrum*)'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므로 우리의 이성과 뜻이 우리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3.7.1).”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자기애(*Philautia*)의 치명적 독소'입니다:

“인간의 모든 악의 근원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사랑하려는 맹목적 자기애이며, 이는 오직 성령의 겹으로 자아를 부인할 때에만 뿌리 뽑힙니다 (3.7.4).”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Rembrandt Saint Paul in Prison』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42강: 그리스도인 삶의 요체: 자기부인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2대지] 자기애(*Philautia*)의 척결과 참된 겸손의 미덕 (3.7.4)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тезис은 '이웃 사랑의 유일한 동기 —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웃이 아무리 악하고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3.7.6).”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тезис은 '참된 관용과 판단 중지'입니다:

“성도는 남의 허물을 비판하기보다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며, 이웃의 장점을 기뻐하고 단점을 사랑의 온유함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3.7.4~5).”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이웃 사랑: 원수까지 품는 복음적 사랑 (3.7.5~7)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Georges de La Tour Penitent Magdalen)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 누가복음 9:23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 갈라디아서 2:20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온전한 의탁'입니다:

“자기부인의 성도는 부와 명예를 스스로 쟁취하려 혈안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 주심만을 바라보며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합니다 (3.7.8~10).”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Georges de La Tour Penitent Magdalen』을 보십시오.

구속의 은혜를 삶과 성화의 열매로 증거하는 거룩한 시각적 감동.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닦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7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소유권의 근본적 전복 (*Non Sumus Nostrī*):
2.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므로 우리의 이성과 뜻이 우리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3.7.1).
3. 자기에(*Philautia*)의 치명적 독소:
4. 인간의 모든 악의 근원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사랑하려는 맹목적 자기에이며, 이는 오직 성령의 점으로 자아를 부인할 때에만 뿌리 뽑힙니다 (3.7.4).
5. 이웃 사랑의 유일한 동기 — 하나님의 형상:
6. 이웃이 아무리 악하고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3.7.6).
7. 참된 관용과 판단 중지:
8. 성도는 남의 허물을 비판하기보다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며, 이웃의 장점을 기뻐하고 단점을 사랑의 온유함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3.7.4~5).
9.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온전한 의탁:
10. 자기부인의 성도는 부와 명예를 스스로 쟁취하려 혈안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 주심만을 바라보며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합니다 (3.7.8~10).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주권 진단] 내 삶의 시간, 재정, 진로, 인간관계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인정하는가?
2. **[자기에 진단]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존심이 상할 때, 분노와 복수심 대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아를 내려놓는가?
3. **[형상 진단] 나와 성격이 맞지 않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을 대할 때, 그 사람 안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노력하는가?
4. **[섬김 진단] 이웃을 도울 때 보상이나 감사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하듯 대가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섬기는가?
5. **[자족 진단] 세상의 성공과 비교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내 몫에 감사하며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 삶의 요체: 자기부인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누가복음 9:23):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 질문 2 (갈라디아서 2:20):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자기부인을 하면 자아 존중감이 무너지고 비참해지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는?
- A: 칼빈이 말하는 자기부인은 열등감이나 자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교만하고 썩어질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라는 가장 영광스럽고 건강한 참 자아를 회복하는 해방의 축복임을 설명해 주십시오.

-

- A: 그 사람의 성품이나 행동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위에 겹쳐진 '그리스도의 얼굴'과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품으셨듯 성령께서 그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구하도록 권면하십시오.

제43강: 십자가를 지는 삶과 인내의 연단: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성도를 연단하시는 사랑의 채찍 (Book 3, Ch. 8)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8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43주 (제3권 제8장: 십자가를 지는 삶과 인내의 연단)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Toleratio Crucis)'을 다룹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과 질병, 가난과 박해가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칼빈은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나 우연한 불운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육 경륜(pedagogia divina)'임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며, 영원한 하늘 영광을 사모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43강: 십자가를 지는 삶과 인내의 연단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2. 강의 학습 목표

1. 고난과 환난이 저주가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성적 연단임을 확증한다.
2. 성도가 겪는 십자가의 5대 영적 유익(겸손, 순종, 훈련, 내세 소망, 위로)을 체계화한다.
3. 감정을 억압하는 스토아 철학의 무감각(Apathia)을 배격하고, 성경적 눈물과 인내를 변증한다.
4.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인내하는 십자가 영성을 실천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성도의 고난: 피할 수 없는 십자가와 구속의 신비 (3.8.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그리스도와 의 고난 연합: 만형의 발자취를 따르는 은혜 (3.8.1~2)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십자가의 영적 목적: 교만 파쇄와 절대적 의탁의 훈련 (3.8.3~6)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스토아 철학(Apathia) 격파: 성도의 정당한 슬픔과 거룩한 인내 (3.8.8~10)

•

3.8.11)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결단

Ⅱ. 정식 60분 폴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8장, “십자가를 지는 삶과 인내의 연단”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웁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그리스도와의 고난 연합: 만행의 발자취를 따르는 은혜 (3.8.1~2) (10:00 ~ 22:00)

원전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치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의 동참'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지체인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되었습니다 (3.8.1).”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교만 파쇄와 겸손의 훈련'입니다:

“성도는 평안할 때 자신의 의와 힘을 과신하기 쉬우므로, 하나님은 고난의 막대기로 우리의 헛된 자부심을 깨뜨리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3.8.2~3).”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Hieronymus Bosch Christ Carrying Cross Ghent』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43강: 십자가를 지는 삶과 인내의 연단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2대지] 십자가의 영적 목적: 교만 파쇄와 절대적 의탁의 훈련 (3.8.3~6) (22:00 ~ 34:00)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장래 죄악에 대한 예방적 백신'입니다:

“환난은 과거의 죄에 대한 형벌일 뿐만 아니라, 장차 교만과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미리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방책입니다 (3.8.5).”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스토아적 냉담주의(*Apathia*) 배격'입니다:

“성경적 인내는 돌이나 쇠처럼 아픔을 느끼지 않는 무감각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며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3.8.8~10).”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스토아 철학(*Apathia*) 격파: 성도의 정당한 슬픔과 거룩한 인내 (3.8.8~10)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Georges de La Tour *Job Mocked by His Wife*)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 로마서 8:17-18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 야고보서 1:2-4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의를 위한 박해의 영광'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세상에서 비난과 박해를 받을 때, 성도는 하늘의 상급과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심을 확신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3.8.7).”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Georges de La Tour Job Mocked by His Wife』을 보십시오.

구속의 은혜를 삶과 성화의 열매로 증거하는 거룩한 시각적 감동.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닦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8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의 동참:
2. 머리에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지체인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되었습니다 (3.8.1).
3. 교만 파쇄와 겸손의 훈련:
4. 성도는 평안할 때 자신의 의와 힘을 과신하기 쉬우므로, 하나님은 고난의 막대기로 우리의 헛된 자부심을 깨뜨리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3.8.2~3).
5. 장래 죄악에 대한 예방적 백신:
6. 환난은 과거의 죄에 대한 형벌일 뿐만 아니라, 장차 교만과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미리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방책입니다 (3.8.5).
7. 스토아적 냉담주의(*Apathia*) 배격:
8. 성경적 인내는 돌이나 쇠처럼 아픔을 느끼지 않는 무감각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며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3.8.8~10).
9. 의를 위한 박해의 영광:
10. 복음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세상에서 비난과 박해를 받을 때, 성도는 하늘의 상급과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심을 확신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3.8.7).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고난 해석 진단]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선한 뜻을 찾는가?
2. **[겸손 진단] 질병이나 재정적 위기 앞에서 내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3. **[감정 정직 진단] 억지로 괜찮은 척 위선 부리지 않고, 옫과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픔을 쏟아놓는가?
4. **[인내 진단] 눈앞의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가?

확신하며 위로를 얻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과 인내의 연단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로마서 8:17-18):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니까?
- 질문 2 (야고보서 1:2-4):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지 왜 고난을 받습니까?'라는 기복주의 성도에게는?
- A: 신약 성경 전체는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요 16:33, 딤후 3:12). 십자가 없는 영광(No Cross, No Crown)은 거짓 복음이며,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임을 증명하는 거룩한 흔적을 가르쳐 주십시오.
- Q2: 너무 큰 슬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를 어떻게 목회적으로 도와야 할까요?
- A: 선부른 교리적 훈계나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식의 강요를 멈추고, 함께 울어주며 주님께셔도 겹세마네에서 통곡하셨음을 나누십시오. 주님이 그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붙들고 계심을 확신시켜 주십시오.

제44강: 영생에 대한 묵상: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이 땅의 나그네 됨을 인정하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지혜 (Book 3, Ch. 9)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9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44주 (제3권 제9장: 영생에 대한 묵상)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신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옐로우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존 칼빈은 제3권 제9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들어 올리는 '내세에 대한 묵상 (Meditatio Futurae Vitae)'을 가르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땅의 쾌락과 번영에 영혼을

허락하셔서 현세의 헛됨을 빠져리게 맛보게 하십니다. 이는 세상을 증오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나그네 길임을 깨닫고, 장차 올 썩지 않을 영생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닮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44강: 영생에 대한 묵상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2. 강의 학습 목표

1. 현세의 덧없음과 헛됨을 직시하고, 영생의 영광을 묵상하는 성경적 종말론을 확립한다.
2.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고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나가는 순례자 정체성을 회복한다.
3. 염세주의나 도피주의가 아닌, 영생의 빛 아래에서 오늘 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는 지혜를 체계화한다.
4.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소망으로 승리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땅에 묶인 시선을 하늘로: 왜 내세 묵상이 필요한가? (3.9.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현세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교육적 섭리: 세상 애착의 치료 (3.9.1~2)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현세 생명의 참된 가치: 영생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선물 (3.9.3)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영원한 내세의 영광: 눈물과 탄식이 끝나는 천국의 완성 (3.9.4~5)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죽음의 공포 극복과 성도의 담대한 마라나타 신앙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9장, “영생에 대한 묵상”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현세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교육적 섭리: 세상 애착의 치료 (3.9.1~2) (10:00 ~ 22:00)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치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세상 애착의 위험성과 섭리적 치료'입니다:

“인간은 현세의 쾌락에 취해 영생을 망각하기 쉬우므로, 하나님은 인생의 덧없음과 고통을 통해 이 세상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님을 일깨우십니다 (3.9.1~2).”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현세 삶의 올바른 감사와 가치'입니다:

“이 땅의 삶이 비록 헛되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도록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3.9.3).”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Albrecht Durer Adoration of Trinity』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44강: 영생에 대한 묵상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2대지] 현세 생명의 참된 가치: 영생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선물 (3.9.3)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тезе는 '내세 목상이 주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저울에 비추어 볼 때 현세의 환난은 가볍고 일시적인 것이며, 세상의 부귀영화도 한날 아침 안개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3.9.4).”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тезе는 '죽음에 대한 성경적 승리'입니다:

“불신자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파멸이자 심판이지만, 성도에게 죽음은 죄의 사슬을 완전히 벗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품에 안기는 축복의 관문입니다 (3.9.5).”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영원한 내세의 영광: 눈물과 탄식이 끝나는 천국의 완성 (3.9.4~5)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Fra Angelico Last Judgment Paradise)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 고린도후서 4:16-18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쥬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

— 빌립보서 1:21-23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종말론적 갈망과 성도의
안식'입니다:

“참된 신앙은 세상의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주님의
다시 오심과 최후 구속의 완성을 사모합니다 (3.9.5~6).”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Fra Angelico Last Judgment Paradise』을 보십시오.

구속의 은혜를 삶과 성화의 열매로 증거하는 거룩한 시각적 감동.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맞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9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세상 애착의 위험성과 섭리적 치료:
2. 인간은 현세의 쾌락에 취해 영생을 망각하기 쉬우므로, 하나님은 인생의 덧없음과 고통을 통해 이 세상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님을 일깨우십니다 (3.9.1~2).
3. 현세 삶의 올바른 감사와 가치:
4. 이 땅의 삶이 비록 헛되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도록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3.9.3).
5. 내세 목상이 주는 영적 분별력:
6. 영원한 영광의 저울에 비추어 볼 때 현세의 환난은 가볍고 일시적인 것이며, 세상의 부귀영화도 한낱 아침 안개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3.9.4).
7. 죽음에 대한 성경적 승리:
8. 불신자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파멸이자 심판이지만, 성도에게 죽음은 죄의 사슬을 완전히 벗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품에 안기는 축복의 관문입니다 (3.9.5).
9. 종말론적 갈망과 성도의 안식:
10. 참된 신앙은 세상의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주님의 다시 오심과 최후 구속의 완성을 사모합니다 (3.9.5~6).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본향 진단] 나는 이 세상의 성공과 안락에 취해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나그네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2. **[죽음관 진단] 죽음을 생각할 때 막연한 두려움이나 허무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다는 기쁨과 안식의 확신이 있는가?
 3. **[가치관 진단]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썩어질 세상 것을 과도하게 탐하지 않는가?
 4. **[위로 진단] 현실의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 앞에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묵상함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가?
 5. **[재림 대망 진단] 오늘 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고 있는가?
-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생에 대한 묵상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고린도후서 4:16-18):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 질문 2 (빌립보서 1:21-23):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 A: 칼빈은 정반대라고 답합니다.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현세의 물질과 책임을 우상화하지 않고 가장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가장 거룩하게 살아냅니다.
- Q2: 죽음 앞두고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환우나 고령 성도에게는?
- A: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주님 품으로의 이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음을 히브리서 2:14~15을 통해 선포하고 평안을 심어주시옵시오.

제45강: 현세의 물질과 삶을 누리는 청지기 정신: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금욕주의도 방탕도 아닌 하나님 주신 선물의 거룩한 누림 (Book 3, Ch. 10)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10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45주 (제3권 제10장: 현세의 물질과 삶을 누리는 청지기 정신)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가르침인 '현세 생명의 사용법(De Ratione Utendae Praesentis Vitae)'을 제시합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항상 두 극단이 존재했습니다. 한쪽은 모든 물질적 즐거움을 죄악시하는 가혹한 금욕주의(monasticism)였고, 다른 한쪽은 복음의 자유를 빙자하여 탐욕과 낭비에 빠지는 방탕주의였습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물질이 생존의 필요뿐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ad hilaritatem)'을 위해서도 주어졌음을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누리되 청지기로서 절제하는 거룩한 자유의 길을 밝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닮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45강: 현세의 물질과 삶을 누리는 청지기 정신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2. 강의 학습 목표

1. 중세 수도원적 금욕주의와 세속적 방탕주의의 두 극단을 극복하는 성경적 물질관을 확립한다.
2. 하나님께서 물질을 '생존의 필요'뿐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도 주셨음을 확증한다.
3.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4대 청지기 원칙(감사, 절제, 이웃 섬김, 최후 회계)을 체계화한다.
4.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소명(vocatio)'의 거룩함을 깨닫고 충성되게 살아간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물질에 대한 두 가지 극단: 가혹한 금욕주의 vs 세속적 방탕 (3.10.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창조의 목적: 필요를 넘어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 (3.10.2)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절제: 세상에 속박되지 않는 청지기 영성 (3.10.3~4)

•

(3.10.5)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의 일상의 소명(Vocatio)의 거룩함 (3.10.6)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주신 은사를 감사로 누리며 청지기로 충성하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0장, “현세의 물질과 삶을 누리는 청지기 정신”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Pieter Claesz Vanitas Still Life 및 원전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창조물의 선함과 즐거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음식과 옷과 자연을 단지 생명 연장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도록 풍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3.10.2).”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금욕주의의 덧과 바리새적 정죄 배격'입니다:

“성경에 없는 엄격한 규례로 성도의 양심을 얽매어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먹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극단적 금욕주의는 비성경적 미신입니다 (3.10.1).”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Pieter Claesz Vanitas Still Life』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45강: 현세의 물질과 삶을 누리는 청지기 정신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탐욕과 사치에 대한 거룩한 경계'입니다:

“물질의 즐거움에 빠져 창조주를 잊어버리거나 이웃의 굶주림을 외면한 채 사치와 방탕에 영혼을 내어주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3.10.3).”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최후의 청지기 회계 보고 (Redditio Rationis)'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과 재능과 시간은 내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것이며, 마지막 날에 그 사용처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낱알이 계산해야 합니다 (3.10.5).”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최후 심판대 앞에서의 청지기 회계: 소유의 한계와 이웃 나눔 (3.10.5) (34:00 ~ 46:00)

Balance)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고로 이 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 고린도전서 7:29-31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 디모데전서 6:17-19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일상 소명(Vocatio)의 거룩성'입니다:

“수도사나 사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농부, 상인, 부모, 가사노동 등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일상의 직업과 자리가 가장 거룩한 예배의 처소입니다 (3.10.6).”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Johannes Vermeer Woman Holding a Balance』을 보십시오.

구속의 은혜를 삶과 성화의 열매로 증거하는 거룩한 시각적 감동.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닿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0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창조물의 선함과 즐거움의 목적:
2. 하나님은 음식과 옷과 자연을 단지 생명 연장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도록 풍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3.10.2).
3. 금욕주의의 뜻과 바리새적 정죄 배경:
4. 성경에 없는 엄격한 규례로 성도의 양심을 얽매어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먹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극단적 금욕주의는 비성경적 미신입니다 (3.10.1).
5. 탐욕과 사치에 대한 거룩한 경계:
6. 물질의 즐거움에 빠져 창조주를 잊어버리거나 이웃의 굶주림을 외면한 채 사치와 방탕에 영혼을 내어주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3.10.3).
7. 최후의 청지기 회계 보고 (*Redditio Rationis*):
8. 우리가 가진 재물과 재능과 시간은 내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것이며, 마지막 날에 그 사용처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낱알이 계산해야 합니다 (3.10.5).
9. 일상 소명(*Vocatio*)의 거룩성:
10. 수도사나 사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농부, 상인, 부모, 가사노동 등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일상의 직업과 자리가 가장 거룩한 예배의 처소입니다 (3.10.6).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감사 진단] 맛있는 음식과 좋은 환경을 대할 때 죄책감이나 탐욕이 아닌,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누리는가?
2. **[절제 진단] 재정 소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유행이나 허영을 좇지 않고, 분수에 맞게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려보내고 있는가?

4. **[청지기 진단] 내 통장의 잔고와 소유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청지기의 정직함으로 관리하는가?
5. **[소명 진단] 내가 현재 종사하는 직업과 일상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의 현장으로 여기며 충성하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세의 물질과 삶을 누리는 청지기 정신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고린도전서 7:29-31):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고로 이 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 됩니까?
- 질문 2 (디모데전서 6:17-19):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그리스도인이 좋은 옷을 입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 죄입니까?'라는 질문에는?
- A: 칼빈은 하나님께서 색채의 아름다움과 향기, 음악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을 우상화하거나 사치로 치닫지 않는다면 감사함으로 기쁘게 누리는 것은 정당한 성도의 자유입니다.
- Q2: 세상 직업을 '세속적인 것'으로 비하하고 사역자가 되어야만 거룩하다고 여기는 성도에게는?
- A: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가 '만인제사장직과 직업소명론'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뿐 아니라 청소부, 회사원, 교사의 일상적 노동을 똑같이 거룩한 예배로 받으심을 깨우쳐 주십시오.

제46강: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정의와 핵심: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개혁신학의 심장이자 신앙의 경첩: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Book 3, Ch. 11)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11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46주 (제3권 제11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정의와 핵심)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Iustificatio Fidei)'를 선포합니다. 칼빈은 칭의를 '종교를 지탱하는 주된 경첩(praecipuus cardo sustinendae religionis)'이라 불렀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칭의를 성령으로 인간 내면에 주입되는 '도덕적 변화(성화)'로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을 바탕으로, 칭의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 거룩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의를 죄인에게 덧입혀 주사 '죄책을 사하시고 의인으로 선언하시는 법정적 행위(actus forensis)'임을 천명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46강: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정의와 핵심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2. 강의 학습 목표

1. 칭의가 '주입된 도덕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법정적으로 '전가(imputatio)'되는 것임을 증명한다.
2. 칭의를 '종교를 지탱하는 주된 경첩'으로 규정한 칼빈의 구원론적 통찰을 체계화한다.
3. 오시안더의 '본질적 의의 주입설'과 로마 가톨릭의 공로적 의를 철저히 논파한다.
4. 나 자신의 선행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선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종교를 지탱하는 주된 경첩: 칭의 교리의 사활적 중요성 (3.11.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성경적 칭의의 정확한 정의: 죄 사함과 의의 전가 (3.11.2~4)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안드레아스 오시안더의 '본질적 의' 망상 격파 (3.11.5~12)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행위의 의와 믿음의 의의 절대적 양립 불가능성 (3.11.13~18)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솔라 피데(Sola Fide): 믿음은 의를 담는 빈 그릇

Ⅱ. 정식 60분 폴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1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정의와 핵심”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성경적 칭의의 정확한 정의: 죄 사함과 의의 전가 (3.11.2~4)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Lucas Cranach Law and Grace 및 원전 정본 강독)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칭의의 법정적 성격 (*Iustificatio Forensis*)'입니다:

“칭의는 죄인이 의로운 성품으로 변하는 내적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 의인으로 판결하시는 사법적 선언입니다 (3.11.2).”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의의 전가 교리 (*Imputatio Iustitiae*)'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extra nos*)에 있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된 것입니다 (3.11.3).”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Lucas Cranach Law and Grace』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46강: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정의와 핵심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2대지] 안드레아스 오시안더의 '본질적 의' 망상 격파 (3.11.5~12)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그리스도의 신적 본질이 우리 영혼에 물리적으로 흘러들어와 의롭게 된다는 오시안더의 주장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파괴하는 이단설입니다 (3.11.5~10).”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행위와 믿음의 절대적 배타성'입니다:

“칭의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와 믿음은 결코 섞일 수 없으며, 0.001%의 행위 공로라도 섞이는 순간 은혜의 복음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3.11.14~16).”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행위의 의와 믿음의 의의 절대적 양립 불가능성 (3.11.13~18)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Rembrandt Pharisee and Publican)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같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 로마서 3:23-28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 갈라디아서 2:16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믿음의 도구적 성격 (*Instrumentum Fidei*)'입니다:

“믿음 자체가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빈손이자 도구에 불과합니다 (3.11.7).”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Rembrandt Pharisee and Publican』을 보십시오.

구속의 은혜를 삶과 성화의 열매로 증거하는 거룩한 시각적 감동.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닦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1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칭의의 법정적 성격 (*Iustificatio Forensis*):
2. 칭의는 죄인이 의로운 성품으로 변하는 내적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 의인으로 판결하시는 사법적 선언입니다 (3.11.2).
3. 의의 전가 교리 (*Imputatio Iustitiae*):
4. 우리의 의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extra nos)에 있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된 것입니다 (3.11.3).
5. 오시안더의 신비주의적 혼음 분쇄:
6. 그리스도의 신적 본질이 우리 영혼에 물리적으로 흘러들어와 의롭게 된다는 오시안더의 주장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파괴하는 이단설입니다 (3.11.5~10).
7. 행위와 믿음의 절대적 배타성:
8. 칭의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와 믿음은 결코 섞일 수 없으며, 0.001%의 행위 공로라도 섞이는 순간 은혜의 복음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3.11.14~16).
9. 믿음의 도구적 성격 (*Instrumentum Fidei*):
10. 믿음 자체가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빈손이자 도구에 불과합니다 (3.11.7).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칭의 확신 진단]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도덕적 행위나 열심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의 옷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2. **[법정적 평안 진단] 때로 내 마음에 죄책감이 밀려올 때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영원한 무죄 방면을 선언받았음을 믿는가?
3. **[빈손 진단] 내 구원에 나의 작은 선행이나 희생을 보태어 자랑하려는 은밀한 공로주의를 단호히 배격하는가?
4. **[오시안더 경계] 감정적 열광이나 신비주의적 체험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고, 기록된 복음의 약속에 굳게 서 있는가?

나눔을 예배하고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정의와 핵심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로마서 3:23-28):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 됩니까?
- 질문 2 (갈라디아서 2:16):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다른니까?'라고 묻는 성도에게는?
 - A: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으로 선언받는 단번의 사건(신분의 변화)'이며, 성화는 '성령으로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평생의 과정(성품의 변화)'입니다. 둘은 구별되지만 참된 신자 안에서 결코 분리되지 않음을 설명해 주십시오.
- Q2: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죄를 짓는데 정말 의인입니까?'라고 자책하는 성도에게는?
 - A: 루터의 명언처럼 성도는 '동시에 의인이요 죄인(Simul Iustus et Peccator)'입니다. 내 행위로 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흠 없는 의인입니다. 내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바라보도록 격려하십시오.

제47강: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대 앞에 선 인간: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인간의 도덕적 자부심을 깨뜨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 공의 (Book 3, Ch. 12)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12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47주 (제3권 제12장: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대 앞에 선 인간)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엠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각인시키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엄위로운 심판대(Tribunal Dei)' 앞으로 인도합니다. 인간끼리 비교할 때는 스스로를 의롭고 도덕적이라 자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가장 흠 없는 성자의 의조차 더러운 누더기(pannus menstruatus)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기준 앞에 설 때에만 모든 인간은 입을 다물고 오직 값없는 십자가 은혜만을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47강: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대 앞에 선 인간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2. 강의 학습 목표

1. 인간 세상의 상대적 도덕 기준과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의 심판대를 극명하게 대조한다.
2.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의 모든 자화자찬과 위선이 완전히 무너짐을 논증한다.
3. 욕과 다윗과 바울의 고백을 통해 성자가 깨달은 절대적 죄책과 겸손을 체계화한다.
4. 자신의 도덕적 착각을 깨뜨리고, 오직 십자가의 공훈만을 바라는 참된 상한 심령을 회복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인간의 법정과 하나님의 심판대: 시선의 근본적 전환 (3.12.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성: 천사들조차 흠을 발견하지는 거룩한 엄위 (3.12.1~2)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욕기의 증언: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 (3.12.2~3)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다윗의 절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시 143:2) (3.12.3~4)

•

(3.12.5~8)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려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2장,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대 앞에 선 인간”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웁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성: 천사들조차 흠을 발견하지는 거룩한 엄위 (3.12.1~2) (10:00 ~ 22:00)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사람들의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마음의 가장 은밀한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성을 요구합니다 (3.12.1).”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인간 의의 완전한 파산 선고'입니다:

“인간의 가장 빛나는 미덕과 선행조차 하나님의 순결한 거룩함의 빛에 비추면 더러움과 오점으로 가득 찬 찌꺼기일 뿐입니다 (3.12.1, 사 64:6).”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Michelangelo Last Judgment Sistine』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47장: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대 앞에 선 인간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2대지] 욱기의 증언: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 (3.12.2~3)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тезе는 '육의 고백이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육은 동방의 의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엄위 앞에 섰을 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12.2).”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тезе는 '시편 기자의 탄식 (시 143:2)'입니다:

“다윗은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 임하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3.12.3).”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다윗의 절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시 143:2) (3.12.3~4)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Tintoretto Last Judgment Venice)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찌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 욥기 9:2-3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 시편 143:2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참된 안식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피할 길은 인간의 선행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뒤로 온전히 숨는 것뿐입니다 (3.12.4~5).”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Tintoretto Last Judgment Venice』을 보십시오.

구속의 은혜를 삶과 성화의 열매로 증거하는 거룩한 시각적 감동.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닮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2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2. 하나님의 법정은 사람들의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마음의 가장 은밀한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성을 요구합니다 (3.12.1).
3. 인간 의의 완전한 파산 선고:
4. 인간의 가장 빛나는 미덕과 선행조차 하나님의 순결한 거룩함의 빛에 비추면 더러움과 오점으로 가득 찬 찌꺼기일 뿐입니다 (3.12.1, 사 64:6).
5. 욕의 고백이 증명하는 진리:
6. 욕은 동방의 의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엄위 앞에 섰을 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12.2).
7. 시편 기자의 탄식 (시 143:2):
8. 다윗은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 임하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3.12.3).
9. 참된 안식의 유일한 피난처:
10.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피할 길은 인간의 선행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뒤로 온전히 숨는 것뿐입니다 (3.12.4~5).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심판대 진단] 나는 내 신앙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안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엄위로운 거룩 앞에 비추어 보고 있는가?
2. **[위선 진단]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속에 도사린 은밀한 교만과 정욕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시하는가?
3. **[파산 진단]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의가 단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영적 파산자의 심령(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는가?
4. **[두려움 극복]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도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영원한 안전을 확신하고 있는가?
5. **[겸손 진단] 남의 허물을 볼 때 비판하기보다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할 죄인'임을 먼저 자각하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대 앞에 선 인간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요기 9:2-3):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찌라도 ...”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니까?
- 질문 2 (시편 143:2):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하나님을 너무 두려운 분으로 묘사하면 성도들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는?
- A: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의 엄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사랑도 값싼 감상주의로 전락합니다. 지옥의 깊이를 알아야 천국의 은혜가 비로소 측량할 수 없는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

- A: 사람의 법정에서는 선량한 시민일지라도, 온 우주의 창조주 앞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반역죄인임을 성경을 통해 정직하게 일깨워 주십시오.

제48강: 값없는 칭의 교리의 두 가지 요체: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과 성도 양심의 완전한 안식 (Book 3, Ch. 13)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13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48주 (제3권 제13장: 값없는 칭의 교리의 두 가지 요체)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엠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열매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존하신 영광의 보존(Dei gloria illibata)'입니다. 구원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인간에게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강도질하는 가증한 죄입니다. 둘째는 '신자의 양심이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Conscientiarum pax)'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구원의 근거를 두는 한 양심은 평생 연옥과 지옥의 공포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값없는 의에 기댈 때에만 영혼은 참된 안식과 담대한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48강: 값없는 칭의 교리의 두 가지 요체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2. 강의 학습 목표

1. 값없는 칭의 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존하는 유일한 길임을 체계화한다.
2. 행위 공로 사상이 필연적으로 양심의 불안과 영적 파멸을 낳음을 논증한다.
3.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에 뿌리내린 성도의 절대적 평안과 담대한 확신을 확인한다.
4. 어떤 환난과 정죄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영혼의 닦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린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칭의의 두 기둥: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평안 (3.13.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하나님의 영광의 보존: 인간의 모든 자량을 잠재우는 Sola Gratia (3.13.1~2)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양심의 참된 평안: 요동치는 행위의 모래성을 넘어선 반석 (3.13.3~5)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로마 가톨릭의 불안의 영성: 연옥과 의심을 조장하는 거짓 교리 (3.13.3)

- 좌 (3.13.5)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결단
-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3장, “값없는 칭의 교리의 두 가지 요체”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Rembrandt Abraham Faith 및 원전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불가침성'입니다:

“인간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 외에 그 어떤 공로도 인정하지 않을 때에만 하나님은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3.13.1~2).”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행위 칭의론의 필연적 파멸'입니다:

“행위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율법에 기대는 순간 양심은 영원한 고문실에 갇히게 되며, 작은 실수 하나에도 지옥의 공포로 추락합니다 (3.13.3).”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Rembrandt Abraham Faith』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48강: 값없는 칭의 교리의 두 가지 요체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참된 평안의 유일한 반석'입니다:

“양심의 평안은 나의 도덕적 완성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리스도의 완성된 의를 믿음으로 취할 때에만 임합니다 (3.13.3, 롬 5:1).”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성경적 확신과 교황주의의 의심 교리 대결'입니다:

“로마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교만이라 정죄하며 의심을 미덕으로 포장했으나, 성경은 흔들림 없는 확신(plerophoria)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임을 선포합니다 (3.13.4).”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로마 가톨릭의 불안의 영성: 연옥과 의심을 조장하는 거짓 교리 (3.13.3) (34:00 ~ 46:00)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삿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찌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 로마서 4:1-5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 에베소서 2:8-9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담대한 기도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부르짖을 수 있는 권세는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특권에서 나옵니다 (3.13.5).”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Caravaggio Inspiration of Saint Matthew』을 보십시오.

구속의 은혜를 삶과 성화의 열매로 증거하는 거룩한 시각적 감동.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닿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 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3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하나님의 영광의 불가침성:
2. 인간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 외에 그 어떤 공로도 인정하지 않을 때에만 하나님은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3.13.1~2).
3. 행위 칭의론의 필연적 파멸:
4. 행위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율법에 기대는 순간 양심은 영원한 고문실에 갇히게 되며, 작은 실수 하나에도 지옥의 공포로 추락합니다 (3.13.3).
5. 참된 평안의 유일한 반석:
6. 양심의 평안은 나의 도덕적 완성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리스도의 완성된 의를 믿음으로 취할 때에만 임합니다 (3.13.3, 롬 5:1).
7. 성경적 확신과 교황주의의 의심 교리 대결:
8. 로마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교만이라 정죄하며 의심을 미덕으로 포장했으나, 성경은 흔들림 없는 확신(plerophoria)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임을 선포합니다 (3.13.4).
9. 담대한 기도의 기초:
10.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부르짖을 수 있는 권세는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특권에서 나옵니다 (3.13.5).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영광 진단] 내 구원과 신앙의 열매에 대해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100%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가?
2. **[평안 진단] 내 신앙의 감정이나 열심이 식어질 때에도,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는가?
3. **[확신 진단] 구원의 확신을 나의 도덕적 공로에서 찾으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 닦을 내리고 있는가?
4. **[기도 담대함] 죄책감에 짓눌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상한 심령을 안고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가?

나님을 아با 아버지로 부르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값없는 칭의 교리의 두 가지 요체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로마서 4:1-5):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 됩니까?
- 질문 2 (에베소서 2:8-9):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교만해져서 나태해지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는?
 - A: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확신을 가지면 교만해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근거로 확신을 가지면 가슴을 치는 깊은 겸손과 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참된 확신은 나태함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의 헌신을 낳습니다.
- Q2: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성도에게는?
 - A: 평안의 근거를 내 안의 거룩함(성화)에서 찾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밖에서 이루어 입혀주신 완전한 의(칭의)에서 찾도록 로마서 5:1을 통해 복음의 기초를 다시 굳게 세워주십시오.

제49강: 칭의의 시작과 성화의 지속적 과정: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행위로 시작하여 행위로 완성하는 것이 아님: 일평생 칭의의 은혜 (Book 3, Ch. 14)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14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49주 (제3권 제14장: 칭의의 시작과 성화의 지속적 과정)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선행, 최후 심판)로 정밀하게 분석하며, '중생한 성도의 선행조차 결코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증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처음 칭의는 은혜로 받지만, 이후의 칭의는 성도가 행하는 선행 공로로 유지되고 완성된다'는 교활한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칼빈은 성경을 통하여, 거듭난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행조차 육의 오염과 불완전성을 지니고 있기에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대 앞에서는 정죄를 면치 못함을 밝힙니다. 칭의는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49장: 칭의의 시작과 성화의 지속적 과정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2. 강의 학습 목표

1. 인간의 4대 영적 상태 분석을 통해 자력 구원의 완전한 불가능성을 입증한다.
2. 중생한 신자의 선행조차 죄의 잔재로 오염되어 있어 그 자체로는 의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한다.
3. 로마 가톨릭의 '제2 칭의(선행을 통한 칭의 완성)' 궤변을 성경 원문으로 격파한다.
4. 선행의 참된 자리를 회복하여, 공로 의식이 아닌 순수한 감사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긴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인간의 4대 상태 분석: 구원의 전 과정 속의 인간의 실상 (3.14.1~6)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중생 이전의 상태: 선을 행할 능력이 전무한 전적 타락 (3.14.2~5)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중생 이후 성도의 선행: 가장 빛나는 선행 속의 오점 (3.14.9~11)

•

(3.14.12~15)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성도의 선행이 하나님께 열납되는 유일한 비결: 십자가의 덮으심 (3.14.16~21)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불완전한 선행을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결단

Ⅱ. 정식 60분 폴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4장, “칭의의 시작과 성화의 지속적 과정”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웁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중생 이전의 상태: 선을 행할 능력이 전무한 전적 타락 (3.14.2~5)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Caravaggio Conversion of Saint Paul* 및 원전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중생 이전 인간 행위의 전적 무가치성'입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중생 이전의 모든 도덕적 행위는 겉보기에 화려할지라도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므로 죄에 불과합니다 (3.14.2~5).”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중생한 성도의 선행의 불완전성'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선행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부패성이 섞여 있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완벽한 잣대 앞에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3.14.9~10).”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Caravaggio Conversion of Saint Paul*』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49강: 칭의의 시작과 성화의 지속적 과정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보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부분적 행위 칭의의 불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99%를 지킨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없으며, 율법 전체를 항상 온전히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3.14.13, 갈 3:10).”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이중 은혜의 원리 (Duplex Gratia)'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먼저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칭의), 그 후에 그의 불완전한 선행의 흠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사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3.14.16~18).”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행위의 부분적 칭의라는 궤변 격파: 율법의 온전한 요구 (3.14.12~15) (34:00 ~ 46:00)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 빌립보서 3:7-9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 고린도전서 6:11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선행의 참된 동기 회복'입니다:

“선행은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는 공로가 아니라, 죄 용서받은 자녀가 아바 아버지께 드리는 거룩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3.14.19~21).”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Raphael School of Athens』을 보십시오.

구속의 은혜를 삶과 성화의 열매로 증거하는 거룩한 시각적 감동.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닿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4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중생 이전 인간 행위의 전적 무가치성:
2. 믿음 없이 행하는 중생 이전의 모든 도덕적 행위는 겉보기에 화려할지라도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므로 죄에 불과합니다 (3.14.2~5).
3. 중생한 성도의 선행의 불완전성:
4.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선행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부패성이 섞여 있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완벽한 잣대 앞에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3.14.9~10).
5. 부분적 행위 칭의의 불가능성:
6. 하나님은 율법의 99%를 지킨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없으며, 율법 전체를 항상 온전히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3.14.13, 갈 3:10).
7. 이중 은혜의 원리 (*Duplex Gratia*):
8.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칭의), 그 후에 그의 불완전한 선행의 흠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사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3.14.16~18).
9. 선행의 참된 동기 회복:
10. 선행은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는 공로가 아니라, 죄 용서받은 자녀가 아바 아버지께 드리는 거룩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3.14.19~21).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선행 동기 진단] 나의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구원의 빛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거저 받은 사랑에 대한 순수한 감사인가?
2. **[자기 의 경계]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고 봉사를 많이 할수록, 남을 판단하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영적 바리새주의를 경계하는가?

솔직히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가?

4. **[열납의 감사] 내 부족한 예배와 헌신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흠 없는 향기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가?
5. **[지속적 헌신] 공로를 쌓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이웃을 위해 묵묵히 선을 행하고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칭의의 시작과 성화의 지속적 과정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빌립보서 3:7-9):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니까?
- 질문 2 (고린도전서 6:11):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하다면 선행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는?
- A: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 '열매'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의 뽀뽀뽀한 그림을 사랑으로 기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작은 선행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가르쳐 주십시오.
- Q2: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탈진하고 낙심한 사역자에게는?
- A: 사역의 성패나 완벽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내려 하지 말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열납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도록 위로하십시오.

제50강: 행위 공로에 대한 자랑의 파멸: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공로라는 교만한 단어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노래함 (Book 3, Ch. 15)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15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50주 (제3권 제15장: 행위 공로에 대한 자랑의 파멸)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신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옐로우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존 칼빈은 제3권 제15장에서 기독교회를 수세기 동안 타락시킨 가장 치명적인 독소인 '공로 (Meritum)'라는 사악한 단어를 완전히 도려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행에

타락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공로를 주장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없음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빛을 지지 않으십니다. '공로'라는 단어를 고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인간의 교만한 자부심을 부추기는 사탄의 꾀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닮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50강: 행위 공로에 대한 자랑의 파멸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2. 강의 학습 목표

1. '공로(Meritum)'라는 비성경적 용어의 기원과 그것이 교회를 부패시킨 해악을 밝혀낸다.
2.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아무런 빛을 지지 않으시며 모든 것은 값없는 은혜임을 증명한다.
3. 성경이 인간의 모든 자랑을 잠재우고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게 함을 확증한다.
4. 내 안의 공로 의식과 보상 심리를 깨뜨리고, 무익한 종의 겸손으로 주님을 섬긴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교회를 오염시킨 치명적 독소: '공로'라는 단어의 정체 (3.15.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공로 개념의 성경적 근거 박멸: 하나님은 빚진 자가 아니시다 (3.15.1~3)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어거스틴의 명쾌한 증언: '하나님은 자신의 선물을 면류관 씌우신다' (3.15.3~4)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인간 자랑의 완전한 멸절: 고전 1:31의 솔리 데오 글로리아 (3.15.5~6)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무익한 종의 신앙(눅 17:10)과 참된 복음적 안식 (3.15.7~8)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5장, “행위 공로에 대한 자랑의 파멸”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공로 개념의 성경적 근거 박멸: 하나님은 빚진 자가 아니시다 (3.15.1~3)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Rembrandt Return of Prodigal Son 및 원전 정본 강독)

첫 번째 테제는 바로 '공로(Meritum) 용어의 위험성과 폐기'입니다:

“공로라는 단어는 성경적 용어가 아니며, 인간의 교만한 공로 의식을 자극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가리므로 교회에서 마땅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3.15.2).”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와 무채무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에도 빚을 지지 않으시며, 인간이 행한 최선의 순종도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에 불과합니다 (3.15.1, 롬 11:35).”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Rembrandt Return of Prodigal Son』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50강: 행위 공로에 대한 자랑의 파멸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2대지] 어거스틴의 명쾌한 증언: '하나님은 자신의 선물을 면류관 씌우신다' (3.15.3~4)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어거스틴의 위대한 테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상을 주실 때, 그것은 인간의 공로를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성도 안에 부어주신 '자기 은혜의 선물에 면류관을 씌우시는 것'입니다 (3.15.3).”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모든 자량의 원천적 차단'입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공로가 완전히 배제될 때에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전 1:31)'는 말씀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3.15.5).”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인간 자랑의 완전한 멸절: 고전 1:31의 솔리 데오 글로리아 (3.15.5~6)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Pieter Bruegel Tower of Babel)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찌니라”

— 누가복음 17:10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 로마서 3:27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무익한 종의 복음적 자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킨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눅 17:10)'고 고백해야 합니다 (3.15.6~7).”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Pieter Bruegel Tower of Babel』을 보십시오.

구속의 은혜를 삶과 성화의 열매로 증거하는 거룩한 시각적 감동.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닦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5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2. 공로라는 단어는 성경적 용어가 아니며, 인간의 교만한 공로 의식을 자극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가리므로 교회에서 마땅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3.15.2).
3.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와 무채무성:
4.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에도 빚을 지지 않으시며, 인간이 행한 최선의 순종도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에 불과합니다 (3.15.1, 롬 11:35).
5. 어거스틴의 위대한 테제:
6.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상을 주실 때, 그것은 인간의 공로를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성도 안에 부어주신 '자기 은혜의 선물에 면류관을 씌우시는 것'입니다 (3.15.3).
7. 모든 자랑의 원천적 차단:
8.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공로가 완전히 배제될 때에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전 1:31)'는 말씀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3.15.5).
9. 무익한 종의 복음적 자유:
10. 우리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킨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눅 17:10)'고 고백해야 합니다 (3.15.6~7).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보상 심리 진단] 내가 기도하고 헌금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는 식의 보상 심리를 품고 있지 않은가?
2. **[서운함 진단] 교회나 이웃을 위해 열심히 봉사한 후 인정이나 칭찬을 받지 못했을 때 마음에 서운함과 분노가 일어나는가?
3. **[무익한 종 진단] 최선의 사역을 감당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가?
4. **[오직 자랑 진단] 나의 학벌, 가문, 도덕성,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가?
5. **[은혜 감격 진단] 구원과 사역의 모든 기회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주신 무한한 특권임을 깨달으며 감격하고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위 공로에 대한 자랑의 파멸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누가복음 17: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것 ...”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 질문 2 (로마서 3:27):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성경에 상급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는데 공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 A: 상급(merces)은 노동자의 품삯과 같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연합한 순종을 기특하게 여기사 덤으로 안겨주시는 '사랑의 선물(은혜 위에 더하시는 은혜)'임을 명쾌히 가르쳐 주십시오.
- Q2: 교회 안에서 공로를 내세우며 분란을 일으키는 중직자에게는?

-

가진 건강, 재물, 직분 모두가 주께 거저 받은 것임을 상기시켜 겸손을 회복하도록 도우십시오.

제51강: 칭의 교리에 대한 거짓 비방 반박: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오직 믿음의 칭의는 방종이 아니라 선행의 진정한 샘물이다 (Book 3, Ch. 16)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16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51주 (제3권 제16장: 칭의 교리에 대한 거짓 비방 반박)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엠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이신칭의가 도덕적 방종과 나태를 조장한다'는 교황주의자들의 비방을 완벽하게 논파합니다. 대적들은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선행을 행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조롱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라는 '이중 은혜(duplex gratia)'임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쪼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필연적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빚어져 가므로, 참된 칭의는 결코 방종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51장: 칭의 교리에 대한 거짓 비방 반박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2. 강의 학습 목표

1. 이신칭의 교리가 방종을 낳는다는 교황주의자들의 비방의 신학적 무지를 폭로한다.
2.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중 은혜(칭의와 성화)'의 불가분적 연합을 체계화한다.
3. 선행이 칭의의 '원인'이 아니라 참된 칭의의 필연적 '결과이자 열매'임을 증명한다.
4. 은혜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거룩한 사랑의 종노릇으로 신앙을 증명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은혜에 대한 오래된 비방: '선행을 폐기하는 교리인가?' (3.16.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그리스도의 불가분성: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동시성 (3.16.1)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이중 은혜(Duplex Gratia): 태양의 빛과 열의 유비 (3.16.1)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선행의 참된 동력: 공포와 보상이 아닌 자발적 사랑과 감사 (3.16.2~3)

•

열매 (3.16.4)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은혜 안에서 거룩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6장, “칭의 교리에 대한 거짓 비방 반박”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웁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그리스도의 불가분성: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동시성 (3.16.1) (10:00 ~ 22:00)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불가분성 (*Christus Non Dividitur*)'입니다:

“그리스도를 칭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성화의 주님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거룩하게 하십니다 (3.16.1).”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이중 은혜의 빛과 열 유비'입니다:

“태양에서 빛과 열이 동시에 나오듯, 칭의와 성화는 서로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단 하나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솟아납니다 (3.16.1).”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Lucas Cranach Weimar Altarpiece』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51장: 칭의 교리에 대한 거짓 비방 반박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2대지] 이중 은혜(Duplex Gratia): 태양의 빛과 열의 유비 (3.16.1)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тезис는 '선행의 복음적 동기'입니다:

“지옥의 공포나 천국의 대가를 바라고 행하는 선행은 노예의 위선이지만, 거저 구원받은 자녀가 행하는 선행은 자원하는 사랑과 감사의 열매입니다 (3.16.2).”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тезис는 '도덕폐기론의 거짓 신앙 폭로'입니다:

“삶의 거룩한 열매와 회개의 증거가 전혀 없는 사람은 칭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채 거짓 확신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3.16.3).”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선행의 참된 동력: 공포와 보상이 아닌 자발적 사랑과 감사 (3.16.2~3)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Domenichino Last Communion of Saint Jerome*)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 로마서 6:1-2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 야고보서 2:22-26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참된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믿음은 죽은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fides per caritatem efficax)으로
자신의 살아있음을 입증합니다 (3.16.3, 갈 5:6).”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Domenichino Last Communion of Saint Jerome』을 보십시오.

구속의 은혜를 삶과 성화의 열매로 증거하는 거룩한 시각적 감동.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닦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 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6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그리스도의 불가분성 (*Christus Non Dividitur*):
2. 그리스도를 칭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성화의 주님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거룩하게 하십니다 (3.16.1).
3. 이중 은혜의 빛과 열 유비:
4. 태양에서 빛과 열이 동시에 나오듯, 칭의와 성화는 서로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단 하나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솟아납니다 (3.16.1).
5. 선행의 복음적 동기:
6. 지옥의 공포나 천국의 대가를 바라고 행하는 선행은 노예의 위선이지만, 거저 구원받은 자녀가 행하는 선행은 자원하는 사랑과 감사의 열매입니다 (3.16.2).
7. 도덕폐기론의 거짓 신앙 폭로:
8. 삶의 거룩한 열매와 회개의 증거가 전혀 없는 사람은 칭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채 거짓 확신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3.16.3).
9. 참된 신앙의 시금석:
10. 믿음은 죽은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fides per caritatem efficax*)으로 자신의 살아있음을 입증합니다 (3.16.3, 갈 5:6).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방종 경계 진단] 하나님의 용서를 가볍게 여겨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가?
 2. **[열매 진단]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선행이 나타나고 있는가?
 3. **[동기 진단] 내가 선을 행하는 이유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인가?
 4. **[일치 진단] 주일의 예배와 평일의 삶, 나의 신앙고백과 일상생활의 윤리적 실천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5. **[거룩 갈망 진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로서, 내 마음속에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려는 거룩한 소원이 불타고 있는가?
-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칭의 교리에 대한 거짓 비방 반박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로마서 6:1-2):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 질문 2 (야고보서 2:22-26):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까?'라는 질문에는?

- A: 바울은 '구원의 근거(하나님 앞에서의 칭의)'를 다루며 오직 믿음만을 말했고, 야고보는 '구원 받은 믿음의 진위(사람 앞에서의 믿음의 증명)'를 다루며 행함의 열매를 말했습니다. 두 사도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 Q2: 은혜를 핑계로 죄를 짓는 성도를 어떻게 권면해야 합니까?
- A: 로마서 6:1~2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를 나누며, 십자가의 피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면허증이 아니라 죄를 죽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무서운 대가임을 엄중히 선포하십시오.

제52강: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일치: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행위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성취되는 언약의 약속 (Book 3, Ch. 17)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17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52주 (제3권 제17장: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일치)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엠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관계'를 다룹니다. 신명기 28장 등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행하면 복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행위 언약적 약속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값없는 칭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칼빈은 타락한 인간은 그 약속의 조건을 100% 만족시킬 수 없기에 율법의 약속은 오직 정죄만을 가져온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칭의를 받은 성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불완전한 순종을 은혜로 용납하시고 그 순종 위에 복과 상급을 기쁘게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52강: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일치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2. 강의 학습 목표

1. 율법의 조건적 행위 약속과 복음의 무조건적 은혜 약속의 구속사적 관계를 정립한다.
2. 그리스도 밖에서의 율법의 정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의 제3용도를 명쾌하게 구별한다.
3. 성도의 불완전한 순종이 하나님께 열납되는 근거가 '칭의의 은혜'에 있음을 증명한다.
4. 두려움의 종노릇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성경의 두 가지 약속: 행위의 보상인가, 값없는 은혜인가? (3.17.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율법의 행위 약속의 무력함: 온전한 준수의 불가능성 (3.17.1~3)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복음의 선행성: 그리스도의 의가 선행을 덮으시는 순서 (3.17.4~5)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성도의 행위가 칭찬받는 비결: 부성적 관용과 사죄의 은혜 (3.17.8~10)

•

(3.17.11~12)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은혜 안에서 받아들이지는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결단

Ⅱ. 정식 60분 폴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7장,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일치”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웁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율법의 행위 약속의 무력함: 온전한 준수의 불가능성 (3.17.1~3) (10:00 ~ 22:00)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율법의 행위 약속의 무효화'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므로, 율법의 행위 약속은 타락한 인간에게 아무런 생명도 주지 못하고 저주만을 선고합니다 (3.17.1~2).”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칭의의 선행성'입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그의 어떤 행위도 열납될 수 없으며, 인격의 칭의가 행위의 열납에 항상 선행합니다 (3.17.5).”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Philippe de Champaigne Moses Tablets』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52강: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일치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부성적 관용 (*Paterna Indulgentia*)'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불완전한 선행에서 흠을 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부족함을 덮으시며 온전한 순종으로 여겨주십니다 (3.17.8).”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행위 보상의 은혜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순종에 약속하신 복은 인간의 공로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3.17.9~10).”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성도의 행위가 칭찬받는 비결: 부성적 관용과 사죄의 은혜 (3.17.8~10) (34:00 ~ 46:00)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 로마서 8:3-4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 디모데후서 1:9-10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야고보서의 조화'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믿음이 거짓이 아님을 행위로 '증명(demonstratio)'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법적 근거가 된 것이 아닙니다 (3.17.11~12).”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영화 『Raphael Vision of Ezekiel』을 보십시오.

구속의 은혜를 삶과 성화의 열매로 증거하는 거룩한 시각적 감동.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닿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 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7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율법의 행위 약속의 무효화:
 2.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므로, 율법의 행위 약속은 타락한 인간에게 아무런 생명도 주지 못하고 저주만을 선고합니다 (3.17.1~2).
3. 칭의의 선행성:
 4.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그의 어떤 행위도 열납될 수 없으며, 인격의 칭의가 행위의 열납에 항상 선행합니다 (3.17.5).
5. 부성적 관용 (*Paterna Indulgentia*):
 6. 하나님은 신자의 불완전한 선행에서 흠을 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부족함을 덮으시며 온전한 순종으로 여겨주십니다 (3.17.8).
7. 행위 보상의 은혜성:
 8. 하나님께서 성도의 순종에 약속하신 복은 인간의 공로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3.17.9~10).
9. 야고보서의 조화:
 10.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믿음이 거짓이 아님을 행위로 '증명' (demonstratio)'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법적 근거가 된 것이 아닙니다 (3.17.11~12).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순서 진단] 내 행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지 않고, 구원받았기에 순종한다는 올바른 순서를 지키는가?
2. **[열납 확신] 비록 내 순종이 연약하고 서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는가?
3. **[기쁨의 순종]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은 사랑으로 순종하는가?
4. **[언약 신뢰]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영육 간의 평안과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하는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일치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로마서 8:3-4):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니까?
- 질문 2 (디모데후서 1:9-10):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구약 말씀은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니까?'라는 질문에는?
- A: 그리스도 밖에서는 율법의 저주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에게는 그 약속들이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순종을 기뻐하시며 이 땅과 영원 속에서 가장 선한 영적 복락으로 채워주십니다.
- Q2: 자신의 순종이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두려워하는 성도에게는?
- A: 자녀가 서투른 글씨로 쓴 감사 편지를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로 간직하듯,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사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가장 기쁘게 받으심을 안심시켜 주십시오.

제53강: 성경적 상급 교리의 참된 의미: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상급은 공로의 빛이 아니라 은혜 위에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선물 (Book 3, Ch. 18)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18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53주 (제3권 제18장: 성경적 상급 교리의 참된 의미)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신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옐로우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존 칼빈은 제3권 제18장에서 로마 가톨릭이 행위 칭의론의 최대 근거로 삼는 '성경의 상급 (Merces/Praemium) 약속'의 참된 의미를 명쾌하게 해명합니다. 교황주의자들은 '상급이 약속되어

가르침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상급은 노동자의 법적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베푸시는 또 하나의 은혜의 덤'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을 보고 빚을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수고에 상을 더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닮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53강: 성경적 상급 교리의 참된 의미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2. 강의 학습 목표

1. 성경에 기록된 '상급'의 참된 의미를 세속적 품삯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체계화한다.
2. 상급 약속을 근거로 행위의 공로를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의 궤변을 논파한다.
3.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과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영원한 면류관으로 갚아주시심을 확증한다.
4. 헛된 인간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묵묵히 헌신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상급의 오해와 진실: 공로의 대가인가, 은혜의 선물인가? (3.18.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품삯과 상급의 본질적 구별: 품꾼의 권리가 아닌 양자의 유업 (3.18.1~2)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상급의 근거: 칭의의 은혜가 상급의 유일한 뿌리 (3.18.3~4)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성경의 행위 심판 구절의 참뜻: 행위는 믿음의 열매로서 심판 받음 (3.18.5~7)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포도원 품꾼의 비유(마 20장)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3.18.8)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8장, “성경적 상급 교리의 참된 의미”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품삯과 상급의 본질적 구별: 품꾼의 권리가 아닌 양자의 유업 (3.18.1~2) (10:00 ~ 22:00)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상급의 은혜적 본질 (*Merces ex Gratia*)'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 인간이 자신의 공로로 획득하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로
거저 베푸시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3.18.1).”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양자의 상속권과 상급의 관계'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천국은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상속 유업(*hereditas*)'이며,
상급은 그 은혜 위에 더해지는 부성적 영광입니다 (3.18.2).”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Rembrandt Parable of Workers in Vineyard』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53강: 성경적 상급 교리의 참된 의미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2대지] 상급의 근거: 칭의의 은혜가 상급의 유일한 뿌리 (3.18.3~4) (22:00 ~ 34:00)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행위 심판 구절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성경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으리라'고 할 때, 이는 행위가 구원의 근거라는 뜻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행위로 입증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3.18.5).”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포도원 품꾼 비유의 교훈'입니다:

“맨 나중 온 자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신 주인의 처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인간의 노동량이 아닌 주권적 자비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3.18.8).”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성경의 행위 심판 구절의 참뜻: 행위는 믿음의 열매로서 심판받음 (3.18.5~7)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Caravaggio Calling of Saint Matthew)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군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군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놓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 육시와 제 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놓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군으로 쓰는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군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샀을 주라 하니 제 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 마태복음 20:1-16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 로마서 6:23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참된 헌신의 순수성'입니다:

“상급에 눈이 멀어 타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용병의 신앙이며, 참된 성도는 하나님 자신을 영원한 상급으로 삼고 감사로 충성합니다 (3.18.4, 3.18.8).”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Caravaggio Calling of Saint Matthew』을 보십시오.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 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8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상급의 은혜적 본질 (*Mercēs ex Gratia*):
2.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 인간이 자신의 공로로 획득하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로 거저 베푸시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3.18.1).
3. 양자의 상속권과 상급의 관계:
4. 성도가 누리는 천국은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상속 유업(hereditas)'이며, 상급은 그 은혜 위에 더해지는 부성적 영광입니다 (3.18.2).
5. 행위 심판 구절의 올바른 해석:
6. 성경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으리라'고 할 때, 이는 행위가 구원의 근거라는 뜻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행위로 입증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3.18.5).
7. 포도원 품꾼 비유의 교훈:
8. 맨 나중 온 자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신 주인의 처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인간의 노동량이 아닌 주권적 자비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3.18.8).
9. 참된 헌신의 순수성:
10. 상급에 눈이 멀어 타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용병의 신앙이며, 참된 성도는 하나님 자신을 영원한 상급으로 삼고 감사로 충성합니다 (3.18.4, 3.18.8).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상급 동기 진단] 내가 교회와 이웃을 섬길 때 사람의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 않은가?

3. **[하나님이 상급]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창 15:1)' 하셨듯,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내 최고의 보화로 삼는가?
 4. **[영원한 시선] 이 땅에서 수고와 눈물이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과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인내하는가?
 5. **[충성 진단] 맡겨진 직분과 사역의 크기에 상관없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가?
-

IV.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적 상급 교리의 참된 의미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마태복음 20:1-16):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니까?
- 질문 2 (로마서 6:23):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상급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는?
- A: 세상의 썩어질 물질적 성공을 바라는 것은 기복주의지만,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은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 상급의 본체는 바로 그리스도와 영원의 교제와 영광입니다.
- Q2: 다른 성도들과 사역의 열매를 비교하며 시기심이 생기는 성도에게는?
- A: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나누며, 주인의 은혜는 사람의 기준과 다름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비교의식을 버리고 내게 맡겨진 한 달란트에 충성할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됨을 격려하십시오.

제54강: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해방, 자원하는 순종, 아디아포라의 자유 (Book 3, Ch. 19)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19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54주 (제3권 제19장: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신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옐로우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존 칼빈은 제3권 제19장에서 칭의 교리의 가장 아름다운 부속서이자 열매인 '그리스도인의 자유 (Libertas Christiana)'를 선포합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모르면 양심은 결코 참된

율법의 정죄와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2) 율법의 공포에서 벗어나 사랑받는 자녀로서 기쁨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자유, (3) 먹고 마시는 외적이고 중립적인 일들(Adiaphora)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배려하기 위한 거룩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54장: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2. 강의 학습 목표

1.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3대 구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립한다.
2. 자유를 육체의 방종이나 국가 질서 전복의 구실로 삼는 재세례파의 오류를 논파한다.
3. 아디아포라(중립적 사안)에 대한 성경적 원칙과 연약한 형제를 위한 사랑의 배려를 확립한다.
4. 율법주의적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원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 자유인의 삶을 결단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칭의의 부속서: 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필수적인가? (3.19.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제1자유: 율법의 정죄와 사법적 공포로부터의 해방 (3.19.2~3)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제2자유: 채찍의 강요가 아닌 아들의 자원하는 기쁨의 순종 (3.19.4~6)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제3자유: 아디아포라(Adiaphora)와 양심의 평안 (3.19.7~9)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자유의 올바른 사용: 방종 경계와 연약한 자를 위한 사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9장,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제1자유: 율법의 정죄와 사법적 공포로부터의 해방 (3.19.2~3)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Rembrandt Liberation of Peter 및 원전 정본 강독)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제1자유: 율법의 의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를 위해 율법의 행위를 바라보지 않으며,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3.19.2).”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제2자유: 자원하는 아들의 순종'입니다:

“성도는 노예처럼 채찍이 두려워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기쁨과 자발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3.19.4~5).”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Rembrandt Liberation of Peter』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54강: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2대지] 제2자유: 채찍의 강요가 아닌 아들의 자원하는 기쁨의 순종 (3.19.4~6)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тезис는 '제3자유: 아디아포라의 자유'입니다:

“구원과 무관한 외적인 일들(음식, 의복, 날짜 등)에 있어서 성도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떤 인간의 법에도 결박되지 않습니다 (3.19.7).”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тезис는 '아디아포라의 미신적 올무 경계'입니다:

“사소한 일에 지나친 종교적 금기를 만들면 성도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는 미신적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3.19.7~8).”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제3자유: 아디아포라(Adiaphora)와 양심의 평안 (3.19.7~9)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Guido Reni Archangel Michael)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 갈라디아서 5:1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 갈라디아서 5:13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사랑의 법에 종속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 권리이지만, 사람 앞에서는 연약한 형제의 실족을 막기 위해 기꺼이 절제하는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3.19.10~12).”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Guido Reni Archangel Michael』을 보십시오.

구속의 은혜를 삶과 성화의 열매로 증거하는 거룩한 시각적 감동.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뜻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9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2.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를 위해 율법의 행위를 바라보지 않으며,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3.19.2).
3. 제2자유: 자원하는 아들의 순종:
 4. 성도는 노예처럼 채찍이 두려워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기쁨과 자발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3.19.4~5).
5. 제3자유: 아디아포라의 자유:
 6. 구원과 무관한 외적인 일들(음식, 의복, 날짜 등)에 있어서 성도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떤 인간의 법에도 결박되지 않습니다 (3.19.7).
7. 아디아포라의 미신적 올무 경계:
 8. 사소한 일에 지나친 종교적 금기를 만들면 성도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는 미신적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3.19.7~8).
9. 사랑의 법에 종속된 자유:
 10.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 권리이지만, 사람 앞에서는 연약한 형제의 실족을 막기 위해 기꺼이 절제하는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3.19.10~12).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양심 자유 진단] 내 신앙생활은 정죄와 죄책감에 쫓기는 두려움의 신앙인가, 은혜 안에서 누리는 아들의 담대한 자유인가?
2. **[자원 순종 진단] 헌금, 예배, 기도를 억지나 체면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여 행하고 있는가?
3. **[바리새주의 경계] 성경에 없는 인간적 전통이나 종교적 금기를 만들어 다른 성도를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가?
4. **[방종 경계] 복음의 자유를 내 육체의 게으름이나 세속적 쾌락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악용하고 있지 않은가?
5. **[사랑의 절제]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정당한 권리와 자유를 기꺼이 양보하고 배려하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갈라디아서 5:1):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 질문 2 (갈라디아서 5:13):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술이나 담배, 특정 음식 문제 등 아디아포라에 대해 성도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합니까?'라는 질문에는?
 - A: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선하므로 감사함으로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앞에서는 공동체의 덕과 연약한 형제의 양심을 위해 내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하는 성숙함이 필요함을 로마서 14장을 통해 가르쳐 주십시오.
- Q2: 교회 안에서 사소한 규례나 형식 문제로 다투는 성도들에게는?

-

깨뜨리는 사소한 고집을 내려놓고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에 집중하도록 권면하십시오.

제55장: 기도: 믿음의 주된 활동과 유익: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영혼의 호흡과 주기도문 심층 강해 (Book 3, Ch. 20)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20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55주 (제3권 제20장: 기도: 믿음의 주된 활동과 유익)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신학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옐로우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존 칼빈은 제3권 제20장에서 『기독교 강요』 전체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을 할애하여 '기도 (Oratio)' 교리를 펼쳐냅니다. 칼빈은 기도를 '믿음의 주된 훈련(praeceptum fidei exercitium)'이자

합니까? 칼빈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속에 끌어당기는 은혜의 방편임을 밝힙니다. 칼빈은 기도의 4대 법칙,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중보의 원리, 그리고 주기도문의 6대 간구를 깊이 있게 강해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55장: 기도: 믿음의 주된 활동과 유익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2. 강의 학습 목표

1. 기도가 '믿음의 주요 훈련'이며 하늘의 약속된 보화를 퍼 올리는 은혜의 통로임을 확증한다.
2. 올바른 기도를 위한 4대 법칙(경건한 두려움, 궁핍의 자각, 자기 의 포기, 믿음의 확신)을 체계화한다.
3. 성자 숭배와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의 우상숭배를 격파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를 확립한다.
4. 주기도문의 6대 간구를 삶의 지침으로 삼아 날마다 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기도의 본질: 믿음의 호흡이자 하늘 보화의 열쇠 (3.20.1~3)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바른 기도를 위한 4대 법칙: 경외, 궁핍, 겸손, 확신 (3.20.4~16)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성자 숭배와 천사 숭배의 우상 격파 (3.20.17~27)

•

(3.20.34~49)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응답이 지연될 때의 인내와 기도의 지속성
(3.20.50~52)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며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의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0장, “기도: 믿음의 주된 활동과 유익”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Rembrandt David in Prayer 및 원전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기도의 필연성과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훈련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3.20.3).”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기도의 4대 법칙 (Quatuor Regulae Orationis)'입니다:

“바른 기도는 (1) 잡념 없는 경건한 두려움, (2) 영적 결핍에 대한 진지한 자각, (3) 자기 의의 완전한 포기과 회개, (4) 응답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으로 드려야 합니다 (3.20.4~12).”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Rembrandt David in Prayer』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55강: 기도: 믿음의 주된 활동과 유익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2대지]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성자 숭배와 천사 숭배의 우상 격파 (3.20.17~27)
(22:00 ~ 34:00)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Unicus Intercessor*)'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상달되며, 성인이나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권을 찬탈하는 가증한 우상숭배입니다 (3.20.17~21).”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주기도문의 완전한 구조'입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고(1~3간구), 그 후에 성도의 일용할 양식과 죄 사함과 시험에서의 구원(4~6간구)을 구하는 완벽한 기도의 규범입니다 (3.20.34~43).”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주기도문 심층 강해: 하나님 중심 3간구와 성도 필요 3간구 (3.20.34~49)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Caravaggio *Agony in the Garden*)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마태복음 6:9-13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 빌립보서 4:6-7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응답 지연과 성도의 인내'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심을 믿고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3.20.51~52).”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Caravaggio Agony in the Garden』을 보십시오.

구속의 은혜를 삶과 성화의 열매로 증거하는 거룩한 시각적 감동.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닿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 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0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기도의 필연성과 목적:
2.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훈련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3.20.3).
3. 기도의 4대 법칙 (*Quatuor Regulae Orationis*):
4. 바른 기도는 (1) 잡념 없는 경건한 두려움, (2) 영적 결핍에 대한 진지한 자각, (3) 자기 의의 완전한 포기과 회개, (4) 응답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으로 드려야 합니다 (3.20.4~12).
5.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Unicus Intercessor*):
6.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상달되며, 성인이나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권을 찬탈하는 가증한 우상숭배입니다 (3.20.17~21).
7. 주기도문의 완전한 구조:
8.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고(1~3간구), 그 후에 성도의 일용할 양식과 죄 사함과 시험에서의 구원(4~6간구)을 구하는 완벽한 기도의 규범입니다 (3.20.34~43).
9. 응답 지연과 성도의 인내:
10.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가장 선택된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심을 믿고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3.20.51~52).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기도 생활 진단] 내 삶에 기도가 일상의 가장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는가, 아니면 위기 때에만 찾는 비상벨인가?
2. **[동기 진단] 내 탐욕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굴복시키고 있는가?
3. **[예수 이름 진단] 내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중보만을 의지하여 기도하는가?
4. **[주기도문 균형] 내 개인적 물질과 건강만을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간구하는가?

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믿음의 주된 활동과 유익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마태복음 6:9-13):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니까?
- 질문 2 (빌립보서 4:6-7):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걱정하셨는데 왜 굳이 기도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는?
- A: 하나님은 구원의 결과를 걱정하셨을 뿐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과정'까지 함께 걱정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작정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작정에 동역자로 참여하는 거룩한 특권입니다.
- Q2: 기도가 너무 메마르고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롬 8:26). 내 감정을 억지로 짜내려 하지 말고, 주기도문이나 시편의 기도를 소리 내어 읽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인도하십시오.

제56강: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인간의 공로를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한 구원 (Book 3, Ch. 21)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21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56주 (제3권 제21장: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신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옐로우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존 칼빈은 제3권 제21장에 이르러 구원론의 가장 깊은 지성소인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유기(De Aeterna Electione et Reprobatione)'를 다룹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복음을 믿고 회개하며, 어떤

우연에 있지 않고, 창세 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원한 작정에 있음을 성경을 통해 증명합니다. 칼빈은 예정론을 철학적 사변으로 다루지 않고, 구원의 절대적 은혜를 깨닫고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 위로와 깊은 겸손을 심어주는 복음의 절정으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닮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56강: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2. 강의 학습 목표

1. 예정 교리가 사변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절대적 은혜를 확증하는 복음의 심장임을 정립한다.
2. 성경이 명백히 제시하는 '선택(Electio)'과 '유기(Reprobatio)'의 이중예정 교리를 체계화한다.
3.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성경이 말씀하는 곳까지 나아가는 신학적 겸손의 원칙을 확립한다.
4. 내가 구원받은 것이 창세 전 값없는 선택의 결과임을 깨닫고, 영원한 감사와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지성소의 문턱에서: 왜 예정론을 올바르게 배워야 하는가? (3.21.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예정론의 양대 위험 경계: 불경한 호기심 vs 두려움에 찬 침묵 (3.21.2~4)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예정의 성경적 정의: 하나님의 영원하고 자유로운 작정 (3.21.5)

•

(3.21.5~7)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예정이 주는 3대 거룩한 열매: 겸손, 감사, 절대적 확신 (3.21.1, 3.21.7)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창세 전 값없이 베푸신 선택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경배의 결단

II. 정식 60분 폴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1장,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예정론의 양대 위험 경계: 불경한 호기심 vs 두려움에 찬 침묵 (3.21.2~4)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Raphael Disputation Holy Sacrament* 및 원전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예정의 성경적 정의 (*Definitio Praedestinationis*)'입니다: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작정하신 영원한 섭리이며, 어떤 이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어떤 이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정하셨습니다 (3.21.5).”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사변적 호기심(*Curiositas*)의 경계'입니다:

“성경이 계시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파헤치려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은 미로 속에 빠져 파멸하는 교만입니다 (3.21.2).”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Raphael Disputation Holy Sacrament*』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56강: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두려움에 찬 침묵의 죄악'입니다:

“예정 교리가 논쟁거리라 하여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는 진리를 침묵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3.21.3~4).”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선택의 무조건성 (*Electio Inconditionata*)'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근거는 장차 우리가 믿을 것이나 선행을 미리 아셨기 때문(예지예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와 기쁘신 뜻뿐입니다 (3.21.1, 3.21.7).”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구약 이스라엘의 선택과 개인적 구원 선택의 구속사적 전개 (3.21.5~7)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Rembrandt Jacob Blessing Sons of Joseph)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 에베소서 1:4-6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 로마서 9:11-16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성도에게 주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구원의 기초가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선택에 놓여 있기에, 성도는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안전을 확신합니다 (3.21.1).”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Rembrandt Jacob Blessing Sons of Joseph』을 보십시오.

구속의 은혜를 삶과 성화의 열매로 증거하는 거룩한 시각적 감동.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닿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1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예정의 성경적 정의 (*Definitio Praedestinationis*):
2.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작정하신 영원한 섭리이며, 어떤 이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어떤 이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정하셨습니다 (3.21.5).
3. 사변적 호기심(*Curiositas*)의 경계:
4. 성경이 계시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파헤치려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은 미로 속에 빠져 파멸하는 교만입니다 (3.21.2).
5. 두려움에 찬 침묵의 죄악:
6. 예정 교리가 논쟁거리라 하여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는 진리를 침묵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3.21.3~4).
7. 선택의 무조건성 (*Electio Inconditionata*):
8.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근거는 장차 우리가 믿을 것이나 선행을 미리 아셨기 때문(예지예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와 기쁜 뜻뿐입니다 (3.21.1, 3.21.7).
9. 성도에게 주는 최고의 위로:
10. 구원의 기초가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선택에 놓여 있기에, 성도는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안전을 확신합니다 (3.21.1).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점손 진단] 내가 다른 이들보다 도덕적이거나 지혜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임을 인정하는가?
2. **[구원 안전 진단] 내 구원의 뿌리가 내 감정의 흔들림이 아닌, 창세 전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깊이 박혀 있음을 확신하는가?

말씀 안에서만 겸손히 머무는가?

4. **[전도 열정] 예정론을 핑계로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나를 복음 전파자로 세우셨음을 믿는가?
5. **[감격 진단] 온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눈물 어린 감격이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에베소서 1:4-6):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니까?
- 질문 2 (로마서 9:11-16):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예정론을 믿으면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는?
- A: 칼빈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을 뿐 아니라,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들을 부르시는 수단'까지 함께 예정하셨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누가 택함받았는지 알지 못하기에 만민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 Q2: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라는 항변에는?
- A: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죄인입니다. 심판받는 자는 자기 죄로 공의로운 형벌을 받는 것이요, 구원받는 자는 값없는 자비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며 오직 무한한 자비와 공의를 나타내실 뿐입니다.

제57강: 성경적 증거를 통한 선택 교리의 확증: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택하신 신적 사랑의 불변성 (Book 3, Ch. 22)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22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57주 (제3권 제22장: 성경적 증거를 통한 선택 교리의 확증)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엠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성경 전체가 웅장하게 외치는 명백한 진리'임을 성경 원문 강독을 통해 논증합니다. 칼빈은 특히 '예지예정설(하나님이 믿을 자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는 견해)'을 정면으로 분쇄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과 로마서 9장에서 선포하듯이, 우리는 '거룩했기 때문에'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택함받았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비유, 이스라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선언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이 전적인 무조건적 은혜임을 확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57강: 성경적 증거를 통한 선택 교리의 확증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2. 강의 학습 목표

1. 성경 원문(엡 1장, 롬 9장, 요 6·10·17장)을 통해 선택의 무조건성을 성경적으로 입증한다.
2. 인간의 공로나 믿음을 예전하고 택하셨다는 '예지예정설'의 반성경적 오류를 분쇄한다.
3.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적 유산을 계승하여 정통 은혜 구원론의 계보를 확립한다.
4.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신 약속을 신뢰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성경의 명백한 증언들: 사변이 아닌 말씀의 권위 앞에 서다 (3.22.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에베소서 1장 강해: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조건적 선택 (3.22.1~3)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예지예정설의 궤변 박멸: 원인이 아닌 결과로서의 선행과 믿음 (3.22.4~6)

•

(3.22.7~8)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3.22.10)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말씀으로 확증된 무조건적 은혜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2장, “성경적 증거를 통한 선택 교리의 확증”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Rembrandt The Good Shepherd 및 원전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에베소서 1:4의 결정적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3.22.1~2).”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예지예정설의 완전한 파탄'입니다:

“믿음과 선행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의 '열매이자 결과'이며, 따라서 예전된 믿음에 기초한 선택이란 성경을 거꾸로 뒤집는 오류입니다 (3.22.3~5).”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Rembrandt The Good Shepherd』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57강: 성경적 증거를 통한 선택 교리의 확증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야고보와 에서의 표본 (롬 9:11~13)'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3.22.7).”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요한복음의 기독교적 선택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요 6:37)',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요 10:28)'라고 선언하셨습니다 (3.22.10).”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로마서 9장과 야곱·에서의 구별: 행위 이전의 신적 선택 (3.22.7~8) (34:00 ~ 46:00)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 요한복음 6:37-40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 요한복음 17:9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어거스틴의 변증적
유산'입니다: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와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의지에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 주권의 은혜임을 성경으로 완벽히 논증했습니다 (3.22.8).”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Titian Transfiguration』을 보십시오.

구속의 은혜를 삶과 성화의 열매로 증거하는 거룩한 시각적 감동.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닮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2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에베소서 1:4의 결정적 증언:
2.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3.22.1~2).
3. 예지예정설의 완전한 파탄:
4. 믿음과 선행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의 '열매이자 결과'이며, 따라서 예견된 믿음에 기초한 선택이란 성경을 거꾸로 뒤집는 오류입니다 (3.22.3~5).
5. 야고보와 에서의 표본 (롬 9:11~13):
6.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3.22.7).
7. 요한복음의 기독교적 선택 증언:
8.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요 6:37)',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요 10:28)'라고 선언하셨습니다 (3.22.10).
9. 어거스틴의 변증적 유산:
10.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와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의지에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 주권의 은혜임을 성경으로 완벽히 논증했습니다 (3.22.8).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성경 권위 인정] 내 이성과 감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 앞에서도, 성경이 명백히 증언한다면 겸손히 굴복하는가?
2. **[열매 분별] 내가 가진 믿음과 기도가 내 의지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증거이자 선물임을 고백하는가?

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

4. **[원인 혼동 경계] 내 신앙생활의 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착각하지 않고, 은혜의 결과로 기쁘게 섬기는가?
5. **[영원한 감사]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매일 찬양하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적 증거를 통한 선택 교리의 확증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요한복음 6:37-40):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 됩니까?
- 질문 2 (요한복음 17:9):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말씀이 너무 가혹하게 들립니다'라는 성도에게는?
- A: 에서는 죄인이었기에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에서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죄인인 야곱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신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 Q2: 예지예정설을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 성도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 A: 에베소서 1:4과 요한복음 15:16('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을 함께 차근차근 읽으며, 성경의 명백한 순서가 '선택이 믿음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성경 본문 자체로 확인시켜 주십시오.

제58강: 예정 교리를 공격하는 비방에 대한 반박: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하나님이 불공평하신가? 토기장이의 비유와 겸손한 경배 (Book 3, Ch. 23)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23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58주 (제3권 제23장: 예정 교리를 공격하는 비방에 대한 반박)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항변과 거짓 비방들을 정면으로 맞받아쳐 논박합니다. 대적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멸망하도록 정하셨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며 불공평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란 말인가?', '그렇다면 인간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가?' 칼빈은 바울의 로마서 9장 변증을 계승하여,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주권을 재판할 수 없음을 엄중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유혹자가 아니시며, 멸망하는 자는 오직 자신의 타락한 죄로 인해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58장: 예정 교리를 공격하는 비방에 대한 반박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2. 강의 학습 목표

1.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는 비방에 맞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와 무함성을 변증한다.
2. 하나님이 결코 '죄의 창시자(auctor peccati)'가 아니시며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음을 밝힌다.
3.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롬 9:20~21)를 통해 피조물의 분수와 신학적 겸손을 확립한다.
4. 모든 사변적 궤변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주권 앞에 거룩한 경외심으로 엎드린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피조물의 오만한 도전 분쇄 (3.23.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반론 1: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 최고의 공의의 법칙이신 하나님 (3.23.2~3)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반론 2: 인간에게 왜 책임을 묻는가? — 자발적 범죄와 자충수 (3.23.4~7)

- 자비의 영역 (3.23.10~11)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피조물의 올바른 자리: 바울의 찬양(롬 11:33)과 겸손한 침묵 (3.23.12~14)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주권을 송축하는 결단
-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3장, “예정 교리를 공격하는 비방에 대한 반박”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Rembrandt Storm on Sea of Galilee 및 원전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은 공의의 최고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더 높은 도덕률은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자체가 모든 의와 공의의 궁극적인 기준입니다 (3.23.2).”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죄의 원인으로서의 인간의 자발성'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저자가 아니시며, 아담과 인류는 외적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패한 의지로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고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3.23.8).”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Rembrandt Storm on Sea of Galilee』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58강: 예정 교리를 공격하는 비방에 대한 반박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차별 대우라는 비방 분쇄'입니다:

“채권자가 한 채무자의 빛을 탕감해 주고 다른 채무자의 빛을 청구한다고 해서 불의하지 않듯, 전적 타락한 죄인 중 일부를 자비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리입니다 (3.23.10).”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토기장이의 절대 주권 (롬 9:20~21)'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따질 수 없듯이, 별레 같은 피조물이 온 우주의 재판관 하나님을 심문할 수 없습니다 (3.23.4~5).”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반론 3: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가? — 빛진 자가 없는 자비의 영역
(3.23.10~11) (34:00 ~ 46:00)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 로마서 9:19-21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깊은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 로마서 11:33-36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신비 앞에서의 거룩한 찬양'입니다:

“바울처럼 인간 지성의 한계에 부딪힐 때 논쟁을 멈추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롬 11:33)'라고 찬양하며 엎드리는 것이 성도의 참된 자세입니다 (3.23.14).”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Gustave Dore Moses Burning Bush』을 보십시오.

구속의 은혜를 삶과 성화의 열매로 증거하는 거룩한 시각적 감동.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닿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3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하나님의 뜻은 공의의 최고 시금석:
2. 하나님의 뜻 위에 더 높은 도덕률은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자체가 모든 의와 공의의 궁극적인 기준입니다 (3.23.2).
3. 죄의 원인으로서의 인간의 자발성:
4. 하나님은 죄의 저자가 아니시며, 아담과 인류는 외적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패한 의지로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고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3.23.8).
5. 차별 대우라는 비방 분쇄:
6. 채권자가 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고 다른 채무자의 빚을 청구한다고 해서 불의하지 않듯, 전적 타락한 죄인 중 일부를 자비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리입니다 (3.23.10).
7. 토기장이의 절대 주권 (롬 9:20~21):
8.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따질 수 없듯이, 별레 같은 피조물이 온 우주의 재판관 하나님을 심문할 수 없습니다 (3.23.4~5).
9. 신비 앞에서의 거룩한 찬양:
10. 바울처럼 인간 지성의 한계에 부딪힐 때 논쟁을 멈추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이여(롬 11:33)'라고 찬양하며 엎드리는 것이 성도의 참된 자세입니다 (3.23.14).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주권 승복 진단] 내 짧은 이성과 인본주의적 상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결정을 평가하려 들지 않고 온전히 승복하는가?
2. **[죄책감 정직성] 내 잘못과 죄악을 하나님의 섭리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전적으로 나의 완악함과 욕심의 책임임을 고백하는가?

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는가?

4. **[경외심 진단] 하나님을 내 친구처럼 가볍게 여기는 경박함을 버리고, 불꽃같은 눈동자로 통치하시는 창조주를 경외하는가?
5. **[찬양과 안식]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로마서 11:33의 송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정 교리를 공격하는 비방에 대한 반박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로마서 9:19-21):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 됩니까?
- 질문 2 (로마서 11:33-36):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하나님이 걱정하셨는데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라는 철학적 질문에는?
- A: 걱정과 강요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억지로 짓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욕심과 자발적 의지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형벌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 Q2: 예정론 때문에 신앙의 회의와 분노를 느끼는 성도에게는?
- A: 하나님의 보좌를 훑쳐보려는 교만한 호기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도록 권면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팔을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심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제59강: 효력 있는 부르심과 구원의 견인: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택함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끝까지 보존되고 승리한다 (Book 3, Ch. 24)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24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59주 (제3권 제24장: 효력 있는 부르심과 구원의 견인)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Vocatio Efficax)과 성도의 견인(Perseverantia Sanctorum)'을 다룹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칼빈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비밀 장부를 뒤지려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과 부르심의 거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참된 신자는 결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으며, 성령의 보증과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강한 손 안에서 끝까지 영원히 보존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령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59장: 효력 있는 부르심과 구원의 견인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2. 강의 학습 목표

1. 선택의 주관적 확증이 '복음의 효력 있는 부르심'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짐을 확립한다.
2. 선택의 거울(speculum electionis)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올바른 구원 확신의 길을 제시한다.
3. 참된 신자는 결코 은혜에서 완전히 탈락할 수 없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성경으로 증명한다.
4. 일시적 믿음(fides temporaria)의 거짓됨을 경계하고, 끝까지 견디는 참된 믿음의 능력을 구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내가 택함받았는가?'를 아는 성경적 비결 (3.24.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외적 부르심과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Vocatio Efficax) (3.24.1~4)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선택의 거울(Speculum Electionis)이신 그리스도 (3.24.5)

•

(3.24.6~9)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배교와 일시적 믿음의 경계 및 악인의 유기 과정 (3.24.10~17)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 안에서 요동치 않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4장, “효력 있는 부르심과 구원의 견인”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웁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Caravaggio Crucifixion of Saint Peter 및 원전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외적 소명과 내적 유효 소명의 구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외적 복음 전파와 달리, 택한 자에게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임합니다 (3.24.1~2).”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선택의 거울 (Speculum Electionis)'입니다:

“내가 택함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거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는 곧 창세 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3.24.5).”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Caravaggio Crucifixion of Saint Peter』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59강: 효력 있는 부르심과 구원의 견인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성도의 영원한 견인 (Perseverantia Sanctorum)'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며, 성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3.24.6~7).”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일시적 신앙(Fides Temporaria)의 경계'입니다:

“성령의 외적 감화나 일시적 감정의 흥분으로 믿는 척하다가 환난이 오면 배교하는 가짜 신앙에 속지 말고 참된 중생의 열매를 점검해야 합니다 (3.24.7~8).”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성도의 견인: 선한 목자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 (3.24.6~9)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El Greco Saints Peter and Paul)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 로마서 8:29-30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 빌립보서 1:6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유기의 집행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들을 버려두실 때,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사 자기 죄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3.24.12~14).”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El Greco Saints Peter and Paul』을 보십시오.

구속의 은혜를 삶과 성화의 열매로 증거하는 거룩한 시각적 감동.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맞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4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외적 소명과 내적 유효 소명의 구별:
2.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외적 복음 전파와 달리, 택한 자에게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임합니다 (3.24.1~2).
3. 선택의 거울 (*Speculum Electionis*):
4. 내가 택함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거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는 곧 창세 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3.24.5).
5. 성도의 영원한 견인 (*Perseverantia Sanctorum*):
6.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며, 성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3.24.6~7).
7. 일시적 신앙(*Fides Temporaria*)의 경계:
8. 성령의 외적 감화나 일시적 감정의 흥분으로 믿는 척하다가 환난이 오면 배교하는 가짜 신앙에 속지 말고 참된 중생의 열매를 점검해야 합니다 (3.24.7~8).
9. 유기의 집행 과정:
10.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들을 버려두실 때,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사 자기 죄의 길로 가도록 내 버려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3.24.12~14).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부르심 확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반응하며,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2. **[그리스도 응시] 내 감정이나 행위의 완벽함을 뒤지는 대신, 선택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가?
 3. **[견인 신뢰]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나를 붙드신 주님의 손이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가?
 4. **[일시적 신앙 경계] 기적이나 환경적 축복에만 매달리는 얇은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인가?
 5. **[두렵고 떨림] 구원의 안전에 안주하여 방종하지 않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는가?
-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효력 있는 부르심과 구원의 견인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로마서 8:29-30):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니까?
- 질문 2 (빌립보서 1:6):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 A: 참된 성도의 견인은 '나태함의 보장'이 아니라 '거룩함을 향한 끝없는 인내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결코 죄 속에 편안히 안주할 수 없으며,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 Q2: '내가 택함받지 못했을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라는 성도에게는?
- A: 하나님의 은밀한 하늘 책을 보려 하지 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 당신이 택함받았음이 확증됩니다.

제60강: 최후의 부활과 영원한 영광 (제3학기 종강):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누릴 영원한 교제 (Book 3, Ch. 25)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25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3학기 — 성령과 은혜 (Book III, 36~60주)
- 주차: 제60주 (제3권 제25장: 최후의 부활과 영원한 영광 (제3학기 종강))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엠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목적지인 '최후의 부활(Resurrectio Ultima)'을 선포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썩어질 육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이야말로 복음의 궁극적인 정점입니다. 이 강의는 제3권 전체(성령과 믿음, 회개와 칭의, 성화와 기도, 예정과 견인) 25주의 구원론 파노라마를 총결산하며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60장: 최후의 부활과 영원한 영광 (제3학기 종강)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2. 강의 학습 목표

1.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성도의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육체의 부활' 교리를 성경으로 증명한다.
2. 천년왕국설의 육욕적 오류와 영혼 수면설 등 부활을 왜곡하는 고대 및 현대 이단들을 논파한다.
3.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가 누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영원한 영광의 성격을 체계화한다.
4. 3학기 25강(구원론·성화론·예정론) 전체를 총결산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당당히 승리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제3권의 찬란한 대단원: 우리의 소망의 최종 목적지 (3.25.1~2)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부활의 절대적 확실성: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첫 열매의 보증 (3.25.3~4)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부활체의 본질: 동일한 육체의 영광스러운 변화 (3.25.7~8)

•

(3.25.10~12)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제3학기 총결산: 성령의 역사로 맺힌 구원의 영원한 완성 (3.25.1~12)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마라나타! 부활의 소망으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5장, “최후의 부활과 영원한 영광 (제3학기 종강)”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Michelangelo Last Judgment Resurrection 및 원전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육체 부활의 절대성 (Resurrectio Carnis)'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영혼의 불멸만을 뜻하지 않으며, 무덤 속에 묻힌 바로 그 육체가 신령하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3.25.7~8).”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유기적 연합'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분의 몸 된 지체인 성도들의 부활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필연적 성취입니다 (3.25.3).”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Michelangelo Last Judgment Resurrection』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60강: 최후의 부활과 영원한 영광 (제3학기 종강)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이단 사설 분쇄 (영혼 수면설과 육욕적 천년설)'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잠들어 무의식 상태에 있다는 가설과, 천국을 지상적이고 육욕적인 쾌락의 장소로 묘사하는 천년왕국론자들의 망상을 성경으로 격파합니다 (3.25.5~6).”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지복직관 (Visio Dei Beatifica)'입니다:

“천국의 가장 위대한 영광은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며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3.25.10).”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영광: 지옥의 실재와 천국의 지복직관 (3.25.10~12)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Lucas Cranach Resurrected Christ)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옳하리라”

— 고린도전서 15:51-54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 요한계시록 21:1-4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제3학기 성령과 은혜의 총결산'입니다:

“성령의 은밀한 역사(36장)로 시작하여, 믿음과 회개, 칭의와 성화, 기도와 예정을 거쳐 최후 부활(60장)에 이르는 구원론의 전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Sola Gratia)의 영원한 승리입니다.”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Lucas Cranach Resurrected Christ』을 보십시오.

구속의 은혜를 삶과 성화의 열매로 증거하는 거룩한 시각적 감동.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뜻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 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5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육체 부활의 절대성 (*Resurrectio Carnis*):
2. 기독교의 부활은 영혼의 불멸만을 뜻하지 않으며, 무덤 속에 묻힌 바로 그 육체가 신령하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3.25.7~8).
3.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유기적 연합:
4. 머리가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분의 몸 된 지체인 성도들의 부활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필연적 성취입니다 (3.25.3).
5. 이단 사설 분쇄 (영혼 수면설과 육욕적 천년설):
6. 죽은 자의 영혼이 잠들어 무의식 상태에 있다는 가설과, 천국을 지상적이고 육욕적인 쾌락의 장소로 묘사하는 천년왕국론자들의 망상을 성경으로 격파합니다 (3.25.5~6).
7. 지복직관 (*Visio Dei Beatifica*):
8. 천국의 가장 위대한 영광은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며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3.25.10).
9. 제3학기 성령과 은혜의 총결산:
10. 성령의 은밀한 역사(36강)로 시작하여, 믿음과 회개, 칭의와 성화, 기도와 예정을 거쳐 최후 부활(60강)에 이르는 구원론의 전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Sola Gratia*)의 영원한 승리입니다.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활할 것을 확신하는가?

2. **[영원 소망 진단] 이 세상의 썩어질 성공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가?
3. **[천국관 진단] 천국을 막연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뵈옵고 온전히 찬양하는 거룩한 처소로 바라보는가?
4. **[육체 거룩 진단] 장차 부활할 거룩한 성전으로서, 오늘 내 육체를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가?
5. **[3학기 결산 감사] 나 같은 죄인에게 성령을 주사 믿음과 칭의와 성화와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후의 부활과 영원한 영광 (제3학기 종강)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고린도전서 15:51-54):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 질문 2 (요한계시록 21:1-4):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화장(cremation)을 하거나 바다에 빠져 시신을 찾지 못한 성도도 부활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 A: 온 우주를 무에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재 한 줌, 흙 한 줌 속에서도 성도의 육체를 완벽하게 다시 불러일으키실 권능이 있으니 추호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 Q2: 제3학기 25주 동안의 구원론 여정을 마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목회적 메시지는?
 - A: 구원은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제61강: 성도의 어머니인 참된 교회와 연합: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다 (Book 4, Ch. 1)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1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4학기 — 교회와 성례 (Book IV, 61~80주)
- 주차: 제61주 (제4권 제1장: 성도의 어머니인 참된 교회와 연합)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옴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신비를 선포합니다. 칼빈은 키프리아누스와 어거스틴의 고백을 계승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다(Cui Deus Pater est, Ecclesia Mater est)'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연합함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의 품 안에서 우리를 잉태하시고, 젖을 먹여 양육하시며, 평생토록 말씀과 성례로 돌보아 주십니다. 교회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오만은 영적 자살입니다. 칼빈은 가시적 교회(Ecclesia Visibilis)와 불가시적 교회(Ecclesia Invisibilis)를 명쾌히 구분하며 참된 성도의 교제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61강: 성도의 어머니인 참된 교회와 연합의 진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2. 강의 학습 목표

1.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다'는 칼빈의 핵심 교회론을 체계화한다.
2. 불가시적 교회(택자들의 총수)와 가시적 교회(지상 교회의 모임)의 올바른 구분을 확립한다.
3. 교회 안의 연합함과 죄인들의 존재를 이유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리주의(도나투스주의)를 논파한다.
4.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의 지체로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 양육받으며 한 몸으로 연합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제4권의 문을 열며: 은혜의 외적 방편으로서의 교회의 영광 (4.1.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 양육과 훈육의 거룩한 품 (4.1.1~4)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 (4.1.7~9)

•

(4.1.13~20)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사죄의 은혜가 머무는 시온성: 날마다 누리는 용서의 샘 (4.1.21~29)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교회를 사랑하고 한 몸 된 지체로 순종하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장, “성도의 어머니인 참된 교회와 연합”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Raphael Disputation Holy Sacrament 및 원전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교회의 모성적 성격 (*Ecclesia Mater*)'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지상에 교회를 세우사,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양육으로 돌보시는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4.1.1, 4.1.4).”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의 조화'입니다:

“불가시적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창세 전 택자들의 영적 총수이며, 가시적 교회는 이 땅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과 성례를 공유하는 역사적 공동체입니다 (4.1.7).”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Raphael Disputation Holy Sacrament』를 주목해 보십시오. 제61장: 성도의 어머니인 참된 교회와 연합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참된 교회의 순결과 영광.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빛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분리주의(Schisma)의 파괴성'입니다:

“지상 교회에 위선자나 연약한 죄인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배은망덕한 죄입니다 (4.1.13~16).”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사랑의 판단 규범 (Iudicium Caritatis)'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심장을 꿰뚫어 볼 수 없으므로, 신앙을 고백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선한 삶을 사는 이웃을 사랑으로 교회의 지체로 여겨야 합니다 (4.1.8).”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분리주의와 완전주의 분쇄: 알곡과 가라지의 공존 (4.1.13~20)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Philippe de Champaigne Mother Catherine)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 에베소서 4:4-6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 디모데전서 3:15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교회 안에 머무는 사죄의
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복음 전파와 성례를 통해 날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며,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인 용서와 회복을 누립니다 (4.1.21~22).”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영화 『Philippe de Champaigne Mother Catherine』을 보십시오.

성례와 공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실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닿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 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교회의 모성적 성격 (*Ecclesia Mater*):
2.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지상에 교회를 세우사,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까지 말씀과 양육으로 돌보시는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4.1.1, 4.1.4).
3.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의 조화:
4. 불가시적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창세 전 택자들의 영적 총수이며, 가시적 교회는 이 땅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과 성례를 공유하는 역사적 공동체입니다 (4.1.7).
5. 분리주의(*Schisma*)의 파괴성:
6. 지상 교회에 위선자나 연약한 죄인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배은망덕한 죄입니다 (4.1.13~16).
7. 사랑의 판단 규범 (*Iudicium Caritatis*):
8. 우리는 타인의 심장을 꿰뚫어 볼 수 없으므로, 신앙을 고백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선한 삶을 사는 이웃을 사랑으로 교회의 지체로 여겨야 합니다 (4.1.8).
9. 교회 안에 머무는 사죄의 샘:
10.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복음 전파와 성례를 통해 날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며,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인 용서와 회복을 누립니다 (4.1.21~22).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교회 사랑 진단] 나는 교회를 단순한 종교 클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영적 어머니로 사랑하는가?
 2. **[연합 진단] 개인주의적이고 파편화된 '나 홀로 신앙'을 버리고, 지역 교회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어 헌신하고 있는가?
 3. **[흠 포용 진단] 교회와 목회자, 교인들의 연약함이나 허물을 볼 때 비난하고 떠나기보다,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는가?
 4. **[분리주의 경계] 도덕적 완전주의의 잣대로 남을 쉽게 정죄하지 않고,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두셨음을 기억하는가?
 5. **[은혜의 수단 사모]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 영적 젖과 양식을 공급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의 어머니인 참된 교회와 연합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에베소서 4:4-6):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니까?
- 질문 2 (디모테전서 3:15):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 A: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난 젖먹이가 스스로 살 수 없듯, 교회의 성례와 말씀 사역을 떠나 홀로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치명적인 자만입니다.
- Q2: 교회 안의 비리와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려는 성도에게는?
- A: 어거스틴의 말처럼 지상 교회는 '의인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환자들의 병원'입니다. 주님께 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알곡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상기시키고, 교회를 위해 눈물로 중보 하도록 권면하십시오.

제62장: 거짓 교회와 참 교회의 분별: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말씀의 순결한 전파와 성례의 정당한 집행: 교회의 두 표지 (Book 4, Ch. 2)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2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4학기 — 교회와 성례 (Book IV, 61~80주)
- 주차: 제62주 (제4권 제2장: 거짓 교회와 참 교회의 분별)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옐로우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존 칼빈은 제4권 제2장에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우리가 유일한 참 교회이며 교황을 떠나면 구원이 없다'고 협박할 때,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하는 절대적 기준(Notae Ecclesiae)을

두 가지 표지: (1)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들려지는가? (2) 그리스도의 제정대로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는가? 이 두 표지가 살아 숨 쉬는 곳에는 비록 허물이 많을지라도 참된 교회가 존재하며, 이 표지를 짓밟고 우상숭배로 변질된 집단은 거짓 교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닮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62장: 거짓 교회와 참 교회의 분별의 진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2. 강의 학습 목표

1. 종교개혁의 교회의 2대 표지(말씀의 순결한 전파, 성례의 올바른 집행)를 체계화한다.
2. 역사적 전통과 교황권을 참 교회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로마 가톨릭의 허구를 폭로한다.
3. 로마 교회가 핵심 표지를 상실함으로써 거짓 교회로 전락했음을 성경적으로 논증한다.
4. 타락한 로마 가톨릭 안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남겨두신 '교회의 흔적(vestigia ecclesiae)'을 분별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교회의 위기: 로마의 파문 협박과 참 교회의 시금석 (4.2.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교회의 2대 표지: 말씀의 순결성과 성례의 올바른 집행 (4.2.1~3)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거짓 교회의 실상: 사탄의 회당으로 전락한 교황주의 (4.2.4~6)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구약 이스라엘의 배교와 유다의 비교: 우상숭배와 언약의 파괴 (4.2.7~10)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무너진 폐허 속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 교회의 흔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2장, “거짓 교회와 참 교회의 분별”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교회의 2대 표지: 말씀의 순결성과 성례의 올바른 집행 (4.2.1~3) (10:00 ~ 22:00)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참 교회의 2대 표지 (*Notae Ecclesiae*)'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게 전파되고 들려지며, 그리스도의 제정대로 성례가 집행되는 곳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4.2.1).”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외적 계승의 무가치성'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떠난 곳에서 사도좌의 역사적 계승이나 베드로의 권좌만을 내세우는 것은 무덤의 유골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4.2.2~3).”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Lucas Cranach True and False Church』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62강: 거짓 교회와 참 교회의 분별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참된 교회의 순결과 영광.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2대지] 거짓 교회의 실상: 사탄의 회당으로 전락한 교황주의 (4.2.4~6)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тезе는 '로마 교회의 거짓 교회성'입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 대신 교황의 교령을 세우고 십자가 대신 미사의 우상숭배를 들여옴으로써 참 교회의 본질적 표지를 파괴했습니다 (4.2.4).”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тезе는 '우상숭배와의 비타협 원칙'입니다:

“배교한 교회와 타협하여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며, 성도는 진리의 순결성을 위해 거짓 교회의 결박을 끊어야 합니다 (4.2.9~10).”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구약 이스라엘의 배교와 유다의 비교: 우상숭배와 언약의 파기 (4.2.7~10)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Rembrandt Preaching of John the Baptist)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 요한복음 10:27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 갈라디아서 1:8-9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교회의 흔적(*Vestigia Ecclesiae*)의 보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라는 폐허 속에서도 세례와 같은 교회의 잔재와 흔적을 기적적으로 보존하셨습니다 (4.2.11~12).”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Rembrandt Preaching of John the Baptist』을 보십시오.

성례와 공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실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뜻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2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2.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게 전파되고 들려지며, 그리스도의 제정대로 성례가 집행되는 곳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4.2.1).
3. 외적 계승의 무가치성:
4. 진리의 말씀이 떠난 곳에서 사도좌의 역사적 계승이나 베드로의 권좌만을 내세우는 것은 무덤의 유골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4.2.2~3).
5. 로마 교회의 거짓 교회성:
6. 로마 교회는 성경 대신 교황의 교령을 세우고 십자가 대신 미사의 우상숭배를 들어옴으로써 참 교회의 본질적 표지를 파괴했습니다 (4.2.4).
7. 우상숭배와의 비타협 원칙:
8. 배교한 교회와 타협하여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며, 성도는 진리의 순결성을 위해 거짓 교회의 결박을 끊어야 합니다 (4.2.9~10).
9. 교회의 흔적(*Vestigia Ecclesiae*)의 보존:
10.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라는 폐허 속에서도 세례와 같은 교회의 잔재와 흔적을 기적적으로 보존하셨습니다 (4.2.11~12).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말씀 중심 진단]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인간의 재미나 세속적 프로그램보다 기록된 성경 말씀의 바른 강해를 최우선으로 삼는가?
2. **[성례 거룩성] 성찬과 세례를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언약을 인치는 거룩한 은혜로 대하는가?
3. **[분별력 진단] 교회의 외적 크기나 세련됨에 현혹되지 않고, 그 속에 복음의 순결성과 사도적 진리가 살아있는가를 분별하는가?
4. **[타협 배경] 세속화된 문화와 인본주의적 가르침이 교회 강단에 침투할 때, 단호히 진리의 편에 서서 교회를 지키는가?
5. **[개혁의 소망] 연약하고 무너져 가는 현대 교회 속에서도, 남은 자를 통해 교회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 교회와 참 교회의 분별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요한복음 10: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 질문 2 (갈라디아서 1:8-9):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교회 건물이나 역사보다 왜 말씀과 성례가 더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에는?
 - A: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오직 자신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왜곡되면 교회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며,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 Q2: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 미혹된 지인을 도울 때의 핵심 원리는?

-

가의 단번의 복음(참 교회의 표지)을 대조하여 가짜임을 명백히 드러내도록 안내하십시오.

제63강: 교회의 직분자들: 선출과 사역: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거룩한 은사 (Book 4, Ch. 3)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3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4학기 — 교회와 성례 (Book IV, 61~80주)
- 주차: 제63주 (제4권 제3장: 교회의 직분자들: 선출과 사역)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옐로우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존 칼빈은 제4권 제3장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룩한 질서인 '교회의 직제 (Ministerium Ecclesiae)'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거나 직접 음성으로 교회를

순종을 시험하시며 공동체의 사랑의 연합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칼빈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4대 항존직인 목사(Pastor), 교사(Doctor), 장로(Presbyter/Senior), 집사(Diaconus)의 직무와 자격, 그리고 성도들의 동의를 통한 성경적 청빙의 원리를 명쾌히 확립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닮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63강: 교회의 직분자들: 선출과 사역의 진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2. 강의 학습 목표

1. 하나님께서 인간 직분자를 세워 교회를 다스리시는 섭리적 목적을 체계화한다.
2. 성경이 제정한 교회의 4대 직분(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고유한 직무를 정립한다.
3. 성직 매매와 전제적 임명을 배격하고, 성도의 투표와 동의에 기초한 성경적 선출법을 확립한다.
4. 교회의 직분자들을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존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질서를 세운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교회의 거룩한 질서: 왜 인간 직분자를 세우셨는가? (4.3.1~2)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비상 직분과 항존 직분: 사도·선지자·전도인 vs 목사·교사 (4.3.4~5)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다스리는 장로와 공훈의 집사: 치리와 구제의 두 기둥 (4.3.8~9)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직분자의 자격과 소명: 내적 소명과 외적 부르심 (4.3.10~14)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성경적 선출과 안수: 교회의 동의와 기도의 연합 (4.3.15~16)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3장, “교회의 직분자들: 선출과 사역”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비상 직분과 향존 직분: 사도·선지자·전도인 vs 목사·교사 (4.3.4~5) (10:00 ~ 22:00)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인간 사역자 제정의 영적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역자를 통해 말씀하심으로써 겸손의 순종을 훈련하시고, 지체들 간의 상호 의존과 사랑의 끈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4.3.1).”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교회의 4대 성경적 직분 체계'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말씀과 성례를 맡은 '목사',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 도덕과 치리를 맡은 '장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집사'로 세워집니다 (4.3.4~9).”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Rembrandt Syndics of the Drapers Guild』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63강: 교회의 직분자들: 선출과 사역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참된 교회의 순결과 영광.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빛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2대지] 다스리는 장로와 공훈의 집사: 치리와 구제의 두 기둥 (4.3.8~9) (22:00 ~ 34:00)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직분자의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입니다:

“참된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증거를 얻는 내적 소명(vocatio interna)과, 교회의 공적 검증과 청빙을 받는 외적 소명(vocatio externa)을 겸비해야 합니다 (4.3.11).”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성경적 선출 방식 (Electio Legitima)'입니다:

“사목자를 세울 때는 사제 독재나 세속 군주의 강요가 아니라, 기도와 금식 가운데 교회의 동의와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4.3.15).”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직분자의 자격과 소명: 내적 소명과 외적 부르심 (4.3.10~14)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Pietro Perugino Christ Giving Keys)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 에베소서 4:11-12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찌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 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찌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찌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 디모데전서 3:1-7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안수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안수는 신비한 마술적 권력 주입이 아니라, 거룩한 직무로의 성별과 사역을 위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장엄한 기도입니다 (4.3.16).”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영화 『Pietro Perugino Christ Giving Keys』을 보십시오.

성례와 공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실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닿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3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인간 사역자 제정의 영적 유익:
2. 하나님은 인간 사역자를 통해 말씀하심으로써 겸손의 순종을 훈련하시고, 지체들 간의 상호 의존과 사랑의 끈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4.3.1).
3. 교회의 4대 성경적 직분 체계:
4. 그리스도의 교회는 말씀과 성례를 맡은 '목사',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 도덕과 치리를 맡은 '장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집사'로 세워집니다 (4.3.4~9).
5. 직분자의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6. 참된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증거를 얻는 내적 소명(vocatio interna)과, 교회의 공적 검증과 청빙을 받는 외적 소명(vocatio externa)을 겸비해야 합니다 (4.3.11).
7. 성경적 선출 방식 (*Electio Legitima*):
8. 사목자를 세울 때는 사제 독재나 세속 군주의 강요가 아니라, 기도와 금식 가운데 교회의 동의와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4.3.15).
9. 안수의 성경적 의미:
10. 안수는 신비한 마술적 권력 주입이 아니라, 거룩한 직무로의 성별과 사역을 위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장엄한 기도입니다 (4.3.16).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직분 존중 진단] 내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와 장로들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가?
2. **[치리와 구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치리(장로)와 따뜻한 구제(집사)의 사역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는가?
3. **[권력 의식 배격]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감투나 권력으로 착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로 여기는가?
4. **[소명 분별] 교회의 직분을 맡을 때 개인적 야망이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두려움과 떨리는 청지기 의식을 갖는가?

하고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직분자들: 선출과 사역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에베소서 4:11-12):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니까?
- 질문 2 (디모데전서 3:1-7):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교회 직분자와 일반 성도 사이에 사제주의적 계급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 A: 개혁신학은 사제 계급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만인제사장직에 기초하되, 교회 질서를 위해 직무상의 기능적 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직분자는 성도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중입니다.
- Q2: 교회의 지도자가 실족하거나 넘어졌을 때 성도의 성경적 태도는?
- A: 맹목적으로 감싸거나 반대로 조롱하며 비난하지 말고, 성경의 원칙(딤후 5:19~20)에 따라 정직하게 치리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과 공의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64강: 초대교회의 순결한 직제와 청빈: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교황제 이전 고대 교회가 지켰던 감독과 장로의 청빈한 섬김 (Book 4, Ch. 4)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4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4학기 — 교회와 성례 (Book IV, 61~80주)
- 주차: 제64주 (제4권 제4장: 초대교회의 순결한 직제와 청빈)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위해, '초대 교부 시대의 순결한 직제와 청빈한 재정 운용'을 역사적으로 고증합니다. 교황제 이전 고대 교회(그레고리우스 1세 이전)에서 주교(감독)는 군주가 아니라 목사들의 동료회의 의장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재산은 4등분되어 (1) 성직자 생활비, (2) 가난한 자와 병자 구제, (3) 예배당 보수, (4) 나그네 환대로 온전히 쓰였습니다. 사제들은 금은보화를 탐하지 않았고, 성전 기물을 녹여 포로를 속량하는 거룩한 청빈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64강: 초대교회의 순결한 직제와 청빈의 진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2. 강의 학습 목표

1. 초대 교회의 순결한 직제와 주교-장로의 동등성을 역사적으로 규명한다.
2. 교회 재정의 4분법 원칙과 가난한 자를 위한 거룩한 청빈의 영성을 체계화한다.
3. 직분을 축재와 권력 찬탈의 도구로 전락시킨 중세 교권주의의 배교를 고발한다.
4. 오늘날 현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청빈과 섬김, 투명한 재정 청지기 정신을 결단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역사의 법정: 교황제 이전 고대 교회의 찬란한 청빈 (4.4.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주교와 장로의 관계: 군주가 아닌 동료 사역자들의 협의체 (4.4.2~3)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초대 교회의 재정 4분법: 교회의 재물은 과부와 고아의 소유 (4.4.5~8)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아크라키우스와 암브로시우스의 모범: 성전 금기를 녹여 포로를 살리다 (4.4.8)

•

(4.4.10~15)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교회의 청빈과 순결을 회복하는 거룩한 개혁의 결단

Ⅱ. 정식 60분 폴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4장, “초대교회의 순결한 직제와 청빈”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웁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주교와 장로의 관계: 군주가 아닌 동료 사역자들의 협의체 (4.4.2~3) (10:00 ~ 22:00)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초대 주교직의 본질'입니다:

“초대교회의 주교(Episcopus)는 오늘날 교황이나 대주교 같은 군주가 아니라, 여러 장로들 중 질서 유지를 위해 세운 동료 회의의 의장에 불과했습니다 (4.4.2).”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교회 재산의 4분법 규제'입니다:

“고대 교회는 헌금을 철저히 4등분하여 주교와 성직자, 가난한 과부와 고아, 교회당 유지, 나그네 구제에만 사용했습니다 (4.4.6).”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Fra Angelico St Laurence Distributing Alms*』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64강: 초대교회의 순결한 직제와 청빈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참된 교회의 순결과 영광.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보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구제를 위한 성전 기물의 헌신'입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굶주린 이웃과 포로들을 살리기 위해 성전의 금식기를 녹여 팔며 '살아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금그릇보다 귀하다'고 선언했습니다 (4.4.8).”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세속 권력과 분리된 선출'입니다:

“고대 교회의 목회자 청빙에는 반드시 온 교우들의 자유로운 동의와 투표가 필수적이었습니다 (4.4.10~11).”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아크라키우스와 암브로시우스의 모범: 성전 금기를 녹여 포로를 살리다 (4.4.8)
(34:00 ~ 46:00)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 베드로전서 5:1-3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 사도행전 20:28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청빈의 사도적 전통'입니다:

“성직자가 부귀영화를 탐하고 화려한 궁정에 거하는 것은 사도들의 모범을 짓밟는 타락입니다 (4.4.6, 4.4.8).”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Giotto St Francis Renounces Worldly Goods』을 보십시오.

성례와 공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실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닿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 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4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초대 주교직의 본질:
2. 초대교회의 주교(Episcopus)는 오늘날 교황이나 대주교 같은 군주가 아니라, 여러 장로들 중 질서 유지를 위해 세운 동료 회의의 의장에 불과했습니다 (4.4.2).
3. 교회 재산의 4분법 규례:
4. 고대 교회는 헌금을 철저히 4등분하여 주교와 성직자, 가난한 과부와 고아, 교회당 유지, 나그네 구제에만 사용했습니다 (4.4.6).
5. 구제를 위한 성전 기물의 헌신:
6. 암브로시우스는 굶주린 이웃과 포로들을 살리기 위해 성전의 금식기를 녹여 팔며 '살아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금그릇보다 귀하다'고 선언했습니다 (4.4.8).
7. 세속 권력과 분리된 선출:
8. 고대 교회의 목회자 청빙에는 반드시 온 교우들의 자유로운 동의와 투표가 필수적이었습니다 (4.4.10~11).
9. 청빈의 사도적 전승:
10. 성직자가 부귀영화를 탐하고 화려한 궁정에 거하는 것은 사도들의 모범을 짓밟는 타락입니다 (4.4.6, 4.4.8).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재정 투명성] 내가 섬기는 교회의 재정이 교회 건물 확장이나 과시보다 가난한 이웃과 선교에 풍성하게 쓰이고 있는가?
2. **[청빈 의식]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상의 화려한 소비문화에 물들지 않고, 검소함과 청빈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3. **[인간 중심 극복]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이 몇몇 권력자나 재력가의 뜻이 아니라, 성도 전체의 기도와 말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4. **[구제 우선순위] 고통당하는 환우,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돌보는 사역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동참하는가?

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대교회의 순결한 직제와 청빈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베드로전서 5:1-3):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 됩니까?
- 질문 2 (사도행전 20:28):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교회가 웅장한 예배당을 짓고 값비싼 악기를 사는 것이 낭비입니까?'라는 질문에는?
- A: 암브로시우스의 교훈처럼 예배당보다 더 귀한 것은 성도들의 영혼과 굶주린 이웃입니다. 예배의 품격을 지키되, 건물이 우상이 되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명을 팽개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 Q2: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에게는?
- A: 칼빈이 고발한 중세 교회의 타락을 거울삼아, 투명한 회계 보고와 성경적 4분법의 정신을 현대 교회에 회복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격려하십시오.

제65강: 교황제의 횡포로 인한 교회 정치의 붕괴: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직분을 권력과 축재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중세 교권주의 비판 (Book 4, Ch. 5)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5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4학기 — 교회와 성례 (Book IV, 61~80주)
- 주차: 제65주 (제4권 제5장: 교황제의 횡포로 인한 교회 정치의 붕괴)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강도의 소굴(spelunca latronum)'로 전락했는가를 통렬히 고발합니다. 교황과 추기경들은 양 떼를 먹이는 목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주교직과 수도원장직을 돈을 받고 파는 성직 매매(Simonia)를 자행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주교관을 씌우고, 한 사람이 여러 교구의 수입을 가로채는 겸직의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칼빈은 이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교회를 세속 군주들의 축재와 권력 놀이터로 만든 가증한 배교임을 폭로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65강: 교황제의 횡포로 인한 교회 정치의 붕괴의 진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2. 강의 학습 목표

1. 중세 로마 교황청의 성직 매매(Simonia)와 교권주의적 부패의 역사적 실상을 고발한다.
2. 목양과 말씀 선포를 팽개친 채 직분을 축재의 수단으로 삼은 거짓 사역자들의 죄악을 규명한다.
3. 성경적 장로 치리와 교인들의 청빙 권리를 박탈한 교황 독재의 반성경성을 논파한다.
4. 교권주의의 잔재를 경계하고, 오직 겸손하게 양 떼를 목양하는 참된 목회자상을 확립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거룩한 직분의 타락: 목양 없는 삿꾼들의 전성시대 (4.5.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성직 매매(Simonia)의 비극: 교회를 돈으로 사고판 교황청 (4.5.2~5)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목양의 완전한 실종: 설교하지 않는 주교들과 게으른 사제들 (4.5.8~11)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수도원과 성직 겸직의 횡포: 어린아이와 불경건한 자들의 주교 임명 (4.5.6~7)

•

혁 (4.5.17~19)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의 참된 청지기 직분을 지키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5장, “교황제의 횡포로 인한 교회 정치의 붕괴”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웁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성직 매매(Simonia)의 비극: 교회를 돈으로 사고판 교황청 (4.5.2~5) (10:00 ~ 22:00)

원전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설교 없는 목사의 사기극'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양 떼를 먹이지 않는 목사는 이름만 목사일 뿐, 성경의 기준으로는 이리요 샅꾼에 불과합니다 (4.5.8).”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성직 매매의 불법성'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뇌물이나 친분으로 사고파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사려 했던 시몬 마구스의 저주를 자초하는 악행입니다 (4.5.2~4).”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Lucas Cranach Passional Christi und Antichristi』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65강: 교황제의 횡포로 인한 교회 정치의 붕괴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참된 교회의 순결과 영광.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겸직과 부재지주의 횡포'입니다:

“자신의 양 떼를 직접 돌보지 않고 여러 교구의 십일조와 수입만을 가로채는 로마 주교들의 행태는 양 떼의 가족을 벋기는 강도질입니다 (4.5.6).”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교인들의 권리 박탈'입니다:

“성도들의 동의와 투표권을 빼앗고 교황이 일방적으로 낙하산 주교를 내리꽂은 것은 교회의 거룩한 자유를 유린한 폭정입니다 (4.5.11).”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수도원과 성직 겸직의 횡포: 어린아이와 불경건한 자들의 주교 임명 (4.5.6~7)
(34:00 ~ 46:00)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찢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나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 에스겔 34:2-4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 마태복음 23:1-7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개혁의 시급성과 필연성'입니다:

“직제가 완전히 무너져 도둑과 강도의 소굴이 된 교회를 방치할 수 없었기에,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한 절대적 필연이었습니다 (4.5.17~19).”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Hieronymus Bosch Haywain Triptych』을 보십시오.

성례와 공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실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맞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 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5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설교 없는 목사의 사기극:
2. 말씀을 선포하고 양 떼를 먹이지 않는 목사는 이름만 목사일 뿐, 성경의 기준으로는 이리요 샅꾼에 불과합니다 (4.5.8).
3. 성직 매매의 불법성:
4. 교회의 직분을 뇌물이나 친분으로 사고파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사려 했던 시몬 마구스의 저주를 자초하는 악행입니다 (4.5.2~4).
5. 겸직과 부재지주의 횡포:
6. 자신의 양 떼를 직접 돌보지 않고 여러 교구의 십일조와 수입만을 가로채는 로마 주교들의 행태는 양 떼의 가족을 벗기는 강도질입니다 (4.5.6).
7. 교인들의 권리 박탈:
8. 성도들의 동의와 투표권을 빼앗고 교황이 일방적으로 낙하산 주교를 내리쬘 것은 교회의 거룩한 자유를 유린한 폭정입니다 (4.5.11).
9. 개혁의 시급성과 필연성:
10. 직제가 완전히 무너져 도둑과 강도의 소굴이 된 교회를 방치할 수 없었기에,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한 절대적 필연이었습니다 (4.5.17~19).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목양 중심 진단]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이 행정과 정치보다 말씀 연구와 성도 심방, 기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가?

단호히 배격하는가?

3. **[샅꾼 의식 경계] 봉사와 사역을 나의 이익이나 인정의 도구로 삼지 않고,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고 있는가?
4. **[투명한 선출] 교회의 직분자 선출이 금권 선거나 파벌 싸움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진행되는가?
5. **[교회 갱신 기도]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중세의 교권주의를 답습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되도록 중보하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황제의 횡포로 인한 교회 정치의 붕괴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에스겔 34:2-4):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자기만...”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 됩니까?
- 질문 2 (마태복음 23:1-7):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성직 매매나 교권주의의 위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 A: 직분을 돈으로 사는 노골적인 형태는 줄었을지라도, 교회 매매, 세습, 파벌 정치, 재정 비리 등 변형된 형태의 교권주의가 여전히 교회를 위협합니다. 칼빈의 경고를 기억하고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 Q2: 목회자에게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불신하는 성도에게는?
- A: 칼빈도 당대의 썩은 사제들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역자의 타락 때문에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위로하고 참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시선을 두도록 도우십시오.

제66강: 로마 교황의 수위권 주장에 대한 반박: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베드로의 반석 고백은 교황 개인의 권좌가 아닌 신앙고백이다 (Book 4, Ch. 6)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6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4학기 — 교회와 성례 (Book IV, 61~80주)
- 주차: 제66주 (제4권 제6장: 로마 교황의 수위권 주장에 대한 반박)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엠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Primatvs Romani Pontificis)'을 성경적으로 철저히 해체합니다. 로마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을 왜곡하여 베드로가 사도들의 우두머리였고, 그 권한이 로마 교황에게 독점적으로 계승되었다고 억지 주장했습니다. 칼빈은 성경 원어와 전후 문맥을 통해 반석은 베드로 인간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임을 입증합니다. 교회에는 오직 한 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 뿐, 지상에 군림하는 인간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66장: 로마 교황의 수위권 주장에 대한 반박의 진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2. 강의 학습 목표

1.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반석'이 베드로 개인이 아닌 그리스도와 신앙고백임을 성경적으로 확증한다.
2. 사도들 간의 평등성과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 머리 되심을 체계화한다.
3. 베드로가 결코 사도들 위에 군림하는 군주가 아니었음을 신약 성경을 통해 논증한다.
4. 어떤 인간 지도자도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참된 영적 자유를 지킨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로마 교황청의 오만: 전 세계 교회의 수위권 주장 (4.6.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마태복음 16장 18절 해석: 반석은 그리스도와 신앙고백이다 (4.6.3~5)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사도들의 평등성: 바울의 베드로 책망과 예루살렘 공의회 (4.6.7~9)

•

(4.6.9~10)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베드로의 로마 사역설의 허구와 계승권의 파탄 (4.6.14~17)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섬기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6장, “로마 교황의 수위권 주장에 대한 반박”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Caravaggio Crucifixion of Saint Peter 및 원전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반석의 참된 의미 (Petra est Christus)'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은 연약하고 넘어지는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으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4.6.3).”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그리스도의 단독 머리 되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몸에 두 머리가 있을 수 없으므로 지상에 '가시적 머리(caput visibile)'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주권을 찬탈하는 괴물과 같습니다 (4.6.9).”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Caravaggio Crucifixion of Saint Peter』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66강: 로마 교황의 수위권 주장에 대한 반박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참된 교회의 순결과 영광.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사도권의 본질적 동등성'입니다:

“열두 사도는 동일한 권세와 사명을 받았으며, 베드로 역시 바울에게 외식으로 책망받았고 야고보가 주재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에 순종했습니다 (4.6.7~8).”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열쇠의 권세의 보편성'입니다:

“매고 푸는 열쇠의 권세는 베드로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사도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주신 영적 권세입니다 (4.6.4).”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4장) (4.6.9~10) (34:00 ~ 46:00)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 마태복음 16:16-18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 갈라디아서 2:9-11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교황 계승권의 역사적 허구'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주교로 군림했다는 명백한 성경적 증거는 없으며, 설령 그가 로마에서 순교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로마 교황의 군주권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4.6.14~15).”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Raphael Christ Charge to Peter』을 보십시오.

성례와 공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실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닿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6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반석의 참된 의미 (*Petra est Christus*):
2.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은 연약하고 넘어지는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으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4.6.3).
3. 그리스도의 단독 머리 되심:
4.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몸에 두 머리가 있을 수 없으므로 지상에 '가시적 머리(*caput visibile*)'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주권을 찬탈하는 괴물과 같습니다 (4.6.9).
5. 사도권의 본질적 동등성:
6. 열두 사도는 동일한 권세와 사명을 받았으며, 베드로 역시 바울에게 외식으로 책망받았고 야고보가 주재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에 순종했습니다 (4.6.7~8).
7. 열쇠의 권세의 보편성:
8. 매고 푸는 열쇠의 권세는 베드로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사도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주신 영적 권세입니다 (4.6.4).
9. 교황 계승권의 역사적 허구:
10. 베드로가 로마 주교로 군림했다는 명백한 성경적 증거는 없으며, 설령 그가 로마에서 순교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로마 교황의 군주권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4.6.14~15).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그리스도 중심] 내 신앙의 궁극적 머리와 통치자가 어떤 영적 지도자나 목회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가?
2. **[지도자 우상화 배경] 은사나 영향력이 큰 목회자를 교황처럼 맹종하거나 절대화하는 현대적 교권주의를 경계하고 있는가?

두고 있는가?

4. **[직분 평등성] 교회 내의 모든 직분이 우열의 계급이 아니라, 한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는 기능적 동역자임을 인정하는가?
5. **[오직 주께 영광] 교회의 모든 사역과 영광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돌아가도록 내 이름을 감추고 주님만을 높이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 교황의 수위권 주장에 대한 반박에 관하여 가졌던 오히려 갈증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마태복음 16:16-1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 질문 2 (갈라디아서 2:9-11):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가톨릭 신자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내세우며 교황의 수위권을 주장할 때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 A: 고린도전서 3:11('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을 제시하며, 초대 교부 어거스틴과 크리소스톰 역시 반석을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고백'으로 해석했음을 알려주십시오.
- Q2: 개신교 안에서도 특정 목회자를 교황처럼 대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혁적 대안은?
- A: 철저한 장로회적 대의정치와 당회 및 공동의회의 건강한 견제,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배워야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지도자의 설교를 말씀으로 검증하는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제67강: 로마 교황제의 기원과 역사적 권력 찬탈: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위조 문서와 세속 정치 결탁으로 부풀려진 교황권의 실상 (Book 4, Ch. 7)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7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4학기 — 교회와 성례 (Book IV, 61~80주)
- 주차: 제67주 (제4권 제7장: 로마 교황제의 기원과 역사적 권력 찬탈)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엠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교권을 확장하고 마침내 온 유럽의 황제와 왕들을 짓밟는 '세속 군주이자 영적 폭군'으로 타락했는가를 방대한 교회사를 통해 논증합니다. 칼빈은 그레고리우스 1세(대교황)가 '보편 주교(Universalis Episcopus)'라는 칭호를 가리켜 '적그리스도의 선구자요 사탄의 교만'이라 질타했던 역사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또한 중세 교황들이 위조 문서(이시도루스 교령집,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서)를 날조하여 사기극으로 교황권을 날조했음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67강: 로마 교황제의 기원과 역사적 권력 찬탈의 진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2. 강의 학습 목표

1. 로마 주교가 초대교회의 명예적 주교에서 전제 군주로 변질된 역사적 궤적을 규명한다.
2. 그레고리우스 1세가 질타한 '보편 주교' 칭호의 적그리스도적 성격을 이해한다.
3. 콘스탄티누스 기증서 등 중세 교황청의 위조 문서 날조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
4. 영적 사역자가 세속 권력과 부를 탐할 때 교회가 필연적으로 파멸함을 경계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야망의 역사: 로마 주교는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가? (4.7.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초대 교회의 질서와 니케아 공의회: 관할구역의 엄격한 제한 (4.7.1~4)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그레고리우스 1세의 경고: 보편 주교는 적그리스도의 선구자다 (4.7.4~7)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위조 문서와 교황권 날조: 콘스탄티누스 기증서의 사기극 (4.7.11~14)

•

현 (4.7.23~30)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세속 권력의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섬김을 회복하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7장, “로마 교황제의 기원과 역사적 권력 찬탈”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Lucas Cranach Papal Extortion Woodcut* 및 원전 정보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초대 교회의 지역적 한계'입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의 주교들에게 각자의 관할 구역만을 다스리도록 엄격히 규정했으며, 로마 주교에게 전 세계적 사법권을 결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4.7.3).”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그레고리우스 1세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로마 주교 그레고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보편 주교'라 자칭하자, '누구든지 자신을 보편적 주교라 부르거나 불리기를 원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선구자'라고 탄핵했습니다 (4.7.4).”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Lucas Cranach Papal Extortion Woodcut*』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67장: 로마 교황제의 기원과 역사적 권력 찬탈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참된 교회의 순결과 영광.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위조 문서에 기초한 교권'입니다:

“중세 교황청은 황제가 로마 주교에게 서유럽 제국을 헌납했다는 가짜 문서(콘스탄티누스의 기증서)를 조작하여 불법적으로 세속 권력을 강탈했습니다 (4.7.11~13).”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두 칼(영권과 세속권)의 찬탈'입니다:

“교황들이 황제를 폐위하고 세속 군주를 굴복시키며 세상의 칼까지 휘두른 것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4.7.26).”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위조 문서와 교황권 날조: 콘스탄티누스 기증서의 사기극 (4.7.11~14) (34:00 ~ 46:00)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 데살로니가후서 2:3-4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 디모데전서 4:1-3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데살로니가후서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법을 뜯어고치는 로마 교황권은 바울이 예언한 '불법의 사람(적그리스도)'의 전형입니다 (4.7.25).”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Rembrandt Belshazzar Feast』을 보십시오.

성례와 공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실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닿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 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7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초대 교회의 지역적 한계:
2. 니케아 공의회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의 주교들에게 각자의 관할 구역만을 다스리도록 엄격히 규정했으며, 로마 주교에게 전 세계적 사법권을 결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4.7.3).
3. 그레고리우스 1세의 준엄한 경고:
4. 로마 주교 그레고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보편 주교'라 자칭하자, '누구든지 자신을 보편적 주교라 부르거나 불리기를 원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선구자'라고 탄핵했습니다 (4.7.4).
5. 위조 문서에 기초한 교권:
6. 중세 교황청은 황제가 로마 주교에게 서유럽 제국을 헌납했다는 가짜 문서(콘스탄티누스의 기증서)를 조작하여 불법적으로 세속 권력을 강탈했습니다 (4.7.11~13).
7. 두 칼(영권과 세속권)의 찬탈:
8. 교황들이 황제를 폐위하고 세속 군주를 굴복시키며 세상의 칼까지 휘두른 것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4.7.26).
9. 데살로니가후서의 적그리스도:
10.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법을 뜯어고치는 로마 교황권은 바울이 예언한 '불법의 사람(적그리스도)'의 전형입니다 (4.7.25).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세속 권력 경계] 교회가 국가 권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에 기대어 교회의 뜻을 관철하려는 유혹에 빠져있지 않은가?
2. **[겸손의 영성] 교회의 지도자들이 높은 자리와 권위의 칭호를 사모하기보다, 그리스도처럼 무릎 꿇고 발을 씻기는 종의 자세를 갖추었는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하는가?

4. **[역사의 교훈] 교회가 세상 부귀영화를 거머쥐었을 때 가장 참혹하게 부패했다는 교회사적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5. **[십자가의 길] 세상 영광을 거부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좁은 길을 걷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 교황제의 기원과 역사적 권력 찬탈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데살로니가후서 2:3-4):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 질문 2 (디모테전서 4:1-3):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치적 권력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는?
- A: 역사는 교회가 세속 칼을 잡았을 때 언제나 복음의 순결성을 잃고 부패했음을 증명합니다. 교회는 정치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세상을 변혁시켜야 합니다.
- Q2: 과거 위조 문서로 교권을 세운 로마 교회를 보며 현대 교회가 배워야 할 교훈은?
- A: 하나님의 일은 결코 불의한 인간의 수단이나 조작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직과 진실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제68강: 교회의 권세와 순결한 성경 교리: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교회는 성경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경의 순종하는 딸이다 (Book 4, Ch. 8)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8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4학기 — 교회와 성례 (Book IV, 61~80주)
- 주차: 제68주 (제4권 제8장: 교회의 권세와 순결한 성경 교리)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엠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in Dogmatibus)'의 성경적 한계를 규정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으며 교황과 공의회가 새로운 신앙 교리를 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모세와 선지자, 그리고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외에 사사로운 교리를 덧붙일 권세를 받지 못했다고 선언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는 '주권자'가 아니라 '대언자'이며,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오직 기록된 성경 66권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종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68강: 교회의 권세와 순결한 성경 교리의 진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2. 강의 학습 목표

1. 교회의 영적 권세가 인간의 독창적 입법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수종자임을 확립한다.
2.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도록 제한받았음을 성경적으로 규명한다.
3. 새로운 교리와 성경 외적 계시를 날조하는 로마 교황청의 거짓 교도권을 논파한다.
4. 기록된 성경 66권을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최종 규범(Norma Normans)으로 붙든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교회의 영적 권세: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금해야 하는가? (4.8.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계시의 유일한 원천: 모세와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의 엄위성 (4.8.2~4)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사도들의 권한과 한계: 그리스도의 입술로서의 증언 (4.8.5~8)

•

(4.8.10~13)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성: 성경을 넘어서는 계시는 거짓이다 (4.8.13~16)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오직 성경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순결한 신앙의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8장, “교회의 권세와 순결한 성경 교리”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Albrecht Durer Saint Jerome 및 원전 정보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교회 권세의 성격 (*Potestas Serviens*)'입니다:

“교회의 권세는 사람 위에 군림하는 전제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 말씀에 수종드는 종의 권세입니다 (4.8.1).”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말씀 추가의 엄격한 금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인간 사역자에게 새로운 교리를 만들 권한을 주신 적이 없으며, 오직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는 대언의 사명만을 주셨습니다 (4.8.3, 4.8.5).”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Albrecht Durer Saint Jerome』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68강: 교회의 권세와 순결한 성경 교리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참된 교회의 순결과 영광.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2대지] 사도들의 권한과 한계: 그리스도의 입술로서의 증언 (4.8.5~8) (22:00 ~ 34:00)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그리스도의 최종적 계시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구원 진리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계시되었으며, 더 이상의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4.8.7).”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교회의 무오설 비판'입니다:

“로마 교회가 '성령이 인도하시므로 교회는 결코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성경과 모순되는 교리를 만드는 것은 성령을 사탄의 변명거리로 삼는 가증한 짓입니다 (4.8.13).”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로마 교회의 망상 분쇄: 성경 위에 군림하는 교도권의 폭정 (4.8.10~13)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Gerard Dou Old Woman Reading Bible)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 갈라디아서 1:8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 요한이서 1:9-10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성령의 약속의 참된 범위'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새로운 교리를 제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4.8.13).”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Gerard Dou Old Woman Reading Bible』을 보십시오.

성례와 공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실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닿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 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8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교회 권세의 성격 (*Potestas Serviens*):
2. 교회의 권세는 사람 위에 군림하는 전제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 말씀에 수종드는 종의 권세입니다 (4.8.1).
3. 말씀 추가의 엄격한 금지:
4.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인간 사역자에게 새로운 교리를 만들 권한을 주신 적이 없으며, 오직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는 대언의 사명만을 주셨습니다 (4.8.3, 4.8.5).
5. 그리스도의 최종적 계시 완성:
6.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구원 진리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계시되었으며, 더 이상의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4.8.7).
7. 교회의 무오설 비판:
8. 로마 교회가 '성령이 인도하시므로 교회는 결코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성경과 모순되는 교리를 만드는 것은 성령을 사탄의 변명거리로 삼는 가증한 짓입니다 (4.8.13).
9. 성령의 약속의 참된 범위:
10.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새로운 교리를 계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4.8.13).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오직 성경] 나의 신앙과 윤리적 판단의 최종 기준이 사람의 말이나 교단의 전통이 아닌 오직 성경 말씀인가?
 2. **[직통 계시 경계] 성경 66권 외에 사적인 음성이나 환상을 절대적 진리처럼 내세우는 신비주의적 거짓을 분별하는가?
 3. **[설교 분별력]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설교자의 개인적 사건이나 철학이 아닌, 순수한 성경의 본의를 밝히는가?
 4. **[성경의 충분성] 성경 외에 추가적인 구원의 조건이나 인간적 교리가 필요 없음을 믿는 '성경의 충분성'을 확신하는가?
 5. **[겸손한 복종]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선입견과 충돌할 때, 내 뜻을 꺾고 말씀 앞에 즉각 굴복하는가?
-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권세와 순결한 성경 교리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갈라디아서 1:8):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니까?
- 질문 2 (요한이서 1:9-10):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 A: 성경이 교회를 낳은 것이지 교회가 성경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법 위에 설 수 없듯, 사도들의 터(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성경 아래에 복종해야 합니다.
- Q2: 직통 계시나 예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성도를 어떻게 지도해야 합니까?
- A: 성경 66권으로 구원에 이르는 계시는 완전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성령은 성경의 진리를 조명하시는 분이시 성경을 대체하는 사적인 새 계시를 주지 않음을 성경으로 차근차근 권면하십시오.

제69강: 공의회들의 성경적 권위와 한계: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공의회도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오직 성경만이 무오한 규범이다 (Book 4, Ch. 9)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9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4학기 — 교회와 성례 (Book IV, 61~80주)
- 주차: 제69주 (제4권 제9장: 공의회들의 성경적 권위와 한계)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Concilia)'의 역사적 실상을 평가합니다. 칼빈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돈과 같은 정통 고대 4대 공의회가 성경에 근거하여 삼위일체와 기독교 이단을 물리친 공로를 높이 존경합니다. 그러나 공의회 자체가 무오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수많은 공의회(예: 에베소 도적 공의회, 우상숭배를 결의한 2차 니케아 공의회 등)가 치명적인 오류와 충돌을 빚었습니다. 칼빈은 공의회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성경이라는 저울에 달아 검증해야 함을 천명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69강: 공의회들의 성경적 권위와 한계의 진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2. 강의 학습 목표

1. 초대 4대 정통 공의회의 역사적 성과를 인정하되, 공의회 무오설의 허구를 규명한다.
2. 서로 모순되고 충돌했던 수많은 교회사 속 공의회의 역사적 사례를 검토한다.
3. 성령이 함께하시는 참된 회의와 인간의 권력과 당파 싸움으로 얼룩진 거짓 회의를 분별한다.
4. 공의회의 모든 신조와 결정을 성경의 저울로 달아 판단하는 개혁신학의 성경적 검증 원리를 확립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공의회의 권위: 교회의 회의는 절대 무오한가? (4.9.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고대 공의회의 영광과 공헌: 아리우스와 네스토리우스 논박 (4.9.1~3)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공의회의 오류와 상호 모순: 역사가 증언하는 회의들의 파탄 (4.9.4~8)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성경이라는 유일한 시금석: 공의회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 (4.9.8~11)

- 의 실상 (4.9.12~14)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교회의 결정과 신조를 성경으로 분별하며 진리를 따르는 결단
-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9장, “공의회들의 성경적 권위와 한계”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Tintoretto Council of Trent 및 원전 정보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공의회의 성경적 가치'입니다:

“니케아나 칼케돈 공의회처럼 경건한 교부들이 모여 성경을 통해 이단을 물리친 결정은 교회의 소중한 유산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4.9.1, 4.9.8).”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공의회의 가변성과 가오성'입니다:

“공의회 역시 연약한 죄인들의 모임이므로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서로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공의회들이 역사에 가득합니다 (4.9.9).”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Tintoretto Council of Trent』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69강: 공의회들의 성경적 권위와 한계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참된 교회의 순결과 영광.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의 참된 조건'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주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에 온전히 복종할 때만 유효하며, 교황의 이름으로 모인 회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9.2).”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성경에 의한 공의회 심판'입니다:

“모든 공의회의 결론은 오직 성경의 저울에 올려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에만 성도의 양심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4.9.8).”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성경이라는 유일한 시금석: 공의회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 (4.9.8~11) (34:00 ~ 46:00)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줄
알았노니”

— 사도행전 15:28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 요한일서 4:1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교회 회의의 당파성 경계'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모였으나 실상은 세속 정치 권력과 인간 교권의 야합으로 변질된 회의는 사탄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4.9.4).”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Philippe de Champaigne Council Fathers』을 보십시오.

성례와 공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실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닿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 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9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공의회의 성경적 가치:
2. 니케아나 칼케돈 공의회처럼 경건한 교부들이 모여 성경을 통해 이단을 물리친 결정은 교회의 소중한 유산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4.9.1, 4.9.8).
3. 공의회의 가변성과 가오성:
4. 공의회 역시 연약한 죄인들의 모임이므로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서로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공의회들이 역사에 가득합니다 (4.9.9).
5.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의 참된 조건:
6.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주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에 온전히 복종할 때만 유효하며, 교황의 이름으로 모인 회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9.2).
7. 성경에 의한 공의회 심판:
8. 모든 공의회의 결론은 오직 성경의 저울에 올려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에만 성도의 양심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4.9.8).
9. 교회 회의의 당파성 경계:
10. 성령의 이름으로 모였으나 실상은 세속 정치 권력과 인간 교권의 야합으로 변질된 회의는 사탄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4.9.4).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성경의 최종성] 교단의 총회나 권위 있는 교회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어긋날 때 성경을 따를 용기가 있는가?
 2. **[역사적 신조 존중]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등 교회가 성경으로 확립한 정통 교리적 유산을 바르게 배우고 고백하는가?
 3. **[인간 집단 맹신 배격] 다수결이나 유력한 다수의 목소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계하는가?
 4. **[당회와 총회를 위한 기도] 내가 속한 교회의 당회, 노회, 총회가 정치 싸움이 아닌 성령의 통치 아래 말씀만을 따르도록 기도하는가?
 5. **[영적 분별력] 복잡한 현대 신학적 논쟁 속에서 성경 원리에 입각하여 무엇이 참된 복음인가를 분별하는가?
-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의회들의 성경적 권위와 한계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사도행전 15:28):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줄 알았노니...”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 질문 2 (요한일서 4:1):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공의회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사와 신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

다만 그것이 성경 자체와 동등한 무오성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항상 성경의 빛 아래서 존중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 Q2: 교회 회의나 교단 총회에서 비성경적 결정이 내려질 때 성도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 A: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증언하고 개혁을 촉구하되, 인간적 혈기나 당파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성경적 절차를 따라 교회의 정결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70강: 법 제정권과 성도 양심의 자유: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인간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려는 독재를 거부함 (Book 4, Ch. 10)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10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4학기 — 교회와 성례 (Book IV, 61~80주)
- 주차: 제70주 (제4권 제10장: 법 제정권과 성도 양심의 자유)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옐로우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존 칼빈은 제4권 제10장에서 로마 교회가 성경에 없는 수많은 인간의 법(전통, 금욕 규제, 독신제, 의무적 고해, 금식일 등)을 만들어 성도들의 영적 양심을 노예로 억압한 영적 폭정을 정면으로

명령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황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법을 어기는 것을 더 큰 죄로 취급하며 영혼들을 지옥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칼빈은 교회의 질서와 예의를 위한 외적 규칙(Politeia)은 필요하지만, 성도의 양심을 결박하여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모든 인간의 교조주의를 배격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70장: 법 제정권과 성도 양심의 자유의 진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2. 강의 학습 목표

1.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성도의 양심의 자유'의 숭고한 가치를 체계화한다.
2. 금식, 절기, 독신제 등 성경에 없는 규례로 양심을 결박한 로마 가톨릭의 폭정을 고발한다.
3.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과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가변적 외적 규칙(아디아포라)의 차이를 확립한다.
4. 인간의 유전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과 질서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음적 자유를 실천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양심의 법정: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유일한 주재이시다 (4.10.1~3)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인간의 유전이 초래한 참상: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은 교황의 법 (4.10.4~8)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바울의 경고: 귀신의 가르침인 금욕과 음식 규례 논박 (골로새서 2장) (4.10.9~14)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참된 교회 질서의 원리: 사랑과 덕을 세우는 예의와 규례 (4.10.27~30)

•

(4.10.31~32)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사람의 계명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0장, “법 제정권과 성도 양심의 자유”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Lucas Cranach Luther at Worms* 및 원전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양심의 유일한 주재 (*Solus Deus Dominus Conscientiae*)'입니다:

“성도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기록된 말씀에만 복종하며, 어떤 인간이나 교황도 구원에 이르는 법을 제정하여 양심을 결박할 수 없습니다 (4.10.1).”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인간 유전의 우상화 비판'입니다:

“로마 교회가 사순절 금식이나 사제 독신제를 어기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더 엄히 처벌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폐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섬긴 바리새인의 재현입니다 (4.10.4).”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Lucas Cranach Luther at Worms*』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70강: 법 제정권과 성도 양심의 자유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참된 교회의 순결과 영광.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사도 바울의 단호한 경고'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하라 명하는 금욕적 규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상은 '귀신의 가르침'이자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유를 짓밟는 짓입니다 (4.10.9~10).”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교회 외적 질서 규례의 성격'입니다:

“교회가 정하는 예배 시간이나 질서에 관한 규칙들은 양심을 구속하는 영적 법이 아니라, 공동체의 품위와 화평을 위한 외적 방편(Politeia)에 불과합니다 (4.10.27).”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참된 교회 질서의 원리: 사랑과 덕을 세우는 예의와 규례 (4.10.27~30) (34:00 ~ 46:00)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대로 부패에 돌아 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대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 골로새서 2:20-23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 마태복음 15:8-9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덕과 사랑의 실천 원리'입니다:

“성도는 양심의 자유를 누리되, 방종이나 이웃을 실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않고 오직 형제를 배려하는 사랑의 덕을 위해 자유를 절제합니다 (4.10.31).”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Rembrandt Moses Smashing Tablets』을 보십시오.

성례와 공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실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닮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0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양심의 유일한 주재 (*Solus Deus Dominus Conscientiae*):
2. 성도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기록된 말씀에만 복종하며, 어떤 인간이나 교황도 구원에 이르는 법을 제정하여 양심을 결박할 수 없습니다 (4.10.1).
3. 인간 유전의 우상화 비판:
4. 로마 교회가 사순절 금식이나 사제 독신제를 어기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더 엄히 처벌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폐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섬긴 바리새인의 재현입니다 (4.10.4).
5. 사도 바울의 단호한 경고:
6.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하라 명하는 금욕적 규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상은 '귀신의 가르침'이자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유를 짓밟는 짓입니다 (4.10.9~10).
7. 교회 외적 질서 규례의 성격:
8. 교회가 정하는 예배 시간이나 질서에 관한 규칙들은 양심을 구속하는 영적 법이 아니라, 공동체의 품위와 화평을 위한 외적 방편(*Politeia*)에 불과합니다 (4.10.27).
9. 덕과 사랑의 실천 원리:
10. 성도는 양심의 자유를 누리되, 방종이나 이웃을 실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않고 오직 형제를 배려하는 사랑의 덕을 위해 자유를 절제합니다 (4.10.31).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양심의 해방] 구원과 영적 평안을 인간적인 종교 규율이나 금욕적 규칙의 준수에서 찾지 않고 십자가 은혜 안에서 누리는가?
2. **[바리새적 잣대 배경]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인간적 관습이나 취향을 가지고 다른 성도의 믿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가?

위해 기쁨으로 순종하는가?

4. **[자유의 바른 사용] 나의 영적 자유가 연약한 지체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랑 안에서 자
원하여 절제하는 성숙함이 있는가?
5. **[말씀의 명확성] 성경이 명하는 것에는 절대 순종하고, 성경이 침묵하거나 허용한 것에는 관
용을 베푸는 지혜를 갖추었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 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법 제정권과 성도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
증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골로새서 2:20-23):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
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
결됩니까?
- 질문 2 (마태복음 15:8-9):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
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
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
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교회가 정한 규칙(예: 주일 예배 복장, 금주·금연 등)은 양심을 구속하는 법입니까?'
- A: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나 죄책을 부여하는 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체의 질서, 성도의 거룩한 덕, 그리고 연약한 이웃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한 사랑과 배려의 권면으로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성숙한 자세입니다.
- Q2: 율법주의적 신앙생활로 인해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리는 성도에게 줄 수 있는 권면은?
- A: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와 인간적 공로의 결박을 끊으셨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아들로 부르셨으며, 사랑 안에서 자원하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제71강: 교회의 영적 재판권과 남용 비판: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세속 권력의 칼이 아닌 말씀과 권징의 열쇠로 다스리는 교회 (Book 4, Ch. 11)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11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4학기 — 교회와 성례 (Book IV, 61~80주)
- 주차: 제71주 (제4권 제11장: 교회의 영적 재판권과 남용 비판)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앰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Potestas Gladii)'의 본질적 구별을 정립합니다. 중세 로마 교회는 주교들이 감옥을 짓고 세속 법정을 열어 신민을 투옥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등 세속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반대로 일부 세속 군주들은 교회의 영적 권징과 출교권까지 국가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습니다(에라스투스주의). 칼빈은 하나님께서 두 왕국(영적 나라와 세속 시민 정부)을 각각의 고유한 직무로 세우셨음을 선언합니다. 국가는 육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칼(물리적 강제력)'을 쓰지만, 교회는 영혼의 회복을 위해 오직 '말씀의 검과 영적 권징'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71강: 교회의 영적 재판권과 남용 비판의 진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2. 강의 학습 목표

1. 교회의 영적 치리권과 국가의 세속 사법권의 성경적 한계와 고유 영역을 정립한다.
2. 중세 주교들이 세속 법정을 운영하며 물리적 칼을 휘두른 교권의 타락을 비판한다.
3. 국가가 교회의 영적 치리권을 침탈하려 했던 에라스투스주의의 오류를 논파한다.
4. 교회와 국가의 건전한 협력과 구별을 통해 영적 순결성을 지켜낸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두 개의 칼: 영적 통치와 세속 통치의 본질적 구별 (4.11.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교회의 치리권의 본질: 영혼의 치료를 위한 말씀의 사역 (4.11.1~3)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세속 권력을 찬탈한 로마 주교들: 칼을 든 사제들의 타락 (4.11.4~8)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고대 교회의 모범: 암브로시우스와 황제 테오도시우스의 치리 (4.11.3)

•

(4.11.11~16)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교회의 영적 거룩성과 복음의 순결한 권위를 지키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1장, “교회의 영적 재판권과 남용 비판”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웁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교회의 치리권의 본질: 영혼의 치료를 위한 말씀의 사역 (4.11.1~3) (10:00 ~ 22:00)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교회 치리권의 영적 성격'입니다:

“교회의 사법권은 물리적 폭력이나 벌금, 투옥을 수반하지 않으며, 오직 영혼을 권고하고 경책하여 회개케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4.11.1).”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국가 권력과의 상호 독립과 존중'입니다:

“국가 위정자는 외적 평화와 정의를 위해 세속의 칼을 쓰며, 교회는 성도의 영적 양심과 순결을 위해 영적인 열쇠를 사용하므로 두 권력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4.11.3).”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Caravaggio Christ before Pilate』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71강: 교회의 영적 재판권과 남용 비판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참된 교회의 순결과 영광.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2대지] 세속 권력을 찬탈한 로마 주교들: 칼을 든 사제들의 타락 (4.11.4~8)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보 강독)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тезе는 '주교의 세속 사법관화 비판'입니다:

“중세 주교들이 영지를 다스리고 재판관이 되어 감옥과 군대를 거느린 것은 목사의 직무를 버리고 세상 군주로 타락한 가증한 혼합입니다 (4.11.8).”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тезе는 '황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치리'입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테살로니가 학살을 자행한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의 성찬 참여를 금지하고 공적 회개를 요구했듯, 교회의 영적 치리는 세속 권력자 앞에서도 타협 없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4.11.3).”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고대 교회의 모범: 암브로시우스와 황제 테오도시우스의 치리 (4.11.3)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Pietro Perugino Keys to Peter)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 요한복음 18:36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 고린도전서 5:12-13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에라스투스주의 거부'입니다:

“국가 위정자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출교권이나 치리권을 빼앗아 국가의 행정 처분으로 종속시킬 수 없습니다 (4.11.16).”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Pietro Perugino Keys to Peter』을 보십시오.

성례와 공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실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닦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1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교회 치리권의 영적 성격:
2. 교회의 사법권은 물리적 폭력이나 벌금, 투옥을 수반하지 않으며, 오직 영혼을 권고하고 경책하여 회개케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4.11.1).
3. 국가 권력과의 상호 독립과 존중:
4. 국가 위정자는 외적 평화와 정의를 위해 세속의 칼을 쓰며, 교회는 성도의 영적 양심과 순결을 위해 영적인 열쇠를 사용하므로 두 권력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4.11.3).
5. 주교의 세속 사법관화 비판:
6. 중세 주교들이 영지를 다스리고 재판관이 되어 감옥과 군대를 거느린 것은 목사의 직무를 버리고 세상 군주로 타락한 가증한 혼합입니다 (4.11.8).
7. 황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치리:
8.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테살로니가 학살을 자행한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의 성찬 참여를 금지하고 공적 회개를 요구했듯, 교회의 영적 치리는 세속 권력자 앞에서도 타협 없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4.11.3).
9. 에라스투스주의 거부:
10. 국가 위정자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출교권이나 치리권을 빼앗아 국가의 행정 처분으로 종속시킬 수 없습니다 (4.11.16).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영적 권위 인정] 교회의 지도자들이 선포하는 성경적 권고와 치리에 대해 반발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는가?
 2. **[세속 힘 의존 배격] 교회의 갈등이나 문제를 세상 법정이나 정치적 세력으로 끌고 가 해결하려는 불신앙적 태도를 배격하는가?
 3. **[타협 없는 공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동일한 말씀의 치리와 권징 아래 복종하는가?
 4. **[국가 위정자 분별] 국가가 교회의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려 할 때 단호히 영적 독립성을 수호할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가?
 5. **[치리의 목적] 권징을 처벌이나 보복으로 여기지 않고, 영혼을 죄에서 건져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교정으로 이해하는가?
-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영적 재판권과 남용 비판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요한복음 18: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 질문 2 (고린도전서 5:12-13):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 A: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이 준엄하게 꾸짖었듯, 성도 간의 문제를 불신자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교회의 영적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교회 내의 신령한 치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Q2: 교회의 치리와 국가의 형사 처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A: 국가의 형벌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사법적 처벌이지만, 교회의 치리는 죄인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려는 목회적 치료입니다.

제72장: 교회의 거룩한 권징: 징계와 출교: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성찬의 순결을 지키고 죄인을 회개로 이끄는 사랑의 채찍 (Book 4, Ch. 12)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12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4학기 — 교회와 성례 (Book IV, 61~80주)
- 주차: 제72주 (제4권 제12장: 교회의 거룩한 권징: 징계와 출교)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엠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다릅니다. 칼빈은 선포되는 말씀이 교회의 '영혼'이라면, 권징은 몸의 각 지체를 제자리에 붙들어 매어 건강하게 작동시키는 '신경과 근육(nervi)'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권징이 없는 교회는 무너진 성벽과 같아서 온갖 죄악과 사탄의 침투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칼빈은 권징의 3대 목적: (1)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게 함, (2) 악한 누룩이 온 교회에 퍼지지 않게 함, (3) 죄인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함을 제시하며, 마태복음 18장에 기초한 단계적 권징(개인 권고 → 두세 증인 → 교회 치리 → 출교)과 사랑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72장: 교회의 거룩한 권징: 징계와 출교의 진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2. 강의 학습 목표

1. 권징을 '교회의 신경과 근육'으로 정의한 칼빈의 핵심 교회론을 체계화한다.
2. 권징의 3대 목적(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정결, 범죄자의 회개)을 성경적으로 확립한다.
3. 마태복음 18장에 명시된 사랑에 기초한 단계별 권징 절차를 숙지한다.
4. 출교의 엄위성을 인식하되, 회개한 자를 온유함으로 다시 품는 복음적 회복을 실천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무너진 성벽: 왜 현대 교회는 권징을 잃어버렸는가? (4.12.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교회의 신경과 힘줄인 권징: 3대 목적과 영적 필연성 (4.12.1~5)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마태복음 18장의 4단계 권징 절차: 은밀한 권고에서 공적 출교까지 (4.12.2~4)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출교(Excommunicatio)의 참된 의미와 저주(Anathema)와의 구별 (4.12.8~10)

•

라 (4.12.8~13)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사랑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결단

Ⅱ. 정식 60분 폴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2장, “교회의 거룩한 권징: 징계와 출교”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웁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교회의 신경과 힘줄인 권징: 3대 목적과 영적 필연성 (4.12.1~5) (10:00 ~ 22:00)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권징의 본질과 필연성'입니다: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의 생명이라면, 권징은 지체들을 한 몸으로 결합시키고 방종을 막아주는 교회의 거룩한 신경입니다 (4.12.1).”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권징의 3대 목적'입니다:

“권징은 (1) 불경건한 자들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게 하며, (2) 악한 본보기가 전염되지 않게 하고, (3) 범죄자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4.12.5).”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Rembrandt Return of Prodigal Son』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72강: 교회의 거룩한 권징: 징계와 출교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참된 교회의 순결과 영광.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2대지] 마태복음 18장의 4단계 권징 절차: 은밀한 권고에서 공적 출교까지 (4.12.2~4)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보 강독)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тезе는 '사적 죄와 공적 죄의 분별'입니다:

“숨겨진 은밀한 죄는 사적으로 권고하여 덮어주어야 하며, 공동체 전체에 알려진 공적 죄는 교회의 공적 정책을 통해 공동체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4.12.3~4).”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тезе는 '출교와 영원한 저주의 구별'입니다:

“출교는 사탄에게 내어주어 육신을 멸하고 영을 구원하려는 교정적 징계이지, 영원한 멸망으로 저주(*Anathema*)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4.12.10).”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출교(*Excommunicatio*)의 참된 의미와 저주(*Anathema*)와의 구별 (4.12.8~10)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Guercino Peter Tears)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동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 마태복음 18:15-17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 고린도전서 5:1-5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온유와 온화함의 원칙 (Mitigatio)'입니다:

“권징을 행할 때는 바리새적 잔혹함을 버리고,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온유함과 어머니의 심정으로 품어야 합니다 (4.12.8~9).”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영화 『Guercino Peter Tears』을 보십시오.

성례와 공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실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닿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 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2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권징의 본질과 필연성:
2.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의 생명이라면, 권징은 지체들을 한 몸으로 결합시키고 방종을 막아 주는 교회의 거룩한 신경입니다 (4.12.1).
3. 권징의 3대 목적:
4. 권징은 (1) 불경건한 자들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게 하며, (2) 악한 본보기가 전염되지 않게 하고, (3) 범죄자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4.12.5).
5. 사적 죄와 공적 죄의 분별:
6. 숨겨진 은밀한 죄는 사적으로 권고하여 덮어주어야 하며, 공동체 전체에 알려진 공적 죄는 교회의 공적 정책을 통해 공동체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4.12.3~4).
7. 출교와 영원한 저주의 구별:
8. 출교는 사탄에게 내어주어 육신을 멸하고 영을 구원하려는 교정적 징계이지, 영원한 멸망으로 저주(Anathema)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4.12.10).
9. 온유와 온화함의 원칙 (Mitigatio):
10. 권징을 행할 때는 바리새적 잔혹함을 버리고,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온유함과 어머니의 심정으로 품어야 합니다 (4.12.8~9).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거룩성 추구] 내가 섬기는 교회가 숫자의 성장만을 추구하지 않고, 성도들의 삶의 거룩함과 순결을 귀하게 여기는가?
2. **[지체 권면] 형제가 명백한 죄악에 빠져 실족할 때, 수군거리거나 방관하지 않고 찾아가 사랑으로 눈물로 권고하는가?
3. **[치리에 대한 태도] 교회 공동체의 정당한 권고나 징계를 받을 때, 감정적으로 반발하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가?
4. **[낙인 배격] 과거에 허물이 있었으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를 차별하거나 낙인찍지 않고 온전히 용납하는가?

님의 보혈의 덮으심을 구하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거룩한 권징: 징계와 출교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마태복음 18:15-17):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 됩니까?
- 질문 2 (고린도전서 5:1-5):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현대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하면 교인들이 다 떠나지 않겠습니까?'라는 염려에는?
- A: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며, 부정한 누룩을 방치한 채 교인 수만 늘리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길입니다. 사랑과 온유함에 기초한 정직한 권징만이 참된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킵니다.
- Q2: 교회에서 출교당한 사람을 성도들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 A: 원수처럼 대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그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속히 회개하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중보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제73강: 성경적 서원과 거짓 수도원 서원 비판: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평생의 독신과 청빈 서약의 멍에를 깨고 가정과 일상으로 (Book 4, Ch. 13)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13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4학기 — 교회와 성례 (Book IV, 61~80주)
- 주차: 제73주 (제4권 제13장: 성경적 서원과 거짓 수도원 서원 비판)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엠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서약(Vota Monastica)'의 신학적 맹점을 파헤칩니다. 수도사들은 청빈, 정결, 순종의 3대 서약을 통해 일반 성도보다 우월한 '복음적 권고(Consilia Evangelica)'의 높은 경지에 오른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러한 서약이 (1)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세례 서약)을 폐기하고, (2)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거짓 금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며, (3) 세상을 등지고 일하지 않는 게으름을 영성으로 둔갑시킨 영적 자기극임을 고발합니다. 칼빈은 초대 사막 교부들의 자발적 노동과 금식을 찬양하되, 중세 수도원의 부패와 위선을 폭로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의 거룩한 소명'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닮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73강: 성경적 서원과 거짓 수도원 서원 비판의 진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2. 강의 학습 목표

1. 수도원 서약이 세례 언약의 유일한 은혜성을 훼손하는 인위적 공로주의임을 규명한다.
2. 초대 교부 시대의 건전한 수도원(노동과 구제)과 중세의 타락한 수도원의 차이를 역사적으로 대조한다.
3.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결혼과 일상생활을 죄악시하는 거짓 거룩의 정체를 폭로한다.
4. 세상을 도피하는 대신, 가정과 직장 and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소명관을 확립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거룩의 환상: 수도원 담장 안으로 숨어든 거짓 영성 (4.13.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성경적 서약의 조건: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믿음의 분량 (4.13.2~5)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수도원 3대 서약의 모순: 평생 독신, 자발적 가난, 맹목적 순종 (4.13.8~12)

•

(4.13.8~10)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상의 소명: 코람 데오(Coram Deo)의 영성 (4.13.16~21)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내 삶의 일터를 거룩한 제단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3장, “성경적 서원과 거짓 수도원 서원 비판”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Johannes Vermeer Milkmaid 및 원전 정보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성경적 서약의 한계'입니다:

“서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합법적인 일에 대해서만 행해져야 하며, 인간의 자율적 망상으로 하나님을 빗쟁이로 만드는 서약은 가증한 죄입니다 (4.13.2~3).”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세례 서약의 절대적 충분성'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완전한 서약을 맺었으므로, 그 위에 수도원 서약을 덧붙여 더 높은 계급을 자처하는 것은 세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4.13.6).”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Johannes Vermeer Milkmaid』를 주목해 보십시오.

제73강: 성경적 서원과 거짓 수도원 서원 비판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참된 교회의 순결과 영광.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독신 서약의 치명적 함정'입니다:

“은사를 받지 못한 자에게 평생 독신을 서약하게 강요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억누르지 못해 더 큰 음란과 위선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올무입니다 (4.13.3, 4.13.12).”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노동 없는 영성의 거짓됨'입니다:

“초대 수도사들은 자기 손으로 땀 흘려 일하여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으나, 중세 수도사들은 구걸과 현금 착취로 거대한 부를 쌓으며 나태에 빠졌습니다 (4.13.8~10).”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초대 수도원의 노동과 청빈 vs 중세 수도원의 나태와 축재 (4.13.8~10) (34:00 ~ 46:00)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 시편 50:14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 전도서 5:4-5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직업 소명설 (Vocatio
Divina)'입니다:

“거룩함은 수도원 독방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가정, 직장, 사회적 일터에서
정직하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상 속에 있습니다 (4.13.16).”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Rembrandt Holy Family』을 보십시오.

성례와 공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실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닿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 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3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성경적 서약의 한계:
 2. 서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합법적인 일에 대해서만 행해져야 하며, 인간의 자율적 망상으로 하나님을 빗쟁이로 만드는 서약은 가증한 죄입니다 (4.13.2~3).
3. 세례 서약의 절대적 충분성:
 4.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완전한 서약을 맺었으므로, 그 위에 수도원 서약을 덧붙여 더 높은 계급을 자처하는 것은 세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4.13.6).
5. 독신 서약의 치명적 함정:
 6. 은사를 받지 못한 자에게 평생 독신을 서약하게 강요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억누르지 못해 더 큰 음란과 위선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올무입니다 (4.13.3, 4.13.12).
7. 노동 없는 영성의 거짓됨:
 8. 초대 수도사들은 자기 손으로 땀 흘려 일하여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으나, 중세 수도사들은 구걸과 현금 착취로 거대한 부를 쌓으며 나태에 빠졌습니다 (4.13.8~10).
9. 직업 소명설 (*Vocatio Divina*):
 10. 거룩함은 수도원 독방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가정, 직장, 사회적 일터에서 정직하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상 속에 있습니다 (4.13.16).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이원론 극복]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 거룩하고, 세상에서의 직업과 가사 노동은 세속적이라는 이분법에 빠져있지 않은가?
 2. **[일상의 제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내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고 있는가?
 3. **[거짓 경건 분별] 겉모습만의 엄격한 금욕이나 종교적 형식주의를 영적 우월감의 근거로 삼고 있지 않은가?
 4. **[정직한 땀의 가치] 성실하게 일하여 얻은 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노동의 신성함을 실천하는가?
 5. **[언약의 은혜] 인간적인 극단적 서원이나 맹세에 기대지 않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음의 자유와 책임을 누리는가?
-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적 서원과 거짓 수도원 서원 비판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시편 50:14):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 질문 2 (전도서 5:4-5):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까?'

-

것, 자기 능력 밖의 일, 또는 구원의 공로를 쌓으려는 동기로 하는 맹목적 서원은 엄격히 금해야 합니다.

- Q2: '영적인 일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야만 합니까?'라고 묻는 청년에게는?

- A: 목회자뿐만 아니라 의사, 교사, 회사원, 농부, 주부 등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일터가 거룩한 소명의 자리입니다. 특별한 목회적 부르심이 확인되기 전에는 현재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도록 권면하십시오.

제74강: 성례의 본질과 은혜의 표징: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믿음을 굳세게 하는 인침 (Book 4, Ch. 14)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14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4학기 — 교회와 성례 (Book IV, 61~80주)
- 주차: 제74주 (제4권 제14장: 성례의 본질과 은혜의 표징)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신학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옐로우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존 칼빈은 제4권 제14장에서 종교개혁 신학의 위대한 보화인 '성례론(De Sacramentis)'의 총론을 전개합니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유명한 정의를 인용하여 성례를 '보이는 말씀(Verbum

견고하게 인치는 언약의 보증(sigillum)'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흠으로 지음받아 감각에 묶여 있는 우리의 언약함을 아시기에, 귀로 듣는 복음 말씀에 더하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는 떡과 포도주와 물을 주셨습니다. 성례는 텅 빈 상징도 아니며, 사제의 주문으로 마술적 효력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재하사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74강: 성례의 본질과 은혜의 표징의 진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2. 강의 학습 목표

1. 성례를 '보이는 말씀(Verbum Visibile)'이자 '은혜의 언약을 인치는 표(Sigillum)'로 체계화한다.
2. 성례의 효력이 사제의 의식 행위 자체에서 나온다는 로마 가톨릭의 사효론(Ex Opere Operato)을 논파한다.
3. 성례를 인간의 단순한 신앙고백 표지나 텅 빈 기념으로 격하시키는 츠빙글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한다.
4. 기록된 말씀과 성례의 상호 보완성을 깊이 깨닫고, 거룩한 은혜의 수단을 사모함으로 참여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감각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왜 성례를 주셨는가? (4.14.1~3)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성례의 정의: 보이는 말씀과 믿음을 인치는 거룩한 인장 (4.14.3~6)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말씀과 성례의 결합: 설명 없는 의식은 마술에 불과하다 (4.14.4~7)

•

(4.14.14~17)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구약의 성례(할례·유월절)와 신약의 성례(세례·성찬)의 본질적 일치 (4.14.20~26)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보이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덧입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4장, “성례의 본질과 은혜의 표징”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Rogier van der Weyden Seven Sacraments 및 원전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성례의 본질적 정의'입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세우신 은혜의 외적 표징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주님을 향한 충성을 서약합니다 (4.14.1).”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보이는 말씀 (Verbum Visibile)'입니다:

“성례는 복음의 약속을 시각화하고 촉각화한 '보이는 말씀'이며, 말씀의 선포가 없는 성례는 아무런 생명도 없는 공허한 마술적 연극에 불과합니다 (4.14.4).”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Rogier van der Weyden Seven Sacraments』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74강: 성례의 본질과 은혜의 표징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참된 교회의 순결과 영광.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보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언약의 인장 (Sigillum Fidei)'입니다:

“왕의 문서에 찍힌 옥새가 문서를 보증하듯, 성령은 언약하여 흔들리는 우리 마음에 복음의 약속이 참됨을 확증하는 신적 인장입니다 (4.14.5).”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성령의 불가결성'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은혜를 전달하는 것은 물질 자체의 마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마음에 믿음을 역사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4.14.9, 4.14.17).”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사효론(Ex Opere Operato) 비판과 성령의 주권적 역사 (4.14.14~17) (34:00 ~ 46:00)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로마서 4:11

“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 고린도전서 10:16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구약과 신약 성례의 통일성'입니다: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 신약의 세례와 성찬은 외적 표징은 다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를 가리킨다는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4.14.20~23).”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Fra Angelico Institution of Eucharist』을 보십시오.

성례와 공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실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닿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 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4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성례의 본질적 정의:
2.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세우신 은혜의 외적 표징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주님을 향한 충성을 서약합니다 (4.14.1).
3. 보이는 말씀 (*Verbum Visibile*):
4. 성례는 복음의 약속을 시각화하고 촉각화한 '보이는 말씀'이며, 말씀의 선포가 없는 성례는 아무런 생명도 없는 공허한 마술적 연극에 불과합니다 (4.14.4).
5. 언약의 인장 (*Sigillum Fidei*):
6. 왕의 문서에 찍힌 옥새가 문서를 보증하듯, 성례는 언약하여 흔들리는 우리 마음에 복음의 약속이 참됨을 확증하는 신적 인장입니다 (4.14.5).
7. 성령의 불가결성:
8. 성례가 우리에게 실질적인 은혜를 전달하는 것은 물질 자체의 마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내주시는 성령께서 마음에 믿음을 역사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4.14.9, 4.14.17).
9. 구약과 신약 성례의 통일성:
10.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 신약의 세례와 성찬은 외적 표징은 다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를 가리킨다는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4.14.20~23).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은혜의 방편 사모] 성례(세례와 성찬)를 귀찮은 형식적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공급받는 영적 잔치로 사모하는가?
 2. **[말씀과의 연합] 성례에 참여할 때 의식 자체에 취하지 않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십자가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가?
 3. **[인치심의 확신] 의심과 불안이 엄습할 때, 내가 받은 세례와 성찬의 언약적 표징을 기억하며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는가?
 4. **[마술적 미신 배격] 성찬의 떡과 포도주 자체가 신비한 부적처럼 죄를 사해준다는 식의 미신적 태도를 단호히 배격하는가?
 5. **[감사와 헌신] 성례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가?
-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례의 본질과 은혜의 표징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로마서 4:11):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니까?
- 질문 2 (고린도전서 10:16):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 A: 우리가 영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 육체를 지닌 연약한 흠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어머니처럼 우리의 눈, 손, 입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더 생생하게 체화하도록 성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 Q2: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믿음이 없어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까?
- A: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 없이 참여하는 자에게 성례는 은혜가 아니라 도리어 준엄한 심판의 표증이 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참된 유익을 얻습니다.

제75강: 세례: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새 생명으로 부활함을 확증하는 표 (Book 4, Ch. 15)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15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4학기 — 교회와 성례 (Book IV, 61~80주)
- 주차: 제75주 (제4권 제15장: 세례: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엠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셨음을 확증하는 '죄 사함의 표징'이자,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인치는 '접붙임의 증표'입니다. 칼빈은 세례의 물이 마술적으로 원죄를 제거한다는 로마 교회의 세례 중생설을 배격하며, 동시에 세례를 단순한 인간의 결단 고백으로 치부하는 재세례파의 오류를 논파합니다. 칼빈은 세례가 일회적 의식에 머물지 않고, 성도가 평생토록 죄와 싸우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일평생의 위로와 회개의 샘'이 됨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75장: 세례: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2. 강의 학습 목표

1. 세례가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인치는 성례임을 체계화한다.
2. 세례를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로마 교회의 미신적 세례 중생설을 논파한다.
3. 세례의 은혜가 평생에 걸쳐 성도의 회개와 성화를 견인하는 원동력임을 확립한다.
4. 물세례의 외적 표징을 넘어, 성령으로 베푸시는 내적 정결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간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물의 신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입문하는가? (4.15.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세례의 3대 은혜: 죄 씻음, 그리스도와의 연합, 새 생명의 부활 (4.15.1~6)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일평생 유효한 세례의 능력: 넘어진 성도를 일으키는 보증 (4.15.3~4)

•

(4.15.19)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배교자의 세례와 집례자의 흠: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 (4.15.16~18)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세례받은 자로서 옛 사람을 벗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사는 결단

II.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5장, “세례: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씌웁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세례의 3대 은혜: 죄 씻음, 그리스도와의 연합, 새 생명의 부활 (4.15.1~6)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Piero della Francesca Baptism of Christ 및 원전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세례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되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음을 인치는 표징입니다 (4.15.1, 4.15.5).”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평생에 걸친 세례의 유효성'입니다:

“세례의 효력은 물을 뿌리는 그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일평생 죄로 인해 넘어질 때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상기시켜 다시 일으키는 평생의 샘입니다 (4.15.3).”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Piero della Francesca Baptism of Christ』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75강: 세례: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참된 교회의 순결과 영광.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2대지] 일평생 유효한 세례의 능력: 넘어진 성도를 일으키는 보증 (4.15.3~4)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세례 중생설 비판'입니다:

“물 자체가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며,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세례는 그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4.15.2, 4.15.20).”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인간적 의식 덧붙임의 죄악'입니다:

“로마 교회가 순결한 물세례에 기름, 침, 촛불, 성유 등 인간적 조작을 덧붙인 것은 그리스도의 단순하고 거룩한 제정을 훼손한 불경입니다 (4.15.19).”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로마 가톨릭의 인간적 첨가물 비판: 기름, 침, 촛불의 무익함 (4.15.19) (34:00 ~ 46:00)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 로마서 6:3-4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 갈라디아서 3:27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집례자의 자격과 세례의
유효성'입니다:

“세례의 효력은 물을 주는 목회자의 도덕적 완벽성에 달려 있지 않고, 언약을 보증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4.15.16).”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El Greco Baptism of Christ』을 보십시오.

성례와 공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실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닦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 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5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세례의 본질적 의미:
 2.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되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음을 인치는 표징입니다 (4.15.1, 4.15.5).
3. 평생에 걸친 세례의 유효성:
 4. 세례의 효력은 물을 뿌리는 그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일평생 죄로 인해 넘어질 때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상기시켜 다시 일으키는 평생의 샘입니다 (4.15.3).
5. 세례 중생설 비판:
 6. 물 자체가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며,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세례는 그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4.15.2, 4.15.20).
7. 인간적 의식 덧붙임의 죄악:
 8. 로마 교회가 순결한 물세례에 기름, 침, 촛불, 성유 등 인간적 조작을 덧붙인 것은 그리스도의 단순하고 거룩한 제정을 훼손한 불경입니다 (4.15.19).
9. 집례자의 자격과 세례의 유효성:
 10. 세례의 효력은 물을 주는 목회자의 도덕적 완벽성에 달려 있지 않고, 언약을 보증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4.15.16).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정체성 확신]**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영적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가?
2. **[죄와 싸움]** 세례를 통해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기억하며, 습관적인 정욕과 죄악을 단호히 거절하는가?
3. **[넘어짐 속의 위로]** 심각한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물로 씻겨 인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는가?
4. **[형식주의 탈피]** 세례를 과거의 일회적 통과례로 치부하지 않고, 매일매일 내 삶을 정결케 하는 현재적 은혜로 누리는가?

된 형제자매로 사랑하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증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로마서 6:3-4):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니까?
- 질문 2 (갈라디아서 3:27):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세례를 받은 후에도 반복해서 죄를 짓는 성도는 세례의 효력을 잃어버립니까?'
- A: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심을 인치는 언약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 없이, 이미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됩니다.
- Q2: '목회자가 나중에 타락하여 면직되었다면 그에게 받은 내 세례는 무효입니까?'
- A: 아닙니다. 세례는 집례자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것이며, 효력의 근원은 인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76강: 유아세레의 성경적 정당성과 언약적 은혜: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과 믿는 자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의 표징 (Book 4, Ch. 16)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16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4학기 — 교회와 성례 (Book IV, 61~80주)
- 주차: 제76주 (제4권 제16장: 유아세레의 성경적 정당성과 언약적 은혜)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엠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Paedobaptismus)'의 확고한 성경적 정당성을 옹호합니다. 재세례파는 유아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으므로 세례를 주는 것은 미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본질상 동일한 '은혜의 언약의 인침'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고, 태어난 지 8일 된 갓난아이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은혜가 축소되기는커녕 더욱 풍성해졌는데, 어찌 신약의 성도 자녀들을 언약 밖으로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유아세례는 부모의 신앙과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에 기초하여 자녀를 주님의 품에 맡기는 장엄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76강: 유아세례의 성경적 정당성과 언약적 은혜의 진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2. 강의 학습 목표

1. 할례와 세례의 언약적 연속성을 통해 유아세례의 필연적 성경성을 확립한다.
2. 유아는 스스로 신앙고백을 못하므로 세례를 줄 수 없다는 재세례파의 궤변을 논파한다.
3.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축복하신 복음서의 증언을 바르게 해석한다.
4. 자녀를 언약의 백성으로 양육해야 하는 부모와 교회의 막중한 교육적 책임을 결단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재세례파의 도전: 왜 갓난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가? (4.16.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할례와 세례의 일치: 아브라함 언약의 연속성과 신약의 풍성함 (4.16.2~6)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4.16.7~9)

•

(4.16.17~25)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유아세례가 부모와 자녀에게 주는 영적 위로와 신앙교육의 의무 (4.16.9, 4.16.32)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게 양육하는 결단

Ⅱ. 정식 60분 폴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6장, “유아세례의 성경적 정당성과 언약적 은혜”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웁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할례와 세례의 일치: 아브라함 언약의 연속성과 신약의 풍성함 (4.16.2~6)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Rembrandt Circumcision of Christ 및 원전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언약의 불변적 연속성'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언약 백성의 자녀에게 베풀어졌듯, 동일한 은혜의 언약을 계승한 신약의 세례 역시 신자의 자녀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합니다 (4.16.3~4).”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은혜의 확장성'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과 만민에게 확장되었는데, 만약 자녀들의 세례를 금한다면 신약의 은혜가 구약보다 못하다는 모순에 빠집니다 (4.16.6).”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Rembrandt Circumcision of Christ』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76장: 유아세례의 성경적 정당성과 언약적 은혜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참된 교회의 순결과 영광.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유아의 은밀한 중생 가능성'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유아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어 태 속에서부터 세례 요한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듯, 주권적인 은혜로 어린아이의 영혼 속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4.16.17~19).”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실재성'입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하셨다면, 천국의 표징인 세례를 그들에게 베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4.16.7).”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재세례파의 궤변 분쇄: 지적 이해가 구원의 전제조건인가? (4.16.17~25) (34:00 ~ 46:00)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 창세기 17:7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 사도행전 2:38-39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부모와 교회의 양육 책임'입니다:

“유아세례는 방임의 면죄부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나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겠다는 부모와 온 교회의 거룩한 서약입니다 (4.16.9, 4.16.32).”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Lucas Cranach Christ Blessing the Children』을 보십시오.

성례와 공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실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닦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 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6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언약의 불변적 연속성:
2. 구약의 할례가 언약 백성의 자녀에게 베풀어졌듯, 동일한 은혜의 언약을 계승한 신약의 세례 역시 신자의 자녀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합니다 (4.16.3~4).
3. 은혜의 확장성:
4.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과 만민에게 확장되었는데, 만약 자녀들의 세례를 금한다면 신약의 은혜가 구약보다 못하다는 모순에 빠집니다 (4.16.6).
5. 유아의 은밀한 중생 가능성:
6. 성령 하나님은 유아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어 태 속에서부터 세례 요한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듯, 주권적인 은혜로 어린아이의 영혼 속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4.16.17~19).
7. 그리스도의 축복의 실재성:
8.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하셨다면, 천국의 표징인 세례를 그들에게 베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4.16.7).
9. 부모와 교회의 양육 책임:
10. 유아세례는 방임의 면죄부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나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겠다는 부모와 온 교회의 거룩한 서약입니다 (4.16.9, 4.16.32).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자녀 언약관] 내 자녀를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언약의 자녀'로 바라보고 양육하는가?
2. **[가정 신앙교육] 세속적 성공과 성적보다,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심어주는 영적 교육을 최우선으로 삼는가?
3. **[교회의 공동 양육] 교회 안의 다음 세대들을 남의 아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언약의 자녀로 품고 중보하며 헌신하는가?
4. **[은혜의 주권성] 구원이 인간의 지적 이해력이나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에 달렸음을 믿는가?

고백하는 입교의 열매를 맺도록 돕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아세례의 성경적 정당성과 언약적 은혜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언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창세기 17: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ی 되리라...”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 질문 2 (사도행전 2:38-39):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 Q1: '아기가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세례를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A: 구약의 난 지 8일 된 아기들도 언약의 뜻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의 기초는 아이의 인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 약속입니다. 유아세례는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하는 강력한 표징이 됩니다.
- Q2: 유아세례를 받고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어 교회를 떠났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 부모는 절망하지 말고 아이의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붙들고 눈물로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며 때가 되면 탕자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제77장: 그리스도의 성찬과 영적 임재: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떡과 포도주를 통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함 (Book 4, Ch. 17)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17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4학기 — 교회와 성례 (Book IV, 61~80주)
- 주차: 제77주 (제4권 제17장: 그리스도의 성찬과 영적 임재)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신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옐로우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존 칼빈은 제4권 제17장에서 『기독교 강요』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심오한 '성찬론(De Sacra Coena Christi)'을 전개합니다. 칼빈은 당대 교회를 사분오열시켰던 성찬 논쟁을 성경적으로

(Transubstantiatio)을 우상숭배로 배격하고, (2) 떡 안에, 떡 밑에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편재한다는 루터파의 공재설(Consubstantiatio)을 물리적 망상으로 교정하며, (3) 성찬을 텅 빈 인간적 기념으로 격하시키는 츠빙글리의 상징설(Symbolismus)을 불완전한 견해로 극복합니다. 칼빈은 '성령에 의한 실재적 영적 임재(Praesentia Realis Spiritualis)'를 선포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나, 성령의 은밀한 역사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영혼을 하늘 보좌로 끌어올리사,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참된 영적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닮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77장: 그리스도의 성찬과 영적 임재의 진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2. 강의 학습 목표

1. 칼빈의 성찬론인 '성령의 사역을 통한 영적 실재 임재설(Praesentia Spiritualis)'을 확립한다.
2. 로마 가톨릭의 화체설과 루터의 공재설이 지닌 기독교적 왜곡을 성경적으로 논파한다.
3. 성찬을 텅 빈 상징으로 축소하는 츠빙글리적 합리주의를 넘어 참된 영적 연합의 신비를 누린다.
4.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한 떡을 떼는 성도의 사랑의 일치를 결단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하늘의 식탁: 성찬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신비 (4.17.1~3)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영적 양식으로서의 떡과 포도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4.17.1~5)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성령을 통한 영적 임재설: 수루숨 코르다(Sursum Corda, 마음을 높이 올리라) (4.17.10~12)

•

존 (4.17.12~19)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성찬 참여자의 자기 성찰과 성도의 한 몸 됨 (4.17.38~44)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거룩한 생명력을 회복하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7장, “그리스도의 성찬과 영적 임재”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웁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영적 양식으로서의 떡과 포도주: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4.17.1~5)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Leonardo da Vinci Last Supper* 및 원전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영적 생명의 양식'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듯, 성찬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는 참된 영적 양식입니다 (4.17.1).”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성령의 끈과 영적 임재 (*Praesentia Spiritualis*)'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의 무한한 능력이 공간적 거리를 뛰어넘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연합시킵니다 (4.17.10).”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Leonardo da Vinci Last Supper*』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77장: 그리스도의 성찬과 영적 임재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참된 교회의 순결과 영광.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4.17.10~12)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수루숨 코르다 (*Sursum Corda*)'입니다:

“성도는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 자체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마음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4.17.36).”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화체설과 성체 숭배의 우상성'입니다:

“밀가루 떡 조각을 가리켜 하나님이라 부르며 절하고 경배하는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가증한 우상숭배입니다 (4.17.13~15).”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화체설과 공재설 논박: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 보존 (4.17.12~19)
(34:00 ~ 46:00)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 고린도전서 11:23-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 요한복음 6:53-56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성찬의 윤리적 열매: 사랑의 일치'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떡에 함께 참여함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음을 뜻하므로, 지체를 향한 미움과 분열을 버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4.17.38).”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영화 『Philippe de Champaigne Last Supper』을 보십시오.

성례와 공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실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닿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 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7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영적 생명의 양식:
 2.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듯, 성찬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는 참된 영적 양식입니다 (4.17.1).
3. 성령의 끈과 영적 임재 (*Praesentia Spiritualis*):
 4. 그리스도의 몸은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의 무한한 능력이 공간적 거리를 뛰어넘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연합시킵니다 (4.17.10).
5. 수루숨 코르다 (*Sursum Corda*):
 6. 성도는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 자체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마음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4.17.36).
7. 화체설과 성체 숭배의 우상성:
 8. 밀가루 떡 조각을 가리켜 하나님이라 부르며 절하고 경배하는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가증한 우상숭배입니다 (4.17.13~15).
9. 성찬의 윤리적 열매: 사랑의 일치:
 10. 우리가 하나의 떡에 함께 참여함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음을 뜻하므로, 지체를 향한 미움과 분열을 버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4.17.38).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성찬의 감격]**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과 찢기신 살을 묵상하며 진정한 눈물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가?
2. **[자기 성찰]** 고린도전서 11장의 경고처럼, 내 죄악과 불신앙을 정직하게 회개하고 합당하게 성찬에 나아가는가?

위로를 공급받는가?

4. **[성도와와의 화해]** 성찬에 참여하기 전, 형제나 이웃과 맺힌 원망이나 다툼이 있다면 먼저 용서하고 화해를 청하는가?
5. **[빈번한 성찬 사모]** 칼빈이 권면한 대로, 성찬이 1년에 몇 번의 행사가 아니라 자주 베풀어져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기를 사모하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찬과 영적 임재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고린도전서 11:23-26):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니까?
- 질문 2 (요한복음 6:53-56):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칼빈의 영적 임재설과 츠빙글리의 상징설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 A: 츠빙글리는 성찬을 주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인간의 회상과 기념'으로 보았지만, 칼빈은 성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모든 은덕과 생명을 우리 영혼에 실질적으로 주입하시는 신적 사역'으로 보았습니다.
- Q2: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느껴져 떡과 잔을 받지 않으려는 성도에게는?
- A: 성찬은 완벽한 의인들을 위한 상급이 아니라, 연약하고 굶주린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제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는 자야말로 주님의 식탁으로 나와 은혜를 공급받아야 함을 격려하십시오.

제78강: 교황주의 미사 비판과 단번의 제사: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갈보리 십자가의 유일하고 영원한 제사를 짓밟는 미사의 신성모독 (Book 4, Ch. 18)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18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4학기 — 교회와 성례 (Book IV, 61~80주)
- 주차: 제78주 (제4권 제18장: 교황주의 미사 비판과 단번의 제사)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엠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Papistica)'를 성경의 칼날로 통렬하게 격파합니다. 로마 교회는 사제가 제단에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죄를 사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피 없는 제사로 날마다 반복하여 바친다고 가르쳤습니다. 칼빈은 이것이 히브리서가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의 영원한 제사(Heb 10:14)'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모독하는 가증한 신성모독임을 선언합니다. 주님의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는 '제사(Sacrificium)'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는 '성례(Sacramentum)'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78강: 교황주의 미사 비판과 단번의 제사의 진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2. 강의 학습 목표

1. 히브리서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단번에 영원히 완성된(Tetelestai)' 유일한 제사임을 확증한다.
2. 사제가 제단에서 그리스도를 반복하여 제물로 바친다는 가톨릭 미사 교리의 신성모독성을 폭로한다.
3.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는 '성례'의 근본적 차이를 정립한다.
4. 인간 사제의 중보를 거부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담대히 나아간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십자가의 모독: 로마의 미사는 왜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인가? (4.18.1)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단번에 드러진 영원한 제사: 히브리서 7~10장의 준엄한 선언 (4.18.2~5)

- 탈, 성찬의 파괴 (4.18.6~11)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제사(Sacrificium)와 성례(Sacramentum)의 구별: 주는 것인가 받는 것인가? (4.18.12~17)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참된 성도의 제사: 찬양과 감사와 구제의 영적 예배 (4.18.16~18)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오직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만을 의지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결단

Ⅱ.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8장, “교황주의 미사 비판과 단번의 제사”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견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단번에 드러진 영원한 제사: 히브리서 7~10장의 준엄한 선언 (4.18.2~5)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Rembrandt Christ on Cross 및 원전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십자가 제사의 유일성과 완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자신을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성하셨으며, 어떠한 추가적 제사도 필요치 않습니다 (4.18.1~3).”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미사의 신성모독성'입니다:

“사제가 제단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희생 제물로 바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이 불완전하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극악한 모독입니다 (4.18.5).”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Rembrandt Christ on Cross』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78강: 교황주의 미사 비판과 단번의 제사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참된 교회의 순결과 영광.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있습니다.

[제2대지] 미사의 5대 해악: 십자가의 말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침탈, 성찬의 파괴
(4.18.6~11)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 침탈'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유일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인간 사제들이 제사장을 자처하는 것은 주님의 고유한 영광을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4.18.2).”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성례와 제사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성례'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속죄 제사'가 아닙니다 (4.18.12).”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4.18.12~17)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Rogier van der Weyden Crucifixion)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찌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번째 나타나시리라”

— 히브리서 9:25-28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 히브리서 10:11-14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성도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 (Sacrificium Eucharisticum)'입니다:

“성도가 드릴 유일한 제사는 피 흘리는 속죄 제사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몸과 마음과 찬양과 나눔을 바치는 감사의 산 제사입니다 (4.18.16).”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영화 『Rogier van der Weyden Crucifixion』을 보십시오.

성례와 공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실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닿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 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8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십자가 제사의 유일성과 완전성:
 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자신을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성하셨으며, 어떠한 추가적 제사도 필요치 않습니다 (4.18.1~3).
3. 미사의 신성모독성:
 4. 사제가 제단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희생 제물로 바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이 불완전하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극악한 모독입니다 (4.18.5).
5.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 침탈:
 6.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유일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인간 사제들이 제사장을 자처하는 것은 주님의 고유한 영광을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4.18.2).
7. 성례와 제사의 본질적 차이:
 8.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성례'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속죄 제사'가 아닙니다 (4.18.12).
9. 성도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 (*Sacrificium Eucharisticum*):
 10. 성도가 드릴 유일한 제사는 피 흘리는 속죄 제사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몸과 마음과 찬양과 나눔을 바치는 감사의 산 제사입니다 (4.18.16).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십자가 충분성] 내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단번에 사해졌음을 추호의 의심 없이 믿는가?

재를 단호히 버렸는가?

3. **[오직 한 중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가?
4. **[산 제물의 삶] 내 일상의 시간, 재물, 재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5. **[우상숭배 경계] 화려한 종교적 의식이나 분위기에 현혹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의 순결성을 온전히 사수하는가?

IV.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황주의 미사 비판과 단번의 제사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히브리서 9:25-28):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찌니 그리하면 그가...”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 질문 2 (히브리서 10:11-14):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가 십자가 제사의 재현일 뿐 새로운 제사가 아니라고 변명하는데 어떻게 반박합니까?'
- A: 히브리서 9:22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선언합니다. 피 흘림 없는 제사로 죄를 사한다는 로마 교회의 논리는 성경과 정면 배치되며, 단번에 완성된 제사를 계속 반복한다는 자체가 십자가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궤변입니다.
- Q2: 개신교 예배에서 '제사'라는 표현을 무심코 사용하는 것에 대한 칼빈의 평가는?
- A: 구약의 피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제사'로 부르는 것은 구약으로의 퇴행이자 오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예배' 또는 '감사의 제사'로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제79강: 잘못 성례로 간주된 5대 의식 비판: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견진, 신품, 혼배, 종부, 고해: 주님이 제정하지 않으신 의식들의 한계 (Book 4, Ch. 19)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19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4학기 — 교회와 성례 (Book IV, 61~80주)
- 주차: 제79주 (제4권 제19장: 잘못 성례로 간주된 5대 의식 비판)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엠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확장한 5가지 거짓 성례, 즉 견진(Confirmatio), 고해(Poenitentia), 종부(Extrema Unctio), 신품(Ordo), 혼배(Matrimonium)의 허구성을 낱낱이 해부합니다. 칼빈은 성례의 절대 조건 두 가지를 명시합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셨는가? (2) 눈에 보이는 물질적 표징과 함께 구원의 은혜의 약속이 붙어 있는가?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성경적 성례는 오직 세례와 성찬 둘뿐입니다. 나머지 5가지는 인간의 관습이거나 성경 구절을 왜곡한 날조이며, 특히 사제들의 지배 권력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되었음을 통렬히 고발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79장: 잘못 성례로 간주된 5대 의식 비판의 진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2. 강의 학습 목표

1. 성경적 성례의 2대 절대 조건(그리스도의 직접 제정, 은혜의 언약 약속과 외적 표)을 확립한다.
2. 로마 교회의 5대 거짓 성례(견진, 고해, 종부, 신품, 혼배)의 비성경적 기원과 폐해를 논파한다.
3. 혼인과 목회 임직의 거룩함을 인정하되, 그것이 구원을 인치는 성례가 될 수 없는 이유를 규명한다.
4. 인간이 만든 거짓 종교 의식의 굴레를 벗어나고, 주님이 제정하신 순결한 2대 성례를 굳게 지킨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성례의 인플레이션: 왜 7개가 아니라 2개뿐인가? (4.19.1~3)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견진성사와 종부성사의 허구: 세례를 모독하는 기름 바르기의 미신 (4.19.4~13, 18~21)
- 22:00 ~ 34:00 (12분): [제2대지] 고해성사의 폭정: 양심을 결박하는 사죄권 남용과 보속의 장삿속 (4.19.14~17)

•

(4.19.22~37)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참된 성례의 회복: 오직 세례와 성찬으로 충분하다 (4.19.38)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사람의 유전을 버리고 주님의 순결한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는 결단

II. 정식 60분 폴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9장, “잘못 성례로 간주된 5대 의식 비판”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웁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늘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깊은 원전 강독을 통해, 인간적인 자부심과 헛된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견진성사와 종부성사의 허구: 세례를 모독하는 기름 바르기의 미신 (4.19.4~13, 18~21)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Lucas Cranach True and False Sacraments* 및 원전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성경적 성례의 2대 기준'입니다:

“성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셨고 구원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 표징에 결합된 것(세례와 성찬)이어야만 합니다 (4.19.1~2).”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견진성사의 세례 모독'입니다: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의 충만이 완성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미 세례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은혜를 불완전한 것으로 깎아내리는 불경입니다 (4.19.5).”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Lucas Cranach True and False Sacraments*』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79장: 잘못 성례로 간주된 5대 의식 비판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참된 교회의 순결과 영광.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붓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진리—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2대지] 고해성사의 폭정: 양심을 결박하는 사죄권 남용과 보속의 장삿속 (4.19.14~17)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고해성사의 영적 갈취'입니다:

“사제에게 모든 죄를 낱알이 털어놓아야 사함받는다든 고해성사는 교인들의 양심을 노예로 삼고 교권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고문 도구입니다 (4.19.14).”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중부성사의 마술성'입니다:

“임종 직전 기름을 발라 구원을 얻게 한다는 중부성사는 야고보서의 병 고침을 위한 기도를 죽어가는 자를 위한 부적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4.19.18~19).”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제3대지] 신품성사와 혼배성사의 왜곡: 직분과 결혼의 참된 자리 (4.19.22~37) (34:00 ~ 46:00)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 마태복음 28:19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누가복음 22:19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혼인과 직분의 고유한 영광'입니다:

“결혼과 직분 임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명하신 복된 질서이지만, 만민에게 구원의 약속을 전달하는 성례(Sacramentum)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4.19.34, 4.19.37).”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Albrecht Durer Four Apostles』을 보십시오.

성례와 공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실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닦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 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9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성경적 성례의 2대 기준:
2. 성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셨고 구원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 표징에 결합된 것(세례와 성찬)이어야만 합니다 (4.19.1~2).
3. 견진성사의 세례 모독:
4.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의 충만이 완성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미 세례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은혜를 불완전한 것으로 깎아내리는 불경입니다 (4.19.5).
5. 고해성사의 영적 갈취:
6. 사제에게 모든 죄를 낱알이 털어놓아야 사함받는다든 고해성사는 교인들의 양심을 노예로 삼고 교권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고문 도구입니다 (4.19.14).
7. 종부성사의 마술성:
8. 임종 직전 기름을 발라 구원을 얻게 한다는 종부성사는 야고보서의 병 고침을 위한 기도를 죽어 가는 자를 위한 부적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4.19.18~19).
9. 혼인과 직분의 고유한 영광:
10. 결혼과 직분 임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명하신 복된 질서이지만, 만민에게 구원의 약속을 전달하는 성례(Sacramentum)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4.19.34, 4.19.37).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성경적 순결성]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의 근거가 없는 인간적 전통이나 미신적 관습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2. **[회개의 직접성] 인간 사제나 중보자가 필요 없이, 날마다 나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회개하고 사죄의 은혜를 누리는가?
 3. **[가정의 거룩성] 결혼을 미신적 성례로 숭배하거나 반대로 세속적 계약으로 격하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거룩한 언약으로 지키는가?
 4. **[직분의 참된 영성] 교회의 직분을 사제 계급의 특권으로 오해하지 않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 세움 받은 종의 사명으로 감당하는가?
 5. **[오직 성경] 교회가 제정한 법이나 의식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깨어 분별하는가?
-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성례로 간주된 5대 의식 비판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마태복음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니까?
- 질문 2 (누가복음 22:19):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가톨릭교회는 왜 7성례를 고집합니까?'

-

해), 질병과 죽음(종부), 결혼(혼배), 성직(신품) 등 인간의 전 생애를 교회의 사제 권력 아래 완벽하게 종속시키기 위한 교권주의적 동기가 컸습니다.

- Q2: 개신교에서 결혼식이나 목사 안수식을 엄숙하게 거행하는 것은 성례와 어떻게 다른니까?
- A: 결혼과 안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매우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도이자 예식입니다. 그러나 성례는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인치는 특별한 은혜의 방편이므로, 결혼과 안수를 성례로 분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80강: 국가의 통치와 성도의 공적 시민 삶 (80강 대단원 완강): 강의안 및 강독 대본

[부제] 국가 위정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성도는 복음적 순종과 정의를 실천함 (Book 4, Ch. 20)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20장 집중 강의안 및 강독 대본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기본 정보

- 과정명: 평신도를 위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80주 전장 강독 마스터클래스
- 학기: 제4학기 — 교회와 성례 (Book IV, 61~80주)
- 주차: 제80주 (제4권 제20장: 국가의 통치와 성도의 공적 시민 삶 (80강 대단원 완강))
- 강의 시간: 정식 60분 풀타임 강의 (강의 단독 1시간 강독)
- 소그룹 나눔: 강의 후 별도 진행되는 30~45분 소그룹 모임 가이드 (추가 독립 모듈)
- 강의 성격: 본 강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의 원전 정본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구속의 심오한 은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정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인본주의적 공로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허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렬히 격파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합니다.
- 텍스트 색상 체계:
 -  네이비 (#182B49): 강의자의 핵심 교리 명제 및 신학적 정의
 -  버건디 (#8B0000): 『기독교 강요』 원전 정본 핵심 발췌문 (Calvin's Institutes Excerpts)
 -  포레스트 그린 (#1E5631): 평신도 삶의 실천적 적용 및 묵상 포인트
 -  엠버 (#B8860B): 주의해야 할 신학적 왜곡 및 스콜라주의/인본주의 오류 비판

I. 강의 개요 및 구조적 설계 (10분)

1. 강의 배경 및 문제의식

정부(De Civili Administratione)'와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을 다룹니다. 칼빈은 영적 자유를 핑계로 국가와 정부를 전면 부정하고 무정부주의를 선동했던 재세레파의 광신을 격파하는 동시에, 군주의 독재와 폭정을 신의 뜻으로 정당화하려 했던 맹목적 복종주의를 단호히 배격합니다. 칼빈은 국가 위정자를 '하나님의 공의의 사자(사역자)'로 높이 존경하며, 법과 사법 제도가 사회의 공공선과 외적 평화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신앙을 짓밟을 때, 성도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행 5:29)'는 거룩한 저항의 원리를 천명하며 위대한 강요의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닿을 내려야 하는가?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자존감을 추켜세우며 공로를 쌓으라 말할 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명령하는가?”

존 칼빈은 본 장에서 인간의 모든 헛된 가면을 산산조각 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만을 밝히 드러냅니다. 칼빈은 단언합니다:

“제80강: 국가의 통치와 성도의 공적 시민 삶 (80강 대단원 완강)의 진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2. 강의 학습 목표

1. 국가와 시민 정부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보존과 공공선을 위해 세우신 신적 기관임을 체계화한다.
2. 영적 자유를 내세워 세속 법과 정부를 거부했던 재세레파의 무정부주의를 논파한다.
3. 성도로서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공적 책임을 확립한다.
4. 국가가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대적할 때 작동하는 '하위 위정자의 합법적 저항권'과 순교적 저항 원리를 정립한다.

3. 정식 60분 강의 진행 타임라인

- 00:00 ~ 10:00 (10분): [도입] 80강의 마침표: 왜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 장은 '국가'인가? (4.20.1~2)
- 10:00 ~ 22:00 (12분): [제1대지] 시민 정부의 신적 기원: 하나님의 대리인인 위정자의 존엄성 (4.20.4~7)

- (4.20.8~13)
- 34:00 ~ 46:00 (12분): [제3대지] 그리스도인의 시민적 의무: 순종, 납세, 기도, 그리고 공직 참여 (4.20.22~29)
- 46:00 ~ 54:00 (8분): [제4대지 및 결론]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 순종과 폭정에 대한 거룩한 저항 (4.20.30~32)
- 54:00 ~ 60:00 (6분): [결단 기도] 세속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책임을 다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결단

Ⅱ. 정식 60분 폴타임 강의 대본 (Full 60-Minute Spoken Script) (40분)

[도입] 거룩한 진리의 문을 열며 (00:00 ~ 10:00)

(슬라이드 1 & 2 제시: 강의 표지 및 4대 핵심 아젠다 로드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20장, “국가의 통치와 성도의 공적 시민 삶 (80장 대단원 완강)” 강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갈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네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고 속삭이고, 인본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더 뜨겁게 결단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율법주의의 멍에를 씁읍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을 열며 우리를 인간의 헛된 사변에서 이끌어 내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영원한 빛 앞’으로 인도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은밀하신 역사입니다.

칼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은, 성령께서 은밀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견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대지] 시민 정부의 신적 기원: 하나님의 대리인인 위정자의 존엄성 (4.20.4~7) (10:00 ~ 22:00)

(슬라이드 3, 4 & 5 제시: 핵심 교리 명제, Rembrandt Syndics Guild 및 원전 정본 강독)

칼빈은 본 장의 서두에서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대한 기초 명제를 정립합니다.

첫 번째 테제는 바로 '시민 정부의 신적 권위'입니다:

“국가 위정자의 직무는 세속적인 불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를 막고 공공선을 보존하기 위해 세우신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입니다 (4.20.4).”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려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자아도취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제는 '영적 왕국과 세속 정부의 조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영적 자유는 세속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며,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국가의 평화 속에서 경건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4.20.2).”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띠(*Vinculum*)’라고 묘사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보화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을 빨아들이듯,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으로 굽이쳐 흐르는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슬라이드 5에 제시된 역사적 명화 『Rembrandt Syndics Guild』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80강: 국가의 통치와 성도의 공적 시민 삶 (80강 대단원 완강)의 신학적 핵심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형상화한 명작 — 참된 교회의 순결과 영광.

화폭에 깃든 장엄한 천상의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위대한 거장은 빛을 통해 칼빈이 원전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있습니다.

[제2대지] 법과 재판의 거룩한 목적: 공공의 평화와 약자 보호 (4.20.8~13) (22:00 ~ 34:00)

(슬라이드 6, 7 & 8 제시: 심층 교리 분석, 오류 논파 및 원전 정본 강독)

이제 칼빈은 시선을 돌려, 성경의 순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온 거짓 신학과 인간 공로주의의 요새를 향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겨눕니다.

세 번째 테제는 '법과 형벌의 정당성'입니다:

“국가가 악인을 처벌하고 칼의 권세를 쓰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입니다 (4.20.9~10).”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궤변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에는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자연적 빛이 남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 장에서 이러한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철저히 분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이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요 1:5). 오직 성령께서 닫힌 지성을 여시고 완고한 심장을 부드럽게 녹이실 때에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제는 '성도의 공적 의무'입니다:

“성도는 위정자가 경건하고 공의롭게 다스리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국가의 법에 자원함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4.20.22~23).”

칼빈은 또한 광신주의자들과 직통 계시파들의 방자한 오류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좇는 자들은 사탄의 간계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떠나 일하지 않으시며, 성경을 높이시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목회적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적 감정에 도취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고 성령의 감화와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광신이요,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죽은 문자주의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적 일치 안에서만 참된 개혁신앙이 자라납니다.

(34:00 ~ 46:00)

(슬라이드 9, 10 & 11 제시: 루미너스 말씀 판넬 & Titian Emperor Charles V)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의 슬라이드 9를 보십시오. 금빛 테두리로 빛나는 저 말씀 판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줄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 로마서 13:1-4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 사도행전 5:29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위엄을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거룩한 성경 저자들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칼빈이 선포하는 다섯 번째 위대한 테제는 바로 '궁극적 복종과 저항권 (*Deo Magis Quam Hominibus*)'입니다:

“만약 위정자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신앙을 박탈하려 명령한다면, 성도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원칙에 따라 죽음으로 믿음의 저항을 지켜야 합니다 (4.20.32).”

슬라이드 10에 제시된 명화 『Titian Emperor Charles V』을 보십시오.

성례와 공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실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닦을 내린 거룩한 신앙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합니다!

[제4대지 및 결론] 삶의 열매와 평신도 3대 실천 원리 (46:00 ~ 54:00)

(슬라이드 12, 13 & 14 제시: 신학 사조 매트릭스 및 평신도 3대 신앙 실천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거룩한 교리는 단순히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쟁하기 위한 지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우리의 침상에서,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달은 평신도들을 향하여 3가지 구체적인 신앙 실천을 명합니다:

1. 철저한 자기부인(Self-Denial)과 자기 의의 배설물 처리: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매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리새인 처럼 남과 비교하여 우쭐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오.

2.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성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십시오.

3.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결단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결단 (54:00 ~ 60:00)

(슬라이드 14 제시: 결단 기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20장 강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태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조와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Ⅲ. 핵심 교리 정밀 요약 및 5대 신학적 진단 (10분)

1. 5대 신학적 진단 및 교의학적 요약

1. 시민 정부의 신적 권위:
2. 국가 위정자의 직무는 세속적인 불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를 막고 공공선을 보존하기 위해 세우신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입니다 (4.20.4).
3. 영적 왕국과 세속 정부의 조화:
4. 그리스도 안의 영적 자유는 세속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며,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국가의 평화 속에서 경건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4.20.2).
5. 법과 형벌의 정당성:
6. 국가가 악인을 처벌하고 칼의 권세를 쓰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입니다 (4.20.9~10).
7. 성도의 공적 의무:
8. 성도는 위정자가 경건하고 공의롭게 다스리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국가의 법에 자원함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4.20.22~23).
9. 궁극적 복종과 저항권 (*Deo Magis Quam Hominibus*):
10. 만약 위정자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신앙을 박탈하려 명령한다면, 성도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원칙에 따라 죽음으로 믿음의 저항을 지켜야 합니다 (4.20.32).

2. 현대 성도를 위한 5대 영적 자가진단 문진표

1. **[공적 책임 의식]** 성도로서 세상 정치를 냉소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투표에 성실히 참여하는가?
2. **[준법과 정직]** 세금 납부와 시민 법규 준수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정직성과 모범을 보이고 있

하며 백성을 섬기도록 눈물로 증보하는가?

4. **[약자 보호] 사회적 약자, 억울한 자, 고통받는 이웃의 공의로운 권리를 지키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심을 기울이는가?
5. **[타협 없는 믿음] 국가의 권력이나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할 때, 세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편에 서는가?

Ⅳ. [추가 별도 모듈] 소그룹 나눔지 및 인도자 심층 코칭 가이드 (30~45분 소그룹 모임용)

1. 소그룹 진행 4단계 로드맵

[1단계: 마음 열기 (Ice Breaking, 7분)]

- 나눔 질문: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국가의 통치와 성도의 공적 시민 삶 (80강 대단원 완강)에 관하여 가졌던 오해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도자 코칭 팁: 성도들이 자신의 솔직한 연약함과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격려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복음이 주는 영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2단계: 말씀 및 칼빈 강독 (Scripture & Text Focus, 15분)]

- 질문 1 (로마서 13:1-4):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 말씀이 오늘 배운 교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니까?
- 질문 2 (사도행전 5:29): 본문에서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3단계: 심층 토론 (Deep Discussion, 15분)]

- 질문 3 (거짓 교리 분쇄와 분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공로 의식이나 거짓된 신앙 형태를 이 장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 질문 4 (일상에서의 거룩한 성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가정, 직장, 대인관계)에서 오늘 배운 교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4단계: 결단과 합심 기도 (Application & Prayer, 8분)]

- 인도자 마무리 코칭: 구원은 우리의 열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격려하며 합심 기도로 인도합니다.

-
-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심층 목회적 코칭 Q&A

- Q1: '악하고 부패한 독재자에게도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까?'
- A: 칼빈은 개인 성도가 사사로운 무력으로 봉기하는 것은 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저항하는 독재자의 명령에는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되며, '하위 위정자들(호민관, 의회 등)'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폭군을 합법적으로 견제하고 저항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 Q2: 80강 『기독교 강요』 전체를 완주한 성도가 붙들어야 할 최종 교훈은 무엇입니까?
- A: 기독교 신앙은 머릿속의 사변이나 교회 울타리 안의 종교 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나 자신을 아는 겸손으로 이어지며, 십자가 은혜를 입은 성도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의 제사로 응답해야 합니다.